

## 목    록

사부님을 따라 만리행 .....	2
전수반 학원이 사부님의 은혜를 회상 .....	21
진귀한 회상, 명심할 가르침 .....	25
내가 직접 본 사부님 .....	27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 .....	28
진귀한 추억-남경 .....	29
사존께서 중경에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32
사존께서 치치하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	33
행운스럽게 사부님의 설법반에 참가했던 때를 회상 .....	35
청백함은 인간세상에 남아있다 .....	36
사부님께서 제남에서 설법하실 때의 몇가지 이야기 .....	45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梟利县)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	51
한 늪의 맑은 호수 .....	54
사부님이 설법하시던 그날을 회상 .....	58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자비를 견증 .....	61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1) ..	62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2) ..	65
사존께서 합비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일을 회상 .....	66
사부님의 합비에서의 첫번째 공법전수반에 참가하여 .....	68
사부님께서 석가장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소중한 기억들 .....	70
사부님의 대련 보고회에 참가했던 몇가지 기억 .....	71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73
사부님이 장춘에서 법을 전하신 그 때를 회상 .....	79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89
사부님께서 법을 공개적으로 전수 하실때의 일부 경력들을 회상 .....	94

## 사부님을 따라 만리행

【명혜망 2002년 9월 16일】 편집자의 말 : 이 문장은 한 파룬궁 학원이 1993년부터 시작하여 사부님을 따라 중국대륙 각 성시를 다니면서 설법을 들은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녀의 솔직하면서도 세심한 서술은 우리로 하여금 강택민이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여지없이 타격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릇듯 엄중한 박해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한 수련을 견지해 왔는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강택민은 무엇 때문에 리홍지선생을 그렇게 질투하고 무엇 때문에 5억달러의 무역차액의 이익으로 리홍지 선생님을 소환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파룬궁 학원들을 두려워하는가? 중국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이 문장은 한시기 특수한 역사적 공간과 파룬궁 창시인이 대륙에서 법을 전할 때의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문장은 비록 길지만 읽어내려 가노라면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며 특별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 \* \* \*

파룬따파 9년 홍법기념 도편전람—《정법의 길》이 이제 곧 열리게 된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어젯 날의 사진들을 바라보노라니 다년간 세간에서 대법이 널리 전해짐과 더불어 자신이 걸어온 비바람 속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있는 그대로 이 글을 써냄으로써 대법에 대한 입증으로 삼고 싶으며 또한 사부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여덟 개월의 고심참담한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위대한 전람에 바치고 싶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다 보니 병원출입과 약 먹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다. 이러한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이미 의사와 약물에 신심을 잃고 있었다. 92년 말, 신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나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기공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기공사가 기를 빼고 보충하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였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93년 7월, 한 친구의 집에서 한담을 하다가 책꽂이에 있는 《파룬궁》 책을 보게

되었다. 손이 가는 대로 가져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수련자의 아랫배부위에다 파룬을 넣어준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당시 깜짝 놀랐다. 종래로 생명의 오묘함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기공사가 영성이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참으로 불가사이하고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만일 하나의 파룬이 아랫배 부위에 있다면 긍정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친구더러 나를 도와 파룬공을 찾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였다.

7월 25일, 나는 리 선생님이 북경에서 주최한 제 11기 파룬궁 전수반에 참가하였다. 이때로부터 나의 수련의 길이 시작되었다. 나는 48년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불, 도, 신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하여 이름이나 들었지 그 실질은 모르고 있었고 기공, 수련에 대해서도 근본 개념이 없었다. 비록 무신론의 교육을 접수하기는 하였지만 학생때는 단지 점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으며 머릿속은 그저 공백이었다.

11기 학습반은 북경공안대학 레의당에서 열렸는데 나는 앞으로부터 스물 몇 번째 줄에 앉았다. 첫날의 강의에 나는 이미 매료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사전문화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놀랐다. 이런 일들은 이 몇 년간 내가 생각해 온 것들이 아닌가? 우리 이 한세대는 문화대혁명을 거쳐 인간세상의 각종 쓴맛 단맛을 다 보았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정치유희를 목격해 왔기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키워왔고 정치, 권력 등 각종 사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망망한 세계를 마주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가능해야 하는지,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 자신의 행위를 파악해야 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마음은 몹시 고달팠다. 사업단위에서는 종일 사람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너 속이고 나 속이는 속에 포위되어 있노라니 마음은 혐오스럽기만 했다. 한가할 때면 《오묘한 비밀》과 같은 잡지들을 읽으면서 인생 밖의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기를 즐겼다. 이때의 마음은 인간세상의 밖에서 떠돌고 있었으며 경쾌하고 자유스러웠다. 오늘 단번에 이토록 신선한 것을 듣고 나니 흐렸던 마음이 활짝 개이는 듯 하였고 몹시 흥분되었다. 매 번의 강의마다 나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으며 강의가 끝난 뒤면 신체의 괴로운 정도가 많이 감소 되군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몇 명의 이른바 학원들도 덩달아 사부님을 비방하고 수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파룬휘장을 떼내어 땅에 내동댕이쳤다. 사부님은 맺고 끝듯이 한마디 하셨다. 《당신은 자격이 없소!》 후에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연히 그 사람은 통제를 받은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수련하는 제자였다면 나는 정말 상심했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매일 오후마다 일찍이 길 떠날 준비를 하곤 하였다. 한기의 학습반이 결속되었다. 나는 다음 학습반에도 참가하고 싶었다. 듣건대 12 기 학습반은 오과송(五棵松)의 모 단위 레의당에서 열린다기에 나는 재빨리 표를 샀다. 오과송은 나의 주숙처와 아주 멀었다. 몇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한번 킁기만 하면 목안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노학원이 나에게 아무리 괴롭더라도 견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3, 4 일 후, 갑자기 열이 내리고 아프던 곳에서 큰 물체가 떨어져나간 감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또 제 13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13 기 학습반은 27 자동차공장에서 열렸는데 원래보다 더 멀었다. 먼저 차를 타고 서변문에 이르러 다시 309 선 교외구역 차를 갈아타고 종점까지 가야 했다. 매일 오후 4 시 남짓하면 길을 떠나서 일곱 시 반이면 강의를 시작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밤 12 시가 넘곤 하였다. 세 번의 학습반에 참가하고 나니 집을 돌보던 부모를 해고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자립할 수 있었다.

한기에 한기를 이어 강의를 듣노라니 선생님께서는 더욱더 높은 법리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종래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생소한 영역이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어렸을 때 몇 년간 북경교구의 시골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불, 도, 신 그리고 귀신에 대한 개념은 모두 쪽 걸상에 앉아서 파파 늙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이었다. 그시기 시골에는 전기가 없어 저녁이면 아이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온 하늘의 별은 곧 온 하늘의 이야기였다. 매 하나의 별마다 하나의 전설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아름다운 동경과 알 수 없는 비밀이 영원히 달지 못할 하늘에 묻혀 있었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할머니들은 귀신을 빌어 으름장을 놓으면서 세상에는 인과보응이 있다는 도리를 알려주었다. 동년의 경력은 나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었다. 커서 학교에 들어가니 학교의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 자신도 종래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문제에 봉착하고 보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은 짧은 것이어서 경력도 제한되어 있기에 모든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믿고 안 믿는 건 응당 선생님을 보아야 한다.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선생님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오직 선생님께서 현장에 계시기만 하면 눈을 떴지 않고 살폈다. 매 하나의 목소리와 웃음 짓는 표정, 매 하나의 세밀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리하여 강의가 끝난 뒤에도 늘 꾸물거리면서 맨 뒤에서 걸군 하였다. 어느 하루, 12기 학습반의 강의를 듣고 집으로 가는 도중, 오과송 지하철역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걸어오는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옆에는 그이의 가족과 한 학원이 있었는데 모두 밥 곱을 들고 있었다. 차가 오자 사람들은 붐비며 차에 올랐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선생님 쪽으로 밀면서 선생님과 한 칸에 오르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밀치닥 거렸고 차에 오르는 순간 어디에 자리가 있나 살피고는 곧 달려가 앉군 하였다. 차에 오른 후에 보니 선생님은 옆 칸에 오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두 칸 사이에 연결된 문으로 가서 유리를 사이 두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조금도 급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르기를 기다려 거의 맨 나중에야 차에 오르셨다. 나는 그이가 차에 오를 때 아직 한두 개의 빈 좌석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서두르면 앉을 수 있었다. 나는 조급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빨리 빨리 하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이는 조용히 서있었으며 마치 아무런 감각도 없는 듯싶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리를 다 차지했고 오직 그이만이 거기에 서 계셨다. 나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다. 그이는 우리와 그렇게도 달랐다. 나는 묵묵히 생각했다. 그이는 어떠한 심태로 주위의 세계를 대하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서서히 떠 올랐다. 그것이 바를 《정(正)》자였다. 이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바를 수 있을까? 바른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여서 인간세상의 그 어떤 표면화된 물건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다. 일체는 모두 그럴듯 진실하고 꾸밈이 없으며 과장과 억지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었다. 강의 방식도 내가 여태껏 보아온 어느 단체 강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시간이 되면 곧 강의를 시작하고 에두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 화제로 들어갔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종래로 어느 사회의 명류들이 와서 성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절하고 읊을 하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학비도 아주 저렴하여 9일에 40원(인민폐)이었고 노학원은 또 절반

돌리시고 엄숙하게 족히 10여 초 동안이나 한마디 말씀도 없이나의 눈을 들여다 보셨다. 나는 대뜸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을 짝 흘리며 졸지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대학교 교재를 배운다고 자신이 대학생인줄로만 알았으며 자아팽창이 발전하여 자심생마(自心生魔)로 번져가는 것도 스스로 감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노학원들은 바로 이점에서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을 망쳤으며 나중에는 사부님도 승인하지 않는데 교훈은 아주 심각하다.

## 12. 이른바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다》의 진상

매번 전수반을 꾸리기 전이면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현지 주체측인 기공협회에 중병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강의 중에서도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으며 병을 치료하려는 관념을 품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표를 샀다 해도 우리는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주체측은 현지 기공 협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 것을 관계하지 않았다.

1994년, 하얼빈의 4천 여명이 참가한 학습반에서 있던 일이다. 금주에서 온 몇 사람이 한 50여세에 나는 뚱뚱한 남자를 담가에 들고 설법장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은 이미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완전히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데 번마다 그의 가족과 친척 5, 6명이 그를 학습반으로 들고 들어왔다. 심지어 그 사람의 머리가 축 내리 드리웠는데도 계속 안으로 들고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누워서 강의를 《들었다》. 사부님은 강의 중에서 여러 번이나 중병환자는 이 장소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병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똑똑히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기어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 사람은 자신이 주숙한 여관에서 죽었다. 그의 가족에서는 시체를 메고 학습반 밖에 와서 사부님께서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사부님께서는 한창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일군이 사부님께 다가 몇 마디 말씀을 올렸다. 사부님께서는 즉시 빠른 걸음으로 나는 듯이 문을 나섰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돌아오신 후,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며칠 전에 이미 죽었는데 기어이 살려내라고 하니……만일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도 괜찮은데 사람이 이미 다 죽었으니……》

그러나 그의 가족 몇 사람은 사부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 10. 사부님께서 한번 보시니 마치고 밝은 거울과도 같아, 자신의 모든 나쁜 생각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1994년, 정주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학원이 그렇게 많은 줄은 생각 밖이었다. 그런데 주체자 쪽에서 빌린 장소는 낡아빠진 곳이어서 계단 청중석의 벽돌이 다 들어났으며 어떤 창문에는 유리도 없었다. 이것을 본 나는 아주 조금하여 주체자와 장소와 음향설비를 바꿀 것을 교섭하였다. 그때 나는 심성을 지키지 못하여 그 사람과 화를 내고 말투가 조금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나를 부르셨다. 나는 공을 배우기 시작한 후, 시종 사부님의 신변에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사부님께서 미소를 짓지 않고 나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의 두 다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사부님의 비할 바 없는 위엄을 감촉할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나를 한번 바라보시자 마치고 밝은 거울과도 같이 나의 모든 생각들은 숨길 곳을 잃어버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예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대번에 반성하게 되었다. 사부님의 이와 같은 위덕과 위엄은 말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때 그 사람과 화를 낸 후, 20분도 되지 않아 나의 목소리는 쉬었다. 그러나 강단에 올라 연공동작을 가르칠 때면 아무일 없다가도 내려만 오면 괴로웠는데 이렇게 4~5일 지속되었다.

## 11. 사부님께서 갑자기 몸을 돌리시어 족히 10여 초 동안이나 엄숙하게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1993년 여름이었다. 사부님을 따라 무한으로 가서 학습반을 꾸리게 되었는데 낮에 시간을 내어 사부님을 따라 한구의 귀원사(归元寺)를 참관하였다.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사부님은 한 손을 가슴 앞에 입장하셨는데 그 모습은 장중하고도 엄숙하였다. 나는 사부님의 오른쪽 뒤 편에 서서 사부님처럼 한 손으로 가슴 앞에 입장하였다(사실 나는 마땅히 두 손으로 합장해야만 했다). 불상을 마주하고 서서 나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망념이 일어났다. 석가모니부처는 다만 여래불에 불과하므로 더욱 높은 층차에서 보면 여래도 속인에 불과하다. 나는 여하하여 한데……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앞에 입장했던 손이 복부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잡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사부님께서 몸을

값만 받았다. 후에 기공 과학연구협회로부터 파룬궁 학습반의 학비가 너무 낮아 기타 기공 파들의 요금 표준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50원으로 하였지만 노학원들에게서는 여전히 절반 값만 받았다. 선생님이 각지에서 한 강의는 모두 현지 기공연구회에서 요청하고 주최하였기에 학습반의 수입은 모두 기공연구회와 4-6 할로 나누었으므로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서 수행 일군들의 주숙비와 여비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은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병도 치료하지 않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매기 학습반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시간에 전반적으로 학원들의 신체를 조정하여 주셨다. 학원들의 반응은 아주 컸는데 모두 신비한 힘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한기 학습반을 마치고 나서 평생 앓던 병이 다 사라졌다. 신체상에서의 효과가 사람을 놀랍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생에 처음으로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한 감을 느꼈다. 일체는 그렇게도 투명했으며 비밀이 없고 낯설던 익숙하던 관계가 없었고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았다. 인간세상의 번덕스러움은 법륜공의 전수마당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마음만은 오로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련하려는 일념뿐이었다. 거의 매번 강의를 끝날 때마다 학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다. 조용할 때면 나는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감동되고 있는가? 나는 차츰 선생님의 위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체가 나의 내심의 깊은 곳과 호응 혹은 공명 혹은 감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하루, 나는 끝내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眞)》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진》을 숭상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세속에 물 젖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으며 속세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일생 동안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몸과 마음은 피곤하기 그지 없었다. 오늘 선생님을 만나 묵묵히 체험해 보노라니 그이는 그렇게도 순결하고 그렇게도 견정불패하시였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이었다.

북경에서의 13기 학습반이 결속된 후, 그 다음 학습반은 무한에서 열리게 되었다. 나는 계속 참가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아직 무리였다. 비록 신체에 이미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원래 약골이라 그때까지 아직 물주전자도 들지 못하였다. 생각 끝에 별 방도가 없으므로 담을 키워가지고 길을

떠났다. 나의 기차표는 중간 침대였는데 기여 올라가는 것도 아주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차에 오른 후, 아래층 침대에 앉았는데 침대 주인은 나를 쫓지 않았다.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제깍 물을 부어주었다. 저녁이 되자 아래층 젊은이가 불쑥 말을 꺼냈다. 《중간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바꿔드리지요.》 나는 송구스러워 나혼자 먼저 시험해보겠다고 하였다. 안간힘을 다해 기여 올라가 누워보니 출렁이는 바다 위에 누운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다시 기여 내려와 젊은이에게 바꾸자고 하였더니 그는 두말없이 올라갔다. 한 정차구역에서 내릴 때 같은 차에 앉았던 분이 나를 도와 행장을 플랫폼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때 나는 그저 다행스럽게만 생각하였는데 몇 년 후에야 사부님의 보호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무한에서 연속 세기 학습반을 열었는데 바로 무한의 3, 4, 5 기 학습반이다. 제 3 기는 무창의 재정학원에서, 제 4 기는 한구의 시위례의당에서, 제 5 기는 무강에서 열렸다. 무한에서의 3 기 학습반이 끝나니 이미 10 월 중순이었다. 다음 학습반은 광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나는 또 광주로 가서 광주 제 2 기 전수반에 참가하였다.

선생님의 강의는 매기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였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의 말씀은 같았지만 때로는 각도를 바꾸어 이야기 하셨는데 몇 마디 말씀에도 나는 크게 깨달곤 하였다. 이렇게 들을수록 명백해지고 들을수록 그 내포가 심오하여 보통이 아님을 느꼈다. 사실 백성들이 부처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람을 도와서 재난을 해소하는 보살에 불과하며 도에 대한 이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행하는 정의지사에 지나지 않는다. 차츰 나는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치가 불(佛)과 도(道)를 초월하였으며 바로 하늘의 이치임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파룬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생명에 대하여 이토록 깊이 요해하고 있으며 학원들의 업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공의 기를 통하게 하는 것과는 층차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이신가? 나는 감이 더 이상 생각할 엄두도 못 내었다. 이 일은 상상의외로 큰 것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남편에게 공을 배우게 하고 또 국외에 있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속히 돌아와 강의를 듣도록 했다. 그때 나는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될수록 따라가서 강의를 듣곤 하였다.

기공협회와 단짝이 되어 돈을 나누려는 것이었다. 학습반이 결속된 후, 모든 것은 계약에 따랐다. 당시 사부님이 전국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는 조건과 계약은 통일된 것이었는데 사부님은 3 혹은 4 할을 가지셨고 당지 주체자가 6,7 할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사부님의 수금표준은 아주 낮아 (당시 파룬공은 전국 각 문파의 기공반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문표는 40 원이었고 노학원은 절반 값인 20 원이었다. 실제로 대량의 노학원들이 따라 오곤 하였다) 매번 학습반을 꾸릴 때면 장소를 빌리고 주숙비용을 제하고 나면 거의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사후에 산동 당지 기공협회의 주체자는 사부님이 문표 값을 너무 낮추었다고 원망하였다. 그들이 사부님을 모시고 제남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 한 40 여세 되는 녀 주체자가 사부님을 빗대고 거의 한 시간 남짓이 투덜거렸는데 전부가 사부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나는 뒤 켠에 앉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니 더는 그녀가 이렇게 사부님을 비방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내쏘았다. 《그만하고 입을 다무시오. 계속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를 전송하지 마시오. 차에서 내려 스스로 갈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즉시 머리를 돌려 나는 한번 보시고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그것은 나를 책망하는 뜻이었으며 말하지 말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었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위엄이 있는 표정은 위엄을 나타내셨는데 삼시간에 나의 격동된 정서는 평정되었다. 그 사람도 마치 일종 위엄에 놀리운듯 몇 마디 중얼거리고는 잠잠해졌다. 사후에 사부님께서서는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으셨다. 전반 과정에서 사부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지만 도리어 그 장소에 있던 주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착오를 깨달도록 하였다.

지금 나의 체득을 말하자면 《더는 참을 수 없다(忍无可忍)》는 사부님의 말씀은 대법제자의 신의 일면에 이야기 한 것으로서 사악을 제거하고 법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지 결코 아직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일면을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실 자신의 사람의 일면을 잘 단속하고 수시로 심성을 수련해야 만이 자신의 신의 일면이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람 일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신의 위엄을 나타내어 정법의 길에서 사악을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중복하여 대답하였으며 내심있게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특별히 각지의 초보수련자들은 언제나 유사하고 초급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여 일부 노학원들마저 듣기에 싫증나 하였다. 그러나 사부님은 몇 년을 이렇게 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며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만났지만 시종 시끄러워 하는 일이 없이 내심있게 세심하게 대답을 주었으며 그 자비는 이루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때로 나 자신은 모종의 원인으로 신경이 날카로워 지곤 하였다. 예를 들어 각지에서 언제나 신 학원들이 나더러 동작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였다. 시간이 길어지자 정말이지 그 번거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사부님의 내심성을 생각하면 자신의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신 학원들과 접촉하면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언제나 노학원이나 높이 수련한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수련자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수련을 독촉할 수 있다. 신 학원들과 교류할 때의 내심, 선한 마음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어느 하나 자신이 수련 제고 중에 있음을 체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이 오늘날 진상을 말하고 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것과 깊은 독해를 받은 수많은 중생들을 마주하여 진상을 이야기 할 때 나쁜 자들의 저애력과 중생의 오해, 자신의 심태에 대한 파악, 대선대인적인 포용력, 그 어느 하나가 진수제자의 자아 돌파와 정진 제고를 체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부님께서서는 설법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비는 수련해낸 것이지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며, 내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2003년 워싱턴 DC 법회 설법》)매번 이 한 단락의 설법을 읽을 때마다 사부님께서 당년에 법을 전하실 때의 사람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시던 그 자비와 인내심이 나를 감동시키곤 한다.

### 9. 사부님의 침묵의 위엄을 견증하다

1993년, 기공연구회의 한 사람이 사부님을 요청하여 그들의 고향인 산동 룡성(聊城)에서 학습반을 열었다. 명의상에서는 고향사람들에게 좋은 공법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상에서 당시

매기마다 다 따라가려면 먼저 학습반의 맨 마지막 날 저녁, 강의가 끝나자마자 기차역으로 달려가야 했다. 그러자면 사전에 기차표를 사야 했는데 당시 대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목적지에 이르러 가급적으로 가장 저렴한 곳에 투숙함으로써 낮은 비용지출을 유지해야 했다. 때로는 잠시 숨이나 돌려볼까 생각하다가도 매기 학습반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격동을 금할 수 없어 또다시 결심을 내리고 따라갔다. 기억하건대 천진에서의 제 2기 학습반이 결속될 때 선생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남긴다(留)는 글자는 내 머리에서 작탄처럼 터졌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은 영원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때 나는 오직 선생님께서 지구상에서 강의를 하시는 한, 하늘끝까지 내가 갈수만 있다면 꼭 찾아가리라 결심하였다. 그때 나에게는 갖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고급이라 할 수 있었다. 안에는 전기 밥가마, 쌀, 조미료, 녹음기, 녹음테이프, 전지, 옷, 우산 등등이 들어있었다. 그때 나는 기름과 소금도 몸에서 받아주질 않아는데 단지 우유와 죽만 먹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스스로 챙겨먹어야 했다. 변변치 못한 신체를 이끌고 선생님의 노정을 따라 다닌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학습반이 시작되어 좌석에 앉아서 강단에 서 계시는 선생님을 보기만 하면 모든 고생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희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났으며 그 친절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오로지 무한히 위대하고 광휘로우며 인간의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감을 느꼈으며 선생님의 그 신성함과 장려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매기 학습반마다 맨 나중에 선생님께서는 학원들이 한편의 심득체험을 써내기를 희망하셨다. 그러나 나는 한편도 글로 쓸 수가 없어 안쓰럽기만 했다. 병을 치료받은 감지덕지한 심정은 없고 그저 늘 한마디 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는데 바로: 《선생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생님의 눈부신 빛발이 영원히 우리 생명의 길을 비취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기억하건대 94년 4월, 나는 합비 제 2기 학습반이 끝난 후 북경으로 돌아왔다. 침대열차에서 하룻밤, 하루 낮을 누워 왔으므로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다음 기는 장춘에서 열리는데 장춘은 선생님의 고향이었다. 속담에 《큰 인물은 영험한 땅에서

태어난다》고 선생님의 고향에 가보는 것이 나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기어 일어나 또다시 기차에 올랐다. 장춘 역에 이르니 장춘의 학원들이 윤번으로 팻말을 들고 서서 외지의 학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시 중심에서 비교적 먼 여관에 안치되었는데 그것은 그곳의 비용이 아주 싸기 때문이었다. 길에서 우리를 인솔한 장춘 학원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정황을 소개하였다. 처음 와 보는 곳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 모두들 피로를 잊고 버스 창 밖을 내다보며 기뻐하였다. 갑자기 이 장춘학원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빨리 보세요. 저것이 선생님의 저택입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것은 한 채의 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벽돌집이었는데 기껏해야 4,5 층 높이였다. 선생님처럼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곳에 집을 잡고 있다니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들 묵묵히 경의를 느낄 뿐 반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그때 학습반은 길림대학의 명방궁에서 열렸다. 외지에서 온 학원들이 많았으므로 선생님은 두 개 반을 꾸렸는데 오전 반은 9시부터 11시까지이고 저녁반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였다. 나는 오전반의 표는 언녕 샀지만 저녁 반의 표는 사지 못하였다. 첫날, 오전 강의가 끝나 숙소로 돌아왔으나 불안하기만 하였다. 우리는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녁에 강의를 하시는 줄 번연히 알면서 숙소에 북 박혀 있다니 정말 말이 아니었다. 이튿날 강의를 끝난 후,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레의당 밖의 풀밭에서 저녁 학습반이 시작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모두들 문 어구에서 행어나 표를 물리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다렸다. 시간은 일분일초 흘러가고 우리는 안타깝게 기다렸다. 갑자기 한 학원이 내 옆에서 말하였다. 《누가 표를 사겠습니까?》 나는 기쁜 나머지 단번에 표를 잡고 돈을 주었다.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레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한 익숙한 노학원이 먼발치에서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주머니를 찾고 있던 중이에요.》 나는 생각했다. (끝장이구나. 이 표는 남한테 넘어가게 됐어.) 과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해에서 온 학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강의를 듣는데다 표준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한번 더 들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청해에서 온 첫 번째 학원이므로 나는 노학원이니 표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표를 주고는 또다시 대문어구에 가 섰다.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고

되도록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조금해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일종 예절이고 수양이다.

사부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10 여 년이래, 나는 경상적으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취본다. 때론 동수들 중에서 특히 일부 나이 젊은 남자 수련생들이 조금하고 무단적이며 사람들과 접촉하고 담화하는 예절에 중시를 돌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때면 나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당년에 사부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한 단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나의 말을 들은 학원들은 모두 깊이 깨달곤 하였다.

강의를 하실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설법을 하시는 외에 내려와서 말씀을 하실 때가 아주 드물었다.

### 7. 매번 제자나 손님을 바랄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래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가셨다

사부님께서서는 평소에 걸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면 모두 자세가 단정하였으며 허물이 없으시면서도 사람을 끄는 위엄이 있으셨다. 그렇게 오랜 시일에도 나는 종래로 사부님께서 소파에 앉으시거나 걸상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시거나 몸을 찻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연세가 많은 학원에 대해서 사부님은 종래로 틀을 차린 적이 없으며 호칭이나 말투상에서 각별히 존중하였다. 번마다 학원이거나 손님을 바랄 때면 사부님은 문어구에 서서 줄곧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바래고서야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미세한 일들은 다년간 나의 머리 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 8. 사부님은 가르침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사부님의 설법강의 중에는 일반적으로 문답이 있다. 특별이 열 번째 강의에서 사부님은 전문적으로 학원들이 의문되는 문제를 해답해주었다. 학원들은 번마다 아주 많은 쪽지를 제출하였으며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각지에서 전수반을 열 때마다 대량의 신 학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여러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문제는 다시 해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래도 때로는

입에서 신물이 났으며 냄새만 맡아도 괴로웠다. 때로는 포장하지도 않은 라면을 큰 주머니로 도매하여 왔는데 여러 날씩 먹어야 했다.

사부님께서서는 식사를 적게 하는 편이었고 또 빨리 하셨다. 만일 나머지가 있으면 포장하여 가져가셨으며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후에 나는 한가지 구체적인 일을 발견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신변의 학원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를 끝내시고는 가서 결산을 하곤 하였다.

## 5. 무더운 여름날에도 사부님은 공공버스를 타셨다

1992년 7월, 사부님께서 금방 북경에 오셨다. 나는 사부님을 따라 일보러 나갔다. 그때는 한창 무더울 때라 나는 안일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부를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부님은 도리어 공공버스에 비집고 오르셨다. 나도 택시를 부르려던 생각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온 몸이 땀투성이로 되었지만 사부님의 이런 검박함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은 사부님의 생활이 여하 여하하게 사치하다는 요언을 날조하였다. 나는 그들의 이러한 요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나의 스승님을 모욕 중상한단 말인가? 사부님이 출산하시기 2년 전부터 나는 다년간 사부님을 따라다녔으며 오늘까지도 배울 것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부님께서 당년에 대법을 널리 전하시고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고생과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다.

## 6.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듣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사부님께서 금방 공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심성이 높지 못한데다 젊은 나이로 가볍고 조급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급하고 무단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기가 일수였다. 때로는 자신의 체면 (실제는 허영심)을 위하여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였다. 이 정황을 놓고 사부님께서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고 대법에 부합되는가를 가능해야 하며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의 견해를 말해야 하는데

강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표가 없는 사람들은 의연히 문어귀에 서있었다. 이때 레의당의 관리인원이 정문을 닫아걸었다. 때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측면의 작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그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작은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이가 서있었는데 내가 금방 그를 보았을 때도 그는 말이 없었다. 내가 그를 지나치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표를 구하려고 합니까?》 나는 일시 멍해졌다. 《원합니다!》 하니 그는 표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재빨리 손에 쥐고 있던 청해학원이 준 돈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또 표가 있게 되었다. 주위사람들의 흥모의 눈길을 받으며 나는 어딘가 미안쩍었다. 그리하여 늘 전수반을 따라다니는 정주의 한 젊은이 한테 주고 그더러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은 아주머니의 몫이니 아주머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 하였다. 당시 명방궁의 지하실에서는 무도회를 열고 있었는데 무도 표 한 장을 사면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대청에 이를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천진에서 온 한 젊은이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후에 듣는 말에 의하면 내가 들어간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원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본 문지기는 무척 감동을 받고 학원들을 모두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 번 학습반에서 우리는 소조를 나누어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러 사람은 자각적으로 조를 뭉고 선생님은 차례로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 선생님께서는 날마다 집에서 도보로 강의하러 다니셨다. 어떤 학원이 차를 모는 편리를 이용하여 선생님을 차로 모시려 하였으나 선생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셨다.

우리가 주숙하는 여관은 길림대학에서 아주 멀었다. 그때 공중버스 표값은 아주 싸서 몇 십전밖에 하지 않았지만 어떤 학원은 매일 아주 일찍이 길을 떠나곤 하였다. 한번은 내가 이 학원에게 이 먼 길에 왜 버스를 타지 않는가고 묻자 그는 아내가 지지하지 않으므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 또 다음 기 학습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듣고 나서 나는 몹시 감동받았다. 이번 기는 선생님이 고향에서 꾸린 맨 마지막 전수반이었다. 마지막 강의가 결속될 무렵 선생님은 고향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미심장하여 눈물을 자아냈다. 나와 몇몇 학원들의 기차표는 발차시간이 반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기 아쉬워하였다. 명방궁을 떠나 큰 길에 이르니 발차시간이 십여 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기차를 타지 못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표는 사람을 부탁하여 어렵게 구한 것이었다. 일반석인데다 천진에 가서 또 북경으로 가는 차를 갈아타야 했다. 택시를 잡아타자 운전기사에게 말하였다. 《10 분내에 도착해야 하니 빨리 몰아 주세요.》 택시는 역전 광장밖에 멈추었는데 플랫폼에서 아직 멀었다. 몇 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어느 플랫폼인지도 몰랐다. 천진의 젊은이가 나의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나는듯이 달려갔다. 몇 사람도 행장을 메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아무것도 생각할 사이도 없이 역전에 들어가서 플랫폼 끝에 이르렀다. 틀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천진의 젊은이가 기차에 올라 풍덩하고 무릎을 꿇고 자리에 쓰러지는 순간 기차는 발차하였다. 그날은 참으로 기적이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5 월 29 일 성도에서 학습반을 꾸린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의 학습반은 중경에서 열렸었다. 나는 성도에서 전에 학습반을 꾸린 적이 없기에 아마 파룬궁 보도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습반에 꼭 참가하면서 나는 선생님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천진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20 몇 원짜리 여관에 들었는데 목욕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나면 돌아가서 잠을 잤지만 선생님께서는 24 시간 동안 우리의 신체를 바로잡으셨다.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기어이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와서 집사람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일어나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아무리 해석해도 듣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대면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마음이 다 있어 노학원들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다. 그들은 종래로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당시 나의 남편은 성도에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뭔가 선생님을 돕고 싶어 먼저 성도로 갔다. 성도의 기공협회를 찾아서 내가 차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무엇이든 도울 수만 있으면 있는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기공협회는 이익과 손실을 자부담하므로 기공 학습반을 꾸리는 것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이해득실을 몹시 따졌다.

그날, 선생님이 기차에서 내릴 때, 중경으로부터 같은 차를 타고 온 학원들이 아주 많았다. 때는 이미 5 월 하순이라 남방의 날씨는 무척 더웠다. 차에는 에어컨이 없어 모두가 기진맥진해

(乳腺增生)도 치료를 거친 후 사라졌으며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웠다. 골질증생, 요추 혹은 경추간판돌출은 치료하면 즉석에서 나왔고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병은 아주 고통스러운데 치료하면 당장에서 아프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면 완쾌되었다. 로탕(老湯 당시 북경 보도소 소장)이 바로 사부님이 그의 심장병을 치료해준 후, 북경의대 제3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결과 병이 나왔었다. 모두들 파룬궁이 이렇게 신기한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 했기에 북경 제 1 기 학습반을 꾸리게 된 것이었다. 당시 노학원들의 회상에 의하면 그 학습반에 대략 200 여명이 참가했었다. 1999 년 7.20 이후, 로탕은 압력을 못 이겨 텔레비전에서 폭로 비판한다고 태도 표시를 하였지만 우리와 그 자신은 대법이 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 3. 처음으로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사부님을 보았다

나는 이전에 많은 공법을 연마하였지만 모두 제자가 스승을 공양하지 종래로 스승이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1991 년, 사부님께서 태국에서 돌아오신 후, 우리는 사부님과 함께 북경 계대사(戒台寺)로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길옆의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다투어 결산하려고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고는 자신이 밥값을 결산하였다. 이 일이 우리에게 남긴 감촉은 아주 깊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가 스승을 공양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스승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정경은 지금도 눈앞에 역력하다.

### 4. 사부님을 따라다니던 그 몇 년간 라면만 먹어 입에서 신물이 났다

당시 우리는 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는 사부님을 따라다녔다. 연속 몇 년간 기차에 오르면 사부님께서서는 라면만 드셨다. 학습반을 꾸리는 곳에 이르면 저녁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부님께서서는 종래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강의를 끝내고 초대소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 9 시가 되기에 초대소에는 이미 밥이 없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또 밖에 나가 드시지 않으시고 일률로 라면을 드셨다. 우리도 막무가내로 사부님을 따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몇 년간은 실로

사부님께서 1992 년에 공개적으로 공을 전하실 때는 곧바로 중국에서 기공열조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사회상에는 각 문파의 기공들이 수두룩하였고 그 중에는 혼잡한 부체공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기공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공연구회에서 공법을 검증하는 표준 역시 이 두 가지였다.

바로 이 한 점에서 사부님은 출산한 이래 태도가 아주 견결 하시어 사람을 구도하기 위하여 공을 전하지 표현을 하지 않았다. 대법은 그의 엄숙성과 위엄성이 있다. 다른 각종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 및 부체공들과 같을 수 없으며 공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학원을 끝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부님이 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제도함에 있어서 오로지 바른 것을 구해야만 비로소 당신들의 집착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정진요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전수함에 어떤 표현(表演)도 하지 않는 뜻은 바로 내가 나온 목적을 똑똑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편으로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법을 전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것은 법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배우러 오게 된다. 석가모니부처도 그 당시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병 치료는 괜찮은데 어쨌든 당신이 보아내지 못하며 그는 나왔다고 느낀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환자가 나왔는데 믿고 안 믿고 아프고 안 아프고는 제3자가 모른다. 이 속에는 또 오성(悟性)이 존재하기에 병 치료는 괜찮다. 그 당시 예수, 석가모니부처도 역시 이렇게 했다. 노자만은 하지 않았는데 노자는 인간이 너무나도 험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총망히 5 천언(五千言)을 쓰고 관(關)을 나가 서쪽으로 가버렸다.》 (《전법륜 (권 2)》 “사람을 제도함에 설법을 하지 표현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부님께서 사람의 신체를 조정하는 것과 기공 자문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파룬궁을 인식하도록 하셨다. 가장 일찍이 1992 년 6 월, 북경 감가구(甘家口)상업시장의 건재국 5 층 레의당에서 오전, 오후로 연속 열흘 동안 기공 자문을 하였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다. 종양 혹은 자궁암과 같은 것은 신체조정을 거친 후 사진을 찍어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선증생

있었다. 수행일군들은 등에 큼직큼직한 책 묶음--《파룬궁》(수정본)을 지고 있었는데 등 굽으로 땀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기공협회에서는 하리(夏利)차 한대를 보내왔다. 선생님은 동행한 사람들더러 짐을 가지고 먼저 가도록 했다. 나의 남편은 선생님의 걸음을 덜러고 차를 플랫폼까지 몰고 가려 했다. 그런데 차가 금방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불시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몰려왔는지 역전 앞의 십자거리를 몰썰틈 없이 메워버렸다. 다행히 남편의 차는 외제차여서 자동변속기 였기에 기동이 빨랐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포위를 뚫고 나오기는 했으나 어찌나 급했던지 입에 물집이 한 줄 생겼다. 결과 선생님을 역전 앞에서 40 여분이나 기다리게 하였다. 나는 미안한 나머지 며칠 동안이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후에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교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길에서 이러한 시끄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다.

성도의 학습반은 한 초대소의 레의당에서 열렸다. 선생님께서는 학습반을 꾸리실 때 종래로 광고를 내지 않으셨다. 그때는 각종 기공 학습반이 많고도 많아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첫날에는 청중석에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곧 달라졌는데 소식은 신속히 퍼져 끝날 무렵에는 이미 800 여명이나 되었다. 매일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의 남편은 차로 선생님을 여관까지 모셔다 드렸다. 학원들은 서성거리며 선생님이 차에 오르시는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데서 나의 심정은 기뻐고 위안이 되었다.

우리의 학습반은 독립적으로 꾸리는 것이기에 사회와 별다른 교섭이 없었으며 기공협회에서는 돈만 받아가면 그뿐이었다. 선생님은 공을 전수함에 있어서 노정, 주숙 등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므로 너무나도 고생스러웠다.

성도에 있는 날에 나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지방에 다녀왔는데 그때의 일들을 여태껏 잊을 수 없다. 첫날에는 문수원(文殊院)으로 갔다. 우리의 차가 앞에 섰는데 홍콩에서 온 상인이 동참하였다. 그는 성도에서 학습반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줄곧 성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여 강의를 듣는데 곤란이 있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차에서 그에게 해설을 해주셨다. 차에서 내리고 보니 뒤에 차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먼저 대문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앞에서 걷고 계셨는데 문에 들어서자 양 옆에 4 대 금강이 서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머리를 돌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들도 모두 현장에 와 있다오.》 나는 말하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위력은 아주 크다.》고 하셨다. 그때 절은 아주 난잡하여 여우, 족제비, 귀신, 뱀 따위들이 다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깨끗이 청리 하셨는데 그저 손을 한번 휘젓기만 하면 되었다.

며칠 후, 선생님께서는 청성산(靑城山)에 오르셨다. 동행중에는 대련보도소 소장, 귀주보도소 소장, 무한보도소 소장 그리고 기타 몇 명의 학원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있어 영험하다》는 옛사람의 말귀를 깨닫게 되었다. 나 같은 약골이 산마루에 올랐다가 다시 걸어 내려왔다. 돌아온 후, 남편의 동료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성도 학습반이 결속된 후, 우리는 또 선생님과 함께 락산과 아미산으로 갔다. 락산의 라한당에서 동행한 동수가 달려와 선생님께 xx 보살(지금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만나니 미안하기 그지없으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 전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떠날 때면 그들이 멀리까지 바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흙으로 빛은 상에 불과하였다. 라한당을 나설 때 뒤에서 한 중이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였다. 분명이 그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다. 아미산은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달랐다. 금정(金頂)에서 나는 처음으로 천목에 대한 진실한 감수가 있게 되었다. 선생님을 따라 한 바퀴 도노라니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의 두뇌는 어느 정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나는 《서유기》와 다른 여러 가지 전설들이 생각났다. 하여 선생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신화이야기들이 모두 진실로 되었나요?》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신화이야기도 모두 연고가 있는 것이요.》

다음 기는 정주에서 열리기 되었는데 어렵게 침대 표를 구하였다. 나와 선생님은 한 차로 정주에 가게 되었다. 차에 오르는 날, 날씨는 아주 더웠으며 역에 들어설 때 밀치기까지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짐을 드셨는데 잔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쓰렸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차에 올라서야 이것은 임시로 덧붙인 맨 마지막 차 칸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집 식구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대답을 했고 그때로부터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의 거짓말을 밝아놓다 : 리정초(李晶超)는 공을 늦게 배웠기에 사부님을 도와 공법을 창작할 가능성이 없다

1991년, 사부님께서는 모친을 따라 태국으로 친척방문을 갔다. 귀국 후에는 북경을 경과하여 장춘으로 돌아왔다. 그때 리정초는 그의 형님 리정봉(李晶峰)의 소개를 통하여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나와 기타 몇 명 학원은 이미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운지 일년이 되었었다. 1999년 7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중앙텔레비전에서의 고의적으로 사부님을 추악화하고 악독하게 공격한 특별프로--《리홍지 그 사람과 그 일중》에서 리정초는 뜻밖에도 자신이 사부님과 같이 파룬궁을 창작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역사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리정초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사실, 1992년 사부님이 공개적으로 법을 전하기 전후, 리정초는 천목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봐주고 돈을 받음으로 하여 사부님의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미 나쁜 마음이 일어나 자신이 천목으로 본 것에 집착하면서 기공으로 병을 보고 돈과 재물을 받았으며 사부님의 비평도 듣지 않고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갔다. 나중에 끝내 대법의 대립 면에 서게 되었는데 교훈은 심각하다.

최근 북경에 류 x 라고 하는 사람이 9살 때부터 사부님을 따라 다녔다고 자칭하고 있다. 그는 천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제자들 중에서 떠돌고 다니며 이를 빌어 자신을 과시하고 일부 공이 깊지 못한 학원들을 미혹시키며 심지어 학원들에게서 돈을 요구한다. 사실, 사부님은 1990년 이전에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사부님의 가족들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1990년 후, 나는 줄곧 사부님을 따라 다녔는데 사부님이 국외로 법을 전하러 가실 때까지 근본상 이런 사람이 없었다.

### 2. 사부님께서는 매 한걸음을 바르게 걸으셨는데 사람을 구도하고 설법을 하셨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있기를 바라며 사부님을 더욱 존중함과 아울러 대법이 흥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천고에 만나기 어려운 기연을 소중히 여기어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를 저버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문의 저자에 대하여 우리는 이 동수가 교훈을 섭취하고 법 공부를 틀어쥐고 법 학습을 잘하여 하루속히 엄정성명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사부님이 요구하신 정법 시기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가지 일을 잘하여 과거의 잘못을 미봉하고 금후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

나는 북경에서 태어 났으며 어려서부터 기공과 수련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졌다. 1990 년의 어느 날이었다. 한번은 군사박물관에서 나와 공공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무심중 동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문어귀에서 어떤 사람이 연공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때 한 가닥의 특별한 힘이 나를 흡인하였는데 그 느낌은 아주 강렬하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나이가 어렸기에 계면쩍게 생각되어 그들이 볼 가봐 가만히 엿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부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공을 가르쳤다. 들어보니 비록 열린 데서 말씀하셨지만 알기 쉽게 근본을 짚었는데 자신이 종래로 들어 본적이 없는 것이어서 따라 배우고 싶었다. 우물쭈물하면서 사부님께 말씀 드리자 사부님은 나를 보면서 자신이 북경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에 가르칠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유장(游桩)을 연마하는 것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은 군사 박물관 전달 실 부근의 작은 수림이었다. 네댓새 후에도 사부님이 가지 않은 것을 보고 또 연마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사부님은 따님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나에게 연공 목적이 무엇 인가고 물었다. 나는 당시 아무렇게나 수련이라고 대답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나에게 배워줄 수는 있는데 세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나는 너에게 점괘나 풍수를 보는 법, 병 치료 같은 것은 배워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회상에 배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진정으로 높은 층차어로 사람을 이끌므로 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며 네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서로간에 대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나도 너를 살펴볼 것이고 너도 나를 가능해 보거라. (사부님께서서는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셋째,

더욱이 앞의 열차와는 다른 소속이었는데 열차는 성도 소속의 것이고 이 차칸은 정주 소속의 것이었다. 앞의 열차는 이 차칸의 일체 공급을 관계하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통하는 문마저 잠 그어 놓았다. 이 차칸에는 또 다른 학원들도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조급하였다. 있는 것이란 라면뿐인데 더운 물도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와 무한에서 온 학원은 주전자를 얻어가지고 기차가 설 때 뛰어내려 앞의 차 칸에 올라 더운물을 가득 담았다. 그러나 이 차칸으로 돌아오려니 시간이 부족하여 기차가 다음 역에 이를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차가 멈춰설 때 원래의 차칸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마실 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매끼마다 선생님께 라면 한 그릇을 드릴 뿐이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산 여섯 장의 표는 이 차 칸의 맨 마지막 좌석표였다. 다시 말하여 열차의 막 끝이었다. 차가 화산을 지날 때, 선생님은 차 꼬리 부분에서 계셨다. 후에 연결한 이 차칸의 문에는 유리마저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그곳에 서서 오래도록 먼산을 바라보셨다. 나는 당시 몹시 궁금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뭘 보고 계실까? 그래서 호기심에 다가가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나에게 화산에서 도를 닦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산에서 내려와 선생님을 보러 왔는데 지금 열차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였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보건대 나의 제자들이 어떠한가?》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수련한지 오래 되었지만 비밀만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줄곧 정주까지 따라와서 법을 들었다. 후에 선생님께서는 설법 중에서 그날의 일을 말씀하셨다. 정주 학습반은 조건이 가장 차한 학습반이었다. 기공협회에서는 폐기된 체육관을 찾아주었는데 중심은 낡아빠진 마루바닥이고 주변의 벽은 벽돌로 쌓은 계단식 관람석이었는데 파손되고 허름하여 온전하지 못하였다. 오래된 창문은 드문드문 유리도 없었다. 우리의 선생님더러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라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노 학원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6월 11 일, 전수반이 열렸다. 며칠 후의 주말이었는데 그날은 오후 4 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도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하늘땅이 캉캉해지며 우박이 섞인 큰비가 하늘 땅을 뒤덮었다. 창문으로 비가 쏟아져 들어와 관람석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으로 밀려들었다. 좀 있으려니 호두 알 만큼 한 우박이 쏟아져 내려와 체육관의 양철지붕에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종래로 이처럼 사나운

악천후를 본적이 없었다. 광풍, 폭우, 우박에다 우리가 울고 번개까지 쳤다. 나는 당시 강단을 마주한 좌측 마루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자신은 노학원이므로 심성을 지켜야 하지 시끄러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될 수 있는 한 관람석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우박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며 떨어졌는데 마치도 양철 지붕을 산산이 부수려는 듯싶었다. 강단 위쪽의 지붕에도 구멍이 나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자동스위치가 떨어져 나가고 전등이 꺼지고 주변이 온통 캄캄해졌다. 이 모든 것은 단 몇 분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다. 모두들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조급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렸다. 《위에 누가 있는가?》 다시 바라보니 선생님께서는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가슴 앞에 놓고 계셨다. 앞에 앉은 학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한 학원이 빨리 선생님의 손을 보라고 하였다. 좀 지나 선생님께서는 무엇인가 손으로 움켜쥐셨는데 손에 무슨 물체를 잡으신 것 같았다. 그이는 책상 위의 광천수 병을 열고 물을 마시고는 손에 잡은 물체를 병에 집어 넣으셨다. 순간 비는 굵고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햇빛이 장내를 비추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하였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에 앉아 대수인을 하시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였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떼어버렸다고 하셨다. 이때 전등이 하나씩 밝아지고 강의는 계속되었다. 늘 전수반을 따라다니는 정주의 한 젊은이가 말하기를 당시 그는 통제실에 있었는데 자동 스위치가 떨어져나간 후, 선로에는 줄곧 전기가 없었지만 전등은 하나 하나 이어서 밝아졌다고 하였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밖에 나와보니 벼락을 맞은 나무들이 적지 않았다. 얼음과자를 파는 할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물었다. 《금방 있던 일이 자네들이 불러온 일이지?》 나는 놀랐다. 노백성들로 이런 일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었다. 이튿날, 정주의 신문에는 많은 지방의 지붕이 벗겨졌다고 보도하였다. 기상국에서는 경황실색하였는데 사전에 아무런 징조도 보아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기공협회의 주최자는 오늘 견식을 크게 넓혔다고 하였다. 이튿날, 정주시의 시장이 찾아와 선생님과 공경스럽게 악수를 나누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그와 그의 며느리가 우리의

없이 줄곧 미소를 짓고 나를 보고 계셨으므로 근본 아랑곳 하지 않고 찰칵찰칵하고 사진 한 필름을 다 찍었다. 식사 후, 나는 즉시 필름을 씻으러 갔다. 이튿날 검판을 보러 갔더니 생각 밖의 일이 발생하였다. 필름 전체가 모두 꺼멀게 되었고 영상이 없었다. 나는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가 집착심을 버리도록 직접 깨우쳐 주신 것이었다. 이처럼 가없이 넓은 부처의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는 사부님에 대한 감격과 숭경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번 자신의 집착심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의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던 정경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나더러 몸둘바를 모르게 한다. 사부님께 미안함을 느끼며 집착심을 버리기에 노력하곤 한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나는 깊이 느끼게 된다. 오직 사부님을 굳게 믿고 대법을 굳게 믿으며 한 순간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안으로 행해 찾으며 집착을 버림에 동요가 없어야 한다. 꼭 사부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지 극단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최대의 노력으로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바로 우주 줄달음 치는 대법제자이다.

사부님, 시름을 놓으십시오. 우리 고향의 대법제자들은 반드시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중임을 떠메고 세가지 일을 잘하여 사부님의 정법의 발걸음을 따라갈 것이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부님이시여, 고향의 대법제자들은 당신을 그립니다! 사부님의 탄신 기념일에 유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사부님께서 법을 공개적으로 전하실때의 일부 경력을 회상

글/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5년 1월 25일】 편집자 주 : 이 문장의 저자는 아주 일찍부터 사부님을 따라 공법을 배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법 공부를 중시하지 않은 데서 박해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후, 이 몇 년간 아주 큰 굽은 길을 걸었다. 최근, 그는 깨달기 시작하고 이 한 단락의 회상을 썼다. 우리가 이 문장을 발표하는 것은 더욱 많은 학원과 세인들이 사부님의 언행 중에서 교훈과 본보기를 얻을 수

반이 결속된 후,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더러 이번 기의 설법녹음을 베끼도록 하였으며 요구가 특별히 높았는데 반드시 한 글자도 빠뜨림이 없이 베껴내야 했고 시간은 또 특별히 짧았다. 녹음 테이프를 받아 든 나의 심정은 몹시 격동 되었다. 사부님이 나를 신임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다만 베껴 쓰는 일이 아닌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환희심이 생겨났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수련의 기타 방면과 과정 중에서도 환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마(魔)에게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전법륜》) 그리하여 당시 내가 베껴 쓰기를 할 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기억력이 차하고 글 쓰는 속도도 늦었다. 거의 매 한마디 말마다 녹음기를 한두 차례씩 멈춰야 했으며 이렇게 멈추었다가 되돌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너무 진전이 없었다. 마음이 조금해지자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질 가 겁났으며 제시간에 완성 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가봐 두려웠다. 후에는 녹음기마저 고장이 났다. 시간을 재촉하기 위하여 또 새 녹음기로 바꾸었다. 결과는 그래도 내가 뒤졌는데 동수들의 도움하에 맨 마감의 사람으로 제시간에 베껴 쓰기를 완성하였다. 당시 우리는 사부님께서 설법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우리의 법 공부에 쓰시려는 것은 알았지만 이 귀중한 서적의 이름이 《전법륜》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1994년 9월, 사부님께서서는 소형 법회를 열고 학원들에게 일부 수련중의 문제들을 해답하여 주었다. 학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비교적 많고 또 사부님께서 문제마다 모두 상세한 해답을 주었기에 법회가 결속될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곧 사부님과 함께 작은 음식점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이때 나의 집착심이 또 일어나 급히 집으로 가서 사진기를 가져다가 새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사부님이 이제 곧 국외에 가서 설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부님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므로 사부님과 함께 사진이라도 많이 남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쉴새 없이 찍으며 바빠 보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부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찍어 내려갔다. 이때 사부님의 신변에 앉았던 집사람이 나에게 눈치를 보내며 사진을 그만 찍으라고 하였다. 나는 사부님께서 아무 말씀도

학습반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어서 제남의 제2기 학습반이 시작되었다. 제남의 체육관은 3, 4천명을 용납할 수 있었는데 빈 좌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제남의 이 학습반에서 선생님은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하셨고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다음 기는 대련에서 열렸다. 선생님은 여러 사람들이 대련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다. 대련은 편벽하고 기차가 적었으며 학습반의 표도 다 팔린 상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30일의 비행기를 타고 대련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은 길에서 저애가 많았으며 마의 교란이 아주 심하였다. 나중에 선생님은 배를 타고 대련으로 가셨다.

기억하건대 성도에서 대련시 보도소 소장이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에 용이 있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되어 다음에 대련으로 가게 되면 보여줄 수 있는 가고 물었다. 그녀는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번에 대련으로 가게 되자 나는 이 일을 잊지 않고 그녀에게 보여달라고 졸랐다. 어느 하루, 그녀가 사진을 가져왔다. 내가 보니 정말이었는데 그들과 선생님이 선 뒤쪽 하늘에 두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가지런히 떠있었다. 머리는 아주 크고 코와 눈의 윤곽도 아주 똑똑했으며 위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또 나에게 두 자루의 보검을 가리켜 보였다. 내가 보니 아주 작기는 하였지만 똑똑히 분별할 수 있었고 칼과 칼집은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반나절이나 멍하니 들여다 보았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 한 장밖에 없는데 원판을 가지고 다시 씻으니 나오지 않더라고 하였다.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현지에 가서 이십여 차나 고찰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헛물을 쾨고 말았다고 한다. 후에 제 10 강의 문제해답 시간에 한 학원이 《파룬궁》 책을 읽을 때 두 자루의 보검을 보았다고 하자 선생님은 《그렇다, 그것은 내가 우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위력은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

8월 5일, 하얼빈 학습반이 시작되었다. 지점은 하얼빈 아이스하키장이었는데 그때 아이스하키장은 아직 건설 중이었다. 삼면은 좌석이고 다른 한 면의 벽은 임시 삼합판으로 막아놓았다. 아이스하키장의 사업일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득히 먼 만리 밖에서 모여와 기공 학습반에 참가하는 것을 처음 보는지라 그들도 와서 강의를 들었다. 어느 하루, 강의시간이 아직 이른

시각에 선생님은 장내를 한 바퀴 돌면서 학원들을 돌아보셨다. 선생님이 학원들의 앞에 이르자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 앉았던 학원들이 일시에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가자 그 다음 학원들이 일시에 일어섰다. 이렇게 선생님이 장내를 한 바퀴 도는 사이에 학원들이 정연하게 일어서고 앉는 것이 기복을 이루면서 전혀 없는 장관을 이루었다. 그 시각 온 장내는 신성함과 숭경의 마음으로 충만 되어 학원들마저 놀라 멍해졌다. 이것은 사전에 전혀 준비가 없던 일이었다.

내 곁에 앉은 신 학원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아마 중앙에서 사람이 온대도 이럴 수 없을 거예요.》 연길에서의 학습반은 연길 체육관에서 열렸다. 열심히 조직한 사람은 연길에서 맨 처음으로 외지로 가 강의를 들은 조선족 학원이었다. 그는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듣는 말에 의하면 그가 소속한 단위에서 70%의 사람들이 학습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번 학습반의 맨 마지막 날, 조선족 학원들은 오색영롱한 민족복장 차림을 하고 왔다. 그들은 가장 성대한 예절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강의를 끝난 후, 간단한 폐막식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수입 7천원을 전부 연길시 적십자 협회에 기부하셨다.

그날, 강의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도문강 1 호를 타고 장춘으로 가서 또 차를 갈아타고 하얼빈으로 가야 했다. 먼저번에 하얼빈에서 한 신 학원이 단위의 녹화기를 빌려다 녹화를 하였는데 나에게도 한 부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당시 그것은 아주 진귀한 것이었다. 그때 녹화기를 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녹음기마저 희귀한 때였으니 빨리 가서 챙겨야 했다.

하룻밤 기차를 타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장춘에 이르렀다. 나는 힘들게 행장을 끌어 내렸다. 지하철로 어구에서 상자를 세워놓고 잠깐 숨을 돌리다가 머리를 돌려보니 선생님께서 뒤에서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였다. 또 선생님이 나를 도와 상자를 들지 않을까 두려웠다(주: 이것은 수련계의 사도관계의 계선과 수련방식과 관련이 있다). 나는 황망히 말하였다. 《선생님, 저를 관계하지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전 관찰합니다. 경상적으로 홀로 다니므로 능히 할 수

물컵을 당겨 내셨다. 그것은 원래의 물컵과 생김새는 똑 같았으나 원래 물컵의 4 분의 1 가량 밖에 안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똑똑히 보았는가고 물었다. 모두가 격동되어 똑똑히 보았다고 대답하자 사부님은 또 천천히 작은 물컵을 큰 물컵 속에 넣었다. 이때 작은 물컵이 점차적으로 원래의 물컵과 합쳐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다른 공간의 물체를 보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현대 과학연구로는 돌파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리하여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묻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우주, 그것은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여래 이런 하나의 층차에서는 그것을 모두 변두리가 없는 무한히 큰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사람의 신체 내부, 분자에서 미시하의 미립자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주와 마찬가지로 크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드는 데에는 극미시하에서 이미 그의 특정한 생명성분, 그의 본질이 구성된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과학이 이것을 연구하기에는 아직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전체 우주 중에 존재하는 고급지혜성구(高級智慧星球)의 그런 생명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히 낮다. 바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도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지만, 다른 별에서 온 비행접시는 직접 다른 공간 속에서 가는데, 그 시공(時空)의 개념도 모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려면 곧 오고, 가려면 곧 가는데, 빠르기가 사람의 관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전법륜》)

#### \* 사부님께서 나의 집착심을 제거해 주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였다. 《내가 또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이 책의 내용은 몇몇 학습반에서 말한 법을 한데 합친 것이다. 모두 내가 말했으며 구절마다 모두 내가 말했고, 모두 녹음테이프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뽑아낸 것이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옮겨 적은 것으로, 모두 나의 제자, 수련생이 나를 도와 녹음 중에서 베껴 쓴 것이고, 그런 다음 내가 다시 한 차례 한 차례씩 수정(修改)했다. 모두 나의 법으로서,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이 하나의 법이다.》 (《전법륜》)

그때에 나는 행운스럽게도 베껴 쓰는 작업에 참가하였다. 제 7 기 설법 반에서 사부님이 말씀하신 법은 아주 높았다. 설법

것을 결심하였다.

### \* 사부님의 설법 반에서

1993년 7월에야 사부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셔서 성위례의당에서 제 5기 설법반을 열었다. 당시 법을 듣는 사람이 매우 많았기에 뒤이어 길림대학 레의당에서 제 6기 설법학습반을 열었다. 1994년 5월, 사부님은 장춘 길림대학 레의당에서 제 7기와 제 8기 설법학습반을 열었다. 나는 이 네 차례 학습반에 모두 참가하였다. 후에 또 하얼빈에서 열린 설법학습반에 참가하였다. 몇 천명이 참가한 설법장소는 물 뿌린 듯 조용했으며 소란스러운 소리는 전혀 없었다. 사부님은 설법을 하실 때 사업일군들이 일체 사업을 중지하고 조용히 법을 들을 것을 요구하였다.

내가 참가했던 이 50여 시간의 설법 중에서 사부님께서 언제나 앞당겨 현장에 도착하셨으며 강단에 서서 학원들이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시기를 빌어 사부님을 청하여 우리 가족과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에서 사부님께서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몇 줄의 글이 적혀있다. 이것이 바로 사부님이 강의를 하실 때 몸에 지니신 유일한 물건이었다. 사부님은 강의를 하실 때 종래로 강연고가 없었으며 교안도 없었다. 파룬따파는 사부님께서 친히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매번 《불광이 비치어 예의가 원명한》 설법학습반에 앉아있을 때마다 나는 가부좌를 하고 손은 결인을 하였다. 눈으로는 사부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고 귀로는 사부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는 우주의 법리를 들었다. 사부님은 우리에게 우주의 특성—진, 선, 인이 곧바로 불법이며 인생의 참뜻은 바로 반본귀진이며 또한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었다.

제 6기 설법 반에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비교적 높았다. 천목을 말씀하실 때 사부님께서 다른 공간의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에 다른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물체든지 모두 다른 공간에서의 존재형식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사부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상 위의 물컵을 들어 오른손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더러 주의하여 보라고 하면서 천목이 열리지 않아도 모두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왼손의 중지와 엄지로 물컵 속에서 천천히 작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가시기를 기다려서야 나는 상자를 끌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갔다. 나는 상자를 끌고 플랫폼에 이르러 줄을 서서 역을 나섰다. 머리를 들고 보니 선생님께서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그렇듯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당시 나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닥 뜨거운 기류가 굽이쳤는데 정말로 선생님 앞에 풍덩 하고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많고 선생님의 신변에는 또 학원들이 있는지라 두 손을 합장하고 선생님께 말씀 올렸다. 《선생님, 저를 위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서도 됩니다.》 그날 나는 순리롭게 하얼빈에 도착하였고 이튿날에는 기적처럼 북경으로 돌아왔다.

몇 달 후인 12월 21일, 광주 제 5기 학습반이 열렸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맨 마지막 학습반이었다. 그때 파룬궁은 이미 신속하게 광범한 범위에서 전파되었다. 더구나 몇 달간 학습반을 꾸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또 듣건대 맨 마지막 학습반이라기에 전국각지에서 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은 생명중의 가장 중대한 일이므로 동북, 신강 등지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도착하여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강의를 듣는 동안의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식비로 2원만 썼다. 광주에서의 2원은 배를 불릴 수가 없었다. 한 북경의 학원은 자신의 돈을 내어 그들 매 사람에게 백원씩 주었다. 또 동북에서 온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대 중형기업이 모두 문을 닫아 수입이 없었다. 그녀는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얼마 안되는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불짐을 메고 노숙하면서 밥을 빌어먹으며 걸어왔다.

광주 제 5기에 참석한 학원이 5천여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았을 것이다. 광동성 기공협회에서는 일찍이 표를 다 팔았다. 나의 표는 광주의 친척에게 부탁하여 산 것이었는데 후에 온 학원들은 표를 사지 못하였다. 첫날, 강의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각에 체육관 앞의 광장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듣건대 500여명이 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육관의 사업일군들은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초만원은 허용하지 않았고 인행도에 사람이 앉는 것을 엄금했다. 북경의 일부 학원들은 신학원들에게 표를

양보하였다. 표를 주고 받으면서 쌍방은 눈물을 흘렸으며 옆에서 보는 사람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표가 없는 학원들은 체육관 문어귀의 광장에 모여 서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렇듯 간절한 마음에 체육관의 사업일군들도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전례를 타파하고 곁에 있는 집을 내어 텔레비전을 놓고 동시녹상으로 나머지 학원들이 강의를 듣도록 했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은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법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도 절박하였으며 중생의 깨달음이 이미 계발을 받았음을 보아낼 수 있었다. 그들이 사부님에 대한 경의 역시 그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하루, 학원들은 일찌감치 도착하여 체육관 대문으로부터 대청에 이르는 양 옆에 안으로 세 층, 밖으로 세 층으로 빼곡히 섰다. 중심에는 한 갈래 통로를 내어놓고 조용히 서서 선생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오시자 여러 사람은 선생님을 둘러싸고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학원들의 내심에서 우러러 나온 선생님에 대한 숭경은 체육관의 사업일군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래지게 하였다. 그들은 학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선생님은 무슨 사람입니까?》 체육관에서 큰 장면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경건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사람들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수련도로가 어떠한지도 알게 되었기에 끝까지 견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나의 작은 딸애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93 년 말에 귀국하여 광주 제 3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날마다 견지하지 못하였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에 참가한 후, 그녀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혼자서 날마다 연공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였다. 후에 그 어떤 고난과 좌절도 모두 그녀의 수련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하였다.

광주 제5기 학습반은 리 선생님이 중국 대륙에서 연 맨 마지막 학습반이다. 그 후의 몇 년간, 파룬궁의 전파는 중국에서 고조에 이르렀다. 그 번에 미국, 홍콩,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도 일부러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서 당지 첫 파룬궁 학원으로 되었다. 이 학원들은 파룬궁이 세계 각지에 널리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고 사부님도 서계셨다. 그러나 나는 한눈에 사부님을 알아보았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하게 사부님께 심심한 인사를 드렸다. 나는 입으로는 《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부님이시여, 나는 끝내 당신을 찾았습니다.》고 말하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사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 시각 나의 격동된 심정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마치도 길을 잃은 아이가 집을 찾은 심정이었다.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나의 정황을 사부님께 소개하자 사부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사부님과 함께 북경으로 가서 설법 반에 참가할 의향을 비치자 사부님은 이제 기다렸다가 장춘의 설법 반에 참가하라고 하였다.

사부님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야 나는 비로서 실내의 정황에 주의를 돌렸다. 집은 두 칸 방이었는데 안방은 침실로서 쌍 침대 하나밖에 놓을 수 없었고 바깥방은 우리가 있는 방인데 비교적 커서 긴 소파 하나와 책상 하나, 걸상 두 개가 있었다. 그때는 사부님께서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방에는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벽에는 사부님이 직접 그린 몇 폭의 부처상이 있었으며 부처들은 모두 층층의 작은 탑 같은 연꽃위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작은 흙부처가 있었다. 후에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 테이프의 첫 시작에 멀리서 가까이 오는 사부님의 법신상이 있는데 멀리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부님 덕에 있던 그 불상이다.

몇 년이래, 나는 기차, 료선, 비행기를 타고 수련의 사부를 찾아 다녔는데 생각 밖에도 오늘 사부님을 만났다. 그것도 걸어간 것이었고 우리 집에서 사부님의 덕까지는 공공버스 한정거장의 거리밖에 안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수련계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줄곧 고층차로 수련하려고 생각한다. 도처에서 법을 구하려고 돈도 적지 않게 썼으며 방방곡곡을 한 바퀴 돌아 유명한 사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유명하다는 명(名)이 진정 명백하다는 명(明)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헛되이 돌아다니며 돈을 쓰고 고달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우리는 오늘날 당신에게 내놓았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쳐 주었으며, 당신의 집 문 앞까지 갖다 주었다.》(《전법륜》) 오늘 꿈만 같이 정말로 사부님을 만났다. 당시 나는 사부님을 따라 끝까지 수련하며 원만하여 집으로 돌아갈

##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들을 회상

글/장춘대법제자 법래

【명혜망 2004년 5월 1일】 1992년 5월부터 파룬따파는 장춘에서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우주의 법리가 인간세상으로 왔으며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이 대법제자로 되도록 하였다. 지금 회상해보면 그때의 사부님께서 장춘에서 법을 전하시던 그날들이 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각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에 매우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전법륜》) 지금 나는 그때의 경력을 써냄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 \* 천리 밖에서 찾은 사부님이 고향에 계시다

1992년의 황금가을에 나는 사부님을 만났으며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인생의 경력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3반과 5반, 공사합영, 대약진, 반우파, 4청, 문화대혁명 등을 경과하였는데 심신에 피로를 느꼈고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느껴졌다. 이 인생의 고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수련의 길을 선택하고 경상적으로 절에 가서 불경을 청해 보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종 기공 학습반에도 참가하였다. 당시 나는 유명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승을 찾는 길에 올랐다. 몇 년동안 나는 선후로 보타사(普陀寺), 소림사, 백마사, 령은사, 법문사에 찾아갔으며 또 아미산, 락산, 청성산에도 갔지만 내가 찾는 사부님은 찾지 못하였다.

1992년 가을, 이웃의 동수가 나에게 파룬궁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찾는 사부님이 아마도 리 선생님일 거라고 하였다. 그는 리 선생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면 가서 만나자고 하였다. 어느 날, 우리 일행 네 사람은 사부님의 댁으로 갔다. 사부님의 댁은 길옆에 자리잡은 층집이었는데 실외층계로 오르내렸다. 그때 방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모두 수많은 일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8년간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대법이 전파되는 시기에 태어나 직접 선생님의 설법을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공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운스럽게 느껴진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보귀한 기연인가? 비록 이 몇 년간 많은 고생을 겪었고 많은 어려운 고비에 봉착하였지만 병마의 시달림을 받으며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던 심태와는 이미 완전히 달랐다. 간고한 수련을 통하여 몸에 있던 더러운 물질들이 한 덩어리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지금 온 몸에는 활력이 넘치고 생명은 희망으로 충만 되었으며 무한히 넓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았다. 사실, 생명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다. 단지 우주의 법리를 모름으로 하여 무지 중에서 적지 않은 업을 짓고 자신을 고통의 심연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우주의 진정한 법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신체를 청리하시고 파룬과 일체 수련의 요소를 넣어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대법 중에서 수련하고 신심이 부단히 승화되도록 하셨다.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공인은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나 연공인은 오히려 아주 행복함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는 승화하는 생명이며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말로 고향을 벗어나 반본귀진하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길어졌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9년동안 1분1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많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영원히 담아 낼 수 없다. 그이의 품덕의 숭고함과 위대함, 그이의 지혜의 풍부함과 광활함은 인간의 언어의 내포로는 만분의 일도 표현할 길이 없다. 99년 7월, 대륙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미친듯이 요언을 날조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유발시켰다. 세인은 말하지 않더라도 일부 연공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련하게 느껴진다.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의 이치로 부처의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대법이 건곤을 바로잡는 마지막 시각에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이며 자만하지 말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예전과 다름없이 사부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더욱이 우주 중생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2001년 4월 뉴욕 법회 발언고)

## 전수반 학원이 사부님의 은혜를 회상

글/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3월 30일】 사부님께서는 당년에 중국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 천신만고를 겪으셨으며 장성안팎과 장강남북 그 어디 할 곳 없이 거룩한 자국을 남기셨다. 대법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은 자석마냥 천천만만의 인연있는 인사들을 흡인하여 사면팔방으로부터 모여와 사부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공을 배우고 설법을 듣도록 하였다. 매번 사부님이 이르는 곳마다 본 고장의 학원을 제외하고도 사부님을 따라다니는 호호탕탕한 《전수반》 학원들이 있었는데 사부님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따라갔다. 매번 학습반이 끝날 때마다 학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단 한 시각이라도 더 사부님의 신변에 머물고 싶어 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나는 행운스럽게도 이 《전수반》 대군의 일원이었다.

기억하건대 광주, 제남역에서 내리면 곧 《파룬궁》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건 차들이 마중 나왔는데 이 역시 사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어 배치한 것이었다. 사부님이 학습반을 꾸리는 기간에 광주체육관 앞의 광장에는 몇 십대의 크고 작은 버스들이 《파룬궁》 플랭카드를 달고 학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을 하였다. 차들이 호호탕탕하게 거리를 지날 때면 행인들은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면서 《아! 파룬궁은 사람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연길에서 학습반을 꾸리던 첫날이었다. 몇 천명을 용납할 수 있는 회의장은 빈 좌석이라곤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옆 좌석 몇 개만은 비어있었다. 내가 (누구 일가? 사부님이 이미 강의를 시작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먼 길에 지친 모습으로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한 아이는 8,9세 가량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11,12가량 되었는데 빈 좌석에 와 앉으면서 금방 기차에서 내렸다고 하였다. 나는 조용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바 당초에 할 때는 아주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걸어 나왔다. 그리고 이 법이 맨 처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장춘 여기에서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심(高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은 다만 기공으로부터 진정한 법을 전하는 과도시기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점차로 비로소 진정하게 이 법을 개시하여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끔 한 바 이 일을 아주 계통적으로 하였다. ……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법이 전해지는 것은 아주 엄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이렇게 크기에 속인 사회에서의 유전형식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대도무형’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한 점을 해냈다. 무형(無形)이라, 속인 사회 중의 어떠한 형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수련하고 진정하게 제고되게 할 수 있다.》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

당초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여 우리를 구도할 때 요구한 것은 선을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 오늘 대법제자들이 마의 난을 겪을 때로 겪으면서 수련하여 낸 것은 우주를 보호하고 중생을 위해 책임지는 금빛 찬란하고, 순정하고 성실한 마음이다. 위험이 닥쳐올 때면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였으며 대법제자들을 보호하고 이끌면서 걸어오셨다. 사부님께서 한걸음 한걸음씩, 아주 주밀하고 순서가 있게 법을 전하였으며 수련의 형식을 남겼다. 대법은 천추 만대에 금강불패할 것이며 영원히 인간세상에 남을 것이다.

14년이 지난 오늘,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며 걸어온 길을 다시 새겨보노라니 장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말로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부님의 탄신에 즈음하여, 또 사부님의 설법 14주년에 즈음하여 장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께 문안을 드린다. 대법제자들은 다시 한번 맹세를 다진다: 사부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부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며 사부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며 사부님이 성취하려는 일체를 성취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단체연공만 할 수 없다. 우리가 특정된 시간을 찾아 단체로 법 공부를 할 수 없겠는가? 매 장(章)마다 매 절(節)마다 여러분이 읽고 토론하도록 하라. 학습시간의 배치는 단체연공처럼 고정시켜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점이 있고 겨냥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래에 실제문제에 부딪히면 의거할 법(法)이 있게 된다. 우리가 선두에 선다면 전국 각지 보도소에서 하나의 아주 좋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전국 각지에서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식제고에 대단히 좋은 점이 있다. 이러한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후부터 장춘의 학원들은 학습소조를 성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을 학습하고 법을 베껴 쓰고 법을 외웠다. 1995 년 초, 《전법륜》이 출판된 후, 여러 사람은 진정으로 법에서 제고를 가져왔으며 각지의 학원들은 장춘으로 와서 학습체험을 교류하였다. 후에 국외의 학원들도 장춘으로 와서 《배움을 비기고 수련을 비기》면서 공동히 정진하고 정체적인 제고를 가져왔다.

대법의 흥대한 전파를 위하여 사부님께서는 《장춘에서의 파룬따파》에 제목을 써 주셨다. 사부님께서는 한편으로 글을 쓰시면서 한편으로 말씀하셨다. 《장춘(長春), 길이 존재하라(長存啊)!》 장춘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의 설법 3 주년과 5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춘에서 2 기의 서화 전람을 꾸렸다. 사부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공덕이 무량하다, 공덕이 무량하다!》

사부님께서 국외로 법을 전수하러 가신 뒤, 오래도록 장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1998 년 7 월 26 일, 사부님께서 돌아오셔서 향거리라에서 장춘 보도원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였다. 다공능 대청에는 사부님의 웅장한 옛모습이 의연하며 학원들의 우뢰같은 박수소리도 여전히 울리고 있으며 꽃바구니에 담긴 생화는 의연히 향기를 풍기고 있다……역사는 영원히 그 순간을 남기었다. 뒤에 앉은 학원들이 사부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겹쳐놓은 의자에 웅근 다섯 시간이나 앉아 계셨다.

사부님께서는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사실 당시 우리 장춘의 많은 노수련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은 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風風雨雨)의 곤란한 시기를 겪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 법이 널리 전해졌고

물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는 《감속에서 왔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감탄의 소리를 냈다. 《그렇게 먼데서요!》 이때 사부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원말씀아님) 《이 법은 전하는 범위가 아주 크므로 아주 먼 곳에서도 모두 찾아왔다.》

사부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때 그 두 남자아이는 가볍게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곧게 펴고는 진지하게 사부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오직 사부님만이, 그리고 오직 이렇게 크고 신성한 우주대법만이 이토록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득히 먼 만리 밖에서 모여와 법을 듣도록 흡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후에 듣건대 신강에서도 한패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광주로 가서 설법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머나먼 만리 밖에서 첩첩 난관을 물리치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또 몇 사람이나 알고 있으랴. 바로 이 한 차례 한차례의 학습반에서 본 지방 학원이든 타지방 학원이든 학습반이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강의를 듣는데는 얼마나 많은 사부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 있는가를!

나는 당시 안휘에서 온 학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모르게 두 시누이를 데리고 장춘의 파룬궁 전수반에 참가하러 왔다. 그들은 역에서의 전문영접시간을 어기어 공공버스를 타고 학습반이 열리는 길림대학 레의당 밖까지 왔으나 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느닷없이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지?》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그들을 이끌고 걸으면서 또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안휘라, 아주 먼 곳에서 왔구먼. 남편까지 속이면서……문 앞까지 왔는데 문을 못 찾는단 말이지?》 이 학원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어떻게 내 일을 다 알고 있을까?) 사부님의 설법을 다 듣고 나서야 그녀는 원래 길을 안내한 노인은 그들을 영접하러 온 사부님의 법신임을 깨닫고 몹시 감동을 받았다.

또 안휘 시골에서 온 젊은이가 있었는데 키는 1 미터 80 이고 아주 멋지게 생겼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불구자였는데 허리가 90°로 휨 곱사등이었다고 한다.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안휘에서 설법을 하실 때 당지의 기공협회에서 그를 사부님께 소개하였다. 사부님이 그의 등허리를 몇 번 두드리자 그의 허리는 당장에서 곧게 펴졌다. 그는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부님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따라갔다. 그 후의 학습반에서 사부님께서서는 그의 경제상황이 곤란함을 아시고 학비를 면제하여 주셨다.

학비를 놓고 말하면 당시 파룬궁 학습반의 학비가 전국 각 기공문파의 요금 중에서 가장 저렴했으며 더욱이 노학원에게서는 절반 값만 받았다. 파룬궁의 요금이 낮음으로 하여 기타 각 문파의 불만을 자아내어 기공협회에서는 사부님께 요금표준을 높일 것을 제기했으나 사부님께서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으셨다.

또 장춘의 한 학원은 일가족 네 식솔이 80 고령의 행동이 불편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주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다. 기차역에서 영접차량시간을 어귀어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거리에서 여관을 찾고 있었다. 걷고 걸다가 2 층집 한 채가 보였는데 주인 주택이었다. 그녀는 (저 층집이 여관이면 좋겠다. 그러면 더 걸을 필요도 없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바로 이때 2 층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하였다. 《주숙할 곳을 찾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오!》 당시 이 학원은 사부님께서 더 걸을 수 없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시어 도움을 주신 것임을 대뜸 깨달았다.

바로 이 정주의 학습반에서 당지의 사악은 사부님이 법을 전하시는 일을 교란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호두 알만한 (어떤 것은 계란만큼 했다) 우박이 섞인 폭풍취우가 하늘 땅을 뒤덮으며 쏟아져 내렸다. 원래 명랑하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천목이 열린 학원이 말하기를 이런 정황 하에서 사부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학원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하나의 큰 파룬으로 삼시간에 모든 학원들을 덮은 다음에야 사악을 제거하기 시작하셨다……

잠시 후, 하늘은 또다시 명랑하게 개고 사부님께서서는 강의를 계속하셨다. 이 일에서 나는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보호를 직접 목격하였다.

사진을 찍는 것은 학습반에 참가한 모든 학원들의 소원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종래로 학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없이 시간을 내어 사진을 찍으셨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었다. 몇 천명의 학원들이 모두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 하였으며 누구도

없다. 마치 내가 학습반을 연 것과 같이 그 장(場)은 대단히 강했다. 그것은 파룬궁(法輪功)이 집결한 것이고 법회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았다. 장래에 수련생이 많아지면 수련생들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심득체험을 말할 수 있다. 법 공부를 통한, 이것은 사람을 아주 잘 교육한다. 수련생 자신이 공(功)을 배운후 어떤 수확이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어떤 방면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욱 생생하다.》 이번 교류회는 장춘시에서, 전 중국에서, 전세계에서도 처음으로 되는 파룬궁의 대 집결이었다. 우주중의 신과 부처들은 우리와 함께 법 중에서의 깨달음을 나누었으며 스승님의 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법 중에서 승화된 모습을 보았다.

길림대학의 정문에서 나오면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한가지 일이 생각났다. 《우리가 전번에 길림(吉林) 대학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수련생이 길림대학 정문을 나와서 자전거를 밀고 막 길 가운데까지 갔는데, 승용차 두 대가 단번에 그를 가운데 끼워 넣어 당장 부딪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에 부딪쳐도 모두 두렵지 않은데, 그 순간 차가 멈췄으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장춘에서 여러 번 발생하였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관이 곧추 떨어져 내려온 것, 자전거가 승용차와 부딪친 후, 갈고리에 걸린 채 불꽃을 튀기며 끌려간 것, 콘크리트 전주대가 철문을 깔아서 사람모양을 만들어낸 것, 《이런 유의 일은 아주 많아 헤아릴 수 없으나, 위험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모두들 진정으로 사부님이 시시각각 우리 신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994 년 9 월 18 일, 길림대학 리화 교학청사의 한 레의당에서 사부님께서서는 장춘 파룬따파 보도원들을 위하여 법을 해설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이렇게 강조하셨다. 《마땅히 법리(法理)를 투철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책을 많이 보고 녹음을 많이 들어야 한다. 최저한도로 일반 수련생보다 명백해야만 비로소 진정하게 보도원을 잘할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똑똑해야 한다.》 《내가 말한다면, 이 법에 따라 배우고 오로지 그를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나중에 사부님께서서는 직접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 《우리가 나의 고향에서 선두에 나설 수 있는가 없는가, 좀 조직하도록 하자.

의자를 철수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버리고 왼 발을 내디더 보고 또 오른 발을 내디더 보았다. 이렇게 문 앞의 광장에서 한 바퀴 또 한 바퀴를 돌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장면에 격동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찬탄했다. 후에 노인의 집사람이 사부님께 편지를 보내어 파룬궁을 잘 연마하여 사부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1992년 5월 13일부터 1994년 5월 10일까지 장춘에서 일곱 차례 전수반을 열었다. 제 1기반에 2백 명이 안되던 데로부터 제 7기 반을 열었을 때는 3천명을 넘었다. 전국각지에서 불원천리 마다하고 비행기를 타고 만수천산을 넘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에게 담가로 들려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편벽한 시골에서 한 부부가 멜대를 지고 왔는데 멜대에는 아이가 앉아있었다. 실로 《대법이 한 줄로 이끈 것이》였다. 아! 모두들 법을 얻으러 왔고 또 법을 얻고서 돌아갔다. 마치도 알알의 씨앗마냥 심어졌으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폈으며 사방에 꽃 향기를 풍기고 또 오라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종자를 고르시고 땅을 선정하였으며 종자를 묻은 뒤 햇빛과 감로를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며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어 주시고 벌레와 쥐들을 막아주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1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최후의 수확을 기대하고 계신다.

곧 바로 이곳에서 94년 11월 20일, 제 1기 대법제자 심득 교류회가 열렸다. 각지에서 학원들이 몰려왔고 우주중의 수많은 각자들도 모여왔다. 일부 천목이 열린 학원들은 우주중의 신들이 모두 온 것을 보았는데 나무앞사귀에까지 모두 앉아있었다. 그들은 대법제자들과 함께 례의당으로 들어갔다. 어떤 신은 층차가 너무 높아 한 층의 성운을 감고 왔으며 색채가 찬연하고 형태가 각이 하였다. 녹화기는 당시의 그 신성한 순간을 녹화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사부님께서서는 《파룬따파의해》에서 언급하셨다. 《장춘에서 녹화를 했는데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몹시 생생하여 듣는 수련생도 아주 격동(激動)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회의가 아주 생기발랄하게 열렸고 분위기 역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주 기뻐하였다. 마치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장(場)에 나 본인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모자라는 것이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여름날의 정주는 땀별이 뺨뺨 내리 쪼였다. 대회의 규정에 의하면 매개 성의 학원들이 단체로 사부님과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성이 있는가! 본래 사부님은 몹시 고생스러우신데 학원들은 그래도 달가워하지 않고 각성 지구에서 다 찍고 난 후, 또 자동적으로 시 구역의 학원들을 조직하여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바로 이렇게 사부님은 여기서 청해가고 저기서 청해갔다.

뒤통별이 하늘에서 내리 쪼이고 무더위가 사람을 찌물켰지만 사부님은 종래로 시끄러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화하고 자비롭게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학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

지금에 이르러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몸돌바를 모를 지경이다. 그때 나는 얼마나 자사자리 하였던가! 사람마다 존중하는 사부님 앞에서 어찌하여 사부님을 위해 생각하지 못했는가? 사부님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고 피로를 덜게 하여 사진을 한번만 찍으면 족했을 것을 어찌하여 사부님을 위한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였던가! 이미 여러 날 설법을 하시고 그날에도 온 오전 강의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또 뒤통별아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야 하셨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하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걸어왔고 대다수의 동수들은 모두 성숙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많고 많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는데 모두 이 사(私)와 관련이 있으며 모두 이 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오직 가장 깊은 속에 숨어있는 사(私)를 전부 버려야 만이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사무아의 표준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사부님이 당년에 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천신만고를 헤아려 보노라니 우리가 표면상에서 감수할 수 있는 제자에 대한 보호와 아끼는 마음은 다만 창해의 한가닥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상에서 사부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와 우리를 위해 실질상에서 감당한 거대한 난을 우리는 영원히 다 알지 못할 것이지만 사부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가슴속에 아로새길 것이다.

## 진귀한 회상, 명심할 가르침

글/광우

【명혜망 2002년 11월 6일】 1994년 4월, 여동생이 《파룬궁이 금주에서 학습반을 꾸리니 꼭 와야 돼요.》 하고 전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늙은 여승을 찾아갔다. 《파룬궁이 학습반을 꾸리고 불법을 전한답니다. 당신은 출가하여 오랫동안 절에 있었는데 불법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늙은 여승은 말하였다. 《무엇이 불법인지 들어보지 못했어. 몰라.》 그리하여 우리는 금주에 가서 법을 듣기로 약속하였다. 그날따라 한 거사가 찾아와 여승을 따라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학습반에 참가하는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여승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자 나는 《연분을 따르라지요.》 라고 하였다. 결과 나의 말 한마디에 그 거사도 우리와 함께 금주로 가겠다고 표시하였다. 나는 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인후암 등 질병이 있었다. 병에 걸린 지 7년이 되도록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 땀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번에 기차에 오르자 손발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였고 배어나는 것이 모두 끈적끈적한 점액이었다. 후에야 안일이지만 아직 사부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신체를 청리하고 계셨던 것이다.

금주에 이르자 우리는 곧 학습반으로 갔다. 사부님이 강단에 나타나자 나의 마음은 몹시 격동되었다. 40여 년이나 소식(素食)을 해온 그 거사는 나의 옆에 앉아서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을 보았어요. 13,14세 모양인데 금 귀걸이를 걸고 장엄하기 그지 없어요. 사부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무엇이 나타나는데 불법을 이야기 하면 부처의 형상이 나타나고 관음보살을 이야기 하면 관음보살의 형상이 나타나요. 손에서는 부단히 채색 빛발이 뿜어나오고 눈꽃 같은 파룬이 장내에 꽂차있어요.》 이 노 거사는 출가하면 관음보살을 볼 것이라고 스스로 예감하고 있었다. 아마 신불이 대법과 인연을 맺도록 그녀를 점화했을 것이다. 연후에 그녀는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출가하지 않겠어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겠어요. 사부님은 부처예요. 중생을 구도하러 오신 분이예요.》

연분이 이르니 집이 절과 같고 부처가 구도를 하니 길이 넓고

여기에서 제 4기, 제 5기 학습반을 열었다. 제 4기 학습반에서 사부님은 전수반에 참가한 몇 명 학원들을 강단에 올라오도록 하였다. 한 사람은 배에 큰 종류가 있었다. 사부님이 그의 신체를 청리하실 때 피가 섞인 고름이 바지가랑이를 따라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윽고 종류가 소실 되고 배가 훌쩍하게 되는 바람에 바지를 추스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사부님의 신적과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는지 모른다.

5기 전수반이 끝난 후, 사부님은 더 이상 학원들의 병을 일일이 치료해주지 않고 정체적으로 학원들의 신체를 바로 잡아 주셨다. 이 학습반이 결속될 때 사부님께서서는 승리공원, 길림대학, 아동공원, 동식물원, 조양공원 이 다섯 개의 연공장에 기발을 수여하였다. 이런 연공장은 모두 사부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마당을 청리하고 보호막을 씌워놓았다. 사부님은 동식물원에 커다란 장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때 당시 겨우 몇 사람이 연공하고 있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하시며 얼마 안되어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7기 학습반이 끝난 후,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95년 이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동식물원의 기타 몇 개의 문 앞에도 연공장소를 설립하였다.

사부님의 그 후 두기의 학습반은 모두 길림대학의 레의당인 명방궁에서 열렸다. 14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많은 옛 곳은 이미 밀어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수건 하였지만 유독 이곳만은 아직도 원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일본식 신사풍격의 건축물은 역사를 견증하고 기재하고 있으며 전체 우주가 말세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사존께서 광림하여 이곳에서 법을 전하시고 중생을 구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레의당내에는 의연히 사부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문앞에서는 사부님과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 기념사진을 남겼으며 설법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는지 모른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어떤 학원들은 사부님의 아주 큰 광환을 보았는데 금빛이 찬란하였다. 여덟 호법신이 갑옷을 입고 각종 법기를 들고 좌우에 각각 네 사람씩 사부님의 양측에 서서 사부님을 호법하고 있었으며 위엄 있고 신성하였다.

한 노인은 뇌혈전에 걸려 지팡이를 짚고서 의자에 앉아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사부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버리고

집착심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서이다.》(《전법륜》) 장춘시의 많은 사람들은 사부님의 동료, 동학, 전우, 이웃, 친척친우인데 모두 사부님이 그들은 구도하기 위하여 맺은 인연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부님의 고심한 구도를 저버리지 말기를 희망한다! 《대법은 널리 전해지고 있고 일체 중생을 구도(救度)하고 있다.》(《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는 것이다》) 사부님은 모든 생명에게 한차례 또 한차례 구도될 기회를 주셨으니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맡길 뿐이다.

승리공원의 서쪽은 항공부대의 구락부이다. 이곳에서 사부님은 제 3기 설법반을 열었다. 그당시 단위에서 쌀 마대에 치여 오래 전에 반신불수로 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치료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가족들이 들것에 들어 강단 위에다 올려놓았다. 병원에서 또 몇 명의 병우들이 따라왔다. 사부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친히 그녀의 신체를 조정해 주었다. 먼저 앞몸을 두드리고 번져 눕히고는 또 잔등을 두드리고 나서 일어나 앉으라고 하자 그녀는 곧 일어나 앉았으며 사부님이 그녀더러 일어서라고 하자 그녀는 곧 일어섰다. 뒤이어 사부님이 그녀더러 한 바퀴 걸어보라고 하자 그녀는 정말로 강단 위에서 한 바퀴 걸었다. 가족들과 따라온 병우들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온 집 식구가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이 학습반에서의 어느 하루, 사부님은 낡아빠진 자전거에 따님을 태우고 오셨다. 문 앞에 이르러 보니 학원들이 세워놓은 자전거가 한 줄로 번져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손수 한대 한대씩 일으켜 세웠다. 때는 한창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부님은 매 하나의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큰 뜻을 품고서도 사소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노라.》임을 알려주었다. 그때 한 학원이 문 앞에서 가족의 병을 보이려고 사부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경을 보고 감동되고 탄복하였다. 그는 내심으로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나는 어쩌면 가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강의 시간을 지체시키려 하였는가 하고 자책하였다. 그녀는 조용히 례의당으로 돌아가 사부님께서 설법하시기를 기다렸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선한 행동은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용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있었다.

승리공원과 성위 례의당은 길 하나를 사이 두고 있다. 사부님은

찬란하다. 두 강의를 듣고 나서 나와 같이 온 늙은 여승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수련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출가한지 오래되도록 자신이 수련하는 것이 어느 법문인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하였다. 제일 마지막 강의시간에 사부님께서 학원들이 글 쪽지에 따라 문제를 대답하셨다. 여승이 울고만 있기에 나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사부님을 찾아가 물었다. 사부님께서 강단 오른 편의 소파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사부님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사부님, 한 여승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다 마찬가지로 말해주시오.》 라고 하셨다. 내가 금방 돌아서려는데 사부님은 《그 여승을 여기로 데려오시오.》 하셨다. 내가 여승을 데리고 강단의 문어귀에 이르러 아직 한 단락의 거리가 있을 적에 여승은 급히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부님께서 급히 다가오시어 《이러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여승을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늙은 여승은 격동되어 그제 《저는 어쩌면 좋을가요?》 하는 한마디만 하였다. 사부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눈빛으로 강단 위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관음보살, 석가모니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은 여승은 사부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다. (원래 이러하구나, 하늘의 신불이 모두 와서 사부님을 도와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구나!) 늙은 여승은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하여 기뻐하였으며 불가대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기뻐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큰 조화인가!

어느 하루 강의가 끝난 후, 이미 저녁 9시가 되었다. 우리는 뒷줄에 앉았기에 먼저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의장에서 멀리 걸어간 후, 어느 사이엔가 사부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 우리 앞에서 맞은편 길을 건너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당시 나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부님을 보고 큰 소리로 《아, 선생님이 아니신가?》 고 하였다. 사부님은 나의 말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리시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며 보였다. 나는 비속에서 멀어져 가는 사부님의 뒤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당지의 학원들을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사부님께 차를 안배하여 드리지 못하는가? 어쩌면 사부님이 비를 무릅쓰고 걸게 하는가?) 기타 기공사들이 공을 전할

때면 모두 차로 영접하고 차로 전송하는데 우리의 사부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비를 무릅쓰고 도보로 걸으셨다.

매번 이 한 단락의 잇을 수 없는 경력을 회상할 때마다 출가인, 승려, 도사 그리고 사회상의 일부 거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깨달아야 할 것은 파룬따파는 우리가 수련하여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천만년의 기다림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니 기연을 여기어서는 안 된다.

## 내가 직접 본 사부님

글/무한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8월 31일】 1993년 봄날, 사부님께서 무한에 오시어 법을 전하셨다. 당시 학습반은 중앙부급의 과학연구 단위의 레의당에서 진행되었다. 무한에서 처음으로 법을 전하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북경에서 온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흘간의 시간을 들여 사람들의 병을 봐주셨다. 이 사흘간에 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 특별히 사흘째 되는 날, 병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연속되었고 밤이 깊도록 많은 사람들이 떠가기를 아쉬워하였다. 각종의 질병을 지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특별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오랫동안 치료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사부님의 치료를 받고 당장에서 기적처럼 병이 나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중에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진실한 이야기가 있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반신불수로 5, 6년간 침대에 누워 생활을 자립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기공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감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왔다. 그녀를 사부님의 앞에 있는 의자까지 부축하여 갔는데 똑바로 서지도 못하였다. 사부님은 그녀를 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않으셨다. 조금 지나 사부님이 그녀더러 똑바로 서라고 하자 처음에는 감히 서지 못하였다. 사부님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재빨리 곧게 설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또 그녀더러 앞으로 걸으라고 하셨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여러 사람의 격려하에 끝내 첫발자국을 내디디고 뒤이어 아주 자신 있게 앞으로 걸었다.

하였다. 또 어떤 학원은 저녁에 사부님이 참장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사부님께서 의연히 그곳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한번 연마를 시작하면 온 밤을 지새웠다.

사부님께서 공을 가르치신 것은 승리공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는 기공의 형식으로 전파하셨다. 사람들에게 대법을 알리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부체를 청리하고 곱사등이를 곧게 펴주었으며 손이 가는 곳이면 병이 사라졌다. 당시 후산에는 연공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후에는 자리가 없어 또 정문과 뒷문에 연공장소를 개설하였다. 바로 이 뒷문을 사부님께서 《전법륜》중의 《육식 문제》에서 제기하셨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장춘(長春) 승리공원 후문을 지나고 있었다. 세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며 후문으로 나오면서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공을 연마(練)하기에 고기도 먹을 수 없는가? 10년을 적게 산다고 해도 나는 먹어야겠다!” 것처럼 강렬한 일종 욕망이다.》 사부님의 이 법을 읽노라면 마치 당년의 사부님의 모습을 보는 듯싶다.

승리공원의 동북방향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사부님이 전에 사업하시던 곳 — 장춘시 량유공급회사가 있다. 사부님과 같이 사업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사부님이 선량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고 언제나 웃기만 하는 인연이 아주 좋은 분임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어디가 불편하여 사부님을 찾으면 사부님은 언제나 말없이 신체를 바로잡아 주셨는데 모두 나왔다고 하였다. 해마다 설 명절이면 활동이 있었다. 사부님은 곧 부대 문공단의 전우들을 청하여 절목을 연출하고 자신은 트럼펫을 불었다. 사부님은 사업상, 생활상에서 실제행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보통 사람의 상태에 부합되게 수련하는 가를 보여주셨다. 사부님은 또 자신이 초기에 수련할 때의 일을 이야기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있는 일이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 직장의 식당은 늘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아침에 요리를 좀 해서 급하게 출근하려니 매우 힘들었다. 어떤 때는 찐빵 두 개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사서 간장을 쳤다. 이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간소[淸淡]한 것이므로 괜찮지 않은가? 늘 먹어도 안 되며 이 마음 역시 제거해야 한다. 당신이 두부를 막 보기만 해도 당신에게 신물이 돌게 하여, 다시 먹으려 해도 먹지 못하는데, 당신에게

수림을 남겨놓았다. 여기가 바로 그때 사부님이 공을 연마하던 곳이다. 7.20 이전, 장춘시의 만인 연공장면도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그 흥대한 장면, 장엄한 분위기, 상화롭고 자비로운 마당은 대법을 전시하였으며 수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법에 들어서도록 흡인하였다.

다시 북쪽으로 가면 장춘시 5 중인데 사부님의 제 1 기, 제 2 기 전수반이 바로 5 중의 계단 교실에서 열렸다. 1992 년 5 월 13 일, 제 1 기 학습반이 열릴 때는 사람이 180 명뿐이었다. 대법의 널리 전파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짧디 짧은 7 년 동안에 전국대륙에서는 1 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을 학습하고 공을 연마하게 되었고 짧디 짧은 14 년 동안에 80 여 개 나라와 지구에 전파되었으며 전세계에서 파룬궁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처음에 기공의 형식으로 법을 전수하셨다. 그이는 친히 학원들의 노궁혈과 천목을 열어주시고 파룬을 넣어주셨으며 신체를 청리하여 주셨다. 기억에 의하면 한 열 여섯 살 좌우 되어 보이는 처녀애가 있었는데 부체의 통제를 받아 큰 소리로 울어댔다. 기타 공을 연마하는 몇 명의 기공사들이 그녀의 머리 위를 두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부님이 강단에서 걸어 내려와 그녀의 머리 위를 세번 내리치자 그녀는 금시에 울음을 그쳤다. 그때 온 장내는 감탄의 소리로 웅성거렸으며 뒤이어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고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부님은 또 레의당의 네 귀퉁이에 기지를 설치하여 붉은 빛이 사방을 비추면서 상화로운 에네지 마당을 이루었다.

제 2 기 학습반이 결속된 후, 사부님은 구식인데다 형편없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장춘시를 한 바퀴 도시면서 장춘시의 공간마당을 청리 하셨다. 사부님은 학원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니 연공을 잘하라고 하였다.

승리공원 역시 사부님께서 초기에 연공을 하시던 곳이다. 사부님께서 겨울에 참장을 연마하였는데 동북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가! 사부님은 겉옷과 장갑을 벗어놓고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서 계셨다. 여름에는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 다른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그을 때에도 사부님만은 여전히 비를 무릅쓰고 연공을 견지하셨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찬탄하고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공이라고

후에 그녀더러 총계를 오르라고 하자 그녀는 감히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 《올라가시오. 괜찮으니.》라고 하셨다. 여러 사람의 고무 하에 그녀는 정말로 총계에 올랐다. 후에 그녀는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조금 지나 내가 레의당 밖에 나가보니 그녀 혼자서 마당에서 걷고 있었다.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 휴식하지 않는 가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걷고 싶었소. 집으로 돌아가서도 걷고 싶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걸어보지 못하였는데 정말 통과하오!》

또 한가지 일 역시 나는 종신토록 잊을 수가 없다:

당시 학습반은 한기에 열흘이었는데 사부님은 날마다 한 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 설법을 하시고는 연공동작을 가르치셨다.

학습반을 시작한 후의 어느 하루, 나이가 40 여세가량 돼 보이고 여위고 키 큰 남자가 학습반의 문표도 없이 기어이 들어오려고 하여 사업일군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문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권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들어 댔다. 《나는 바로 그(사부님을 가리킴)와 법술을 겨루러 왔소. 나의 사부는 백세가 넘었는데 그는 이렇게 젊단 말이요.》 그리고 또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부님은 사업일군더러 그 사람을 들여보내게 하였다. 사부님의 강의가 끝나자 그는 아주 조용하게 물러갔다. 그는 또 특별히 사업일군을 찾아 말하였다. 《나는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않을 겁니다. 이분 이야말로 진정한 사부님이십니다.》

매번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었던 그 행복한 나날을 회상할 때마다 사부님에 대한 심심한 숭경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친히 경력한 하나하나의 기적 같은 사실들은 나로 하여금 사부님의 위대함과 자비로운 구도를 심심히 느끼게 하여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신념을 더욱 견정하게 하였다.

##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

글/연변대법제자

【명혜망 2004 년 2 월 14 일】 나는 99 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던 초기에 널리 알려진 한가지 일이 나의

수련에 준 영향이 아주 크며 나더러 언제나 잊을 수 없게 한다. 사실의 경과는 이러하다. 당시 사부님께서 연길에서의 설법을 끝내시고 연길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 몇 명의 보도소 소장들이 사부님을 환송하였는데 사부님은 소장들과 함께 한대의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가셨다. 역에 이른 후, 한 소장이 택시비를 물려고 하자 사부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기어이 자신이 돈을 내셨다. 여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부님은 내가 연변에서의 일은 이미 모두 끝났고 각종 비용에 대한 결산도 이미 깨끗이 끝났기에 경제상에서 나는 당신들과 이미 아무런 관계도 없다. 택시비는 나 자신이 내야하며 나는 학원의 돈을 일전도 쓸 수 없다고 하셨다.

이 사실이 학원들에게 준 영향은 아주 컸으며 또한 널리 전해졌다. 나는 늘 학습소조나 기타 각종 적당한 장소에서 학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시에 매사에서 아주 조심하면서 사부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제자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부님이 중국에서 법을 전하실 때 다녀간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사부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는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이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모두 써내어 책으로 만들어 유전되는 가운데 손실이 없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글을 썼으니 만일 부족한 곳이 있으면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 진귀한 추억 - 남경

글/남경대법제자

【명혜망 2003년 1월 6일】 나는 강소성 남경 대법제자로서 1996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사부님은 남경에서 학습반을 꾸린 적이 없기에 (그 원인은 듣건대 남경기공부문의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사부님께서 학원들의 학비를 높일 의향이 없었으므로 사부님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경의 제자들은 줄곧 사부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법을 얻은지 얼마 안되어 강소의 한 T 공정사가 출국을 할 때 연분이 있어 비행기에서 사부님을 만났다. 그가 돌아와서 남경의

사부님께서는 긴 탄식을 하시고 나서 한번 부르는 사이에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십여 년이 지나갔다고 하셨다. 그 후부터 따님은 다시는 아버지를 방해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노학원들은 모두 사부님이 무엇을 하시는 지 알고 있었기에 《파룬따파의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이번에 돌아와서 허다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함을 수련생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 되도록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려도 나를 몹시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다한 수련생들은 전화조차 걸지 않았는데, 나는 이 점을 알고 있다.》

바깥방의 벽에는 사부님이 친히 그린 불상이 걸려있었다. 두 존의 녀 불상, 한 폭의 아미타불, 도인 한 분과 손오공의 화상이었는데 장엄하고 신성하였다. 사부님은 크레용으로 그리셨는데 아주 섬세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그 중 아미타불, 도와 한 존의 녀 불상은 바로 《홍음》 중의 삽화에 있다.

기억하건대 당년에 사부님께서 북경 동방건강박람회에 참가하셨을 때, 이 주택건물에 불이 났었다. 사후에 사부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 하셨다. 당시 어떤 사람이 사부님의 집에 불이 붙었다고 알려드리자 사부님은 오른손을 들어 머리 뒤로 가져가며 아주 멋진 동작을 하셨다. 그리고는 《붙으려면 붙으라지!》라고 하시고는 이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결과 불을 끈 후에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을 수습하다 보니 사부님의 집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이 집은 부처를 수련하는 집이고 집에 불상을 모시고 있어 부처가 보호했다고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낡은 세력이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움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치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와 다투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가 좋지 않은 것을 보내면 나는 곧 청리(淸理)해 버렸고 청리가 끝나면 나는 바로 나의 법을 전했다.》

사부님의 집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 문화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의 지질궁이고 장춘시에서 제일 큰 공중집회장소이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기 전에 바로 이 곳에서 연공을 하셨다. 사부님은 연공 복을 입고 이 곳에서 정공을 연마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문화광장을 새롭게 수건 할 때, 원래는 전부 밀어서 평지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후에 동남, 서남쪽 귀퉁이의

학원들을 돌아보셨지만 당시 누구도 감촉하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시 구역의 석화, 화신, 화광, 건행, 룡원, 야금국 등 몇 개 연공 장소에서 동시에 몇 사람이 그들의 연공하는 장면을 돌아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모두 보도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때 한 학원은 누군가가 곁에서 자신이 연공하는 것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쩐지 사부님 같았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 사부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정말로 사부님께서 오셨던 것이다.

사부님이시여! 금주의 제자들은 영원히 당신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당신의 자비로운 구도를 저버리지 않고 세가지 일을 잘하여 원만을 이루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사부님이 장춘에서 법을 전하실 때를 회상

글/장춘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5월 13일】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신지도 어언간 14주년이 되는 시각에 장춘의 대법제자들은 당년에 사부님이 고향에서 법을 전하시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부님이 설법하실 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회상하였는데 감개가 무량하였다.

사부님의 댁은 건설가와 해방대로 교차로의 서북방향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낡아빠진 구식 주택이었고 사부님의 댁은 4층이었다. 남향으로 된 그 두 칸짜리 집은 다만 20여 평방에 불과하였다. 안방에는 침대 하나와 옷 껌 하나가 있었고 바깥방에는 책상 하나와 긴 소파 하나, 책계 하나가 있고 책계 위에는 향로가 있었으며 향로에는 찻가루가 절반쯤 담겨 있었다. 바로 이 간소한 작은 방에서 사부님은 《파룬궁》, 《파룬궁(수정본)》, 《전법륜》, 《전법륜(권 2)》, 《파룬따파의해》 등 몇 권의 대법저작을 완성하셨다. 바로 이 작디작은 방에서 사부님께서 우주중의 정법을 교란하는 마들을 청리 하였으며 한번 앉으시면 십여일 씩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길게 자란 수영도 깎을 시간이 없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일곱 날, 일곱 밤을 식사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으셨다. 따님은 가슴이 아파 아버지께 식사를 권하였다.

대법제자들에게 사부님을 만나 빈 경과를 소개하였는데 오늘 그때의 회상을 되살려 이 글을 써냄으로써 여러분들과 그 행복했던 감수를 다시 되새겨 보려 한다.

법회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보도원이었다. 나는 연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법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역시 사부님의 자비로운 배치였다. 법회는 남경 강녕현 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사람의 얼굴에는 희열과 상화함이 내비쳐 있었다. 나는 마치 일종 미묘한 에네지 마당에 휩싸인 듯싶었으며 앞이마(천목)부위가 조여들며 살이 한데로 모여 안으로 뚫고 들어감을 느꼈다.

공정사가 법회에 나와 사부님을 만나 빈 경과를 이야기 하였다:

나는 한 과학기술고찰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리 선생님을 만났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갈 때도 리 선생님은 우리와 한 비행기에 올랐지만 사부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귀국할 때, 내가 비행기에 오른 지 얼마 안되어 몸집이 웅장한 중년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이분께서는 리 선생님이 아니신가?

나는 종래로 리 선생님을 만난적이 없고 아직 대법 수련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의 아내와 아이는 모두 대법제자이다. 그들이 설법비디오를 볼 때면 번마다 내가 녹상기를 켜주고 테이프를 넣어주는데 그때 화면으로 리 선생님을 보았기에 인상이 아주 깊었다.

나는 비록 대법을 수련하지는 않지만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매우 숭경하였다. 나는 오늘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갔다. 《물어봅시다. 당신이 리 선생님이지요?》 리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그이가 자리를 잡은 뒤 나는 곁에 가서 앉고 싶었다. 그러나 사부님을 배동한 학원은 사부님이 지쳤기에 휴식해야 한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나의 심정을 아신 사부님께서 그 학원에게 돌이 잠시 자리를 바꾸어 나를 자신의 신변에 앉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는 행운스럽게 선생님의 신변에 앉게 되었다. 선생님과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도 아무 말없이 신문 한 장을 보시면서 다른 한 장을 나에게 넘겨주며 보라고 하셨다. 나는 감히 당돌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신문은 들고

있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일심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모순된 심정으로 반시간 남짓이 앉아있었을 것이다. 나는 결심을 내리고 말을 꺼냈다.

《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전하시는 파룬궁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주 숭경합니다.》 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실 뿐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또 말하였다. 《저도 파룬궁을 배우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파룬을 넣어주십시오.》

나의 요구를 듣고 나서 리 선생님은 마치도 세상 모르는 아이를 보듯이 나를 보며 웃으셨다. 연후에 그이는 《책을 읽어야 하오, 책을 많이 읽어야 하오.》 라고 하셨다. 나는 대뜸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나의 요구가 매우 유치했음을 깨달았다.

그 후, 그 학원의 재상 되는 요구 하에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러나 조금 앉아있으려니 마음은 의연히 달갑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 한번 리 선생님의 곁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리고 그 학원에게 쫓기었다.

세 번째로 나는 또 건너가 앉았는데 이번에는 리 선생님이 학원을 시켜 나를 부른 것이었다. 리 선생님께서는 나더러 창 밖을 보라고 하셨다. 나는 홀연 비행기 날개 아래쪽에 오색영롱한 큰 광환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아름답고 장관이었다. 선생님은 《저것이 바로 나의 진신(真身)이오.》 라고 하셨다.

비행기가 곧 수도 비행장에 착륙하게 되었다. 리 선생님은 북경에서 내리고 나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가야 했다. 작별인사를 나누며 나는 리 선생님께 말씀을 올렸다. 《남경의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남경으로 오시어 설법하시기를 배우고대합니다.》 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연을 봐야 하오. 올해의 시간은 이미 다 정해졌소.》 나는 또 《리 선생님께서 남경의 대법제자들에 대한 희망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 하였다. 리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오. 책을 더 많이, 더 많이 읽어야 하오.》 하고 말씀하셨다.

전반 법회중에서 나는 마치도 봄바람에 싸여 있는 듯싶었다. T 공정사가 사부님을 만난 경과를 이야기 할 때 나는 때때로 에네지가 체내에 주입되는 감을 느꼈으며 내장이 심분 상쾌함을 느꼈다. 이때로부터 남경의 제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법 학습을 많이 하는 열조를 일으켰다.

하늘의 고생에 마음을 쓸 대로 쓰셨다!》(《홍음 .높은 곳은 춤기 마련》)

설법이 끝나기 전날, 학원들이 사부님과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자 사부님께서서는 여러 사람의 요청에 승낙하였다. 그러나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고 서로 사부님을 붙잡고 놀지 않았다. 사부님은 아주 화애롭고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였다. 그 여승도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 그녀가 당시에 입은 옷은 평복이었는데 승려 복을 바꿔 입고 다시 찍으려 하였다. 사부님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승려 복을 다 입고 가방에서 승려모자를 꺼내어 머리에 올려놓자 마자 갑자기 한 가닥 돌개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하늘 공중으로 종적 없이 날려보냈다. 여승은 망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일심으로 대법을 수련하여 사부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대뜸 깨달았다.

4월 12일 저녁, 설법반이 결속되었다. 사부님은 저녁 차를 타고 북경을 지나 함비로 가야 했다. 그것은 15 일날 그곳에서 설법반을 꾸리기 때문이었다. 기억하건대 그날 강의를 시작하기 전 사부님과 사업일군들은 수시로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세대의 삼륜 인력거에 싣고 회의장으로 가져왔다. 저녁에 학원들은 사부님을 기차역까지 환송하였다. 열차 칸에서 한 학원이 사부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남겨줄 말씀이 없으신지요?》 하고 묻자 사부님은 《수련을 잘 하시오.》 라고 말씀하였다. 당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너무나도 평범하게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씀에는 사부님이 금주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부님은 금주에서 설법을 하신 후에도 의연히 늘 금주 학원들의 수련정황에 대하여 관심하셨다. 1996 년 사부님께서 금주에 오시어 법을 전한지 2 주년이 되는 심득 교류회 이후, 시 보도소에서는 자료와 녹화 테이프를 사부님께 보내드렸다. 사부님께서서는 자료를 보신 후, 《더욱 잘해야 합니다》 라는 평어를 쓰시어 우리를 격려하셨다. 1998 년 6 월 28 일, 사부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의현의 대불사로 오셨다. 사원의 문지기가 사부님을 알아보고 학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일부 학원들은 그때 행운스럽게도 밤낮으로 그리던 사부님을 만나보았으며 그들의 수련중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었다. 1998 년 12 월 30 일 저녁, 사부님은 연구회의 몇 명 학원들과 함께 금주에 오시어 각 연공장소의

손을 합장하여 부처들과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시고 사부님도 한 손을 입장하셨다. 이때 학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처에 대한 숭경심이 솟아났고 장엄함과 신성함을 깊이 느꼈다. 후에 대불사에는 연공장소가 성립되었다. 학원들은 아침에 연공할 때 절에 있는 부처들이 다른 공간에서 학원들과 함께 연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시는 기간에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서 모두 우리에게 아주 바른 형상을 남겨 주셨다. 당시 기공연구회에서는 사부님께 회의장으로 모시는 차를 안배하였다. 사부님은 《당신들은 이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보증코 제시간에 도착할 것이요.》고 하셨다. 4월 5일 설법을 시작한 후, 사부님께서 날마다 도보로 오시고 또 도보로 가시었다. 그러나 학원들이 길에서 사부님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모두 극장 문어귀에서 사부님을 만나곤 하였다.

사부님께서 의식주에 아주 검박하셨다. 몸에 걸친 짚은 남색 양복은 소매가 닳아서 허옇게 보풀이 일었다. 속에는 낡은 양털 셔츠를 입으시고 발에 신은 가죽구두도 낡은 것이었지만 모두 아주 정결하였다. 초대소에서 학원들은 사부님이 드시는 것이 만두나 죽 혹은 라면인 것을 보았으며 때로는 시장에서 오이 같은 채소를 사오셨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학원들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여러 사람의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0일의 강의를 8일에 끝마쳤다. 그 중 이들은 사부님이 하루에 두 차례 강의를 해야만 했다.

기억하건대 학습반을 첫 시작했을 때, 학원들은 살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하루는 사부님이 일부 학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학원이 갯가재를 잡아 사부님의 접시에 놓아드렸다. 사부님께서 잡숫지 않는다고 하시며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 본 지방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 먹고 연공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들이 와서 당신들을 고발까지 하였소! 그들은 자신이 못생겼다고 한탄하기에 나는 그들을 물고기로 전생시켰소.》 우리의 수련을 위하여 사부님은 얼마나 많은 생생세세의 업력을 제거해주셨으며 총총의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풀어주셨는지 모른다. 설법을 하시는 중에도 다른 공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살해된 생명을 선택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부님은 참으로 《인간의 일에 속 태울 만큼 태우고

## 사존께서 중경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중경 노대법제자

나는 금년에 57 세이며 93 년도에 대법을 얻었다. 나는 사존께서 처음으로 중경에서 꾸린 학습반에 참가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사부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격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몇 십년을 찾아 헤매던 현명한 사부님을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사존께서는 나의 경제상황이 곤란한 것을 아시고는 당장에서 학비의 절반 값 25 원을 돌려주었다. 내가 받지 않으려 하자 사존께서는 기어이 받으라고 하셨다. 나는 급한 나머지 울면서 《리 선생님, 저는 당신의 강의를 들었으니 응당 학비를 내야 합니다. 당신이 저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부님은 자비롭고 장엄하게 강단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제자이다!》 부처의 신성한 음성은 총총의 공간을 꿰뚫고 울려 퍼졌다. 나는 이것이 흉대한 자비임을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오른 손을 한번 저으시자 온 장내는 어디라 없이 눈꽃 같은 파룬으로 꽉 찼다. 회의장에는 삼시간에 우리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93 년과 94 년도에 사존께서는 두 차례 중경에 오시어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셨다. 그이는 매번 가격이 저렴한 여관에 주숙하셨는데 여관인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사부님께 여쭙었다.

《리 선생님, 당신은 명성이 높은 기공계의 명인입니다. 그러니 응당 고급 호텔에 들어가 할 텐데 왜 이토록 보잘것없는 곳에 투숙을 정하십니까?》 사부님께서 빙그레 웃으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부님께서 식사도 아주 간단하셨는데 종래로 물고기나 육류 같은 것을 들지 않으셨다. 중경사람들은 고추를 즐겨 먹어 국수, 국, 채를 막론하고 모두 고추를 넣는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점심에 밀국수를 드셨는데 음식점 주인은 사부님이 북방사람이기에 고추를 즐기지 않음을 모르고 국수에다 고추를 듬뿍 넣었다. 사부님은 매워서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었지만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국수를 다 드시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밥공기에 있는 벼알을 버리지 않으시고 껍질을 발라 드시었다. 당시 많은 학원들은 사존께서 한 알의 양식도 낭비하지 않으심을 보고 다시는 남은 밥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 사존께서 치치하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명혜망 2004년 11월 29일】 199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존께서는 치치하얼에 오시어 설법학습반을 꾸리셨다. 나는 기쁘게도 이 학습반에 참가하는 행운을 가졌다. 학습반을 꾸리는 과정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써내어 동수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

학습반에서 사부님을 만난 뒤, 나의 심정은 특별히 격동되었다. 비록 이전에 기공을 접촉한 적이 없지만 사부님을 만나고 나서 꼭 이 공법을 배우리라 결심하였다. 당시의 심정을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학습반에 참가한 뒤에야 우리는 중국 기공 과학연구회가 치치하얼에서 한차례 보고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파룬궁이 좋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사부님을 요청했음을 알았다. 이 기간에 사부님은 금방 학습반을 끝마치고 원래는 장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휴식시간을 포기하시고 치치하얼에 오셨다. 사부님께서 강의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치치하얼은 원래의 일정에 안배가 없었고 임시로 결정하고 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곧 북경에서 학습반을 꾸리는데 북경 학습반의 일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치치하얼시의 이번 기는 일곱 날밖에 할 수 없고 이 이상 줄일 수는 없다고 하셨다. 사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치치하얼에 오기 전에 많은 파룬을 내보내어 연분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은 모두 연분이 있어 여기로 왔기에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첫날의 강의를 끝난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우산이 없어 문 어귀에 모여 서서 비를 피했는데 장면이 좀 어수선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걸어 나오시자 모두들 조용해졌다. 사부님께서 얼굴에 웃음을 지으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비가 곧 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시름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와 동시에 비는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멎었다.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면서 사부님께 말씀을 드렸다. 《모두 관계하지 않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사부님은 자비롭게 그녀를 바라보시며 몸 뒤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석가모니, 관음보살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여승은 홀연 깨달았다. 원래 하늘의 신불들이 모두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도하려 오셨던 것이다. 그녀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 자신이 인연이 있어 불법을 듣게 된 것을 행운으로 느꼈으며 이때로부터 대법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4월 7일, 사부님께서 몇 명의 학원들과 함께 금주의 필가산(筆架山)에 오르셨다. 때는 한창 조수가 밀려들 때라 풍랑이 세차게 일었다. 차에서 내린 뒤, 사부님께서 바다가에 서서 필가산으로 통하는 구름다리를 바라보시며 이것은 한 마리 용인데 용두는 해안에 있고 해안의 이 우물이 바로 용의 눈이며 용의 꼬리는 바다에 있고 구름다리는 용의 척추라고 말씀하셨다. 사부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배가 해면에서 항행할 때 배의 양쪽에서는 파도가 세차에 일면서 물보라를 일으켜 수시로 배위에 물방울을 튀겼다. 그러나 배의 전방은 오히려 호수처럼 잔잔한 통로가 나타났다.

천목이 열린 학원이 본데 의하면 배 양쪽의 물보라 속에는 수많은 작은 용들이 뛰놀고 있었고 어떤 용은 사부님의 옷깃을 물고 있었다. 해면에는 또 여덟 신선과 여러 신불이 있었다고 한다. 산에 오르는 도중, 사부님께서 한편으로 걸으시면서 한편으로 청리를 하셨다. 산에 오른 후, 학원들은 《삼청각》중의 신상(神像)과 각지의 신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부님께서 이 신상은 바다의 신인데 원시신에 속한다고 하셨다.

4월 9일, 사부님과 몇 명의 학원들은 또 의현 대불사로 갔다. 사부님께서 그 곳의 일곱 불상을 보시면서 이곳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바르다고 하셨다. 한 학원은 이 몇몇 부처가 사부님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은 대불사에서 한 해설원에게 일부 불법수련의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녀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고 또 파룬마크를 보여주었다. 당시 이 해설원은 사부님의 손바닥에서 돌고 있는 파룬을 보고 깨달는 바가 있어 금주로 와서 이틀 동안 전수반에 참가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수련을 시작하였다. 사부님이 대불사를 떠나실 때 학원들더러 두

과연 이튿날, 강의를 들으려고 표를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별수없이 8.1 극장과 연계를 취하자 그 극장의 책임자는 순순히 동의하였다.

후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수많은 일들은 모두 사부님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만 표면의 것을 할 뿐이다. 사부님은 금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학습반을 꾸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금주의 공간을 모두 청리 하셨다. 어떤 학원은 다른 공간의 금주가 업력으로 가득 차 더럽기 그지 없었는데 사부님이 학습반을 꾸린 후, 금주의 다른 공간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

금주의 설법반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700 여명이었고 그 중 타지방 사람이 200 여명이었다. 사부님께서 설법하시는 첫날, 천목이 열린 한 학원은 다른 공간에서 층층의 불도신들이 모두 법을 듣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는 선녀가 꽃을 뿌리고 사부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다른 공간에서 무엇이 나타났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손을 저을 때마다 무수한 파문을 내보내어 눈꽃마냥 학원들의 몸에 내려앉았다. 회의장에 걸어놓은 파문도형은 자동적으로 돌고 있었는데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사부님이 다음 날 설법을 하실 때, 갑자기 밖에서 40 여세에 나는 주정뱅이가 떠들썩하며 회의장으로 뛰어들었다. 문지기는 당해내지 못하여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 학원이 그를 막아 나서자 사부님께서 그녀에게 《류 아주머니, 그 사람을 내보내시오.》라고 하시면서 손으로 문어귀를 가리키셨다. 어떤 학원은 사부님의 손이 한줄기 빛을 내보내는 것을 보았고 그 주정뱅이는 대뜸 학원에게 밀리어 나갔다. 사후에 사부님은 이 주정뱅이는 한 미친 종의 통제를 받고 법을 전하는 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금주기공연구회의 사람이 있었는데 설법반에서 그의 무슨 침구모형을 팔면서 학원들에게 대법을 저촉하는 언론을 산포하였다. 당시 사부님께서 이미 설법을 마치고 강단을 떠나셨다가 다시 몸을 돌리어 마이크에 대고 《당신이 강의를 듣고 싶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시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해롭습니다.》라고 하셨다. 이 사람은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 《자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먼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루는 사부님의 강의도중 흥성시에서 온 여승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부님이 전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임을 알았던 것이다. 사부님께서 우주중의 신들이 모두

이때 한 학원이 사부님을 주숙처에 모셔다 드리려고 택시를 불렀다. 그러자 사부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그 학원에게 말하였다. 《어려워하지 마오.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마오.》 그리고는 홀로 주숙처로 걸어가셨다.

일곱 날의 설법 학습반은 빨리도 끝났다. 북경의 학습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사부님은 밤 도와 북경으로 다녀가야 했다. 학원들은 자발적으로 기차역에 가서 사부님을 배웅하였다. 나와 한 동수가 사부님을 만났을 때 사부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비까지 내리는데 왜 나왔소?》 그러시면서 손을 내밀어 우리와 악수를 청하셨다. 우리는 몹시 감동되었다. 사실 우리는 제자로서 사부님과 악수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어서 사부님은 신변의 제자에게 역의 입장권을 사도록 하였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은 경찰체복을 입었기에 공작증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플랫폼을 나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부님께서 신변의 제자를 시켜 역의 입장권을 사도록 하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이 받는 학비가 가장 저렴하며 또 전국각지에서 법을 전하시느라 지출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또 돈을 내어 우리에게 표를 사주시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수련인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깊이 느꼈다. 어떻게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를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 당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네들은 아직 젊으니 꼭 수련을 잘해야 하오. 지금은 아직 대법의 진귀함을 모르지만 이제 이삼 년 후이면 꼭 알게 될 것이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다. 이때에야 우리는 사부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신변에 많은 대법서적을 지니고 다니심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사부님과 신변의 제자들이 등짐으로 전국각지에 날랐다. 자료가 들어있는 배낭은 우리 젊은 제자들이 메기에도 힘에 부치는데 사부님께서 신변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일년 내내 이런 자료들을 메고 전국각지로 다니며 법을 전수하셨다. 그 중 차에서의 부대끼고 고생스러움은 가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열차는 서서히 역을 떠났다. 사부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손을 흔드셨다. 멀어져 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오래도록

평정할 수 없었다……

## 행운스럽게 사부님의 설법 반에 참가했던 때를 회상

93년 7월 16일, 나는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이 치치하르시 전업 문화공에서 꾸린 설법반에 참가하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파룬불법수련의 행렬에 들어섰다. 사부님의 학습반전의 보고회를 듣고서야 다년간 기공을 연마한 것이 오늘날 대법의 수련에 들어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시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졌다. 모두들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학습반을 꾸린 닷 새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부님은 그때 20대의 젊은이 같아 보였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자비로웠으며 존경스러웠다. 학습기간에 나는 줄곧 맨 앞줄에 앉았다. 관통양극법(贯通两极法)을 연마할 때 나의 동작이 뻗뻗한 것을 보시고 사부님께서 친히 강단에서 내려오시어 손수 나의 손을 잡고 공법을 가르치셨다. 그때는 다만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너무나도 행운스럽게 느껴진다.

학습반이 막 결속될 무렵,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심득체험을 썼다. 나는 자신이 이번 학습반에서의 수확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로 불가사의한 것은 내가 학습반에 참가하기 이틀 전, 집에서 다른 공법을 연마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파룬을 보았다. 나중에 학습반이 결속될 무렵, 사부님의 문답해답을 듣고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원래 사부님께서 치치할시로 오시는 길에서 많은 파룬을 내보내시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학습반에 참가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여러 가지 기공 학습반에 참가하였지만 아무것도 배워내지 못하였고 돈만 적지 않게 팔았다. 파룬공의 학습반은 시간이 긴데 비해 비용은 오히려 가장 저렴했다. 나는 내심으로부터 이 선생님은 대법을 전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회의장 밖의 복도에서 사부님을 만나 두 손으로 공경스럽게 심득체험을 바쳤다. 7월 하순의 날씨는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물처럼 흘러내린다. 동북의 여름은 건조하면서도 무더운데 우리의 사부님은 언제나 자신의 주숙처에서 생수 한 병을 들고 오셨다. 그이는 그토록

영구를 지날 때 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때는 이미 점심시간에 가까웠으므로 그들은 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준비를 하였다.

밖을 내다보니 먹장구름이 뒤덮이고 큰 비가 당장 쏟아질 것 같았다. 사부님께서 밖의 날씨를 보시더니 하늘을 향하여 몇 개의 수인을 하셨다. 운전기사는 의혹에 차서 (이 손시늬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생각했다. 사부님은 《모모바다의 용왕이 지금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 비는 아마도 내려야 할 것 같소.》 하셨다. 운전기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이 비를 내리려 하는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관계한단 말인가? 나는 술한 기공사들을 보았는데 모두 큰 소리를 칠 뿐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니 하늘에서는 의연히 우리소리가 우릉우릉 거렸다. 사부님은 《비가 내리면 차 운전이 불편할 텐데 이미 내리기로 결정된 비라서 만일 기어이 내리려 한다면 차 뒤에서 내리도록 하지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갑시다.》 라고 하셨다.

운전기사는 온 얼굴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과연 차 뒤 면에서는 우리가 울고 번개가 치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만 차 앞은 맑게 개인 하늘이었다. 그제야 운전수는 마음속으로 그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차가 금주에 이르러 먼저 연구회와 연계를 가져야 했으나 누구도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사부님이 손바닥에 방향을 그어 운전기사에게 보여주자 얼마 안되어 기공연구회와 사부님의 주숙을 안내한 곳을 찾았다. 차가 초대소에 막 이르렀을 때 북경 대법학회의 몇 명의 노학원들이 이미 길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부님과 함께 온 대련의 노학원은 이상하여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부님께서 오신 줄을 알았습니까?》 그 중 한 노학원이 말하였다. 우리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모두들 내려오시오!》 하는 사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와 곧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대련의 노학원은 《원래 당신들은 사부님과 이렇게 소통하는군요!》 라고 하였다.

설법장소를 원래 8.1 극장에 예약하였으나 기공연구회와 이 극장의 책임자가 다른 일로 오해가 생겨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동의하지 않을 가봐 4,5 백 명만 용납할 수 있는 전업국 구락부에 안내하였다. 사부님께서 오시기 전날 저녁, 이 일을 책임진 학원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부님이 회의장이 너무 작다고 점화하셨다.

성립하였으며 연공인은 갈수록 많아졌다. 한동안 연마한 후, 나의 현기증과 기타 병들은 연이어 사라졌다. 참으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걸어도 바람이 일었으며 자전거를 타면 누군가 밀어주는 듯싶었고 층계를 올라도 힘들지 않았다. 6개월 후, 어머니는 정말 약을 먹지 않는가고 물었다. 내가 《병이 없는데 누가 약을 먹어요》하고 대답하자 어머니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85 세인데 연공 후에 모든 병들이 다 사라졌으며 안경을 걸지 않고 바느질을 한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모두 신기하다고 말한다.

이 몇 해 동안의 비바람과 마난 중에서, 그리고 고통스럽게 관을 넘는 중에서 매번 제고를 가져올 때마다 모두 스승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점화 중에서 걸어온 것이다. 사부님께서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이 매우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연분이다.》 (《전법륜》)고 말씀하셨다. 나는 만고에도 만나기 어려운 이 기연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세가지 일을 잘하여 최후일수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금주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월 16일】 1994년 4월 5일은 료녕성 금주시 대법제자들이 종신토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날이다. 바로 이날 위대한 사부님께서 금주시에 오셔서 법을 전수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의 4월 5일을 금주시의 파룬따파일로 정하였다. 오늘까지 12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빛나는 형상과 신적들은 오늘까지도 기억에 새로우며 감개가 무량하다.

1994년 1월, 사부님은 천진에서 법을 전하고 계셨다. 당시 전수반에 참가했던 학원이 금주시 기공연구회의 소개신을 가지고 사부님께서 금주시에 오시어 전수반을 꾸릴 것을 요청하였다. 사부님의 한 해의 학습반 일정계획은 이미 끝났지만 시간을 짜내어 한기의 학습반을 안배할 것을 승낙하셨다. 4월 4일, 사부님은 대련 제 1기 설법학습반이 끝나자 마자 다그쳐 금주로 오셨다. 차가

존경스러운 분이시며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또 평범하게만 보였다.

학습반이 결속되던 날, 이미 저녁 여덟 시 반이 넘었지만 학원들은 모두 떠나기 아쉬워 사부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사인을 해달라고 졸랐다. 대문 어귀까지 따라가보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부님께서 문어귀의 처마 밑에서 희미한 불빛을 빌어 학원들에게 사인을 해주셨다. 사람이 너무 많았으므로 수행하는 학원이 소리쳤다. 《사부님께서 일이 급하시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켜주십시오.》 우리는 밖에는 이미 소형버스가 사부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7월 25일이면 북경의 공안례의당에서 2천 여명이 참가하는 설법 반을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매번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으며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고 사람을 구도하는 일의 힘겨움을 심심히 느끼게 된다. 만일 오늘 우리가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가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부님께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 청백함은 인간세상에 남아있다

글/동부대법제자 원로 동수정리

【명혜망 2004년 8월 3일】

(1)

1992년 봄날, 중국의 북방에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신기한 기공—파룬궁이 출현하였다. 파룬궁은 하나의 눈부신 진주마냥 그 밝은 빛으로 연공인의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내고 등대마냥 수련의 길을 밝혀주었다. 파룬궁을 널리 전파하고 더욱 많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창시인 리홍지 사부님은 고향을 멀리 떠나 북경, 산둥, 태원 등 지역에 이르러 학습반을 열고 공법을 전수하셨다.

배우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으나 당시 아직 정식으로 출판한 책이 없었다. 사부님께서 이미 원고를 작성하였지만 판권번호를 살 돈이 없었다. 그리하여 8천원을 빌려서 판권번호를 산 다음 《중국파룬궁》을 출판하여 처음으로 각지 서점에서 발행하였다. 연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사지 못하면 사부님은 무료로 증정하셨다. 책을 다 팔고 증정하고 나니 판권번호 값도 모자랐다.

법을 전하는 초기는 아주 간고하여 가장 낮은 표준이나 학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소를 빌리는데 돈이 들었고 주체 기관단위에서 수속비를 받았으며 각종 비용과 지출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나 사부님께서서는 한 푼도 다치지 않으시고 각 보도소의 전문인원이 보관하도록 하셨다. 이 돈의 용도에 대하여 사부님께서서는 명확히 밝히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파룬궁 학원들의 공헌이고 파룬궁에 대한 지지로서 오직 파룬궁의 건설에만 쓸 수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사부님의 따님이 학교를 다니며 돈이 급히 수요될 때, 때마침 월말이라 집에는 돈이 없었다. 사모님은 사부님께서 돈 5 원을 꾸셨는데 사모님이 월급을 타자 그 5 원을 돌려 받았다. 그러시면서 《대법의 돈은 오직 대법에만 쓸 수 있다》고 하셨다.

사부님의 생활은 아주 검박하셨는데 집은 아주 간소한 층집이고 겨울에는 스팀도 없었다. 집에는 다만 텔레비전 한대가 있었고 가구는 모두 80 년대의 양식이였다. 사부님은 따님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했는데 달마다 따님에게 100 원의 생활비를 주셨다. 그 중에는 학교에 다니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한 여름방학에 사모님은 따님을 데리고 북경으로 가서 사부님과 만났다. 사부님께서서는 따님에게 한 쌍에 2 원씩 하는 신을 사주셨다. 사부님의 생활수준은 장춘에서도 가장 낮은 표준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나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94 년 말, 국내에서의 학습반이 결속되고 95 년 초부터 국외에서 법과 공을 전하시며 중생을 구도하셨다. 대법의 흥대한 전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80 여 개 나라와 지구의 인민들이 법을 얻고 유익을 보도록 하였다.

1995 년 초여름, 사부님께서서는 국내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남은 돈을 전부 꺼내어 설법 녹화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각지의 보도소에 증여 하셨다. 한 조에 다섯 개의 테이프로 모두 900 분이였다. 당시 전국에는 보도 소가 몇 천 개 있었는데 바로 이 녹화테이프로 파룬궁을 전파하였다. 몇 년 후에는 역에 달하는 사람들이 법을 얻고 효과를 보았으며 신심이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되었고 정신문명, 사상소질이 신속하게 제고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나라와 인민, 인류를 위하여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무량한 공덕을 쌓으셨으며 공덕이 무량하시다.

정한 시간에 회의장에 도착하였다. 온 장내는 전체가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로 스승님을 환영하였다.

스승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회의장은 물 뿌린 듯 조용하였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의 좌석은 곧 바로 사부님을 마주하고 있었다. 스승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면에 앉은 분들은 득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몸을 돌리셔서 《뒤쪽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좀 더 높여겠습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럴듯 주의 깊게 들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아주 달콤하게 잤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또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강의를 끝내면 그도 잠을 깬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머리에 병이 있어 그에게 조정(調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조정하면, 그는 전혀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마취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의 병을 제거해주는 법을 이야기 할 때 사부님께서서는 《이것은 보고회인 만큼 한가지 병은 제거해 줄 수 있는데 경한 병은 당장에서 나올 수 있고 중한 병도 돌아가서 연공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10 일의 강습반에서 온몸이 모두 정화되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 자신이 병이 없으면 가족의 친인의 병을 생각해도 된다》고 하셨다.

당시 나는 아직 사부님을 존경할 줄을 몰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많은 병중에서 한 가지만 떼어주고 중한 병은 당장에서 나올 수도 없다니)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승님께서 손을 저으시자 여러 사람들은 발을 굴렀다. 나는 그때 현기증을 생각하였다. 이때 본래 청량하던 대청에 불시에 보얀 안개가 끼였으며 마치도 먼지가 이는 것 같기도 하고 쌀알만한 눈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사부님이 손을 젓자 마이크 상공으로부터 하나의 은색 나는 능형모양의 전기 불꽃처럼 눈부신 물체가 날아 내렸다. 나는 그때 합선이 된 줄로만 알았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당신이 사상 중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른 공간에서 나의 법신(法身)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 두 개 시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보면 당신의 사유구성은 하나의 극히 느린 과정이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부정확(不正確)한 사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전법륜》)

대련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아주 빨리 연공장소를

기공협회에 바친 학비만 35 원이었고 기공협회에서 학습반을 꾸린 비용과 수입을 제하고 나면 사부님과 사업일군들에게 남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나는 사부님께서 대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전혀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3 월 11 일 오후 여덟 시 이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사존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영원하고 진귀한 기념을 남겼다.

이렇듯 보기에 평범한 작은 일들 속에는 모두 사부님의 자비가 숨배어 있으며 사부님의 위대함이 돋보인다. 나는 사부님의 제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 사부님의 대련 보고회에 참가했던 몇가지 기억

【명혜망 2006년 4월 26일】 명혜주간 218기의 《위대한 스승님께서 인간세상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기록하자》는 문장을 읽고 나는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정법은 만고에도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스승님의 무량한 자비와 위덕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층층의 천체를 진감하였으며 우주의 각개 공간을 갱신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 여기에서의 표현은 중국에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는 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한 단락의 중요한 정법의 역사는 전례없는 것이며 우주의 중생으로 놓고 말하거나 구도를 받은 대법제자로 놓고 말할 때 모두 신성하고 위대한 한 단락의 과정이며 우주에 다시 있을 수 없는 한 단락의 과정이다. 우리는 인간세상에서 대법제자로서 대법과 중생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스승님께서 인간세상에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한 역사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1994 년, 내가 법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시에서도 금방 연공장소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우리 부근에는 아직 연공장소가 없었다. 1994 년 12 월 26 일, 동수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광주반이 결속된 후, 대련에서 스승님을 요청하여 설법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12 월 28 일, 우리 일행 20 여명은 기차를 타고 대련으로 갔다. 대련 체육장 앞에서 동수는 채색 입장권을 가져왔다. 나는 손이 가는 대로 금 황색 입장권 한 장을 잡았다. 스승님께서

## (2)

1992 년의 봄날, 사부님께서 전국각지에서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기 시작하셨다. 매번 설법하실 때마다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파룬궁의 수련은 직접 마음을 가리키고》 《진, 선, 인》을 동시에 수련하며 수련인은 명, 리, 정을 담당히 하고 덕으로 공을 연화하며 실속 있게 수련하여 심성을 지켜야 한다고 착실히 가르치셨다. 파룬궁은 초상적인 능력을 구비하여 공이 빨리 자란다. 매개 학원의 몸에는 모두 사부님께서 넣어주신 파룬, 기기, 기제 등 수련계통이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는 살수 없는 무상의 보배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파룬궁은 무수히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흡인하여 수련의 문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나는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많고 많은 진실하고 신기한 일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한 인연이 있는 한 수련자이다. 그제 날에 사부님이 죽는 사람을 되살리는 재간으로 수많은 병이 위급한 학원들을 기사회생 시키던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들이 오늘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실 때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때 학습반에 참가한 학원들은 대다수가 환자였고 모두 병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학습반에서 사부님이 이야기 하는 법리를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저 좋다는 것만 알고 도리가 있고 듣기 좋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마다 신체에는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병이 없이 몸이 가벼운 감을 느꼈으며 효과가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부님이 어디로 가서 학습반을 꾸리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설법을 들었다. 맨 나중이야 사부님이 이야기 하는 법리를 깨닫고 병 치료로부터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나의 친척은 장춘에서 살고 있는데 사부님과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92 년 여름에 장 경색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수술 후에 수술대에서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전에 두 차례 수술을 한적이 있었다).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다른 치료방법도 없는 정황 하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조급하여 사처로 다니며 치료방법을 찾았다. 그와 한 단위에 다니는 파룬궁 학원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장춘에 대기공사 한 분이 계시는데 리 대사님께서 지금 한창 공법전수 학습반을 꾸리고 계신다. 학습반에서 많은 난치병 환자와

위독한 환자들이 리 대사님의 조정을 거쳐 신체를 정화하고 신기하게 병이 나타났다. 지금 제 4 기 학습반이 이미 결속되었는데 이들이 지나면 북경으로 가실 것이다. 친척은 듣고 나서 리 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학원에게 부탁하였다. 이 학원의 소개로 사부님께서 환자가 그이의 집으로 가는데 동의하셨다.

가족은 이미 길을 걷지 못하는 환자를 택시에 싣고 사부님의 맥으로 부축하여 갔다. 사부님은 아주 열정적이셨는데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창문을 열어놓고 손으로 환자의 환병 부위를 잡아 쥐여 창 밖으로 내던지셨다. 그러고 나서 과일 쟁반을 들고 오시더니 환자에게 바나나 하나를 권하였다. 환자는 《못 먹습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학원이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잡수라고 하면 잡수시오. 근심하지 말고.》 환자는 곧 바나나 하나를 먹었는데 아프지 않아 또 하나를 먹었다. 이때 나의 친척의 부인이 문득 깨닫고 급히 사부님 앞에 꿇어 엎드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사부님은 친척의 부인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친척이 사부님께 돈을 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자 사부님은 《나는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 연공을 많이 하시오!》 라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후, 환자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었다. 은사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친척의 온 가족은 사부님이 장춘에서 꾸린 제 5 기 설법강습 반에 참가하였다. 학습반에 참가하고 나서 심신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세계관에도 아주 큰 전변을 가져왔다. 그 몇 년간 이 학원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부님을 도와 흥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구도하여 법을 얻고 효과를 보도록 하였으며 의무적으로 대법의 서적을 지고 다니며 많은 고향사람들이 법을 얻도록 이끌었다. 그는 수련의 길에서 대법을 굳게 믿고 사부님을 굳게 믿었으며 사부님을 따라 대법 중에서 수련하면서 사부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구도 해주신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1993 년 6 월, 사부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시어 제 6 기 학습반을 꾸리셨다. 나의 이 친척은 또 외지에 있는 여동생을 데려다 이 학습반에 참가시킬 준비를 하였다. 여동생은 심근 막 탈락증(心肌膜脱落)을 앓고 있어 길을 걸기도 힘들었다. 이번에도 역시 단위의 그 학원이 사부님께 그의 여동생이 학습반에 참가하기 곤란한 정황을 말씀 드렸다. 학습반을 시작하기 전날,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가지 일을 잘하여 사전(史前)의 맹세를 이루어야 한다.

## 사부님께서 석가장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진귀한 기억들

글/하북대법제자

【명혜망 2004 년 5 월 2 일】 십년 전 법을 얻을 때의 정경을 회상할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난류가 흐르고 저도 모르게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1994 년 3 월 2 일 오전 여덟 시, 석가장 지구의 군사례의당에서 나는 처음으로 행복하게 사부님의 근 두 시간의 설법을 들었다 (당시는 기공보고회라고 불렀음). 회의에서 사부님께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생각하라고 하셨으며 만일 본인이 건강하다면 가족이나 친척의 병을 생각하면 곧 청리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하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당장에서 몇 십 년의 고질이었던 두통증을 떼어버렸다.

그날의 보고회는 완전히 무료였고 의무적이어서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여드레 동안의 설법학습반에서 사부님은 참으로 친절하고 온화하여 가까이 하기가 쉬웠으며 법리는 명석하였고 공법을 열심히 가르쳤다. 공법을 가르칠 때 사부님께서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으셨으며 한쪽 끝에 있는 우리 학원들도 빼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장내를 돌아보시면서 친히 학원들의 동작을 바로잡아 주셨다.

1994 년 3 월 10 일 저녁, 석가장에서의 제 1 기 설법학습반이 결속되었다. 사람들은 사부님과 단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현지 기공협회에서는 전문인원을 보내어 사진을 찍을 것을 제기하였다. 사부님께서 당장에서 학원들 중에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학원들은 돈을 적게 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두들 감축이 아주 컸다. 사부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다. 본래 10 일의 학습반도 학원들의 곤란한 점을 생각하여 여덟 날에 끝냄으로써 학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주었다. 이 여덟 날의 학습반에서 학원들이 당지

나는 대뜸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나는 줄곧 자신에게 물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백 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는 여러 기공문파들을 다녀왔으며 무술 및 불교에서 유전되는 경서를 읽었지만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부님의 첫날의 강의는 나더러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 그 어떤 기공사도 사부님처럼 발언고도 없이 거침없이 유창하게 이토록 깊고 심오한 불법을 이야기 할 수는 없었다. 사부님은 단번에 내 마음속의 매듭을 풀어주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붓으로 종이에다 수련이란 두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붙였다. 나는 수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튿날,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 너무도 좋아 아내와 함께 한 강의를 들었다. 그녀는 듣다가 잠이 들었다. 후에 사부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은 대뇌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또 사부님의 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어 참지 못하고 큰 형님을 모시고 한 강의를 들었다. 지금 나의 아내도 대법을 수련하고 있다. 학습반기간의 어느 오후, 강의 시간이 막 되어 가는데 정전이 되었다. 나는 강의 시간이 지연될 줄로 알았는데 얼마 안 되어 전기가 들어왔다. 정말로 신기하였다.

나의 누님은 줄곧 나와 함께 사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녀는 나보다 오성이 좋았다. 사부님께서 법신을 말씀하시자 내가 아직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대뜸 깨닫고 《아! 사부님은 법신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사부님께서서는 곧 부처이시다.》고 하였다. 그녀는 사부님이 강의를 하시느라 몹시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단설기를 사가지고 나를 이끌고 중간 휴식시간에 강단으로 올라가 사부님께 드렸다. 사부님께서는 극구 사양하시면서 끝내 받지 않으셨다. 후에 그는 별수 없이 행사장 인원들에게 주었다.

설법반에서 많은 학원들이 심득체험을 썼다. 사부님께서서는 매일 강의가 그렇게 신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짜내어 학원들의 심득체험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참으로 자비하셨다.

제 1 기 설법반이 결속될 때,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그 때 한 장의 사진마다 오늘 진귀한 기념으로 남아있다. 사부님은 흉대한 자비로 우리를 구도하고 계셨다. 우리는 응당 시간을 틀어쥐고 중생을 구도하여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사부님께서서는 친히 택시를 타고 나의 친척의 집으로 오시어 그의 여동생의 신체를 조정하여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셨다. 병원에서 심근막을 바꾸려면 10 만여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부님께서서는 오늘 기적처럼 치료하여 주셨다. 친척의 가족에서는 경탄하여 마지않았다. 사부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친척의 가족에게 《믿지 못하겠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하셨다. 그들은 놀라움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하였다. 결과 심근막이 보충 되었고 일체가 정상하였다. 그 후에 친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여동생을 데리고 사부님의 설법학습반에 참가하였다. 열흘의 학습반을 거쳐 신체상의 일체 병증이 전부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가무 일도 할 수 있었다. 한 장의 티켓으로 10 만여 원을 절약하였으며 환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신기하게 병이 나았다. 이 일을 통하여 여동생의 친지 친우들은 모두 《파룬궁은 참 신기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으면서 분분히 기회가 있으면 리 대사님의 설법을 듣고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고 표시하였다. 후에 정말로 경문 《깨달음》에서 말씀 하시듯이 《잇따라 모여 와서 입도(入道) 하여 법을 얻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1992년부터 1993년 말까지 사부님께서서는 북경에서 주최한 《동방건강박람회》에 참석하셨다. 회의기간에 의무적으로 인연 있는 인사들의 신체를 조정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회상에 파룬궁을 보급시켰다. 친척은 이 소식을 듣고서 또 이웃의 암병 환자와 친구를 데리고 북경으로 갔다. 출판사의 주소에 따라 북경에서 거의 일주일간 찾아 다니다가 겨우 좌가장(左家庄)회의 장소를 찾아냈다.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지 선생님은 박람회의 최고상인 《변연과학진보상》과 대회의 《특별금상》을 받았으며 《군중들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음으로써 이 박람회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기공사로 되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박람회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예를 들어 고향의 이 암병환자는 이미 걸을 수도 없어 가족에서 회의장으로 들고 들어갔다. 사부님의 조정을 거쳐 신체를 청리, 정화한 후, 당장에서 신기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은 공공버스에 앉았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 반신불수가 된 북경의 부녀 손보영인데 이미 1년 동안 병원의

병상에 누워있었다. 그녀도 가족에 의해 회의장으로 업혀 들어왔는데 사부님의 조정을 거쳐 기적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녀는 사부님이 어디에서 학습반을 꾸리든지 계속 따라다니며 설법을 들었다. 사부님이 장춘에서 제 7 기 학습반을 꾸릴 때 나는 그녀를 보았는데 신체가 건강하고 아주 젊어 보였다.

또 한 남학원이 있었는데 30 여세에 허리는 90°로 휨 굽사등이었다. 사부님이 현장에서 그의 신체를 조정해주자 척추에서 부딪부딪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천천히 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 사부님의 법력(法力)과 공력(功力)은 신기하기로 그지없었다. 박람회 기간에 사부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중환자와 난치병 환자들을 기수부지로 치료해 주셨으며 광대한 군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리하여 93 년 동방건강박람회의 최고상—《변연 과학진보상》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제 2 차 보고회의 전부수입을 《중화의용기금회》에 기부하셨다.

눈 깜짝 할 사이에 10 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자신이 경력한 일들은 하나하나 기억에서 되살아났다. 사부님께서는 자비로 종생을 구도하시느라, 매 하나의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보호하시느라 바치신 대가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학원들의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으며 단지 수련제자들의 수련하려는 그 한 마음만 보시고 우리를 만구하고 보호하시면서 매 한걸음을 잘 걷도록 하였다. 비록 수련의 길에서 광풍폭우를 만났지만 모두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은 동요가 없으며 신념은 더욱 견정해졌다.

### (3)

1994 년 봄날, 나는 기쁘게 법을 얻었고 행운스럽게 사부님이 장춘에서 꾸린 제 7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학습반에 참가하려는 인수가 특별히 많아 3 천 여명을 넘었기에 낮 반과 저녁반으로 나누어 모두 열흘 동안 꾸렸다.

첫날, 우리가 무괴도 전차를 타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중도에서 정전되었다. 여러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도보로 걸어갔다. 대략 6 리 길을 걸어야 회의장인 길림대학례의당에 이를 수 있었다. 시간이 긴박하였기에 모두들 지각할 가 발걸음을 재우쳤다. 그 중에는 경추에 뼈가 살아나 뇌신경을 압박하는 환자가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하고 귀땀했다. 그제서야 그 노년학원은 지팡이를 버리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광장의 전체 학원들은 모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 사부님의 합비에서의 첫 번째 공법전수반에 참가하여

글/대륙대법제자 청천

【명혜망 2006 년 4 월 17 일】 1993 년 11 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안취성 합비에 오셔서 파룬궁을 전수하였다. 사부님께서는 망망한 인해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구하여 깨끗이 씻어 주었으며 나에게 자비로운 사부님을 만나는 행운을 주었고 그때로부터 정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기억하건대 1993년 11월 19일, 합비의 하늘은 음침하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차례 눈비가 내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날에는 눈비를 무릅쓰고 사부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눈을 떠 바라보니 하늘은 맑게 개였으며 상쾌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나무와 땅 위의 눈은 어느새 따뜻한 햇빛에 녹아내려 종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종래로 이렇게 빨리 녹아 내리는 눈을 본적이 없었다. 그날 나의 심정은 특별히 좋았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사부님께서 교육학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 웃차림은 아주 소박하고 아주 젊으셨으며 두 눈에서는 정기가 흘러 넘쳤다. 그이는 친히 우리에게 연공 동작을 가르쳤는데 아주 화애롭고 자애로웠다.

그때 나는 기공과 불법에 흥미를 가지고 적지 않은 굵은 길을 걸었다. 이번 학습반에 오기 전에는 행여나 가짜 속임수는 아니겠지 하고 왔었다. 사부님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모두 정리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림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그러나 반드시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종 집착심을 품고 와서 공능(功能)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며, 이론이나 좀 들으려 하거나, 또는 그 무슨 좋지 않은 목적을 품고 온다면, 이것은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자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중에 나는 자신이 진정한 불법을 찾기 위하여 온 것임을 확정하였다. 사부님이 《기공은 바로 수련이다》고 말씀하시자

곁쳤는데 온 하루 밤, 하루 낮 계속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튿날(20 일) 사존의 설법에 영향을 줄 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자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였고 날씨가 따뜻하여 설법에 영향이 없었을뿐더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러 왔다. 후에 사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밤 도와 하늘을 깨끗이 청리 하였기에 정식으로 학습반을 열 때 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하였다.

20 일 오후, 사존께서 안휘성 농학원 레의당에서 설법을 하실 때 모두 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손바닥의 감각을 체험해 보도록 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모두 손바닥에서 물체가 돌고 있음을 느꼈다. 사존께서 여러 사람들더러 손을 내려 놓으라고 하자 장내에는 일시에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설법기간의 어느 날 오후 여섯 시 남짓하여 우리는 사부님의 주숙처를 찾아갔다. 방에 들어서자 밖에 바람이 아주 세다고 사부님께 여쭙었다. 사부님은 이제 곧 바람이 작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몇 분간 앉아있다가 총계를 내려 레의당으로 걸어갔다. 그때는 바람이 원래보다 약해진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미풍이 솔솔 불뿐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하였다.

설법반의 끝나는 회의에서 많은 학원들은 강단에 올라가 체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한 학원은 사부님의 몇 시간의 강의를 들은 후 다리의 질병이 나아 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학원은 당장에서 지팡이를 버리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온 장내는 열렬한 박수소리로 차고 넘쳤는데 모두 사부님의 공법의 신기한 효과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첫 번째 학습반이 막 결속될 때 우리는 사존께 또다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존께서는 당장에서 이듬해 4 월 15 일에 합비에서 두 번째 학습반을 꾸릴 것에 동의하였다. 사존께서는 다음 학습반에는 사람이 1500 명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4 년 4 월 15 일 학습반을 열 때 보니 과연 1500 여명이었다.

제 2 기 학습반기간의 어느 하루,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광장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모여 사부님과 사진찍기를 기다렸다. 한 노년학원이 지팡이를 짚고 광장에 서있는 것을 보신 사존께서는 당장에서 그더러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셨다. 그 노년학원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학원이 《선생님이 빨리

있었는데 그는 장춘에 온지 이미 한달 남짓이 되었었다. 병원에서 이미 천여 원을 썼지만 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돈만 다 써버렸다. 그는 사부님이 설법 반을 꾸린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참을 수 없는 동통에 시달리던 이 환자가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걸음이 빨랐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일체 불리한 증상들이 몽땅 사라지고 회의장에 이르자 완전히 나왔다! 이미 길에서부터 사부님께서 이미 그의 신체를 조정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열흘간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다.

학습반에 참가하는 동안 날마다 휴식시간이면 우리 일부 학원들은 사부님의 곁에 몰려 서서 사부님을 바라보았다. 사부님께서 기질이 남다르게 비범하셨다. 몸에는 회색양복에 흰 적삼을 받쳐 입으셨는데 특별히 젊어 보였다. 사부님께서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고 학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매일 강의가 끝난 뒤면 우리는 오래도록 떠나기가 아쉬웠으며 사부님의 신변에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었다. 번마다 사부님이 차에 오르신 뒤에야 우리는 회의장을 떠나곤 하였다.

5 월 1 일 오후, 주체단위에서는 학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부님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자 사부님께서 흔쾌히 승낙 하셨다. 매 지구의 학원들이 순서에 따라 줄을 서고 사부님께서 한조에 한조를 이어 우리와 사진을 찍으셨다. 빈하지구의 학원들과 사진을 찍을 때 머리가 허열게 흰 60 여세 나는 한 남학원이 앞줄의 쪽 걸상에 앉아있었다. 사부님이 다가가서 왜 앉아 있는 가고 묻자 그 학원은 설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사부님은 그더러 뒷줄에 가서 서라고 하였다. 사진을 다 찍은 후, 사부님은 다가가서 그 학원과 악수를 나누며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였다. 그 학원이 깨닫지 못하자 그의 부인이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사부님이 그더러 앞으로 걸으라고 하자 그는 마치 걸음마를 떼는 어린애마냥 한걸음씩 앞으로 걸었다. 이렇게 마당에서 몇 회 돌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는 지팡이를 집지 않았으며 스스로 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생활에서도 자립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많고도 많다.

사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이 매우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 » 그렇다! 바로 이 평범하지 않은 경력이 있었기에 나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와 위대한 인격, 각자(覺者)의 흥금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바로 이 한 단락의 잇을 수 없는 경력이 있었기에 수련의 길에서 용맹 정진하도록 부단히 격려하고 있고 매 한 걸음을 잘 걸어 자신의 사건의 맹세를 이루도록 촉진하고 있다.

#### (4)

명심하라! 뼈에 아로새길 이 기억을! 그것은 1998년 7월 26일이었다. 나는 한 보도원, 노학원의 신분으로 기쁘게도 사부님의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에 참가하여 사부님이 보도원, 노학원들에 대한 부탁 그리고 깊은 가르침과 기대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수련의 길에서 자신이 수련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신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번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을 들고 볼 때마다 시종 인심을 격동시키던 그때의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으며 귀가에는 사부님의 착실한 가르침이 메아리 치면서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회의장은 장춘의 향거리라(香格里拉)국제호텔 대청의 레의당에 설치되었다. 26일 오후, 법회에 참가하러 온 학원들이 사면팔방으로부터 육속 호텔로 모여와 입장하였다. 순서에 따라 우리는 제일 먼저 입장하였다. 내가 대청레의당에 이르자 제일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석대와 주변에 배열해 놓은 아름다운 생화들이었다. 회의장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온화하고 상화로워 여느 법회와는 뚜렷이 달랐다. 당시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돌아오셨다! 생화는 부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몹시 격동되고 흥분된 심정으로 신변의 동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직접 회의장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변의 동수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그것은 그때 사부님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번 법회의 내용은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였다. 《기다려보십시오. 꼭 오실 것입니다.》 입장이 끝나자 회의장은 물 뿌린 듯 조용하고 빈 좌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섯 시 정각에 우리의 자비로운 은사께서 갑자기 회의장의 대문어귀에 나타나셨다. 삼시간에 장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사부님께서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온건한

들었는데 그래도 들을 수는 있었고 사부님의 설법내용을 알 수 있었다. 마치도 사부님이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또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강의를 끝내면 그도 잠을 깬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머리에 병이 있어 그에게 조정(調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조정하면, 그는 전혀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마취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청각부분에 문제가 없어 그는 잠을 달콤히 자지만 도리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는다. 사람은 이때부터 정신이 나며 이틀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는다. 모두 부동(不同)한 상태로서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당신의 온몸을 전부 정화(淨化)해 주어야 한다.》 사부님께서 천목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머리거죽이 죄여드는 것 같았으며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을 느꼈다.

산동에서 온 한 학원은 당시 들것에 들려서 사부님의 학습반으로 들어왔다. 그의 병은 기타 기공을 배운 후,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후에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다. 대법의 학습반이 끝날 때 그는 스스로 강단에 올라가 발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진실한 체험으로 대법을 배워 효험을 얻은 후의 변화를 이야기 하였다.

또 한 학원이 있었는데 설법학습반에 참가하기 전에 몸에 부체가 있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서 사부님께서 부체를 떼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부님은 그에게 《당신은 진심으로 대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부체들을 떼어버리려는 것인가?》 고 연속 세 번 물으셨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부님이 손으로 한번 움켜쥐자 그의 부체는 떨어져 나갔다.

## 사존께서 합비에서 법을 전하실 때를 회상

글 / 정파

【명혜망 2006년 4월 7일】 1993년과 1994년, 사존께서는 두 차례 합비에 오셔서 설법을 하였다. 법을 전하고 공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자비로운 사존께서는 시시각각 학원들의 처지를 고려 하였으며 학원들이 진정으로 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93년 11월 19일 아침, 사존께서 합비에 오셨다. 그날의 날씨는 비가 내려 음침하고 기온이 아주 낮았다. 비바람에 우박까지

배합을 잘하여 정체적으로 제고하고 정체적으로 승화하여 사부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사부님이 안휘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2)

글/합비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10일】 2006년의 4월 15일은 사존께서 두 번째로 안휘성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수하신 12주년 기념일이다. 매년 사존께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수하던 보귀한 시각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으며 정말로 12년 전의 그때 그 시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사부님, 우리 안휘성 합비의 대법제자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1993년 11월, 처음으로 합비에 오시어 법을 전하실 때, 우리 공장의 한 젊은이가 설법반에 먼저 참가하고 사흘을 배운 후, 그녀는 자신이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파룬궁은 아주 좋으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며 또한 성명쌍수(性命双修)의 공법으로써 배우면 장생불로하고 장수한다고 나한테 소개하였다. 이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 참가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니 《좋아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의 오성이 차하여 가정의 일을 안배하기가 어렵고 아이가 어려서 몸을 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눈깜짝할 사이에 이듬해 4월이 되어 나는 사부님이 두 번째로 합비에서 꾸린 설법전수반에 참가하였다.

1994년 3월말의 어느 날 저녁,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내가 어떤 집을 께질러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곧 큰길 맞은 편에 가 섰고 신체가 웅장한 그 사람은 큰길 저쪽 편에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금빛이 뿜어 나와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조금 후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재빨리 금빛이 찬란한 그 사람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였다 (수련하기 전에 나는 두 손을 합장할 줄을 몰랐다). 수련을 시작한 후에야 나는 사부님의 법신이 연분이 있는 나에게 법을 얻도록 점화해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

사부님이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실 때, 당시 1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면 나는 잠이

걸음으로 회장에 들어섰다. 사부님이 경과하는 복도 양옆의 학원, 제자들은 분분히 사부님과 악수를 나누었고 사부님과 먼 학원,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손을 합장하여 사부님께 불가예의를 올렸다. 학원이 사부님께 생화를 드렸고 사부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 한 손을 입장하여 학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다. 오랜 박수소리 끝에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앉으라고 하였다. 사부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부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높이하고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에 대한 무한한 숭경과 희열의 심정을 안고 정신을 가다듬어 사부님의 매한마디 말씀을 들었다. 나에 대해 감동이 가장 큰 것은 사부님이 설법 중에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이 자리의 보도원, 노수련생 당신들은 허다하게 당신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다.》 《당신들이 느끼기에 당신들이 한 일이 마치 비교적 간단하고 또한 속인의 령도의 일처럼 일부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은 완전히 모두 자신의 열정과 대법에 대한 인식에 의거하여 하고 있는데 보아하니 간단하며 천지를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이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속인의 이 측면에서의 표현이 평범한 것일수록 아마 당신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이 수련한 이 경지 중에서의 표현은 오히려 정말로 굉장한 것이다. (박수소리) 다시 말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기왕 이 일을 하였으므로 그것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층 생명도 나와 항상 말하는바 당신들이 여기에서 대법을 위하여 공헌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당신들 장래의 생명이 상당히 긴 이후의 역사시기에 하나의 아주 좋은 기초를 다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한 줄기 뜨거운 난류가 온몸을 관통하였으며 대법에 대한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내가 때로는 사람의 험애한 관념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 처리를 했으며 때로는 각종 모순에 부딪쳤을 때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존께서 요구하신 대선, 대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흔히 우리 수련 중에서도 어떤 굉장한 것이 없으며 모두 속인의 각종 모순 표현 중에서 우리의心性(心성)을 연마한다.》 (《장춘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 그리하여 이 몇 년간 나는 줄곧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법회도중 10 여분의 휴식시간에 제자들은 모두 사부님의 신변에 몰려 서서 사부님께 수련 중에 부딪친 각종 문제들을 내놓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미소를 지으시며 인내성 있게 일일이 해답해 주셨다. 법회는 무려 다섯 시간이나 지속되었지만 여러 사람은 더 듣고 싶었고 저녁 10 시가 넘었건만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다. 법회가 결속되었지만 학원들은 모두 사부님과 갈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였고 오래도록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행복과 희열 속에 잠겨있었다. 후에 이번 법회를 책임진 제자가 말하기를 레의당의 세금은 모두 사부님이 낸 것이며 학원, 제자들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 사부님께서 제남에서 설법하실 때의 몇가지 이야기

글/제남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9월 27일】 1994년 6월 21일, 나는 자랑스럽게도 사부님의 제남 황정체육관에서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그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나 자신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들과 동수들이 제공한 일수 일들을 글로 적고자 한다.

### 1. 고생은 자신에게 남기시고, 자비는 학원들에게 베푸시다

강의를 시작한 이튿날 오후, 사부님께서서는 학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사진을 찍는 지점은 황정체육관 원내의 계단 위였다. 그때 두 가지 특별한 정황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날씨가 특별히 무더운 것이었다. 제남은 유명한 불 가마인데다 그날 또한 하지였다. 당날의 일기예보에서 예고한 기온은 37 도였고 또 직사광이 가장 강한 오후시간에 햇볕이 화로처럼 열기를 내뿜는 원내 콘크리트 계단 위에서 찍도록 배치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특별한 정황은 사람이 특별히 많았던 것이었다. 과거에 기타 기공반에는 보통 1,2백 명에 불과하고 적으면 몇 십 명인데도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한 시간씩 걸렸고 그것도 시간을 다그쳐야 했다. 우리는 사람이 몇 천명인데다 자리도 넉넉치 않아 여러 조로 나누어야 했는데 다섯 조라 해도 다섯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녁에 사부님은 또 설법을 해야 하니 그때 남은 시간은 네 시간도 안 되었다. 이 일을 책임진 학원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책을 레의당을 지키는 사업일군들에게 넘겨주었다.

사부님께서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설법하고 공을 전수한 장소는 성위당교 대 레의당이였다. 나는 수많은 친척친구들을 소개하여 사부님의 설법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리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아 제고가 빠르지 못하였으며 집착심이란 무더기였다. 사부님이 문제를 해답하실 때 나는 태극권에 관한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은 《아직도 태극권을 연마한단 말이요, 당신이 태극권을 연마하려면 태극권을 연마하십시오. 나도 당신더러 기어코 파룬궁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겠소.》라고 하셨다. 사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대법수련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때로부터 나는 태극권에 대한 집착심을 단번에 놓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태극권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모두 청산 하였는데 자신이 촬영한 몇개의 전국 태극권 경기 테이프, 검, 칼 및 기타 자료들을 전부 없애버렸다. 이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보니 춤을 추기 좋아하던 마음마저 가뭏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부님께서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실 때는 참가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전수반이 결속될 무렵 학원들은 한 조 한 조씩 사부님을 청하여 사진을 찍었다. 좀 있으면 여기서 사부님을 청하고 좀 있으면 저쪽에서 사부님을 청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단독으로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사부님은 그 어떤 요청이든지 달갑게 받아들이고 시종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리고 또 서산공원으로 가서 친히 연공장소를 돌아보았다.

사부님께서서는 합비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였다. 제남 설법반에서도 사부님은 학원들에게 합비는 령성이 있는 고장이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듣고서 아주 기뻐하였다. 이 몇 년이래 우리는 사부님을 만나볼 수 없었지만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우리 신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관심하고 격려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외에서 사부님을 만나본 합비 대법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부님께서서는 합비의 정황을 물으시고 합비의 제자들을 문안하셨다고 한다. 사부님은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힘든 정황 하에서도 우리 합비 대법제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감개무량하며 사부님에 대한 감격의 마음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부님, 우리 합비 전체대법 제자들은 절대로 당신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가지 일》을 잘하고 더욱

갈망해오던 높은 덕망의 대법을 얻었으며 그때로부터 견정 불이하게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사부님께서 함비에서 설법을 시작하기 전에 안휘성 농업대학의 레의당에서 한차례 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안휘성 성장도 강단에 앉아서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다. 성의 여러 명의 고위간부들도 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사부님께서 함비에서 설법하고 공을 전수하는 기간에 대법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당시의 안휘성위서기 등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그때 그의 목에는 커다란 혹이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그의 이 병을 치료해 주었다. 후에 다른 한 기공사가 함비에 오자 그는 또 그 기공사를 찾아가 보였는데 원래 다 나왔던 병이 다시 도졌다. 그들은 만고의 기연으로 대법을 얻고 사부님께서 친히 신체를 조정해 주었지만 깨달음이 너무 열어 기공을 다만 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만 알았기에 결과 이렇게 좋은 대법수련의 기연을 잃어버렸다. 사부님께서 《인간 세상이 혼혼(渾渾)해야 주목상혼(珠目相混) 이로다. 아래가 세상에 내려오심에 필연 조용하도다. 법을 전할 때 필연 사문(邪門)의 교란이 있도다. 도(道)와 마(魔)가 함께 전하고 함께 한 세상에 있거니, 진짜와 가짜를 가려냄은 주로 깨달음에 있노라.》 (정진요지. 《깨달음》)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안휘성 함비 설법반에 참가했던 수많은 대법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견정하게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사부님께서 맨 처음으로 함비에서 설법하신 곳은 성 교육학원 레의당이였다. 당시 사부님은 가죽점퍼를 입으셨고 낡은 가죽구두를 신었는데 아주 소박하고 화애롭고 친절하였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학원들더러 손을 내밀라고 하고는 학원들에게 파룬을 넣어주고 체험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운 것은 바로 신체에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휴식시간에 사부님께서 레의당 복도에서 학원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사부님의 크고 작은 법신상과 파룬 마크, 연공음악 테이프를 사느라 문제를 적은 쪽지를 사부님께 드린 외에 사부님과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였다. 사부님은 온화하여 가까이 접근하기가 쉬웠다. 그때 레의당을 지키는 사업일꾼들은 많은 파룬공의 책들을 가지고(소책자, 당시 한권에 2 원) 휴식시간에 강단의 동측에서 사부님더러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사부님은 조금도 시끄러워하지 않고 한권 한권씩 사인한

이때 사람들 앞에 커다란 몸매가 나타났는데 바로 사부님이였다. 원래 사부님께서 여러 사람을 지휘하고 계셨다. 사람이 많고 소리가 난잡한데다 시간이 긴박한 정황 하에서 사부님께서 확성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다만 손시늬로 사람들이 앞뒤좌우로 움직이도록 지휘하셨다. 당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단 말인가? 사부님께서 설법하러 오셨으며 여러 차례 국가급 단위의 축형, 장려, 승인을 받고 최고급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이는 응당 공기조절기가 있고 음료와 세밀한 복무가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여느 기공사들이 늘 그러하듯이 모두가 줄을 선 뒤에 중심의 빈자리에 가서 척 앉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화가마 속에서, 사람을 찌물크는 콘크리트 계단의 열기 속에서 사부님은 땀에 흠뻑 젖은 사람들을 지휘하여 세워놓고는 자신이 제격 그 중간에 서서 몸을 돌리면 사진사가 《찰칵》하고 사진을 찍었다. 다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조에서 빨리 오시오.》 한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은 저녁에 또 설법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바빠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부님께서 이렇게 온 오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바빠 보내셨다. 결과 저녁의 설법을 제시간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밥 먹을 시간도 충분히 남겨주어 저녁의 설법이 제시간에 진행 되도록 하였다. 북경, 산둥과 동북 등 지구의 노학원들은 경험이 생겨 재빨리 식사를 끝마친 후, 먼저 인행도 옆이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정하고 좋은 자리는 신 학원들에게 양보하였다. 한 6,7 세 가량의 남자아이가 온당하게 맨 뒤의 인행도 옆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여기에 자리가 있지 않니? 여기 와서 앉으려무나.》 그러자 그 애가 대답했다. 《저는 노 학원이예요.》 듣고 나서 나는 감격에 목멘 소리가 나올까 싶어 손으로만 그 애의 어깨를 다독여 주기만 했다.

사부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다. 그때 실내가 너무 더워 많은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부채를 내려놓아도 무방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벼운 미풍이 솔솔 불어왔다. 사부님의 자비를 감수한 학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 2. 상징적인 요금

사부님께서 연 설법반의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 기공 학습반을 꾸리는 조직 사업에 참가하였고 기공 이론도 여러 번 들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정황은 사회상의 기공학습반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좌우에 120-200 원이고 이보다 더 높은 것도 있다. 사부님은 열흘 동안 설법하시는데 50 원만 받으셨으며 일부는 경감하거나 면제하셨다. 학비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내용이 높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비록 이 우주대법의 내용을 통찰하지는 못하지만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서 이미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다. 《진정하게 고층 차로 사람을 이끌다》, 《사람을 제도함이라, 당신은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이며,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법륜》) 이것이 바로 수련 계에서 줄곧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총차를 초월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몇 마디 말씀으로 천기, 비밀중의 비밀, 모유주천, 천목 등을 해설하셨으며 천하를 돌아다니며 도를 구하던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고 극히 탄복하도록 하였다. 대법 학원들은 손에 대법서적을 들고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과거에 철로 만든 신발이 닳아 떨어지도록 찾아다녔어도 얻지 못한 것을 오늘 사부님께서 문 앞까지 가져다 주셨으니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얻었다.》 이미 부단히 법을 학습하고 마음을 닦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이 《전법륜》이 《이미 가치로 가능할 수 없》는 하늘의 법임을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세속의 것과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사부님께서 자비하셨기에 학원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요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낮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다만 상징적인 요금이라고.

## 3. 나의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하여 주신 이야기

이번 사부님의 학습반은 원래 동료와 같이 참가하기로 약속하였고 문표는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의를 며칠 앞두고 이 동료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갑작스런 재난은 슬픔 뒤끝에 나로 하여금 사람의 운명을 개변시키는 수련의 기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한 장의 문표가

있었다) 몹시 고통스러워 하였다. 후에 내가 파룬궁을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친구는 나를 찾아와 딸애가 사부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사부님은 5 월에 중경에 와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서 사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들 두 부녀와 다른 몇 명의 동수들과 함께 중경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길에서 그의 딸애는 수시로 허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중경으로 가서 사부님의 아흐레 동안의 설법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와 수련을 견지하자 허리미추골이 기적처럼 나왔다. 그 해 년 말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95년 10 월에는 기적처럼 건실한 쌍둥이 여자아기를 낳았다. 아이들은 지금 매우 건강하며 이미 소학교 3 학년에 다니고 있다. 이것은 나의 신변에서 발생한 진실한 이야기이다. 이는 나로 하여금 파룬따파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아름다움, 신기함, 그리고 사부님의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심심히 느끼도록 한다.

##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1)

글/합비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9일】 사부님께서 1993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1994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합비에서 설법하시고 공을 전수하였다. 나는 행운스럽게도 이 두 차례 설법반에 모두 참가하여 친히 사부님의 친절하고 화애로운 미소와 자비롭고 위대한 풍모를 감수하였다.

1993년 11월, 사부님이 합비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나는 안취성 기공협회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는 리홍지 사부님과 파룬궁을 소개하였고 사부님이 합비에 오셔서 학습반을 꾸린다는 소식도 실었다. 며칠이 지나 나는 또 똑 같은 통지를 받았다. 그때 나는 아직 《자연》과 《필연》의 법리를 모르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부터 이것은 일반적인 기공반이 아님을 감지하였으며 가능하게 아주 높은 대사가 합비에 오시어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할 것인즉 이 일은 나와 모종의 연계와 연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견정하게 일찌감치 사부님이 합비에서 꾸리는 전수반에 예약을 해놓았다. 과연 이 전수반에서 나는 오랫동안

동수들은 행운스럽게도 또 사부님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들 기회를 놓칠 세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도 한가지 넘어야 할 관이 있는데 오랫동안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이 난이 크기에 조금씩 나누어 안배했다고 하시면서(말씀하시는 한편 손 시늉으로 매개 단계를 비유하셨다) 여기까지 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사부님은 나에게 《당신은 꼭 넘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나는 사부님이 가지하는 역량을 느꼈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면》 꼭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고비를 넘겼다.

매번 사부님과 함께 있던 시각들을 회상하면 마치도 한집식구처럼 느껴진다. 사부님의 흉대한 자비 속에서 일체 고생스러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저 행운스럽고 행복하기만 하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한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하에서 한 걸음씩 오늘까지 걸어왔다. 비록 때론 잘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사부님은 의연히 우리의 손을 잡아당기고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부님은 《최후의 집착을 버리자》에서 말씀하기를 《당신들은 이미 가장 간고한 시기를 지나왔다. 그러므로 최후의 하나의 집착에서 꼭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들의 고통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기실 나는 당신들 자신보다 더 당신들을 아끼고 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사부님이시여! 우리는 꼭 세가지 일을 잘하여 정념정행하고 중생을 구도하여 절대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미안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자비를 견증

글/대륙대법제자

1994년, 나의 한 친구의 딸애가 요미추골이 골절되었다. 허리가 아파 걷지도 못하고 서있기도 어려웠으며 잠을 잘 때마저 고통이 심하였다. 양의와 중의를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호전을 보지 못하고 후에 기공사를 찾아 치료하였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젠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결혼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경과하여 또다시 나의 손으로 되돌아 올 줄이야. 맨 나중에 돌려왔을 때는 이미 강의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가능하면 인연이 있는 사람이 물리는 표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회의장에 일찍이 나가보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앞서 나는 반드시 어머니한테로 한번 가봐야 했다.

나의 어머니는 80 여세 고령이어서 우리는 저녁이면 윤번으로 그녀를 보살피는데 오늘 아침 내 차례였다. 나는 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와 강의를 듣는 일을 이야기 하고 또 문표가 세상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도 이야기 하였다. 무의식간에 나는 어머니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병이 너무 중하였다. 엄중한 심장병, 심력쇠퇴, 신장 기능쇠퇴가 왔으며 병원에서는 일찍이 병이 위급하다는 통지를 내렸다. 그리하여 반드시 의사의 분부에 따라 자리에 누워서 휴식해야 했으므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때 어머니의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변화시킬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승과 같은 못차림을 한 사부가 와서 나에게 연공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 호리호리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셨다고 하였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부처를 믿고 부처를 공경하였으며 마음이 선량하고 고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인(高人)의 점화란 말인가? 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보자고 의논 하였다. 나는 동수의 도움을 빌어 택시를 불러 타고 황정까지 달려갔다. 겨우 강의실로 들어서서 사부님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냉큼 내 손을 붙잡고 말하였다. 《이 분이 바로 꿈에 본 사부님이시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이미 입가에까지 흘러내려오고 목소리마저 변한 것을 보았다. 강의시간에 나의 속인마음은 수시로 흔들렸는데 그녀가 지탱하지 못하여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듣고 있었고 조금치도 병이 위중한 환자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연분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오성이 너무 차하고 또 시끄러움을 두려워하였기에 이튿날 사부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녀를 모시고 가지 않아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사흘째 되는 날, 차를 타고 원내의 문 어구에 이르러 동수는 그가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업고서 한동안 걸었다. 그러나 얼마 안지나 맥이 진하여 우리 두

사람은 그를 부축하여 걸었다. 그는 심장병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품습, 관절통이 있어 길을 걸을 수 없었으며 전신에 부종이 생긴데다가 여섯 살에 전족을 동여뒀기에 머리가 무겁고 발이 가벼웠다. 우리 둘은 그를 부축하여 앞으로 움직이면서 거의 기진맥진되어 있었다. 더욱 근심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어선다는 것조차도 그로 놓고 말하면 아주 어려운 일인데 심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 시각 나는 이런 모험을 하지 말았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만일…… 후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머리를 드는 순간, 갑자기 사부님의 커다란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이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사부님을 불렀다. 그러나 사부님은 대답이 없이 마치 무슨 일을 하는 듯싶었다. 사부님께서 한편으로 걸으면서 집중된 눈빛으로 어머니의 신체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머리를 돌려 사부님을 바라보니 사부님께서 같은 눈빛으로 어머니의 등을 보시다가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로 들어가셨다. 이때 원내의 학원들은 전부 강의실에 앉아있었는데 사부님만은 홀로 밖에 계셨으니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우리는 먼저 강의를 들으러 갔다.

다음날, 어머니의 신체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에 피가 섞여 있었다. 소변을 본 다음에는 온몸이 거뿔해지고 병증이 사라졌으며 부종도 내렸다. 이때에야 우리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원래 어제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하러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강의시간에 여러 사람의 신체를 청리 하신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머니를 단독으로 청리해 주셨는가? 그것은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당시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여(수시로 심장박동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기도 힘든 상황을 보셨던 것이다.

사부님께서 매일 일찍 회의장에 도착하셨다. 만일 우리가 일찍 도착했다면 사부님은 어머니를 청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직장에서부터 총망히 퇴근하여 오는 동수를 기다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와야 했기에 언제나 일찍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도리어 사부님께서 일찍이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단 설법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대문에 들어서자 사부님께서 신속하게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 하셨다.

나의 곁에 있는 미국학원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당신도 대만 학원이지요.》 조금 후, 이 학원은 기뻐하며 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내가 대만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소!》

법회가 결속된 후, 사부님께서 각국의 학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것을 승낙하셨다.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흥분하였다. 대만의 한 학원은 앞을 보지 못하여 행동이 불편하였다. 기념사진을 찍은 후, 모두들 앞다투어 사부님과 악수를 나누느라 그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 주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나누셨다. 이 맹인학원은 사후에 격동되어 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나와 악수를 나누셨어요!》 사부님께서는 매사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였으며 매 학원에 대한 마음은 꼭 같았다.

금방 법을 얻었을 때는 사부님의 일체에 호기심을 가졌었다. 사부님의 옷차림은 언제나 멋졌는데 사부님께서 입은 양복 원단이 어떤 천인지 알고 싶었다. 호기심으로 인해 사부님께서 강단에서 학원들과 악수를 나누시는 기회를 타서 가만히 사부님의 옷깃을 만져보았다. 그런데 옷감은 나일론이 섞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좋은 옷감이 아니었다. 사부님은 해외설법을 하실 때 번마다 고정적으로 두 세벌의 양복을 입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사부님은 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 늘 라면으로 끼니를 에우셨다고 한다. 번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물질면에서 너무 사치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주의를 돌려 사부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8 년, 나는 싱가포르법회에 참가하였다. 중간 휴식시간에 나는 회의장 좌석에서 사부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왼편에 앉은 한 중년학원은 줄곧 사부님께 그의 무릎이 어떻게 나쁘고 아프다고 하소연 하였다. 사부님은 《괜찮을 거요, 괜찮을 거요!》라고 안위하시면서 그의 무릎을 문질러 주셨다. 나는 사부님이 그 학원을 대신하여 업력을 감당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 학원은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의 병을 말하였지만 사부님께서는 그로 인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의연히 자비롭게 그의 무릎을 다독이면서 그를 고무 격려하였다. 《당신은 될 수 있소! 당신은 될 수 있소!》

대만으로 돌아가는 장의(樟宜) 비행장에서 나와 십 여명의

않았으며 자동적으로 사부님께 길을 내어 드렸다. 사부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나는 사부님을 마주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사부님께서는 줄곧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사부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요해하시는 듯싶었고 온 몸은 사부님의 흉대한 자비 속에 잠겨 들었다.

설법이 결속된 후, 여러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 그때 우리 몇몇 학원들은 회의장에서 막 떠나는 사부님을 만났다. 당시 대만에는 연공장소가 많지 못했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다만 어떻게 하면 연공장소를 늘려 이 아름다운 대법을 전파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한가지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 저는 XX 곳에 연공장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함께 있던 몇몇 노학원들은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도 (너는 어렵게 사부님께 문제를 묻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묻는단 말이나?) 하는 듯싶었다. 사부님은 문제의 깊고 열음과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묻는 학원들에게 모두 내심하게 해답을 주셨다. 사부님께서는 그당시 하나하나 내심하게 인도해 주며 조급해 하지 말라고 위안까지 해주었다. 나는 마치도 봄바람에 목욕을 하는 듯싶어 그저 행복하게 사부님만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귀에 들어온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회상해보면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후에 전개된 모든 것이 그때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

1998년 5월, 독일 프란커푸법회에서 또다시 사부님을 만나 뵈었다. 당시 현장에는 대략 5백여 명의 학원이 참가하였다.

법회의 전반부분이 끝나자 나는 먼저 나가 자료를 살 준비를 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행운스럽게도 독일 학원들이 꾸린 흥법신문을 보고 계시는 사부님을 만났다. 나는 기쁜 나머지 사진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었다. 그때 사부님께서는 나를 한번 보셨다. 비록 나무라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사진기를 거두고 한 켠에 서있었다. 후에 학원들이 점점 많이 나오자 사부님은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셨다. 나는 제격 《사부님, 저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고 말씀 드렸다. 사부님께서는 층계를 내려와 나와 악수를 나누시며 친절하게 이것저것 물으셨다. 사부님께서는 또

사부님께서 내색을 내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감촉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신체에서 격렬한 변화가 나타난 후에야 의식할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짧디 짧은 설법직전의 시간을 이용하신 것은 강의시간에 청리하기에는 이미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 제때에 오셨기에 어머니의 생명은 비로서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신체를 청리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두려움에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마음은 사부님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 된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는 일체를 통찰하시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곧 발생할 생명을 잃는 재난이 사라지도록 하셨던 것이다. 《기실 나는 당신들 자신보다 더 당신들을 아끼고 있다!》 (《최후의 집착을 버리자》)는 사부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증실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당신이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곧 당신에 대하여 책임진다.》 (《미국 제1차 설법》)

#### 4. 다른 사람이 악한 말로 욕할 때

어느 한번, 사부님은 한 제자와 함께 작은 음식점에서 밀국수를 드시었다. 식당 주인이 국수를 가져오자 사부님께서는 낮은 소리로 《국수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구먼》 라고 한마디 하셨다. 식당 주인은 듣고 나서 버럭 화를 냈다. 《이 사람이 사단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먹어도 안보고 소금을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사부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밀국수를 잡숫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도리가 있다고 한바탕 훈시하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사부님은 국수를 다 드실 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제자가 그릇을 식당 주인에게 넘겨줄 때, 손이 가는 대로 사부님의 국수그릇 밑 굽을 찍어 맛을 보고서 식당 주인에게 말하였다. 《확실히 짜군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렇게도 태연하시었다.

#### 5. 석불사 문지기의 이야기

어느 하루, 사부님께서는 석불사에 다녀올 준비를 하셨다. 소식을 일찍히 들은 일부 보도원과 학원들은 급급히 이곳에

도착하여 사부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다려도 사부님께서 오지 않으셨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기에 여러 사람은 안 오시는 줄 알고 모두 돌아갔다. 그들이 금방 돌아가자마자 사부님께서 오셨다. 사부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은 절에서 문을 지키는 노인과 그의 손자였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후에 사부님은 노인에게 파룬궁을 소개하였다. 문지기 노인이 말하였다. 《난 이전 늙었수다. 문화도 없는데 공을 연마할 수 있겠수?》

노인은 사부님께 그와 온 가족의 근심거리를 이야기 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린 손자였는데 머리가 나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갈수록 학과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는 따뜻하게 어린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사탕 한 알을 그에게 주었다. 어린애는 기뻐서 제꼭 받아먹었다.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문지기 노인의 집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그의 어린 손자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머리가 총명해지고 학교 가기도 좋아하고 말도 잘 듣고 학습 성적도 제고 되었다고 하였다. 문지기 노인은 생각하였다. 이 파룬궁 사부님은 마음씨가 곱고 화기로우며 사탕 한 알로 내 손자를 변모시켰으니 그가 가르치는 파룬궁도 꼭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晷利县)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 / 대륙대법학원 소하

【명혜망 2006년 5월 21일】 1994년 2월,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에 오시어 법을 전하셨다. 내가 산둥 간리현 초대소에서 주숙 등록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부님은 아직도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때는 아마 설달 그믐이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알게 되는데 사부님께서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셨으며 고생과 피로도 마다하시었다.

저녁 무렵에 사부님께서 식당 문어구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파룬궁은 진짜이구나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부님이 《건강과 미》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과 꼭 같았기

사람이 없었고 가실 때도 학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사부님이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풍모는 우리에게 준 가장 훌륭한 교감이었다.

## 사부님이 설법하시던 그날을 회상

글 / 대만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3일】 나는 1996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다. 법을 얻기 전, 나는 불교와 도교가 주로 흥행했던 과거의 대만에서 줄곧 마음속의 정법문을 찾고 있었다. 기연이 이른 모양인지 자비로운 사부님의 점화 하에 96년 10월 갑자기 1년간 연계가 없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중에서 저도 모르게 수련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친구는 오래 적치된 수많은 문제들에 일일이 해답을 줄 수 없어 나에게 간자체로 된 책 한 권이 있는데 모든 답안이 그 책 속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내성있게 책을 보아야 하며 책에다 함부로 줄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일주일 후, 나는 그 책을 받았는데 바로 《전법륜》이었다. 그때로부터 내 생명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련이었다!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의 해외에서의 설법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사부님의 자상하게 매개 학원을 관심하는 흥대한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아래에 몇 가지 실례를 이야기 하겠다.

1997년 11월, 사부님은 처음으로 대만에 오셔서 대북과 대중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설법을 하셨다. 대북삼성소학교에서 설법할 때였다. 나와 다른 한 학원이 회의장뒤쪽에서 의자를 나르는 일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사부님께서 걸어오셨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부님을 보게 되자 놀랍고 격동되어 저도 모르게 《사부님!》하고 소리쳤다. 사부님께서 식지를 입가에 가져다 대면서 《쉬!》하고 소리를 내셨다. 나는 격동된 심정을 억제하고 재빨리 두 손을 합장하고 한 칸에 조용히 서있었다. 사부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며 학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사부님은 설법을 하실 적에 목소리가 똑똑하고 평온했으며 한글자 한 마디가 내심의 깊은 곳에 와 닿았다. 중간 휴식시간에 사부님은 회의장을 한 바퀴 돌았다. 당시 모든 학원들은 거의 모두 사부님의 자비의 마당에 용화되어 떠들지도 않고 밀치지도

신용카드를 카운터 위에 꺼내 놓자마자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학원들의 뒤로 넘어왔는데 사부님께서는 어느 사이에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계셨다. 그이는 웃으면서 먼저 내가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사부님께 일월담을 유람하고 문무묘를 참관하고 소족을 보러 가자고 청하자 사부님은 모두 싫다고 하셨다. 그러면 차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어떤 가고 묻자 역시 싫다고 하시면서 《돌아 갑시다!》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병병해 낫다. 천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풍경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말인가? 어제 저녁 그렇게 늦게 도착하고 무엇 때문에 하룻밤만 머물고 오늘 아침 총망하게 떠난단 말인가? 사부님의 말씀이었기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떠날 준비를 할 때 나의 부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부님이 그녀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넘겨주셨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 늙은이의 맑은 호수  
노을 빛 아름답게 비껴 드누나  
몸은 난세 속에 있거니  
홀로 아름답기는 참으로 어렵네》

라고 써어있었다. 당시 일월담을 묘사한 이 시의 뒷부분은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3년 후, 대만에 《921》대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튿날, 내가 대만 각 지역의 대법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모든 사람이 다 평안 무사하였다. 그때야 일월담을 떠나던 그날 아침, 사부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다. 그이는 일월담 속의 이 신은 본래 아주 괜찮은데 과도한 개발이 그를 놀래 왔다고 했다. 사부님은 3년 후에 발생할 대지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단 말씀은 없었다. 원래 사부님이 이처럼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대만을 한 바퀴 돌아서 일월담으로 오신 것은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의 마당(場)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사부님께서 일월담이 대만의 명맥에 관련된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만일 붕괴된다면 대만의 전반 생태, 식물 연쇄사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셨다.

사부님이 대만에 머물러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을 모시고 대만을 한 바퀴 돌면서 사부님이 전시한 수많은 신통을 견증하였다. 사부님께서 오실 때도 아는

때문이었다. 잡지에는 제 1 조공법과 효과를 본 수련자들의 호평의 글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저 일반 기공으로만 알고 있었다.

나의 기억에 한 농촌부녀가 있었는데 몇 시간의 강의를 듣고 나서 몇 년 동안 달고 다니던 중약을 모두 내던졌다. 그리고 사부님의 설법반에 온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 젊은이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갑자기 입으로 거품을 토해내며 땅에 쓰러졌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의 몸에 부체가 있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당장에서 그의 몸을 청리하여 주셨다.

결혼한지 몇 해가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기공을 배웠다. 어떤 기공은 한번 강의를 듣는데 200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파룬궁은 열흘에 50 원을 받고 노학원은 또 절반 값만 받으니 정말 값이 싼다. 지금 이 아주머니의 아이는 멀지 않아 초중을 다니게 된다.

몇 명의 노학원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부처를 믿었다. 그 부처가 그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한 고인(高人)이 법을 전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배우라고 하기에 그들은 파룬궁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나는 이 말을 듣고서 미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에게도 이런 것을 믿지 말고 그 속의 과학적인 면만 믿자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악한 공산당 교과서의 사악한 선전에 중독되었던 것이다.

나는 주의식이 강하지 못하였다. 한번은 사부님이 강의를 마친 휴식시간에 정신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나의 앞에 나타나 두 눈을 부릅뜨고 나더러 일어서라고 하였다. 나도 눈을 부릅뜨고 그를 보았는데 비록 긴장하기는 했지만 그의 지휘를 듣지 않았다. 아마 이것도 나에 대한 고험일 것이다.

어느 한번 복무원이 사부님이 주숙하는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부님께서 임시로 2층의 한 방으로 옮기셨다. 우리는 듣고 나서 모두 몰려갔다. 방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틈새로 가만히 사부님을 관찰하였다. 사부님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자비로웠다. 머리는 검고도 윤기가 났으며 피부는 영아의 살결마냥 희면서도 붉은 빛을 띠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부님에 대한 불경이지만 그때의 감각은 확실히 이러하였다. 한 동북 공안국 녀국장이 사부님과 마주 앉아 그녀가 가부좌를 틀기만 하면 동동 떠오르는데 몹시 놀란다고 하였다.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모두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병을 보아주던 기공사가 있었다. 그녀는 사부님이 병 치료의 위해성을 알려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또 겨우 6.7 세 가량 된 작은 원숭이라고 불리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는 북경으로부터 줄곧 사부님의 전수반을 따라 간리까지 왔으며 마치고 작은 어른 같았다. 그는 자기 절로 밥 그릇을 들고 식당에 가서 밥을 타 오곤 하였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그 애의 모습을 귀여워하면서 재미있게 보았다. 나는 그에게 가만히 물었다. 《너는 천목으로 무엇을 보았니?》 그 애는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요.》 나의 정서가 저락돼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소극적이고 염세적이었다) 그 애는 또 나를 위안하면서 나의 연공 동작이 아주 규범적이라고 칭찬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일부 노학원들이 이미 파를 먹을 수 없어 거기 옆드려 토하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의 맨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대수인을 하실 때 많은 사진기들이 찰칵찰칵 하며 사진을 찍었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서는 찍어도 헛 찍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 학원들이 함께 가서 사진을 씻어 보니 사부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모두 나왔는데 유독 사부님께서 대수인을 하시는 사진만은 나오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강의를 마치고 곧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사부님의 일정은 이미 하반기까지 스케줄이 잡혀있었다. 길에서 차를 타는 시간을 제외하고 기타 시간은 모두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다.

지금에 와서 그때의 정경을 생각하면 의연히 눈앞에 역력하다. 나는 노교소에서 돌아온 후, 또다시 사부님이 당년에 법을 전하시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곳은 의연히 에네지 마당이 아주 강하였으며 귀 전에서는 또다시 사부님의 당년의 말씀이 울려왔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감각하다.》 지금 승리유전의 박해가 이처럼 엄청난 정황 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사부님께서서는 열흘 동안 설법하시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짜내어 동력기계공장, 고도(孤島) 등 지역에서 무료로 몇 번 강의하셨다. 후에 들은 일이지만 원래 사부님께서서는 동영시에서 공을 전할

가르쳐주셨다. 고궁을 아직 나서기도 전에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현대화는 이미 변이된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문을 나선 뒤에야 원래 고궁의 다른 한 면에서 현대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야 우리는 사부님은 일체를 다 알고 계시며 천지간의 사물의 자초지종을 그 누구도 사부님처럼 똑똑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부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월담과 대만 각지를 돌아보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께서 유람을 하시려는 줄로만 알았다. 먼 후 날에야 사부님이 대만을 위하여 쏟아 부은 심혈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대북으로부터 동부와 남부를 에돌아 대중의 일월담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가 의란에서 떠날 때 기름통에는 휘발유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중에 급유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의란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다. 차체가 무거운데다 산길이어서 기름 소모량이 컸다. 유량계가 거의 밑바닥을 가리킬 때 끝내 한 마을을 만났는데 온 마을을 한 바퀴 돌았지만 급유소는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은 다만 석유회사에서 왜 급유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셨다. 이때 한 마을 사람을 만나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급유소가 어디에 있는다고 물었다. 그는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의란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화련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는 급유소가 없다고 하였다. 일시적인 소홀로 사부님을 산에서 머물게 하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을 때 사부님은 눈을 감고 계셨다. 조금 지나 우리가 다시 머리를 돌려보니 갑자기 밑바닥에 닿아 있던 유량계 지침이 기름이 가득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부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도중에 갈림길을 만나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언제나 관건적인 시각에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우리는 원래 지붕 창을 열었는데 수많은 하늘과 바다의 불도신들이 나타났다. 사부님께서서는 아주 조용한 자세로 우리더러 창문을 닫으라고 하셨다. 일월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저녁 9 시가 넘었고 날이 어두워 아무런 풍경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이 사부님을 모시고 부근의 명승지를 거닐 타산으로 호텔에 가서 숙박등기를 하였다. 도중에서 식사비용은 모두 사부님이 계산하였기에 학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꺼내어 사부님을 도와 숙박비를 물려고 하였다. 생각 밖에도

대중에서의 설법에는 대략 7,8 백 명이 참가하였다. 한 학원이 회상하기를 그때 그녀는 온몸에 병투성이었는데 그녀를 도와 치료를 하던 기공사가 그녀를 데리고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다. 사부님은 두 차례 그녀의 곁을 지나쳤는데 그녀는 번마다 달려가서 사부님의 손을 붙잡고 《사부님, 제가 이런 신체로 수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번마다 자애롭게 《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그녀는 견정하게 수련을 시작하였는데 병은 벌써 사라지고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법을 금방 얻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대법을 깊이 접촉하지 못하였기에 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모호하였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어떻게 하면 일마다 뜻대로 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비록 웃으시면서 이런 문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하시면서도 제기된 문제들을 일일이 대답하였다. 사부님께서는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언제나 알기 쉬운 말로 깊은 법리를 해석하셨다. 사부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채로와 학원들은 몇 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귀 다듬어 들었다. 그때 대만에서는 경찰방면에서 수많은 경력을 동원하여도 결말을 보지 못한 안건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부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악인이 그 이들 사이에 끝내 그물에 걸려들었다. 학원들이 이것이 사부님이 대만에 오신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고 묻자 사부님께서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불광이 널리 비추니 예의가 밝도다.》

사흘째 되는 날, 사부님께서는 고궁박물관을 참관하셨다. 사부님의 이 길이 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들은 급히 해설원을 배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사부님은 원래 행동이 빠른 분이시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는데 해설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학원들을 거느리고 참관하러 들어갔다. 참관 과정에서 사부님은 매 한 건의 문물에 대해 손금 보듯 알고 계셨다. 그이는 학원들에게 그들의 유래, 그때 당시 제작할 때의 작용과 어떻게 흠상해야 함을 해설했다. 학원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마치 처음으로 고궁을 참관하는 듯싶었으며 비로서 문물을 전시한 의의를 알게 되었다. 기억하건대 안에는 고궁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금황색 뼈가 있었다. 사부님은 그것은 용골이라고 하시면서 학원들에게 천목으로 보면 그것의 미관 입자가 바로 그 형상이라고

예정이었는데 당지 기공협회의 배척으로 시 주변인 간리현에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한 늬의 맑은 호수

- 사부님께서 대만에서 설법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회상하며

글 / 대만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2월 20일】 1997년 11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대만에 광림하시어 대만 대법제자들은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이 대북삼성소학교 및 대중 무봉농기계공장에서 두 차례 설법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대만에는 대략 2천여 명의 대법제자가 있었는데 9년이란 세월의 흥법을 거쳐 오늘은 보수적인 숫자로 이미 4,50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차례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법을 얻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때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노라면 사부님이 중생을 위한 사심없는 대가와 고심한 안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사부님은 무슨 일에서나 조용히 하셨는데 그때 아태지역의 학원들은 사부님을 따라가서 법을 들으려고 사부님의 행적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 하였다. 한 홍콩 수련생은 꿈에 아주 많은 상서로운 구름과 신선들이 모두 대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전화로 사부님이 대만에 가지지 않았는가 고 물었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대만에 도착하였다. 그때 학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부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사부님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노 학원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회의청의 커튼을 실례로 아래 위로 금을 그으면서 정법의 의의를 설명 하셨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사부님께서 정법하러 오셨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 지나 사부님께서는 삼성소학교에서 설법을 하시게 되었다. 임시로 한 결정인지라 여러 사람은 밤 도와 전화를 걸어 학원들에게 한 사람씩 통지하였다. 이렇게 그가 몇 사람에게 통지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통지하여 그날 회장에는 대략 2천여명이 와서 설법을 듣게 되었다. 설법을 끝내시고 사부님께서는 강단에서 내려와 학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많은 학원들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의 요구에 의해 사부님께서 대중 무봉농기계공장에서 또 한 차례 설법을 하셨다. 두 번째

대중에서의 설법에는 대략 7,8 백 명이 참가하였다. 한 학원이 회상하기를 그때 그녀는 온몸에 병투성이었는데 그녀를 도와 치료를 하던 기공사가 그녀를 데리고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다. 사부님은 두 차례 그녀의 곁을 지나쳤는데 그녀는 번마다 달려가서 사부님의 손을 붙잡고 《사부님, 제가 이런 신체로 수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번마다 자애롭게 《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그녀는 견정하게 수련을 시작하였는데 병은 벌써 사라지고 몸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법을 금방 얻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대법을 깊이 접촉하지 못하였기에 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모호하였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어떻게 하면 일마다 뜻대로 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께서는 비록 웃으시면서 이런 문제는 너무 세속적이라고 하시면서도 제기된 문제들을 일일이 대답하였다. 사부님께서는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언제나 알기 쉬운 말로 깊은 법리를 해석하셨다. 사부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채로와 학원들은 몇 시간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귀 다듬어 들었다. 그때 대만에서는 경찰방면에서 수많은 경력을 동원하여도 결말을 보지 못한 안건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부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악인이 그 이들 사이에 끝내 그물에 걸려들었다. 학원들이 이것이 사부님이 대만에 오신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고 묻자 사부님께서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불광이 널리 비추니 예의가 밝도다.》

사흘째 되는 날, 사부님께서는 고궁박물관을 참관하셨다. 사부님의 이 길이 험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학원들은 급히 해설원을 배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사부님은 원래 행동이 빠른 분이시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는데 해설원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학원들을 거느리고 참관하러 들어갔다. 참관 과정에서 사부님은 매 한 건의 문물에 대해 손금 보듯 알고 계셨다. 그이는 학원들에게 그들의 유래, 그때 당시 제작할 때의 작용과 어떻게 흠상해야 함을 해설했다. 학원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마치 처음으로 고궁을 참관하는 듯싶었으며 비로서 문물을 전시한 의의를 알게 되었다. 기억하건대 안에는 고궁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금황색 뼈가 있었다. 사부님은 그것은 용골이라고 하시면서 학원들에게 천목으로 보면 그것의 미관 입자가 바로 그 형상이라고

예정이었는데 당지 기공협회의 배척으로 시 주변인 간리현에서 설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한 늙은이의 맑은 호수

- 사부님께서 대만에서 설법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회상하며

글 / 대만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2월 20일】 1997년 11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대만에 광림하시어 대만 대법제자들은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이 대북삼성소학교 및 대중 무봉농기계공장에서 두 차례 설법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대만에는 대략 2천여 명의 대법제자가 있었는데 9년이란 세월의 흥법을 거쳐 오늘은 보수적인 숫자로 이미 4,50만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차례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법을 얻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때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노라면 사부님이 중생을 위한 사심없는 대가와 고심한 안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사부님은 무슨 일에서나 조용히 하셨는데 그때 아태지역의 학원들은 사부님을 따라가서 법을 들으려고 사부님의 행적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 하였다. 한 홍콩 수련생은 꿈에 아주 많은 상서로운 구름과 신선들이 모두 대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전화로 사부님이 대만에 가지지 않았는가 고 물었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대만에 도착하였다. 그때 학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부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사부님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노 학원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회의청의 커튼을 실례로 아래 위로 금을 그으면서 정법의 의의를 설명 하셨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사부님께서 정법하러 오셨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 지나 사부님께서는 삼성소학교에서 설법을 하시게 되었다. 임시로 한 결정인지라 여러 사람은 밤 도와 전화를 걸어 학원들에게 한 사람씩 통지하였다. 이렇게 그가 몇 사람에게 통지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통지하여 그날 회장에는 대략 2천여명이 와서 설법을 듣게 되었다. 설법을 끝내시고 사부님께서 강단에서 내려와 학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많은 학원들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의 요구에 의해 사부님께서 대중 무봉농기계공장에서 또 한 차례 설법을 하셨다. 두 번째

미소를 지으시며 모두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병을 보아주던 기공사가 있었다. 그녀는 사부님이 병 치료의 위해성을 알려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또 겨우 6.7 세 가량 된 작은 원숭이라고 불리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는 북경으로부터 줄곧 사부님의 전수반을 따라 간리까지 왔으며 마치고 작은 어른 같았다. 그는 자기 절로 밥 그릇을 들고 식당에 가서 밥을 타 오곤 하였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그 애의 모습을 귀여워하면서 재미있게 보았다. 나는 그에게 가만히 물었다. 《너는 천목으로 무엇을 보았니?》 그 애는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요.》 나의 정서가 저락돼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소극적이고 염세적이었다) 그 애는 또 나를 위안하면서 나의 연공 동작이 아주 규범적이라고 칭찬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일부 노학원들이 이미 파를 먹을 수 없어 거기 옆드려 토하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의 맨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대수인을 하실 때 많은 사진기들이 찰칵찰칵 하며 사진을 찍었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서는 찍어도 헛 찍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 학원들이 함께 가서 사진을 씻어 보니 사부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은 모두 나왔는데 유독 사부님께서 대수인을 하시는 사진만은 나오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강의를 마치고 곧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사부님의 일정은 이미 하반기까지 스케줄이 잡혀있었다. 길에서 차를 타는 시간을 제외하고 기타 시간은 모두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다.

지금에 와서 그때의 정경을 생각하면 의연히 눈앞에 역력하다. 나는 노교소에서 돌아온 후, 또다시 사부님이 당년에 법을 전하시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곳은 의연히 에네지 마당이 아주 강하였으며 귀 전에서는 또다시 사부님의 당년의 말씀이 울려왔다. 《이곳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무감각하다.》 지금 승리유전의 박해가 이처럼 엄청난 정황 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쓴다.

사부님께서서는 열흘 동안 설법하시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짜내어 동력기계공장, 고도(孤島) 등 지역에서 무료로 몇 번 강의하셨다. 후에 들은 일이지만 원래 사부님께서서는 동영시에서 공을 전할

가르쳐주셨다. 고궁을 아직 나서기도 전에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현대화는 이미 변이된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문을 나선 뒤에야 원래 고궁의 다른 한 면에서 현대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야 우리는 사부님은 일체를 다 알고 계시며 천지간의 사물의 자초지종을 그 누구도 사부님처럼 똑똑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부님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월담과 대만 각지를 돌아보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께서 유람을 하시려는 줄로만 알았다. 먼 후 날에야 사부님이 대만을 위하여 쏟아 부은 심혈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대북으로부터 동부와 남부를 에돌아 대중의 일월담으로 가기로 했다. 우리가 의란에서 떠날 때 기름통에는 휘발유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중에 급유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의란에서 기름을 넣지 않았다. 차체가 무거운데다 산길이어서 기름 소모량이 컸다. 유량계가 거의 밑바닥을 가리킬 때 끝내 한 마을을 만났는데 온 마을을 한 바퀴 돌았지만 급유소는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은 다만 석유회사에서 왜 급유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셨다. 이때 한 마을 사람을 만나 그에게 가장 가까운 급유소가 어디에 있는다고 물었다. 그는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의란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화련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는 급유소가 없다고 하였다. 일시적인 소홀로 사부님을 산에서 머물게 하게 되었다고 후회하고 있을 때 사부님은 눈을 감고 계셨다. 조금 지나 우리가 다시 머리를 돌려보니 갑자기 밑바닥에 닿아 있던 유량계 지침이 기름이 가득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부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내색을 보이지 않으셨다. 도중에 갈림길을 만나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언제나 관건적인 시각에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우리는 원래 지붕 창을 열었는데 수많은 하늘과 바다의 불도신들이 나타났다. 사부님께서서는 아주 조용한 자세로 우리더러 창문을 닫으라고 하셨다. 일월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저녁 9 시가 넘었고 날이 어두워 아무런 풍경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이 사부님을 모시고 부근의 명승지를 거닐 타산으로 호텔에 가서 숙박등기를 하였다. 도중에서 식사비용은 모두 사부님이 계산하였기에 학원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꺼내어 사부님을 도와 숙박비를 물려고 하였다. 생각 밖에도

신용카드를 카운터 위에 꺼내 놓자마자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학원들의 뒤로 넘어왔는데 사부님께서는 어느 사이에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계셨다. 그이는 웃으면서 먼저 내가 보관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사부님께 일월담을 유람하고 문무묘를 참관하고 소족을 보러 가자고 청하자 사부님은 모두 싫다고 하셨다. 그러면 차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어떤 가고 묻자 역시 싫다고 하시면서 《돌아 갑시다!》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어안이 병병해 낫다. 천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풍경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말인가? 어제 저녁 그렇게 늦게 도착하고 무엇 때문에 하룻밤만 머물고 오늘 아침 총망하게 떠난단 말인가? 사부님의 말씀이었기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떠날 준비를 할 때 나의 부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부님이 그녀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넘겨주셨다.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 늙은이의 맑은 호수  
노을 빛 아름답게 비껴 드누나  
몸은 난세 속에 있거니  
홀로 아름답기는 참으로 어렵네》

라고 써어있었다. 당시 일월담을 묘사한 이 시의 뒷부분은 이해가 잘되지 않았다.

3년 후, 대만에 《921》대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튿날, 내가 대만 각 지역의 대법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모든 사람이 다 평안 무사하였다. 그때야 일월담을 떠나던 그날 아침, 사부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다. 그이는 일월담 속의 이 신은 본래 아주 괜찮은데 과도한 개발이 그를 놀래 왔다고 했다. 사부님은 3년 후에 발생할 대지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단 말씀은 없었다. 원래 사부님이 이처럼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대만을 한 바퀴 돌아서 일월담으로 오신 것은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만의 마당(場)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사부님께서 일월담이 대만의 명맥에 관련된다 하신 적이 있는데 만일 붕괴된다면 대만의 전반 생태, 식물 연쇄사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셨다.

사부님이 대만에 머물러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을 모시고 대만을 한 바퀴 돌면서 사부님이 전하신 수많은 신통을 견증하였다. 사부님께서 오실 때도 아는

때문이었다. 잡지에는 제 1 조공법과 효과를 본 수련자들의 호평의 글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그저 일반 기공으로만 알고 있었다.

나의 기억에 한 농촌부녀가 있었는데 몇 시간의 강의를 듣고 나서 몇 년 동안 달고 다니던 중약을 모두 내던졌다. 그리고 사부님의 설법반에 온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한 젊은이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갑자기 입으로 거품을 토해내며 땅에 쓰러졌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의 몸에 부체가 있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당장에서 그의 몸을 청리하여 주셨다.

결혼한지 몇 해가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기공을 배웠다. 어떤 기공은 한번 강의를 듣는데 200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파룬궁은 열흘에 50 원을 받고 노학원은 또 절반 값만 받으니 정말 값이 싼다. 지금 이 아주머니의 아이는 멀지 않아 초중을 다니게 된다.

몇 명의 노학원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부처를 믿었다. 그 부처가 그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한 고인(高人)이 법을 전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배우라고 하기에 그들은 파룬궁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나는 이 말을 듣고서 미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에게도 이런 것을 믿지 말고 그 속의 과학적인 면만 믿자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악한 공산당 교과서의 사악한 선전에 중독되었던 것이다.

나는 주의식이 강하지 못하였다. 한번은 사부님이 강의를 마친 휴식시간에 정신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나의 앞에 나타나 두 눈을 부릅뜨고 나더러 일어서라고 하였다. 나도 눈을 부릅뜨고 그를 보았는데 비록 긴장하기는 했지만 그의 지휘를 듣지 않았다. 아마 이것도 나에 대한 고험일 것이다.

어느 한번 복무원이 사부님이 주숙하는 방을 청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부님께서 임시로 2층의 한 방으로 옮기셨다. 우리는 듣고 나서 모두 몰려갔다. 방에는 이미 사람들로 꽂 차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틈새로 가만히 사부님을 관찰하였다. 사부님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자비로웠다. 머리는 검고도 윤기가 났으며 피부는 영아의 살결마냥 희면서도 붉은 빛을 띠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부님에 대한 불경이지만 그때의 감각은 확실히 이러하였다. 한 동북 공안국 녀국장이 사부님과 마주 앉아 그녀가 가부좌를 틀기만 하면 동동 떠오르는데 몹시 놀란다고 하였다. 사부님께서

도착하여 사부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래도록 기다려도 사부님께서 오지 않으셨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가기에 여러 사람은 안 오시는 줄 알고 모두 돌아갔다. 그들이 금방 돌아가자마자 사부님께서 오셨다. 사부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은 절에서 문을 지키는 노인과 그의 손자였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후에 사부님은 노인에게 파룬궁을 소개하였다. 문지기 노인이 말하였다. 《난 이전 늙었수다. 문화도 없는데 공을 연마할 수 있겠수?》

노인은 사부님께 그와 온 가족의 근심거리를 이야기 하였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린 손자였는데 머리가 나빠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갈수록 학과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는 따뜻하게 어린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는 사탕 한 알을 그에게 주었다. 어린애는 기뻐서 제꼭 받아먹었다.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문지기 노인의 집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그의 어린 손자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머리가 총명해지고 학교 가기도 좋아하고 말도 잘 듣고 학습 성적도 제고 되었다고 하였다. 문지기 노인은 생각하였다. 이 파룬궁 사부님은 마음씨가 곱고 화기로우며 사탕 한 알로 내 손자를 변모시켰으니 그가 가르치는 파룬궁도 꼭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晷利县)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 / 대륙대법학원 소하

【명혜망 2006년 5월 21일】 1994년 2월,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에 오시어 법을 전하셨다. 내가 산둥 간리현 초대소에서 주숙 등록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부님은 아직도 기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때는 아마 설달 그믐이었을 것이다. 지금이야 알게 되는데 사부님께서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분초를 다투셨으며 고생과 피로도 마다하시었다.

저녁 무렵에 사부님께서 식당 문어구에 나타나셨다. 우리는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파룬궁은 진짜이구나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사부님이 《건강과 미》라는 잡지에 실린 사진과 꼭 같았기

사람이 없었고 가실 때도 학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사부님이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풍모는 우리에게 준 가장 훌륭한 교감이었다.

## 사부님이 설법하시던 그날을 회상

글 / 대만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3일】 나는 1996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다. 법을 얻기 전, 나는 불교와 도교가 주로 흥행했던 과거의 대만에서 줄곧 마음속의 정법문을 찾고 있었다. 기연이 이른 모양인지 자비로운 사부님의 점화 하에 96년 10월 갑자기 1년간 연계가 없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중에서 저도 모르게 수련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친구는 오래 적치된 수많은 문제들에 일일이 해답을 줄 수 없어 나에게 간자체로 된 책 한 권이 있는데 모든 답안이 그 책 속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내성있게 책을 보아야 하며 책에다 함부로 줄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일주일 후, 나는 그 책을 받았는데 바로 《전법륜》이었다. 그때로부터 내 생명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련이었다!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의 해외에서의 설법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사부님의 자상하게 매개 학원을 관심하는 흥대한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아래에 몇 가지 실례를 이야기 하겠다.

1997년 11월, 사부님은 처음으로 대만에 오셔서 대북과 대중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설법을 하셨다. 대북삼성소학교에서 설법할 때였다. 나와 다른 한 학원이 회의장뒤쪽에서 의자를 나르는 일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사부님께서 걸어오셨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부님을 보게 되자 놀랍고 격동되어 저도 모르게 《사부님!》 하고 소리쳤다. 사부님께서 식지를 입가에 가져다 대면서 《쉬!》 하고 소리를 내셨다. 나는 격동된 심정을 억제하고 재빨리 두 손을 합장하고 한 칸에 조용히 서있었다. 사부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며 학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사부님은 설법을 하실 적에 목소리가 똑똑하고 평온했으며 한글자 한 마디가 내심의 깊은 곳에 와 닿았다. 중간 휴식시간에 사부님은 회의장을 한 바퀴 돌았다. 당시 모든 학원들은 거의 모두 사부님의 자비의 마당에 용화되어 떠들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았으며 자동적으로 사부님께 길을 내어 드렸다. 사부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자 나는 사부님을 마주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사부님께서는 줄곧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사부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요해하시는 듯싶었고 온 몸은 사부님의 흉대한 자비 속에 잠겨 들었다.

설법이 결속된 후, 여러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 그때 우리 몇몇 학원들은 회의장에서 막 떠나는 사부님을 만났다. 당시 대만에는 연공장소가 많지 못했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다만 어떻게 하면 연공장소를 늘려 이 아름다운 대법을 전파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리하여 한가지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 저는 XX 곳에 연공장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함께 있던 몇몇 노학원들은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도 (너는 어렵게 사부님께 문제를 묻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묻는단 말이나?) 하는 듯싶었다. 사부님은 문제의 깊고 열음과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묻는 학원들에게 모두 내심하게 해답을 주셨다. 사부님께서는 그당시 하나하나 내심하게 인도해 주며 조급해 하지 말라고 위안까지 해주었다. 나는 마치도 봄바람에 목욕을 하는 듯싶어 그저 행복하게 사부님만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귀에 들어온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감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회상해보면 이 한 길을 걸어오면서 후에 전개된 모든 것이 그때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다.

1998년 5월, 독일 프란커푸법회에서 또다시 사부님을 만나 뵈었다. 당시 현장에는 대략 5백여 명의 학원이 참가하였다.

법회의 전반부분이 끝나자 나는 먼저 나가 자료를 살 준비를 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행운스럽게도 독일 학원들이 꾸린 흥법신문을 보고 계시는 사부님을 만났다. 나는 기쁜 나머지 사진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었다. 그때 사부님께서는 나를 한번 보셨다. 비록 나무라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사진기를 거두고 한 켠에 서있었다. 후에 학원들이 점점 많이 나오자 사부님은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셨다. 나는 제격 《사부님, 저는 대만에서 왔습니다.》 고 말씀 드렸다. 사부님께서는 층계를 내려와 나와 악수를 나누시며 친절하게 이것저것 물으셨다. 사부님께서는 또

사부님께서 내색을 내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감촉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머니의 신체에서 격렬한 변화가 나타난 후에야 의식할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짧디 짧은 설법직전의 시간을 이용하신 것은 강의시간에 청리하기에는 이미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 제때에 오셨기에 어머니의 생명은 비로서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신체를 청리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두려움에 온 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마음은 사부님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 된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는 일체를 통찰하시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곧 발생할 생명을 잃는 재난이 사라지도록 하셨던 것이다. 《기실 나는 당신들 자신보다 더 당신들을 아끼고 있다!》 (《최후의 집착을 버리자》)는 사부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증실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 《당신이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곧 당신에 대하여 책임진다.》 (《미국 제1차 설법》)

#### 4. 다른 사람이 악한 말로 욕할 때

어느 한번, 사부님은 한 제자와 함께 작은 음식점에서 밀국수를 드시었다. 식당 주인이 국수를 가져오자 사부님께서는 낮은 소리로 《국수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구먼》 라고 한마디 하셨다. 식당 주인은 듣고 나서 버럭 화를 냈다. 《이 사람이 사단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먹어도 안보고 소금을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안단 말이야!》

사부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밀국수를 잡숫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도리가 있다고 한바탕 훈시하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사부님은 국수를 다 드실 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제자가 그릇을 식당 주인에게 넘겨줄 때, 손이 가는 대로 사부님의 국수그릇 밑 굽을 찍어 맛을 보고서 식당 주인에게 말하였다. 《확실히 짜군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렇게도 태연하시었다.

#### 5. 석불사 문지기의 이야기

어느 하루, 사부님께서는 석불사에 다녀올 준비를 하셨다. 소식을 일찍히 들은 일부 보도원과 학원들은 급급히 이곳에

사람은 그를 부축하여 걸었다. 그는 심장병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품습, 관절통이 있어 길을 걸을 수 없었으며 전신에 부종이 생긴데다가 여섯 살에 전족을 동여뒀기에 머리가 무겁고 발이 가벼웠다. 우리 둘은 그를 부축하여 앞으로 움직이면서 거의 기진맥진되어 있었다. 더욱 근심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일어선다는 것조차도 그로 놓고 말하면 아주 어려운 일인데 심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 시각 나는 이런 모험을 하지 말았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만일…… 후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머리를 드는 순간, 갑자기 사부님의 커다란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이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사부님을 불렀다. 그러나 사부님은 대답이 없이 마치 무슨 일을 하는 듯싶었다. 사부님께서 한편으로 걸으면서 집중된 눈빛으로 어머니의 신체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머리를 돌려 사부님을 바라보니 사부님께서 같은 눈빛으로 어머니의 등을 보시다가 빠른 걸음으로 강의실로 들어가셨다. 이때 원내의 학원들은 전부 강의실에 앉아있었는데 사부님만은 홀로 밖에 계셨으니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급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우리는 먼저 강의를 들으러 갔다.

다음날, 어머니의 신체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에 피가 섞여 있었다. 소변을 본 다음에는 온몸이 거뿔해지고 병증이 사라졌으며 부종도 내렸다. 이때에야 우리는 문득 크게 깨달았다. 원래 어제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하러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강의시간에 여러 사람의 신체를 청리 하신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머니를 단독으로 청리해 주셨는가? 그것은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당시 어머니의 병이 위급하여(수시로 심장박동이 멈출 가능성이 있었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기도 힘든 상황을 보셨던 것이다.

사부님께서 매일 일찍 회의장에 도착하셨다. 만일 우리가 일찍 도착했다면 사부님은 어머니를 청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직장에서부터 총망히 퇴근하여 오는 동수를 기다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와야 했기에 언제나 일찍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도리어 사부님께서 일찍이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셨다(단 설법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대문에 들어서자 사부님께서 신속하게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 하셨다.

나의 곁에 있는 미국학원을 보면서 말씀하셨다. 《당신도 대만 학원이지요.》 조금 후, 이 학원은 기뻐하며 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내가 대만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소!》

법회가 결속된 후, 사부님께서 각국의 학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것을 승낙하셨다.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흥분하였다. 대만의 한 학원은 앞을 보지 못하여 행동이 불편하였다. 기념사진을 찍은 후, 모두들 앞다투어 사부님과 악수를 나누느라 그녀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 주동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셨다. 이 맹인학원은 사후에 격동되어 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나와 악수를 나누셨어요!》 사부님께서는 매사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였으며 매 학원에 대한 마음은 꼭 같았다.

금방 법을 얻었을 때는 사부님의 일체에 호기심을 가졌었다. 사부님의 옷차림은 언제나 멋졌는데 사부님께서 입은 양복 원단이 어떤 천인지 알고 싶었다. 호기심으로 인해 사부님께서 강단에서 학원들과 악수를 나누시는 기회를 타서 가만히 사부님의 옷깃을 만져보았다. 그런데 옷감은 나일론이 섞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좋은 옷감이 아니었다. 사부님은 해외설법을 하실 때 번마다 고정적으로 두 세벌의 양복을 입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사부님은 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 늘 라면으로 끼니를 에우셨다고 한다. 번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신에게 물질면에서 너무 사치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주의를 돌려 사부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1998 년, 나는 싱가포르법회에 참가하였다. 중간 휴식시간에 나는 회의장 좌석에서 사부님의 오른쪽에 앉게 되었다. 왼편에 앉은 한 중년학원은 줄곧 사부님께 그의 무릎이 어떻게 나쁘고 아프다고 하소연 하였다. 사부님은 《괜찮을 거요, 괜찮을 거요!》라고 안위하시면서 그의 무릎을 문질러 주셨다. 나는 사부님이 그 학원을 대신하여 업력을 감당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 학원은 여전히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의 병을 말하였지만 사부님께서는 그로 인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의연히 자비롭게 그의 무릎을 다독이면서 그를 고무 격려하였다. 《당신은 될 수 있소! 당신은 될 수 있소!》

대만으로 돌아가는 장의(樟宜) 비행장에서 나와 십 여명의

동수들은 행운스럽게도 또 사부님을 만날 수 있었다. 모두들 기회를 놓칠 세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도 한가지 넘어야 할 관이 있는데 오랫동안 넘을 수 없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이 난이 크기에 조금씩 나누어 안배했다고 하시면서(말씀하시는 한편 손 시늉으로 매개 단계를 비유하셨다) 여기까지 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중에 사부님은 나에게 《당신은 꼭 넘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나는 사부님이 가지하는 역량을 느꼈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면》 꼭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고비를 넘겼다.

매번 사부님과 함께 있던 시각들을 회상하면 마치도 한집식구처럼 느껴진다. 사부님의 흉대한 자비 속에서 일체 고생스러움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저 행운스럽고 행복하기만 하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한지도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하에서 한 걸음씩 오늘까지 걸어왔다. 비록 때론 잘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사부님은 의연히 우리의 손을 잡아당기고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부님은 《최후의 집착을 버리자》에서 말씀하기를 《당신들은 이미 가장 간고한 시기를 지나왔다. 그러므로 최후의 하나의 집착에서 꼭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제자들의 고통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기실 나는 당신들 자신보다 더 당신들을 아끼고 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사부님이시여! 우리는 꼭 세가지 일을 잘하여 정념정행하고 중생을 구도하여 절대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미안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자비를 견증

글/대륙대법제자

1994년, 나의 한 친구의 딸애가 요미추골이 골절되었다. 허리가 아파 걷지도 못하고 서있기도 어려웠으며 잠을 잘 때마저 고통이 심하였다. 양의와 중의를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호전을 보지 못하고 후에 기공사를 찾아 치료하였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젠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그녀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결혼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경과하여 또다시 나의 손으로 되돌아 올 줄이야. 맨 나중에 돌려왔을 때는 이미 강의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가능하면 인연이 있는 사람이 물리는 표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회의장에 일찍이 나가보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앞서 나는 반드시 어머니한테로 한번 가봐야 했다.

나의 어머니는 80 여세 고령이어서 우리는 저녁이면 윤번으로 그녀를 보살피는데 오늘 아침 내 차례였다. 나는 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와 강의를 듣는 일을 이야기 하고 또 문표가 세상을 유람하고 돌아온 일도 이야기 하였다. 무의식간에 나는 어머니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병이 너무 중하였다. 엄중한 심장병, 심력쇠퇴, 신장 기능쇠퇴가 왔으며 병원에서는 일찍이 병이 위급하다는 통지를 내렸다. 그리하여 반드시 의사의 분부에 따라 자리에 누워서 휴식해야 했으므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때 어머니의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변화시킬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당승과 같은 못차림을 한 사부가 와서 나에게 연공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 호리호리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셨다고 하였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부처를 믿고 부처를 공경하였으며 마음이 선량하고 고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인(高人)의 점화란 말인가? 우리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보자고 의논 하였다. 나는 동수의 도움을 빌어 택시를 불러 타고 황정까지 달려갔다. 겨우 강의실로 들어서서 사부님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냉큼 내 손을 붙잡고 말하였다. 《이 분이 바로 꿈에 본 사부님이시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이미 입가에까지 흘러내려오고 목소리마저 변한 것을 보았다. 강의시간에 나의 속인마음은 수시로 흔들렸는데 그녀가 지탱하지 못하여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듣고 있었고 조금치도 병이 위중한 환자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연분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오성이 너무 차하고 또 시끄러움을 두려워하였기에 이튿날 사부님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녀를 모시고 가지 않아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사흘째 되는 날, 차를 타고 원내의 문 어구에 이르러 동수는 그가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업고서 한동안 걸었다. 그러나 얼마 안지나 맥이 진하여 우리 두

## 2. 상징적인 요금

사부님께서 연 설법반의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였다. 나는 여러 차례 기공 학습반을 꾸리는 조직 사업에 참가하였고 기공 이론도 여러 번 들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정황은 사회상의 기공학습반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좌우에 120-200 원이고 이보다 더 높은 것도 있다. 사부님은 열흘 동안 설법하시는데 50 원만 받으셨으며 일부는 경감하거나 면제하셨다. 학비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내용이 높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비록 이 우주대법의 내용을 통찰하지는 못하지만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서 이미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다. 《진정하게 고층 차로 사람을 이끌다》, 《사람을 제도함이라, 당신은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이며,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법륜》) 이것이 바로 수련 계에서 줄곧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총차를 초월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몇 마디 말씀으로 천기, 비밀중의 비밀, 모유주천, 천목 등을 해설하셨으며 천하를 돌아다니며 도를 구하던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고 극히 탄복하도록 하였다. 대법 학원들은 손에 대법서적을 들고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과거에 철로 만든 신발이 닳아 떨어지도록 찾아다녔어도 얻지 못한 것을 오늘 사부님께서 문 앞까지 가져다 주셨으니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얻었다.》 이미 부단히 법을 학습하고 마음을 닦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이 《전법륜》이 《이미 가치로 가능할 수 없》는 하늘의 법임을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 세속의 것과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오직 사부님께서 자비하셨기에 학원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요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낮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다만 상징적인 요금이라고.

## 3. 나의 어머니의 신체를 청리하여 주신 이야기

이번 사부님의 학습반은 원래 동료와 같이 참가하기로 약속하였고 문표는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의를 며칠 앞두고 이 동료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갑작스런 재난은 슬픔 뒤끝에 나로 하여금 사람의 운명을 개변시키는 수련의 기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한 장의 문표가

있었다) 몹시 고통스러워 하였다. 후에 내가 파룬궁을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친구는 나를 찾아와 딸애가 사부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사부님은 5 월에 중경에 와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서 사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들 두 부녀와 다른 몇 명의 동수들과 함께 중경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길에서 그의 딸애는 수시로 허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중경으로 가서 사부님의 아흐레 동안의 설법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와 수련을 견지하자 허리미추골이 기적처럼 나왔다. 그 해 년 말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였고 95년 10 월에는 기적처럼 건실한 쌍둥이 여자아기를 낳았다. 아이들은 지금 매우 건강하며 이미 소학교 3 학년에 다니고 있다. 이것은 나의 신변에서 발생한 진실한 이야기이다. 이는 나로 하여금 파룬따파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아름다움, 신기함, 그리고 사부님의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심심히 느끼도록 한다.

##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1)

글/합비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9일】 사부님께서 1993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1994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합비에서 설법하시고 공을 전수하였다. 나는 행운스럽게도 이 두 차례 설법반에 모두 참가하여 친히 사부님의 친절하고 화애로운 미소와 자비롭고 위대한 풍모를 감수하였다.

1993년 11월, 사부님이 합비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나는 안취성 기공협회의 통지를 받았다. 통지에는 리홍지 사부님과 파룬궁을 소개하였고 사부님이 합비에 오셔서 학습반을 꾸린다는 소식도 실었다. 며칠이 지나 나는 또 똑 같은 통지를 받았다. 그때 나는 아직 《자연》과 《필연》의 법리를 모르고 있었지만 내심으로부터 이것은 일반적인 기공반이 아님을 감지하였으며 가능하게 아주 높은 대사가 합비에 오시어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할 것인즉 이 일은 나와 모종의 연계와 연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아주 견정하게 일찌감치 사부님이 합비에서 꾸리는 전수반에 예약을 해놓았다. 과연 이 전수반에서 나는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높은 덕망의 대법을 얻었으며 그때로부터 견정 불이하게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사부님께서 함비에서 설법을 시작하기 전에 안휘성 농업대학의 레의당에서 한차례 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안휘성 성장도 강단에 앉아서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다. 성의 여러 명의 고위간부들도 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사부님께서 함비에서 설법하고 공을 전수하는 기간에 대법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당시의 안휘성위서기 등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그때 그의 목에는 커다란 혹이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그의 이 병을 치료해 주었다. 후에 다른 한 기공사가 함비에 오자 그는 또 그 기공사를 찾아가 보였는데 원래 다 나왔던 병이 다시 도졌다. 그들은 만고의 기연으로 대법을 얻고 사부님께서 친히 신체를 조정해 주었지만 깨달음이 너무 열어 기공을 다만 병을 치료하는 수단으로만 알았기에 결과 이렇게 좋은 대법수련의 기연을 잃어버렸다. 사부님께서 《인간 세상이 혼혼(渾渾)해야 주목상혼(珠目相混) 이로다. 아래가 세상에 내려오심에 필연 조용하도다. 법을 전할 때 필연 사문(邪門)의 교란이 있도다. 도(道)와 마(魔)가 함께 전하고 함께 한 세상에 있거니, 진짜와 가짜를 가려냄은 주로 깨달음에 있노라.》 (정진요지. 《깨달음》)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안휘성 함비 설법반에 참가했던 수많은 대법제자들은 그 후로부터 견정하게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사부님께서 맨 처음으로 함비에서 설법하신 곳은 성 교육학원 레의당이였다. 당시 사부님은 가죽점퍼를 입으셨고 낡은 가죽구두를 신었는데 아주 소박하고 화애롭고 친절하였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학원들더러 손을 내밀라고 하고는 학원들에게 파룬을 넣어주고 체험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운 것은 바로 신체에 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휴식시간에 사부님께서 레의당 복도에서 학원들과 담화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사부님의 크고 작은 법신상과 파룬 마크, 연공음악 테이프를 사느라 문제를 적은 쪽지를 사부님께 드린 외에 사부님과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였다. 사부님은 온화하여 가까이 접근하기가 쉬웠다. 그때 레의당을 지키는 사업일꾼들은 많은 파룬공의 책들을 가지고(소책자, 당시 한권에 2 원) 휴식시간에 강단의 동측에서 사부님더러 사인을 해달라고 하였다. 사부님은 조금도 시끄러워하지 않고 한권 한권씩 사인한

이때 사람들 앞에 커다란 몸매가 나타났는데 바로 사부님이였다. 원래 사부님께서 여러 사람을 지휘하고 계셨다. 사람이 많고 소리가 난잡한데다 시간이 긴박한 정황 하에서 사부님께서 확성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다만 손시늬로 사람들이 앞뒤좌우로 움직이도록 지휘하셨다. 당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단 말인가? 사부님께서 설법하러 오셨으며 여러 차례 국가급 단위의 축형, 장려, 승인을 받고 최고급의 대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이는 응당 공기조절기가 있고 음료와 세밀한 복무가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여느 기공사들이 늘 그러하듯이 모두가 줄을 선 뒤에 중심의 빈자리에 가서 척 앉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화가마 속에서, 사람을 찌물크는 콘크리트 계단의 열기 속에서 사부님은 땀에 흠뻑 젖은 사람들을 지휘하여 세워놓고는 자신이 제격 그 중간에 서서 몸을 돌리면 사진사가 《찰칵》하고 사진을 찍었다. 다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조에서 빨리 오시오.》 한 제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은 저녁에 또 설법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바빠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부님께서 이렇게 온 오후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사진을 다 찍을 때까지 바빠 보내셨다. 결과 저녁의 설법을 제시간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밥 먹을 시간도 충분히 남겨주어 저녁의 설법이 제시간에 진행 되도록 하였다. 북경, 산둥과 동북 등 지구의 노학원들은 경험이 생겨 재빨리 식사를 끝마친 후, 먼저 인행도 옆이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정하고 좋은 자리는 신 학원들에게 양보하였다. 한 6,7 세 가량의 남자아이가 온당하게 맨 뒤의 인행도 옆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여기에 자리가 있지 않니? 여기 와서 앉으려무나.》 그러자 그 애가 대답했다. 《저는 노 학원이예요.》 듣고 나서 나는 감격에 목멘 소리가 나올까 싶어 손으로만 그 애의 어깨를 다독여 주기만 했다.

사부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셨다. 그때 실내가 너무 더워 많은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부채를 내려놓아도 무방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벼운 미풍이 솔솔 불어왔다. 사부님의 자비를 감수한 학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있다……

법회도중 10 여분의 휴식시간에 제자들은 모두 사부님의 신변에 몰려 서서 사부님께 수련 중에 부딪친 각종 문제들을 내놓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미소를 지으시며 인내성 있게 일일이 해답해 주셨다. 법회는 무려 다섯 시간이나 지속되었지만 여러 사람은 더 듣고 싶었고 저녁 10 시가 넘었건만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다. 법회가 결속되었지만 학원들은 모두 사부님과 갈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였고 오래도록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행복과 희열 속에 잠겨있었다. 후에 이번 법회를 책임진 제자가 말하기를 레의당의 세금은 모두 사부님이 낸 것이며 학원, 제자들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 사부님께서 제남에서 설법하실 때의 몇가지 이야기

글/제남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9월 27일】 1994년 6월 21일, 나는 자랑스럽게도 사부님의 제남 황정체육관에서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그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나 자신이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일들과 동수들이 제공한 일수 일들을 글로 적고자 한다.

### 1. 고생은 자신에게 남기시고, 자비는 학원들에게 베푸시다

강의를 시작한 이튿날 오후, 사부님께서서는 학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사진을 찍는 지점은 황정체육관 원내의 계단 위였다. 그때 두 가지 특별한 정황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날씨가 특별히 무더운 것이었다. 제남은 유명한 불 가마인데다 그날 또한 하지였다. 당날의 일기예보에서 예고한 기온은 37 도였고 또 직사광이 가장 강한 오후시간에 햇볕이 화로처럼 열기를 내뿜는 원내 콘크리트 계단 위에서 찍도록 배치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의 특별한 정황은 사람이 특별히 많았던 것이었다. 과거에 기타 기공반에는 보통 1,2백 명에 불과하고 적으면 몇 십 명인데도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한 시간씩 걸렸고 그것도 시간을 다그쳐야 했다. 우리는 사람이 몇 천명인데다 자리도 넉넉치 않아 여러 조로 나누어야 했는데 다섯 조라 해도 다섯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녁에 사부님은 또 설법을 해야 하니 그때 남은 시간은 네 시간도 안 되었다. 이 일을 책임진 학원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책을 레의당을 지키는 사업일군들에게 넘겨주었다.

사부님께서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설법하고 공을 전수한 장소는 성위당교 대 레의당이였다. 나는 수많은 친척친구들을 소개하여 사부님의 설법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리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아 제고가 빠르지 못하였으며 집착심이란 무더기였다. 사부님이 문제를 해답하실 때 나는 태극권에 관한 문제를 물었다. 사부님은 《아직도 태극권을 연마한단 말이요, 당신이 태극권을 연마하려면 태극권을 연마하십시오. 나도 당신더러 기어코 파룬궁을 배우라고 하지는 않겠소.》라고 하셨다. 사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대법수련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때로부터 나는 태극권에 대한 집착심을 단번에 놓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태극권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모두 청산 하였는데 자신이 촬영한 몇개의 전국 태극권 경기 테이프, 검, 칼 및 기타 자료들을 전부 없애버렸다. 이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고 보니 춤을 추기 좋아하던 마음마저 가뭏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부님께서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실 때는 참가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전수반이 결속될 무렵 학원들은 한 조 한 조씩 사부님을 청하여 사진을 찍었다. 좀 있으면 여기서 사부님을 청하고 좀 있으면 저쪽에서 사부님을 청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단독으로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사부님은 그 어떤 요청이든지 달갑게 받아들이고 시종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리고 또 서산공원으로 가서 친히 연공장소를 돌아보았다.

사부님께서서는 합비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였다. 제남 설법반에서도 사부님은 학원들에게 합비는 령성이 있는 고장이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듣고서 아주 기뻐하였다. 이 몇 년이래 우리는 사부님을 만나볼 수 없었지만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우리 신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관심하고 격려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국외에서 사부님을 만나본 합비 대법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부님께서서는 합비의 정황을 물으시고 합비의 제자들을 문안하셨다고 한다. 사부님은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힘든 정황 하에서도 우리 합비 대법제자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감개무량하며 사부님에 대한 감격의 마음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부님, 우리 합비 전체대법 제자들은 절대로 당신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가지 일》을 잘하고 더욱

배합을 잘하여 정체적으로 제고하고 정체적으로 승화하여 사부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 사부님이 안휘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2)

글/합비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4월 10일】 2006년의 4월 15일은 사존께서 두 번째로 안휘성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수하신 12주년 기념일이다. 매년 사존께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수하던 보귀한 시각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으며 정말로 12년 전의 그때 그 시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사부님, 우리 안휘성 합비의 대법제자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1993년 11월, 처음으로 합비에 오시어 법을 전하실 때, 우리 공장의 한 젊은이가 설법반에 먼저 참가하고 사흘을 배운 후, 그녀는 자신이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파룬궁은 아주 좋으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며 또한 성명쌍수(性命双修)의 공법으로써 배우면 장생불로하고 장수한다고 나한테 소개하였다. 이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 참가해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니 《좋아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의 오성이 차하여 가정의 일을 안배하기가 어렵고 아이가 어려서 몸을 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눈깜짝할 사이에 이듬해 4월이 되어 나는 사부님이 두 번째로 합비에서 꾸린 설법전수반에 참가하였다.

1994년 3월말의 어느 날 저녁, 꿈을 꾸었는데 꿈에 내가 어떤 집을 께질러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곧 큰길 맞은 편에 가 섰고 신체가 웅장한 그 사람은 큰길 저쪽 편에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금빛이 뿜어 나와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조금 후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재빨리 금빛이 찬란한 그 사람을 향하여 두 손을 합장하였다 (수련하기 전에 나는 두 손을 합장할 줄을 몰랐다). 수련을 시작한 후에야 나는 사부님의 법신이 연분이 있는 나에게 법을 얻도록 점화해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

사부님이 두 번째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하실 때, 당시 1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면 나는 잠이

걸음으로 회장에 들어섰다. 사부님이 경과하는 복도 양옆의 학원, 제자들은紛紛히 사부님과 악수를 나누었고 사부님과 먼 학원,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손을 합장하여 사부님께 불가예의를 올렸다. 학원이 사부님께 생화를 드렸고 사부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 한 손을 입장하여 학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다. 오랜 박수소리 끝에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앉으라고 하였다. 사부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부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높이하고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에 대한 무한한 숭경과 희열의 심정을 안고 정신을 가다듬어 사부님의 매한마디 말씀을 들었다. 나에 대해 감동이 가장 큰 것은 사부님이 설법 중에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다. 《이 자리의 보도원, 노수련생 당신들은 허다하게 당신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다.》 《당신들이 느끼기에 당신들이 한 일이 마치 비교적 간단하고 또한 속인의 령도의 일처럼 일부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은 완전히 모두 자신의 열정과 대법에 대한 인식에 의거하여 하고 있는데 보아하니 간단하며 천지를 놀라게 하는 어떤 일이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속인의 이 측면에서의 표현이 평범한 것일수록 아마 당신들은 보지 못할 것이고 당신들이 수련한 이 경지 중에서의 표현은 오히려 정말로 굉장한 것이다. (박수소리) 다시 말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기왕 이 일을 하였으므로 그것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층 생명도 나와 항상 말하는바 당신들이 여기에서 대법을 위하여 공헌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당신들 장래의 생명이 상당히 긴 이후의 역사시기에 하나의 아주 좋은 기초를 다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한 줄기 뜨거운 난류가 온몸을 관통하였으며 대법에 대한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내가 때로는 사람의 험애한 관념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 처리를 했으며 때로는 각종 모순에 부딪혔을 때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존께서 요구하신 대선, 대인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흔히 우리 수련 중에서도 어떤 굉장한 것이 없으며 모두 속인의 각종 모순 표현 중에서 우리의心性(心聲)을 연마한다.》 (《장춘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 그리하여 이 몇 년간 나는 줄곧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노력하고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 » 그렇다! 바로 이 평범하지 않은 경력이 있었기에 나는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와 위대한 인격, 각자(覺者)의 흥금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바로 이 한 단락의 잇을 수 없는 경력이 있었기에 수련의 길에서 용맹 정진하도록 부단히 격려하고 있고 매 한 걸음을 잘 걸어 자신의 사건의 맹세를 이루도록 촉진하고 있다.

(4)

명심하라! 뼈에 아로새길 이 기억을! 그것은 1998 년 7 월 26 일이었다. 나는 한 보도원, 노학원의 신분으로 기쁘게도 사부님의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에 참가하여 사부님이 보도원, 노학원들에 대한 부탁 그리고 깊은 가르침과 기대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수련의 길에서 자신이 수련을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신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번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을 들고 볼 때마다 시종 인심을 격동시키던 그때의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으며 귀가에는 사부님의 착실한 가르침이 메아리 치면서 뜨거운 눈물을 금할 수가 없다.

회의장은 장춘의 향거리라(香格里拉)국제호텔 대청의 레의당에 설치되었다. 26 일 오후, 법회에 참가하러 온 학원들이 사면팔방으로부터 육속 호텔로 모여와 입장하였다. 순서에 따라 우리는 제일 먼저 입장하였다. 내가 대청레의당에 이르자 제일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석대와 주변에 배열해 놓은 아름다운 생화들이었다. 회의장은 장엄하고 숙연했으며 온화하고 상화로워 여느 법회와는 뚜렷이 달랐다. 당시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부처님께서 돌아오셨다! 생화는 부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몹시 격동되고 흥분된 심정으로 신변의 동수에게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직접 회의장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변의 동수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그것은 그때 사부님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번 법회의 내용은 누구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였다. 《기다려보십시오. 꼭 오실 것입니다.》 입장이 끝나자 회의장은 물 뿌린 듯 조용하고 빈 좌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섯 시 정각에 우리의 자비로운 은사께서 갑자기 회의장의 대문어귀에 나타나셨다. 삼시간에 장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사부님께서서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온건한

들었는데 그래도 들을 수는 있었고 사부님의 설법내용을 알 수 있었다. 마치도 사부님이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또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강의를 끝내면 그도 잠을 깬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머리에 병이 있어 그에게 조정(調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조정하면, 그는 전혀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마취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청각부분에 문제가 없어 그는 잠을 달콤히 자지만 도리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는다. 사람은 이때부터 정신이 나며 이틀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는다. 모두 부동(不同)한 상태로서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당신의 온몸을 전부 정화(淨化)해 주어야 한다.》 사부님께서 천목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머리거죽이 죄어드는 것 같았으며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을 느꼈다.

산동에서 온 한 학원은 당시 들것에 들려서 사부님의 학습반으로 들어왔다. 그의 병은 기타 기공을 배운 후,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후에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다. 대법의 학습반이 끝날 때 그는 스스로 강단에 올라가 발언하였다. 그는 자신의 진실한 체험으로 대법을 배워 효험을 얻은 후의 변화를 이야기 하였다.

또 한 학원이 있었는데 설법학습반에 참가하기 전에 몸에 부체가 있었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서 사부님께서 부체를 떼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부님은 그에게 《당신은 진심으로 대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부체들을 떼어버리려는 것인가?》 고 연속 세 번 물으셨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부님이 손으로 한번 움켜쥐자 그의 부체는 떨어져 나갔다.

**사존께서 합비에서 법을 전하실 때를 회상**

글 / 정파

【명혜망 2006 년 4 월 7 일】 1993 년과 1994 년, 사존께서는 두 차례 합비에 오셔서 설법을 하였다. 법을 전하고 공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자비로운 사존께서는 시시각각 학원들의 처지를 고려 하였으며 학원들이 진정으로 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93년 11월 19일 아침, 사존께서 합비에 오셨다. 그날의 날씨는 비가 내려 음침하고 기온이 아주 낮았다. 비바람에 우박까지

곁쳤는데 온 하루 밤, 하루 낮 계속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튿날(20 일) 사존의 설법에 영향을 줄 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자 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였고 날씨가 따뜻하여 설법에 영향이 없었을뿐더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의 설법을 들으러 왔다. 후에 사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밤 도와 하늘을 깨끗이 청리 하였기에 정식으로 학습반을 열 때 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하였다.

20 일 오후, 사존께서 안취성 농학원 레의당에서 설법을 하실 때 모두 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손바닥의 감각을 체험해 보도록 하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모두 손바닥에서 물체가 돌고 있음을 느꼈다. 사존께서 여러 사람들더러 손을 내려 놓으라고 하자 장내에는 일시에 열렬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설법기간의 어느 날 오후 여섯 시 남짓하여 우리는 사부님의 주숙처를 찾아갔다. 방에 들어서자 밖에 바람이 아주 세다고 사부님께 여쭙었다. 사부님은 이제 곧 바람이 작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몇 분간 앉아있다가 총계를 내려 레의당으로 걸어갔다. 그때는 바람이 원래보다 약해진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미풍이 솔솔 불뿐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하였다.

설법반의 끝나는 회의에서 많은 학원들은 강단에 올라가 체험담을 이야기 하였다. 한 학원은 사부님의 몇 시간의 강의를 들은 후 다리의 질병이 나아 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학원은 당장에서 지팡이를 버리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온 장내는 열렬한 박수소리로 차고 넘쳤는데 모두 사부님의 공법의 신기한 효과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첫 번째 학습반이 막 결속될 때 우리는 사존께 또다시 합비에 오셔서 법을 전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존께서는 당장에서 이듬해 4 월 15 일에 합비에서 두 번째 학습반을 꾸릴 것에 동의하였다. 사존께서는 다음 학습반에는 사람이 1500 명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4 년 4 월 15 일 학습반을 열 때 보니 과연 1500 여명이었다.

제 2 기 학습반기간의 어느 하루,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광장에는 수많은 학원들이 모여 사부님과 사진찍기를 기다렸다. 한 노년학원이 지팡이를 짚고 광장에 서있는 것을 보신 사존께서는 당장에서 그더러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셨다. 그 노년학원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학원이 《선생님이 빨리

있었는데 그는 장춘에 온지 이미 한달 남짓이 되었었다. 병원에서 이미 천여 원을 썼지만 병은 치료하지 못하고 돈만 다 써버렸다. 그는 사부님이 설법 반을 꾸린다는 소문을 듣고 따라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신기하기도 참을 수 없는 동통에 시달리던 이 환자가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걸음이 빨랐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일체 불리한 증상들이 몽땅 사라지고 회의장에 이르자 완전히 나왔다! 이미 길에서부터 사부님께서 이미 그의 신체를 조정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열흘간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되었다.

학습반에 참가하는 동안 날마다 휴식시간이면 우리 일부 학원들은 사부님의 곁에 몰려 서서 사부님을 바라보았다. 사부님께서 기질이 남다르게 비범하셨다. 몸에는 회색양복에 흰 적삼을 받쳐 입으셨는데 특별히 젊어 보였다.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고 학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다. 매일 강의가 끝난 뒤면 우리는 오래도록 떠나기가 아쉬웠으며 사부님의 신변에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었다. 번마다 사부님이 차에 오르신 뒤에야 우리는 회의장을 떠나곤 하였다.

5 월 1 일 오후, 주체단위에서는 학원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부님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자 사부님께서는 흔쾌히 승낙 하셨다. 매 지구의 학원들이 순서에 따라 줄을 서고 사부님께서는 한조에 한조를 이어 우리와 사진을 찍으셨다. 빈하지구의 학원들과 사진을 찍을 때 머리가 허열게 흰 60 여세 나는 한 남학원이 앞줄의 쪽 걸상에 앉아있었다. 사부님이 다가가서 왜 앉아 있는 가고 묻자 그 학원은 설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사부님은 그더러 뒷줄에 가서 서라고 하였다. 사진을 다 찍은 후, 사부님은 다가가서 그 학원과 악수를 나누며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였다. 그 학원이 깨닫지 못하자 그의 부인이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사부님이 그더러 앞으로 걸으라고 하자 그는 마치 걸음마를 떼는 어린애마냥 한걸음씩 앞으로 걸었다. 이렇게 마당에서 몇 회 돌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는 지팡이를 집지 않았으며 스스로 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생활에서도 자립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많고도 많다.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이 매우

병상에 누워있었다. 그녀도 가족에 의해 회의장으로 업혀 들어왔는데 사부님의 조정을 거쳐 기적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그녀는 사부님이 어디에서 학습반을 꾸리든지 계속 따라다니며 설법을 들었다. 사부님이 장춘에서 제 7 기 학습반을 꾸릴 때 나는 그녀를 보았는데 신체가 건강하고 아주 젊어 보였다.

또 한 남학원이 있었는데 30 여세에 허리는 90°로 휨 굽사등이었다. 사부님이 현장에서 그의 신체를 조정해주자 척추에서 부딪부딪 소리가 나면서 허리가 천천히 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 사부님의 법력(法力)과 공력(功力)은 신기하기로 그지없었다. 박람회 기간에 사부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중환자와 난치병 환자들을 기수부지로 치료해 주셨으며 광대한 군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리하여 93 년 동방건강박람회의 최고상—《변연 과학진보상》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군중들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사부님께서는 제 2 차 보고회의 전부수입을 《중화의용기금회》에 기부하셨다.

눈 깜짝 할 사이에 10 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자신이 경력한 일들은 하나하나 기억에서 되살아났다. 사부님께서는 자비로 종생을 구도하시느라, 매 하나의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보호하시느라 바치신 대가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학원들의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으며 단지 수련제자들의 수련하려는 그 한 마음만 보시고 우리를 만구하고 보호하시면서 매 한걸음을 잘 걷도록 하였다. 비록 수련의 길에서 광풍폭우를 만났지만 모두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은 동요가 없으며 신념은 더욱 견정해졌다.

### (3)

1994 년 봄날, 나는 기쁘게 법을 얻었고 행운스럽게 사부님이 장춘에서 꾸린 제 7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학습반에 참가하려는 인수가 특별히 많아 3 천 여명을 넘었기에 낮 반과 저녁반으로 나누어 모두 열흘 동안 꾸렸다.

첫날, 우리가 무괴도 전차를 타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중도에서 정전되었다. 여러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도보로 걸어갔다. 대략 6 리 길을 걸어야 회의장인 길림대학례의당에 이를 수 있었다. 시간이 긴박하였기에 모두들 지각할 가 발걸음을 재우쳤다. 그 중에는 경추에 뼈가 살아나 뇌신경을 압박하는 환자가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하고 귀땀했다. 그제서야 그 노년학원은 지팡이를 버리고 스스로 걷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광장의 전체 학원들은 모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 사부님의 합비에서의 첫 번째 공법전수반에 참가하여

글/대륙대법제자 청천

【명혜망 2006 년 4 월 17 일】 1993 년 11 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안취성 합비에 오셔서 파룬궁을 전수하였다. 사부님께서는 망망한 인해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구하여 깨끗이 씻어 주었으며 나에게 자비로운 사부님을 만나는 행운을 주었고 그때로부터 정법 수련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기억하건대 1993년 11월 19일, 합비의 하늘은 음침하고 기온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차례 눈비가 내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날에는 눈비를 무릅쓰고 사부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눈을 떠 바라보니 하늘은 맑게 개였으며 상쾌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나무와 땅 위의 눈은 어느새 따뜻한 햇빛에 녹아내려 종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종래로 이렇게 빨리 녹아 내리는 눈을 본적이 없었다. 그날 나의 심정은 특별히 좋았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사부님께서 교육학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 웃차림은 아주 소박하고 아주 젊으셨으며 두 눈에서는 정기가 흘러 넘쳤다. 그이는 친히 우리에게 연공 동작을 가르쳤는데 아주 화애롭고 자애로웠다.

그때 나는 기공과 불법에 흥미를 가지고 적지 않은 굵은 길을 걸었다. 이번 학습반에 오기 전에는 행여나 가짜 속임수는 아니겠지 하고 왔었다. 사부님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모두 정리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림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그러나 반드시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종 집착심을 품고 와서 공능(功能)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며, 이론이나 좀 들으려 하거나, 또는 그 무슨 좋지 않은 목적을 품고 온다면, 이것은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자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중에 나는 자신이 진정한 불법을 찾기 위하여 온 것임을 확정하였다. 사부님이 《기공은 바로 수련이다》고 말씀하시자

나는 대뜸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나는 줄곧 자신에게 물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 백 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는 여러 기공문파들을 다녀왔으며 무술 및 불교에서 유전되는 경서를 읽었지만 나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부님의 첫날의 강의는 나더러 분명히 깨닫게 하였다. 그 어떤 기공사도 사부님처럼 발언고도 없이 거침없이 유창하게 이토록 깊고 심오한 불법을 이야기 할 수는 없었다. 사부님은 단번에 내 마음속의 매듭을 풀어주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붓으로 종이에다 수련이란 두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붙였다. 나는 수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튿날, 나는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 너무도 좋아 아내와 함께 한 강의를 들었다. 그녀는 듣다가 잠이 들었다. 후에 사부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은 대뇌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또 사부님의 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되어 참지 못하고 큰 형님을 모시고 한 강의를 들었다. 지금 나의 아내도 대법을 수련하고 있다. 학습반기간의 어느 오후, 강의 시간이 막 되어 가는데 정전이 되었다. 나는 강의 시간이 지연될 줄로 알았는데 얼마 안 되어 전기가 들어왔다. 정말로 신기하였다.

나의 누님은 줄곧 나와 함께 사부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녀는 나보다 오성이 좋았다. 사부님께서 법신을 말씀하시자 내가 아직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대뜸 깨닫고 《아! 사부님은 법신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사부님께서 곧 부처이시다.》고 하였다. 그녀는 사부님이 강의를 하시느라 몹시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단설기를 사가지고 나를 이끌고 중간 휴식시간에 강단으로 올라가 사부님께 드렸다. 사부님께서는 극구 사양하시면서 끝내 받지 않으셨다. 후에 그는 별수 없이 행사장 인원들에게 주었다.

설법반에서 많은 학원들이 심득체험을 썼다. 사부님께서서는 매일 강의가 그렇게 신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짜내어 학원들의 심득체험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참으로 자비하셨다.

제 1 기 설법반이 결속될 때, 사람들은 조를 나누어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그 때 한 장의 사진마다 오늘 진귀한 기념으로 남아있다. 사부님은 흉대한 자비로 우리를 구도하고 계셨다. 우리는 응당 시간을 틀어쥐고 중생을 구도하여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사부님께서서는 친히 택시를 타고 나의 친척의 집으로 오시어 그의 여동생의 신체를 조정하여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정화시켜 주셨다. 병원에서 심근막을 바꾸려면 10 만여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부님께서서는 오늘 기적처럼 치료하여 주셨다. 친척의 가족에서는 경탄하여 마지않았다. 사부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친척의 가족에게 《믿지 못하겠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하셨다. 그들은 놀라움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의 여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하였다. 결과 심근막이 보충 되었고 일체가 정상하였다. 그 후에 친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여동생을 데리고 사부님의 설법학습반에 참가하였다. 열흘의 학습반을 거쳐 신체상의 일체 병증이 전부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가무 일도 할 수 있었다. 한 장의 티켓으로 10 만여 원을 절약하였으며 환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신기하게 병이 나았다. 이 일을 통하여 여동생의 친지 친우들은 모두 《파룬궁은 참 신기하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으면서 분분히 기회가 있으면 리 대사님의 설법을 듣고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고 표시하였다. 후에 정말로 경문 《깨달음》에서 말씀 하시듯이 《잇따라 모여 와서 입도(入道) 하여 법을 얻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1992 년부터 1993 년 말까지 사부님께서서는 북경에서 주최한 《동방건강박람회》에 참석하셨다. 회의기간에 의무적으로 인연 있는 인사들의 신체를 조정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회상에 파룬궁을 보급시켰다. 친척은 이 소식을 듣고서 또 이웃의 암병 환자와 친구를 데리고 북경으로 갔다. 출판사의 주소에 따라 북경에서 거의 일주일간 찾아 다니다가 겨우 좌가장(左家庄)회의 장소를 찾아냈다.

93 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리홍지 선생님은 박람회의 최고상인 《변연과학진보상》과 대회의 《특별금상》을 받았으며 《군중들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음으로써 이 박람회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기공사로 되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박람회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창조하였다. 예를 들어 고향의 이 암병환자는 이미 걸을 수도 없어 가족에서 회의장으로 들고 들어갔다. 사부님의 조정을 거쳐 신체를 청리, 정화한 후, 당장에서 신기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은 공공버스에 앉았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넘어져 반신불수가 된 북경의 부녀 손보영인데 이미 1 년 동안 병원의

위독한 환자들이 리 대사님의 조정을 거쳐 신체를 정화하고 신기하게 병이 나타났다. 지금 제 4 기 학습반이 이미 결속되었는데 이들이 지나면 북경으로 가실 것이다. 친척은 듣고 나서 리 대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학원에게 부탁하였다. 이 학원의 소개로 사부님께서 환자가 그이의 집으로 가는데 동의하셨다.

가족은 이미 길을 걷지 못하는 환자를 택시에 싣고 사부님의 맥으로 부축하여 갔다. 사부님은 아주 열정적이셨는데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창문을 열어놓고 손으로 환자의 환병 부위를 잡아 쥐여 창 밖으로 내던지셨다. 그러고 나서 과일 쟁반을 들고 오시더니 환자에게 바나나 하나를 권하였다. 환자는 《못 먹습니다. 이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고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학원이 말하였다. 《사부님께서 잡수라고 하면 잡수시오. 근심하지 말고.》 환자는 곧 바나나 하나를 먹었는데 아프지 않아 또 하나를 먹었다. 이때 나의 친척의 부인이 문득 깨닫고 급히 사부님 앞에 꿇어 엎드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사부님은 친척의 부인을 부축하여 일으켰다. 친척이 사부님께 돈을 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자 사부님은 《나는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 연공을 많이 하시오!》 라고 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후, 환자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걸을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었다. 은사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친척의 온 가족은 사부님이 장춘에서 꾸린 제 5 기 설법강습 반에 참가하였다. 학습반에 참가하고 나서 심신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고 세계관에도 아주 큰 전변을 가져왔다. 그 몇 년간 이 학원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부님을 도와 흥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구도하여 법을 얻고 효과를 보도록 하였으며 의무적으로 대법의 서적을 지고 다니며 많은 고향사람들이 법을 얻도록 이끌었다. 그는 수련의 길에서 대법을 굳게 믿고 사부님을 굳게 믿었으며 사부님을 따라 대법 중에서 수련하면서 사부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구도 해주신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1993 년 6 월, 사부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시어 제 6 기 학습반을 꾸리셨다. 나의 이 친척은 또 외지에 있는 여동생을 데려다 이 학습반에 참가시킬 준비를 하였다. 여동생은 심근 막 탈락증(心肌膜脱落)을 앓고 있어 길을 걸기도 힘들었다. 이번에도 역시 단위의 그 학원이 사부님께 그의 여동생이 학습반에 참가하기 곤란한 정황을 말씀 드렸다. 학습반을 시작하기 전날,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가지 일을 잘하여 사전(史前)의 맹세를 이루어야 한다.

## 사부님께서 석가장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진귀한 기억들

글/하북대법제자

【명혜망 2004 년 5 월 2 일】 십년 전 법을 얻을 때의 정경을 회상할 때마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난류가 흐르고 저도 모르게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1994 년 3 월 2 일 오전 여덟 시, 석가장 지구의 군사례의당에서 나는 처음으로 행복하게 사부님의 근 두 시간의 설법을 들었다 (당시는 기공보고회라고 불렀음). 회의에서 사부님께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생각하라고 하셨으며 만일 본인이 건강하다면 가족이나 친척의 병을 생각하면 곧 청리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하면 된다고 하셨다. 나는 당장에서 몇 십 년의 고질이었던 두통증을 떼어버렸다.

그날의 보고회는 완전히 무료였고 의무적이어서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여드레 동안의 설법학습반에서 사부님은 참으로 친절하고 온화하여 가까이 하기가 쉬웠으며 법리는 명석하였고 공법을 열심히 가르쳤다. 공법을 가르칠 때 사부님께서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으셨으며 한쪽 끝에 있는 우리 학원들도 빼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장내를 돌아보시면서 친히 학원들의 동작을 바로잡아 주셨다.

1994 년 3 월 10 일 저녁, 석가장에서의 제 1 기 설법학습반이 결속되었다. 사람들은 사부님과 단체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현지 기공협회에서는 전문인원을 보내어 사진을 찍을 것을 제기하였다. 사부님께서 당장에서 학원들 중에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학원들은 돈을 적게 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모두들 감축이 아주 컸다. 사부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다. 본래 10 일의 학습반도 학원들의 곤란한 점을 생각하여 여덟 날에 끝냄으로써 학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주었다. 이 여덟 날의 학습반에서 학원들이 당지

기공협회에 바친 학비만 35 원이었고 기공협회에서 학습반을 꾸린 비용과 수입을 제하고 나면 사부님과 사업일군들에게 남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나는 사부님께서 대법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전혀 자신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3 월 11 일 오후 여덟 시 이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사존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영원하고 진귀한 기념을 남겼다.

이렇듯 보기에 평범한 작은 일들 속에는 모두 사부님의 자비가 숨배어 있으며 사부님의 위대함이 돋보인다. 나는 사부님의 제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 사부님의 대련 보고회에 참가했던 몇가지 기억

【명혜망 2006년 4월 26일】 명혜주간 218기의 《위대한 스승님께서 인간세상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기록하자》는 문장을 읽고 나는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정법은 만고에도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스승님의 무량한 자비와 위덕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층층의 천체를 진감하였으며 우주의 각개 공간을 갱신하고 있다. 그것이 사람 여기에서의 표현은 중국에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는 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한 단락의 중요한 정법의 역사는 전례없는 것이며 우주의 중생으로 놓고 말하거나 구도를 받은 대법제자로 놓고 말할 때 모두 신성하고 위대한 한 단락의 과정이며 우주에 다시 있을 수 없는 한 단락의 과정이다. 우리는 인간세상에서 대법제자로서 대법과 중생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스승님께서 인간세상에서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한 역사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1994 년, 내가 법을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시에서도 금방 연공장소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우리 부근에는 아직 연공장소가 없었다. 1994 년 12 월 26 일, 동수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광주반이 결속된 후, 대련에서 스승님을 요청하여 설법을 하신다는 것이었다. 12 월 28 일, 우리 일행 20 여명은 기차를 타고 대련으로 갔다. 대련 체육장 앞에서 동수는 채색 입장권을 가져왔다. 나는 손이 가는 대로 금 황색 입장권 한 장을 잡았다. 스승님께서

## (2)

1992 년의 봄날, 사부님께서 전국각지에서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기 시작하셨다. 매번 설법하실 때마다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파룬궁의 수련은 직접 마음을 가리키고》 《진, 선, 인》을 동시에 수련하며 수련인은 명, 리, 정을 담당히 하고 덕으로 공을 연화하며 실속 있게 수련하여 심성을 지켜야 한다고 착실히 가르치셨다. 파룬궁은 초상적인 능력을 구비하여 공이 빨리 자란다. 매개 학원의 몸에는 모두 사부님께서 넣어주신 파룬, 기기, 기제 등 수련계통이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는 살수 없는 무상의 보배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파룬궁은 무수히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흡인하여 수련의 문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나는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많고 많은 진실하고 신기한 일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한 인연이 있는 한 수련자이다. 그제 날에 사부님이 죽는 사람을 되살리는 재간으로 수많은 병이 위급한 학원들을 기사회생 시키던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들이 오늘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실 때 참으로 쉽지 않았다. 그때 학습반에 참가한 학원들은 대다수가 환자였고 모두 병치료를 목적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학습반에서 사부님이 이야기 하는 법리를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저 좋다는 것만 알고 도리가 있고 듣기 좋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마다 신체에는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병이 없이 몸이 가벼운 감을 느꼈으며 효과가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부님이 어디로 가서 학습반을 꾸리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설법을 들었다. 맨 나중이야 사부님이 이야기 하는 법리를 깨닫고 병 치료로부터 진정한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나의 친척은 장춘에서 살고 있는데 사부님과 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92 년 여름에 장 경색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수술 후에 수술대에서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전에 두 차례 수술을 한적이 있었다). 약을 써도 효과가 없고 다른 치료방법도 없는 정황 하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조급하여 사처로 다니며 치료방법을 찾았다. 그와 한 단위에 다니는 파룬궁 학원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장춘에 대기공사 한 분이 계시는데 리 대사님께서 지금 한창 공법전수 학습반을 꾸리고 계신다. 학습반에서 많은 난치병 환자와

법을 전하는 초기는 아주 간고하여 가장 낮은 표준이나 학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장소를 빌리는데 돈이 들었고 주체 기관단위에서 수속비를 받았으며 각종 비용과 지출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나 사부님께서서는 한 푼도 다치지 않으시고 각 보도소의 전문인원이 보관하도록 하셨다. 이 돈의 용도에 대하여 사부님께서서는 명확히 밝히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파룬궁 학원들의 공헌이고 파룬궁에 대한 지지로서 오직 파룬궁의 건설에만 쓸 수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사부님의 따님이 학교를 다니며 돈이 급히 수요될 때, 때마침 월말이라 집에는 돈이 없었다. 사모님은 사부님께서 돈 5 원을 꾸셨는데 사모님이 월급을 타자 그 5 원을 돌려 받았다. 그러시면서 《대법의 돈은 오직 대법에만 쓸 수 있다》고 하셨다.

사부님의 생활은 아주 검박하셨는데 집은 아주 간소한 층집이고 겨울에는 스팀도 없었다. 집에는 다만 텔레비전 한대가 있었고 가구는 모두 80 년대의 양식이였다. 사부님은 따님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했는데 달마다 따님에게 100 원의 생활비를 주셨다. 그 중에는 학교에 다니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한 여름방학에 사모님은 따님을 데리고 북경으로 가서 사부님과 만났다. 사부님께서서는 따님에게 한 쌍에 2 원씩 하는 신을 사주셨다. 사부님의 생활수준은 장춘에서도 가장 낮은 표준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나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94 년 말, 국내에서의 학습반이 결속되고 95 년 초부터 국외에서 법과 공을 전하시며 중생을 구도하셨다. 대법의 흥대한 전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80 여 개 나라와 지구의 인민들이 법을 얻고 유익을 보도록 하였다.

1995 년 초여름, 사부님께서서는 국내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남은 돈을 전부 꺼내어 설법 녹화테이프를 제작하여 전국각지의 보도소에 증여 하셨다. 한 조에 다섯 개의 테이프로 모두 900 분이였다. 당시 전국에는 보도 소가 몇 천 개 있었는데 바로 이 녹화테이프로 파룬궁을 전파하였다. 몇 년 후에는 역에 달하는 사람들이 법을 얻고 효과를 보았으며 신심이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되었고 정신문명, 사상소질이 신속하게 제고되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나라와 인민, 인류를 위하여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무량한 공덕을 쌓으셨으며 공덕이 무량하시다.

정한 시간에 회의장에 도착하였다. 온 장내는 전체가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로 스승님을 환영하였다.

스승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회의장은 물 뿌린 듯 조용하였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의 좌석은 곧 바로 사부님을 마주하고 있었다. 스승님께서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면에 앉은 분들은 득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몸을 돌리셔서 《뒤쪽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좀 더 높여겠습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럴듯 주의 깊게 들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아주 달콤하게 잤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은 또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강의를 끝내면 그도 잠을 깬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머리에 병이 있어 그에게 조정(調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조정하면, 그는 전혀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마취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의 병을 제거해주는 법을 이야기 할 때 사부님께서서는 《이것은 보고회인 만큼 한가지 병은 제거해 줄 수 있는데 경한 병은 당장에서 나올 수 있고 중한 병도 돌아가서 연공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10 일의 강습반에서 온몸이 모두 정화되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 자신이 병이 없으면 가족의 친인의 병을 생각해도 된다》고 하셨다.

당시 나는 아직 사부님을 존경할 줄을 몰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많은 병중에서 한 가지만 떼어주고 중한 병은 당장에서 나올 수도 없다니)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승님께서 손을 저으시자 여러 사람들은 발을 굴렀다. 나는 그때 현기증을 생각하였다. 이때 본래 청량하던 대청에 불시에 보얀 안개가 끼였으며 마치도 먼지가 이는 것 같기도 하고 쌀알만한 눈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사부님이 손을 젓자 마이크 상공으로부터 하나의 은색 나는 능형모양의 전기 불꽃처럼 눈부신 물체가 날아 내렸다. 나는 그때 합선이 된 줄로만 알았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당신이 사상 중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른 공간에서 나의 법신(法身)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 두 개 시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보면 당신의 사유구성은 하나의 극히 느린 과정이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부정확(不正確)한 사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전법륜》)

대련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아주 빨리 연공장소를

성립하였으며 연공인은 갈수록 많아졌다. 한동안 연마한 후, 나의 현기증과 기타 병들은 연이어 사라졌다. 참으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걸어도 바람이 일었으며 자전거를 타면 누군가 밀어주는 듯싶었고 층계를 올라도 힘들지 않았다. 6개월 후, 어머니는 정말 약을 먹지 않는가고 물었다. 내가 《병이 없는데 누가 약을 먹어요》하고 대답하자 어머니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85 세인데 연공 후에 모든 병들이 다 사라졌으며 안경을 걸지 않고 바느질을 한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모두 신기하다고 말한다.

이 몇 해 동안의 비바람과 마난 중에서, 그리고 고통스럽게 관을 넘는 중에서 매번 제고를 가져올 때마다 모두 스승님의 자비로운 보호와 점화 중에서 걸어온 것이다. 사부님께서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이 매우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연분이다.》 (《전법륜》)고 말씀하셨다. 나는 만고에도 만나기 어려운 이 기연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세가지 일을 잘하여 최후일수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금주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월 16일】 1994년 4월 5일은 료녕성 금주시 대법제자들이 종신토록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날이다. 바로 이날 위대한 사부님께서 금주시에 오셔서 법을 전수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의 4월 5일을 금주시의 파룬따파일로 정하였다. 오늘까지 12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빛나는 형상과 신적들은 오늘까지도 기억에 새로우며 감개가 무량하다.

1994년 1월, 사부님은 천진에서 법을 전하고 계셨다. 당시 전수반에 참가했던 학원이 금주시 기공연구회의 소개신을 가지고 사부님께서 금주시에 오시어 전수반을 꾸릴 것을 요청하였다. 사부님의 한 해의 학습반 일정계획은 이미 끝났지만 시간을 짜내어 한기의 학습반을 안배할 것을 승낙하셨다. 4월 4일, 사부님은 대련 제 1기 설법학습반이 끝나자 마자 다그쳐 금주로 오셨다. 차가

존경스러운 분이시며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또 평범하게만 보였다.

학습반이 결속되던 날, 이미 저녁 여덟 시 반이 넘었지만 학원들은 모두 떠나기 아쉬워 사부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사인을 해달라고 졸랐다. 대문 어귀까지 따라가보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부님께서 문어귀의 처마 밑에서 희미한 불빛을 빌어 학원들에게 사인을 해주셨다. 사람이 너무 많았으므로 수행하는 학원이 소리쳤다. 《사부님께서 일이 급하시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켜주십시오.》 우리는 밖에는 이미 소형버스가 사부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7월 25일이면 북경의 공안례의당에서 2천 여명이 참가하는 설법 반을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매번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으며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고 사람을 구도하는 일의 힘겨움을 심심히 느끼게 된다. 만일 오늘 우리가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가지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사부님께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 청백함은 인간세상에 남아있다

글/동부대법제자 원로 동수정리

【명혜망 2004년 8월 3일】

(1)

1992년 봄날, 중국의 북방에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신기한 기공—파룬궁이 출현하였다. 파룬궁은 하나의 눈부신 진주마냥 그 밝은 빛으로 연공인의 마음속의 먼지를 쓸어내고 등대마냥 수련의 길을 밝혀주었다. 파룬궁을 널리 전파하고 더욱 많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창시인 리홍지 사부님은 고향을 멀리 떠나 북경, 산둥, 태원 등 지역에 이르러 학습반을 열고 공법을 전수하셨다.

배우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졌으나 당시 아직 정식으로 출판한 책이 없었다. 사부님께서 이미 원고를 작성하였지만 판권번호를 살 돈이 없었다. 그리하여 8천원을 빌려서 판권번호를 산 다음 《중국파룬궁》을 출판하여 처음으로 각지 서점에서 발행하였다. 연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사지 못하면 사부님은 무료로 증정하셨다. 책을 다 팔고 증정하고 나니 판권번호 값도 모자랐다.

평정할 수 없었다……

## 행운스럽게 사부님의 설법 반에 참가했던 때를 회상

93년 7월 16일, 나는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이 치치하르시 전업 문화공에서 꾸린 설법반에 참가하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파룬불법수련의 행렬에 들어섰다. 사부님의 학습반전의 보고회를 듣고서야 다년간 기공을 연마한 것이 오늘날 대법의 수련에 들어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시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많아졌다. 모두들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학습반을 꾸린 닷 새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부님은 그때 20대의 젊은이 같아 보였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자비로웠으며 존경스러웠다. 학습기간에 나는 줄곧 맨 앞줄에 앉았다. 관통양극법(贯通两极法)을 연마할 때 나의 동작이 뻗뻗한 것을 보시고 사부님께서 친히 강단에서 내려오시어 손수 나의 손을 잡고 공법을 가르치셨다. 그때는 다만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너무나도 행운스럽게 느껴진다.

학습반이 막 결속될 무렵,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심득체험을 썼다. 나는 자신이 이번 학습반에서의 수확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로 불가사의한 것은 내가 학습반에 참가하기 이틀 전, 집에서 다른 공법을 연마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파룬을 보았다. 나중에 학습반이 결속될 무렵, 사부님의 문답해답을 듣고서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원래 사부님께서 치치할시로 오시는 길에서 많은 파룬을 내보내시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학습반에 참가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여러 가지 기공 학습반에 참가하였지만 아무것도 배워내지 못하였고 돈만 적지 않게 팔았다. 파룬공의 학습반은 시간이 길데 비해 비용은 오히려 가장 저렴했다. 나는 내심으로부터 이 선생님은 대법을 전하는 것이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는 회의장 밖의 복도에서 사부님을 만나 두 손으로 공경스럽게 심득체험을 바쳤다. 7월 하순의 날씨는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물처럼 흘러내린다. 동북의 여름은 건조하면서도 무더운데 우리의 사부님은 언제나 자신의 주숙처에서 생수 한 병을 들고 오셨다. 그이는 그토록

영구를 지날 때 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때는 이미 점심시간에 가까웠으므로 그들은 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준비를 하였다.

밖을 내다보니 먹장구름이 뒤덮이고 큰 비가 당장 쏟아질 것 같았다. 사부님께서 밖의 날씨를 보시더니 하늘을 향하여 몇 개의 수인을 하셨다. 운전기사는 의혹에 차서 (이 손시늬는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생각했다. 사부님은 《모모바다의 용왕이 지금 당직을 서고 있는데 이 비는 아마도 내려야 할 것 같소.》 하셨다. 운전기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늘이 비를 내리려 하는데 사람이 무슨 힘으로 관계한단 말인가? 나는 술한 기공사들을 보았는데 모두 큰 소리를 칠 뿐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니 하늘에서는 의연히 우리소리가 우릉우릉 거렸다. 사부님은 《비가 내리면 차 운전이 불편할 텐데 이미 내리기로 결정된 비라서 만일 기어이 내리려 한다면 차 뒤에서 내리도록 하지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갑시다.》 라고 하셨다.

운전기사는 온 얼굴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차를 몰기 시작했다. 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과연 차 뒤 면에서는 우리가 울고 번개가 치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만 차 앞은 맑게 개인 하늘이었다. 그제야 운전수는 마음속으로 그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차가 금주에 이르러 먼저 연구회와 연계를 가져야 했으나 누구도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사부님이 손바닥에 방향을 그어 운전기사에게 보여주자 얼마 안되어 기공연구회와 사부님의 주숙을 안내한 곳을 찾았다. 차가 초대소에 막 이르렀을 때 북경 대법학회의 몇 명의 노학원들이 이미 길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부님과 함께 온 대련의 노학원은 이상하여 물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사부님께서 오신 줄을 알았습니까?》 그 중 한 노학원이 말하였다. 우리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모두들 내려오시오!》 하는 사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와 곧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대련의 노학원은 《원래 당신들은 사부님과 이렇게 소통하는군요!》 라고 하였다.

설법장소를 원래 8.1 극장에 예약하였으나 기공연구회와 이 극장의 책임자가 다른 일로 오해가 생겨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동의하지 않을 가봐 4,5 백 명만 용납할 수 있는 전업국 구락부에 안내하였다. 사부님께서 오시기 전날 저녁, 이 일을 책임진 학원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부님이 회의장이 너무 작다고 점화하셨다.

과연 이튿날, 강의를 들으려고 표를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별수없이 8.1 극장과 연계를 취하자 그 극장의 책임자는 순순히 동의하였다.

후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수많은 일들은 모두 사부님이 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만 표면의 것을 할 뿐이다. 사부님은 금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학습반을 꾸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금주의 공간을 모두 청리 하셨다. 어떤 학원은 다른 공간의 금주가 업력으로 가득 차 더럽기 그지 없었는데 사부님이 학습반을 꾸린 후, 금주의 다른 공간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

금주의 설법반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700 여명이었고 그 중 타지방 사람이 200 여명이었다. 사부님께서 설법하시는 첫날, 천목이 열린 한 학원은 다른 공간에서 층층의 불도신들이 모두 법을 듣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는 선녀가 꽃을 뿌리고 사부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다른 공간에서 무엇이 나타났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손을 저을 때마다 무수한 파문을 내보내어 눈꽃마냥 학원들의 몸에 내려앉았다. 회의장에 걸어놓은 파문도형은 자동적으로 돌고 있었는데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사부님이 다음 날 설법을 하실 때, 갑자기 밖에서 40 여세에 나는 주정뱅이가 떠들썩하며 회의장으로 뛰어들었다. 문지기는 당해내지 못하여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 학원이 그를 막아 나서자 사부님께서 그녀에게 《류 아주머니, 그 사람을 내보내시오.》라고 하시면서 손으로 문어귀를 가리키셨다. 어떤 학원은 사부님의 손이 한줄기 빛을 내보내는 것을 보았고 그 주정뱅이는 대뜸 학원에게 밀리어 나갔다. 사후에 사부님은 이 주정뱅이는 한 미친 종의 통제를 받고 법을 전하는 것을 파괴하러 온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또 금주기공연구회의 사람이 있었는데 설법반에서 그의 무슨 침구모형을 팔면서 학원들에게 대법을 저촉하는 언론을 산포하였다. 당시 사부님께서 이미 설법을 마치고 강단을 떠나셨다가 다시 몸을 돌리어 마이크에 대고 《당신이 강의를 듣고 싶지 않으면 여기를 떠나시오.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해롭습니다.》라고 하셨다. 이 사람은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 《자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먼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루는 사부님의 강의도중 흥성시에서 온 여승이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부님이 전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임을 알았던 것이다. 사부님께서 우주중의 신들이 모두

이때 한 학원이 사부님을 주숙처에 모셔다 드리려고 택시를 불렀다. 그러자 사부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그 학원에게 말하였다. 《어려워하지 마오.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마오.》 그리고는 홀로 주숙처로 걸어가셨다.

일곱 날의 설법 학습반은 빨리도 끝났다. 북경의 학습반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사부님은 밤 도와 북경으로 다녀가야 했다. 학원들은 자발적으로 기차역에 가서 사부님을 배웅하였다. 나와 한 동수가 사부님을 만났을 때 사부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비까지 내리는데 왜 나왔소?》 그러시면서 손을 내밀어 우리와 악수를 청하셨다. 우리는 몹시 감동되었다. 사실 우리는 제자로서 사부님과 악수를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어서 사부님은 신변의 제자에게 역의 입장권을 사도록 하였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은 경찰체복을 입었기에 공작증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플랫폼을 나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부님께서 신변의 제자를 시켜 역의 입장권을 사도록 하셨다. 우리는 모두 사부님이 받는 학비가 가장 저렴하며 또 전국각지에서 법을 전하시느라 지출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또 돈을 내어 우리에게 표를 사주시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수련인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심을 깊이 느꼈다. 어떻게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를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기억하건대 사부님께서 당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네들은 아직 젊으니 꼭 수련을 잘해야 하오. 지금은 아직 대법의 진귀함을 모르지만 이제 이삼 년 후이면 꼭 알게 될 것이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다. 이때에야 우리는 사부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신변에 많은 대법서적을 지니고 다니심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사부님과 신변의 제자들이 등짐으로 전국각지에 날랐다. 자료가 들어있는 배낭은 우리 젊은 제자들이 메기에도 힘에 부치는데 사부님께서 신변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일년 내내 이런 자료들을 메고 전국각지로 다니며 법을 전수하셨다. 그 중 차에서의 부대끼와 고생스러움은 가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열차는 서서히 역을 떠났다. 사부님께서 내내 우리에게 손을 흔드셨다. 멀어져 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오래도록

한번은 사부님께서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밥공기에 있는 벼알을 버리지 않으시고 껍질을 발라 드시었다. 당시 많은 학원들은 사존께서 한 알의 양식도 낭비하지 않으심을 보고 다시는 남은 밥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 사존께서 치치하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명혜망 2004년 11월 29일】 199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존께서는 치치하얼에 오시어 설법학습반을 꾸리셨다. 나는 기쁘게도 이 학습반에 참가하는 행운을 가졌다. 학습반을 꾸리는 과정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써내어 동수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

학습반에서 사부님을 만난 뒤, 나의 심정은 특별히 격동되었다. 비록 이전에 기공을 접촉한 적이 없지만 사부님을 만나고 나서 꼭 이 공법을 배우리라 결심하였다. 당시의 심정을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학습반에 참가한 뒤에야 우리는 중국 기공 과학연구회가 치치하얼에서 한차례 보고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파룬궁이 좋다고 생각되어 특별히 사부님을 요청했음을 알았다. 이 기간에 사부님은 금방 학습반을 끝마치고 원래는 장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휴식시간을 포기하시고 치치하얼에 오셨다. 사부님께서 강의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치치하얼은 원래의 일정에 안배가 없었고 임시로 결정하고 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곧 북경에서 학습반을 꾸리는데 북경 학습반의 일정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치치하얼시의 이번 기는 일곱 날밖에 할 수 없고 이 이상 줄일 수는 없다고 하셨다. 사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치치하얼에 오기 전에 많은 파룬을 내보내어 연분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은 모두 연분이 있어 여기로 왔기에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첫날의 강의를 끝난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우산이 없어 문 어귀에 모여 서서 비를 피했는데 장면이 좀 어수선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걸어 나오시자 모두들 조용해졌다. 사부님께서 얼굴에 웃음을 지으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비가 곧 끊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시름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와 동시에 비는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멎었다.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면서 사부님께 말씀을 드렸다. 《모두 관계하지 않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사부님은 자비롭게 그녀를 바라보시며 몸 뒤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석가모니, 관음보살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여승은 홀연 깨달았다. 원래 하늘의 신불들이 모두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고 중생을 구도하려 오셨던 것이다. 그녀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 자신이 인연이 있어 불법을 듣게 된 것을 행운으로 느꼈으며 이때로부터 대법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4월 7일, 사부님께서 몇 명의 학원들과 함께 금주의 필가산(筆架山)에 오르셨다. 때는 한창 조수가 밀려들 때라 풍랑이 세차게 일었다. 차에서 내린 뒤, 사부님께서 바다가에 서서 필가산으로 통하는 구름다리를 바라보시며 이것은 한 마리 용인데 용두는 해안에 있고 해안의 이 우물이 바로 용의 눈이며 용의 꼬리는 바다에 있고 구름다리는 용의 척추라고 말씀하셨다. 사부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배가 해면에서 항행할 때 배의 양쪽에서는 파도가 세차에 일면서 물보라를 일으켜 수시로 배위에 물방울을 튀겼다. 그러나 배의 전방은 오히려 호수처럼 잔잔한 통로가 나타났다.

천목이 열린 학원이 본데 의하면 배 양쪽의 물보라 속에는 수많은 작은 용들이 뛰놀고 있었고 어떤 용은 사부님의 옷깃을 물고 있었다. 해면에는 또 여덟 신선과 여러 신불이 있었다고 한다. 산에 오르는 도중, 사부님께서 한편으로 걸으시면서 한편으로 청리를 하셨다. 산에 오른 후, 학원들은 《삼청각》중의 신상(神像)과 각지의 신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부님께서 이 신상은 바다의 신인데 원시신에 속한다고 하셨다.

4월 9일, 사부님과 몇 명의 학원들은 또 의현 대불사로 갔다. 사부님께서 그 곳의 일곱 불상을 보시면서 이곳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바르다고 하셨다. 한 학원은 이 몇몇 부처가 사부님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은 대불사에서 한 해설원에게 일부 불법수련의 일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녀에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시고 또 파룬마크를 보여주었다. 당시 이 해설원은 사부님의 손바닥에서 돌고 있는 파룬을 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 금주로 와서 이틀 동안 전수반에 참가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수련을 시작하였다. 사부님이 대불사를 떠나실 때 학원들더러 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들과 작별인사를 하도록 하시고 사부님도 한 손을 입장하셨다. 이때 학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부처에 대한 숭경심이 솟아났고 장엄함과 신성함을 깊이 느꼈다. 후에 대불사에는 연공장소가 성립되었다. 학원들은 아침에 연공할 때 절에 있는 부처들이 다른 공간에서 학원들과 함께 연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시는 기간에 언제, 어디서나, 매사에서 모두 우리에게 아주 바른 형상을 남겨 주셨다. 당시 기공연구회에서는 사부님께 회의장으로 모시는 차를 안배하였다. 사부님은 《당신들은 이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보증코 제시간에 도착할 것이요.》고 하셨다. 4월 5일 설법을 시작한 후, 사부님께서 날마다 도보로 오시고 또 도보로 가시었다. 그러나 학원들이 길에서 사부님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모두 극장 문어귀에서 사부님을 만나곤 하였다.

사부님께서 의식주에 아주 검박하셨다. 몸에 걸친 짚은 남색 양복은 소매가 닳아서 허물게 보풀이 일었다. 속에는 낡은 양털 셔츠를 입으시고 발에 신은 가죽구두도 낡은 것이었지만 모두 아주 정결하였다. 초대소에서 학원들은 사부님이 드시는 것이 만두나 죽 혹은 라면인 것을 보았으며 때로는 시장에서 오이 같은 채소를 사오셨다. 하지만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학원들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여러 사람의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0일의 강의를 8일에 끝마쳤다. 그 중 이들은 사부님이 하루에 두 차례 강의를 해야만 했다.

기억하건대 학습반을 첫 시작했을 때, 학원들은 살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 하루는 사부님이 일부 학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학원이 갯가재를 잡아 사부님의 접시에 놓아드렸다. 사부님께서 잡숫지 않는다고 하시며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기 본 지방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 먹고 연공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들이 와서 당신들을 고발까지 하였소! 그들은 자신이 못생겼다고 한탄하기에 나는 그들을 물고기로 전생시켰소.》 우리의 수련을 위하여 사부님은 얼마나 많은 생생세세의 업력을 제거해주셨으며 총총의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풀어주셨는지 모른다. 설법을 하시는 중에도 다른 공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살해된 생명을 선택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부님은 참으로 《인간의 일에 속 태울 만큼 태우고

## 사존께서 중경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글/중경 노대법제자

나는 금년에 57 세이며 93 년도에 대법을 얻었다. 나는 사존께서 처음으로 중경에서 꾸린 학습반에 참가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사부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격동되어 눈물을 흘렸다. 몇 십년을 찾아 헤매던 현명한 사부님을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사존께서는 나의 경제상황이 곤란한 것을 아시고는 당장에서 학비의 절반 값 25 원을 돌려주었다. 내가 받지 않으려 하자 사존께서는 기어이 받으라고 하셨다. 나는 급한 나머지 울면서 《리 선생님, 저는 당신의 강의를 들었으니 응당 학비를 내야 합니다. 당신이 저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저를 당신의 제자로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부님은 자비롭고 장엄하게 강단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제자이다!》 부처의 신성한 음성은 총총의 공간을 꿰뚫고 울려 퍼졌다. 나는 이것이 흉대한 자비임을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오른 손을 한번 저으시자 온 장내는 어디라 없이 눈꽃 같은 파룬으로 꽉 찼다. 회의장에는 삼시간에 우리 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93 년과 94 년도에 사존께서는 두 차례 중경에 오시어 설법을 하시고 공을 전수하셨다. 그이는 매번 가격이 저렴한 여관에 주숙하셨는데 여관인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사부님께 여쭙었다.

《리 선생님, 당신은 명성이 높은 기공계의 명인입니다. 그러니 응당 고급 호텔에 들어가 할 텐데 왜 이토록 보잘것없는 곳에 투숙을 정하십니까?》 사부님께서 빙그레 웃으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부님께서 식사도 아주 간단하셨는데 종래로 물고기나 육류 같은 것을 들지 않으셨다. 중경사람들은 고추를 즐겨 먹어 국수, 국, 채를 막론하고 모두 고추를 넣는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점심에 밀국수를 드셨는데 음식점 주인은 사부님이 북방사람이기에 고추를 즐기지 않음을 모르고 국수에다 고추를 듬뿍 넣었다. 사부님은 매워서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었지만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국수를 다 드시었다.

있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일심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모순된 심정으로 반시간 남짓이 앉아있었을 것이다. 나는 결심을 내리고 말을 꺼냈다.

《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전하시는 파룬궁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주 숭경합니다.》 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실 뿐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또 말하였다. 《저도 파룬궁을 배우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에게도 파룬을 넣어주십시오.》

나의 요구를 듣고 나서 리 선생님은 마치도 세상 모르는 아이를 보듯이 나를 보며 웃으셨다. 연후에 그이는 《책을 읽어야 하오, 책을 많이 읽어야 하오.》 라고 하셨다. 나는 대뜸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나의 요구가 매우 유치했음을 깨달았다.

그 후, 그 학원의 재상 되는 요구 하에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러나 조금 앉아있으려니 마음은 의연히 달갑지 않았다. 그리하여 또 한번 리 선생님의 곁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리고 그 학원에게 쫓기었다.

세 번째로 나는 또 건너가 앉았는데 이번에는 리 선생님이 학원을 시켜 나를 부른 것이었다. 리 선생님께서는 나더러 창 밖을 보라고 하셨다. 나는 홀연 비행기 날개 아래쪽에 오색영롱한 큰 광환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아름답고 장관이었다. 선생님은 《저것이 바로 나의 진신(眞身)이오.》 라고 하셨다.

비행기가 곧 수도 비행장에 착륙하게 되었다. 리 선생님은 북경에서 내리고 나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가야 했다. 작별인사를 나누며 나는 리 선생님께 말씀을 올렸다. 《남경의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남경으로 오시어 설법하시기를 배우고대합니다.》 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연을 봐야 하오. 올해의 시간은 이미 다 정해졌소.》 나는 또 《리 선생님께서 남경의 대법제자들에 대한 희망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 하였다. 리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오. 책을 더 많이, 더 많이 읽어야 하오.》 하고 말씀하셨다.

전반 법회중에서 나는 마치도 봄바람에 싸여 있는 듯싶었다. T 공정사가 사부님을 만난 경과를 이야기 할 때 나는 때때로 에네지가 체내에 주입되는 감을 느꼈으며 내장이 심분 상쾌함을 느꼈다. 이때로부터 남경의 제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법 학습을 많이 하는 열조를 일으켰다.

하늘의 고생에 마음을 쓸 대로 쓰셨다!》(《홍음 .높은 곳은 춤기 마련》)

설법이 끝나기 전날, 학원들이 사부님과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자 사부님께서서는 여러 사람의 요청에 승낙하였다. 그러나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고 서로 사부님을 붙잡고 놀지 않았다. 사부님은 아주 화애롭고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였다. 그 여승도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 그녀가 당시에 입은 옷은 평복이었는데 승려 복을 바꿔 입고 다시 찍으려 하였다. 사부님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승려 복을 다 입고 가방에서 승려모자를 꺼내어 머리에 올려놓자 마자 갑자기 한 가닥 돌개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하늘 공중으로 종적 없이 날려보냈다. 여승은 망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일심으로 대법을 수련하여 사부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대뜸 깨달았다.

4월 12일 저녁, 설법반이 결속되었다. 사부님은 저녁 차를 타고 북경을 지나 함비로 가야 했다. 그것은 15 일날 그곳에서 설법반을 꾸리기 때문이었다. 기억하건대 그날 강의를 시작하기 전 사부님과 사업일군들은 수시로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세대의 삼륜 인력거에 싣고 회의장으로 가져왔다. 저녁에 학원들은 사부님을 기차역까지 환송하였다. 열차 칸에서 한 학원이 사부님께 《당신은 우리에게 남겨줄 말씀이 없으신지요?》 하고 묻자 사부님은 《수련을 잘 하시오.》 라고 말씀하였다. 당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너무나도 평범하게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씀에는 사부님이 금주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사부님은 금주에서 설법을 하신 후에도 의연히 늘 금주 학원들의 수련정황에 대하여 관심하셨다. 1996 년 사부님께서 금주에 오시어 법을 전한지 2 주년이 되는 심득 교류회 이후, 시 보도소에서는 자료와 녹화 테이프를 사부님께 보내드렸다. 사부님께서서는 자료를 보신 후, 《더욱 잘해야 합니다》 라는 평어를 쓰시어 우리를 격려하셨다. 1998 년 6 월 28 일, 사부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의현의 대불사로 오셨다. 사원의 문지기가 사부님을 알아보고 학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일부 학원들은 그때 행운스럽게도 밤낮으로 그리던 사부님을 만나보았으며 그들의 수련중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었다. 1998 년 12 월 30 일 저녁, 사부님은 연구회의 몇 명 학원들과 함께 금주에 오시어 각 연공장소의

학원들을 돌아보셨지만 당시 누구도 감촉하지 못하였다. 그날 저녁 시 구역의 석화, 화신, 화광, 건행, 룡원, 야금국 등 몇 개 연공 장소에서 동시에 몇 사람이 그들의 연공하는 장면을 돌아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모두 보도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개의치 않게 여겼다. 그때 한 학원은 누군가가 곁에서 자신이 연공하는 것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쩐지 사부님 같았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 사부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하고 생각하였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정말로 사부님께서 오셨던 것이다.

사부님이시여! 금주의 제자들은 영원히 당신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당신의 자비로운 구도를 저버리지 않고 세가지 일을 잘하여 원만을 이루어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사부님이 장춘에서 법을 전하실 때를 회상

글/장춘대법제자

【명혜망 2006 년 5 월 13 일】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신지도 어언간 14 주년이 되는 시각에 장춘의 대법제자들은 당년에 사부님이 고향에서 법을 전하시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부님이 설법하실 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회상하였는데 감개가 무량하였다.

사부님의 댁은 건설가와 해방대로 교차로의 서북방향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낡아빠진 구식 주택이었고 사부님의 댁은 4 층이었다. 남향으로 된 그 두 칸짜리 집은 다만 20여 평방에 불과하였다. 안방에는 침대 하나와 옷 껌 하나가 있었고 바깥방에는 책상 하나와 긴 소파 하나, 책계 하나가 있고 책계 위에는 향로가 있었으며 향로에는 잿가루가 절반쯤 담겨 있었다. 바로 이 간소한 작은 방에서 사부님은 《파룬궁》, 《파룬궁 (수정본)》, 《전법륜》, 《전법륜 (권 2)》, 《파룬따파의해》 등 몇 권의 대법저작을 완성하셨다. 바로 이 작디작은 방에서 사부님께서 우주중의 정법을 교란하는 마들을 청리 하였으며 한번 앉으시면 십여일 씩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길게 자란 수영도 깎을 시간이 없었다.

한번은 사부님께서 일곱 날, 일곱 밤을 식사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으셨다. 따님은 가슴이 아파 아버지께 식사를 권하였다.

대법제자들에게 사부님을 만나 빈 경과를 소개하였는데 오늘 그때의 회상을 되살려 이 글을 써냄으로써 여러분들과 그 행복했던 감수를 다시 되새겨 보려 한다.

법회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보도원이었다. 나는 연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법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 역시 사부님의 자비로운 배치였다. 법회는 남경 강녕현 중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사람의 얼굴에는 희열과 상화함이 내비쳐 있었다. 나는 마치 일종 미묘한 에네지 마당에 휩싸인 듯싶었으며 앞이마(천목)부위가 조여들며 살이 한데로 모여 안으로 뚫고 들어감을 느꼈다.

공정사가 법회에 나와 사부님을 만나 빈 경과를 이야기 하였다:

나는 한 과학기술고찰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리 선생님을 만났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갈 때도 리 선생님은 우리와 한 비행기에 올랐지만 사부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귀국할 때, 내가 비행기에 오른 지 얼마 안되어 몸집이 웅장한 중년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나는 눈이 번쩍 띄었다. 이분께서는 리 선생님이 아니신가?

나는 종래로 리 선생님을 만난적이 없고 아직 대법 수련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나의 아내와 아이는 모두 대법제자이다. 그들이 설법비디오를 볼 때면 번마다 내가 녹상기를 켜주고 테이프를 넣어주는데 그때 화면으로 리 선생님을 보았기에 인상이 아주 깊었다.

나는 비록 대법을 수련하지는 않지만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매우 숭경하였다. 나는 오늘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갔다. 《물어봅시다. 당신이 리 선생님이지요?》 리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그이가 자리를 잡은 뒤 나는 곁에 가서 앉고 싶었다. 그러나 사부님을 배동한 학원은 사부님이 지쳤기에 휴식해야 한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나의 심정을 아신 사부님께서 그 학원에게 돌이 잠시 자리를 바꾸어 나를 자신의 신변에 앉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는 행운스럽게 선생님의 신변에 앉게 되었다. 선생님과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도 아무 말없이 신문 한 장을 보시면서 다른 한 장을 나에게 넘겨주며 보라고 하셨다. 나는 감히 당돌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신문은 들고

수련에 준 영향이 아주 크며 나더러 언제나 잊을 수 없게 한다. 사실의 경과는 이러하다. 당시 사부님께서 연길에서의 설법을 끝내시고 연길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 몇 명의 보도소 소장들이 사부님을 환송하였는데 사부님은 소장들과 함께 한대의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가셨다. 역에 이른 후, 한 소장이 택시비를 물려고 하자 사부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기어이 자신이 돈을 내셨다. 여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부님은 내가 연변에서의 일은 이미 모두 끝났고 각종 비용에 대한 결산도 이미 깨끗이 끝났기에 경제상에서 나는 당신들과 이미 아무런 관계도 없다. 택시비는 나 자신이 내야하며 나는 학원의 돈을 일전도 쓸 수 없다고 하셨다.

이 사실이 학원들에게 준 영향은 아주 컸으며 또한 널리 전해졌다. 나는 늘 학습소조나 기타 각종 적당한 장소에서 학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시에 매사에서 아주 조심하면서 사부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제자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부님이 중국에서 법을 전하실 때 다녀간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사부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는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이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들을 모두 써내어 책으로 만들어 유전되는 가운데 손실이 없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글을 썼으니 만일 부족한 곳이 있으면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 진귀한 추억 - 남경

글/남경대법제자

【명혜망 2003년 1월 6일】 나는 강소성 남경 대법제자로서 1996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사부님은 남경에서 학습반을 꾸린 적이 없기에 (그 원인은 듣건대 남경기공부문의 사람들은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사부님께서 학원들의 학비를 높일 의향이 없었으므로 사부님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경의 제자들은 줄곧 사부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법을 얻은지 얼마 안되어 강소의 한 T 공정사가 출국을 할 때 연분이 있어 비행기에서 사부님을 만났다. 그가 돌아와서 남경의

사부님께서는 긴 탄식을 하시고 나서 한번 부르는 사이에 다른 공간에서는 이미 십여 년이 지나갔다고 하셨다. 그 후부터 따님은 다시는 아버지를 방해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노학원들은 모두 사부님이 무엇을 하시는 지 알고 있었기에 《파룬따파의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이번에 돌아와서 허다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함을 수련생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 되도록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려도 나를 몹시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다한 수련생들은 전화조차 걸지 않았는데, 나는 이 점을 알고 있다.》

바깥방의 벽에는 사부님이 친히 그린 불상이 걸려있었다. 두 존의 녀 불상, 한 폭의 아미타불, 도인 한 분과 손오공의 화상이었는데 장엄하고 신성하였다. 사부님은 크레용으로 그리셨는데 아주 섬세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그 중 아미타불, 도와 한 존의 녀 불상은 바로 《홍음》 중의 삽화에 있다.

기억하건대 당년에 사부님께서 북경 동방건강박람회에 참가하셨을 때, 이 주택건물에 불이 났었다. 사후에 사부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 하셨다. 당시 어떤 사람이 사부님의 집에 불이 붙었다고 알려드리자 사부님은 오른손을 들어 머리 뒤로 가져가며 아주 멋진 동작을 하셨다. 그리고는 《붙으려면 붙으라지!》라고 하시고는 이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 결과 불을 끈 후에 소방대원이 화재현장을 수습하다 보니 사부님의 집만은 불에 타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이 집은 부처를 수련하는 집이고 집에 불상을 모시고 있어 부처가 보호했다고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낡은 세력이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움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치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와 다투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가 좋지 않은 것을 보내면 나는 곧 청리(淸理)해 버렸고 청리가 끝나면 나는 바로 나의 법을 전했다.》

사부님의 집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 문화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의 지질궁이고 장춘시에서 제일 큰 공중집회장소이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기 전에 바로 이 곳에서 연공을 하셨다. 사부님은 연공 복을 입고 이 곳에서 정공을 연마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문화광장을 새롭게 수건 할 때, 원래는 전부 밀어서 평지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후에 동남, 서남쪽 귀퉁이의

수림을 남겨놓았다. 여기가 바로 그때 사부님이 공을 연마하던 곳이다. 7.20 이전, 장춘시의 만인 연공장면도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그 흥대한 장면, 장엄한 분위기, 상화롭고 자비로운 마당은 대법을 전시하였으며 수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법에 들어서도록 흡인하였다.

다시 북쪽으로 가면 장춘시 5 중인데 사부님의 제 1 기, 제 2 기 전수반이 바로 5 중의 계단 교실에서 열렸다. 1992 년 5 월 13 일, 제 1 기 학습반이 열릴 때는 사람이 180 명뿐이었다. 대법의 널리 전파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짧디 짧은 7 년 동안에 전국대륙에서는 1 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을 학습하고 공을 연마하게 되었고 짧디 짧은 14 년 동안에 80 여 개 나라와 지구에 전파되었으며 전세계에서 파룬궁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처음에 기공의 형식으로 법을 전수하셨다. 그이는 친히 학원들의 노궁혈과 천목을 열어주시고 파룬을 넣어주셨으며 신체를 청리하여 주셨다. 기억에 의하면 한 열 여섯 살 좌우 되어 보이는 처녀애가 있었는데 부체의 통제를 받아 큰 소리로 울어댔다. 기타 공을 연마하는 몇 명의 기공사들이 그녀의 머리 위를 두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부님이 강단에서 걸어 내려와 그녀의 머리 위를 세번 내리치자 그녀는 금시에 울음을 그쳤다. 그때 온 장내는 감탄의 소리로 웅성거렸으며 뒤이어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고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부님은 또 레의당의 네 귀퉁이에 기지를 설치하여 붉은 빛이 사방을 비추면서 상화로운 에네지 마당을 이루었다.

제 2 기 학습반이 결속된 후, 사부님은 구식인데다 형편없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장춘시를 한 바퀴 도시면서 장춘시의 공간마당을 청리 하셨다. 사부님은 학원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니 연공을 잘하라고 하였다.

승리공원 역시 사부님께서 초기에 연공을 하시던 곳이다. 사부님께서 겨울에 참장을 연마하였는데 동북의 겨울은 얼마나 추운가! 사부님은 겉옷과 장갑을 벗어놓고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씩 서 계셨다. 여름에는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 다른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처마 밑에 들어가 비를 그을 때에도 사부님만은 여전히 비를 무릅쓰고 연공을 견지하셨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찬탄하고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공이라고

후에 그녀더러 총계를 오르라고 하자 그녀는 감히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였다. 사부님께서 《올라가시오. 괜찮으니.》라고 하셨다. 여러 사람의 고무 하에 그녀는 정말로 총계에 올랐다. 후에 그녀는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조금 지나 내가 레의당 밖에 나가보니 그녀 혼자서 마당에서 걷고 있었다.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 휴식하지 않는 가고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걷고 싶었소. 집으로 돌아가서도 걷고 싶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걸어보지 못하였는데 정말 통과하오!》

또 한가지 일 역시 나는 종신토록 잊을 수가 없다:

당시 학습반은 한기에 열흘이었는데 사부님은 날마다 한 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 설법을 하시고는 연공동작을 가르치셨다.

학습반을 시작한 후의 어느 하루, 나이가 40 여세가량 돼 보이고 여위고 키 큰 남자가 학습반의 문표도 없이 기어이 들어오려고 하여 사업일군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문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권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떠들어 댔다. 《나는 바로 그(사부님을 가리킴)와 법술을 겨루러 왔소. 나의 사부는 백세가 넘었는데 그는 이렇게 젊단 말이요.》 그리고 또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부님은 사업일군더러 그 사람을 들여보내게 하였다. 사부님의 강의가 끝나자 그는 아주 조용하게 물러갔다. 그는 또 특별히 사업일군을 찾아 말하였다. 《나는 다시는 시끄럽게 굴지 않을 겁니다. 이분 이야말로 진정한 사부님이십니다.》

매번 행운스럽게도 사부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었던 그 행복한 나날을 회상할 때마다 사부님에 대한 심심한 숭경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친히 경력한 하나하나의 기적 같은 사실들은 나로 하여금 사부님의 위대함과 자비로운 구도를 심심히 느끼게 하여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신념을 더욱 견정하게 하였다.

##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

글/연변대법제자

【명혜망 2004 년 2 월 14 일】 나는 99 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이다.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던 초기에 널리 알려진 한가지 일이 나의

때면 모두 차로 영접하고 차로 전송하는데 우리의 사부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비를 무릅쓰고 도보로 걸으셨다.

매번 이 한 단락의 잇을 수 없는 경력을 회상할 때마다 출가인, 승려, 도사 그리고 사회상의 일부 거사들을 생각하게 된다. 깨달아야 할 것은 파룬따파는 우리가 수련하여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천만년의 기다림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니 기연을 여기어서는 안 된다.

## 내가 직접 본 사부님

글/무한 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8월 31일】 1993년 봄날, 사부님께서 무한에 오시어 법을 전하셨다. 당시 학습반은 중앙부급의 과학연구 단위의 레의당에서 진행되었다. 무한에서 처음으로 법을 전하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요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북경에서 온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흘간의 시간을 들여 사람들의 병을 봐주셨다. 이 사흘간에 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 특별히 사흘째 되는 날, 병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연속되었고 밤이 깊도록 많은 사람들이 떠가기를 아쉬워하였다. 각종의 질병을 지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특별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오랫동안 치료하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사부님의 치료를 받고 당장에서 기적처럼 병이 나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중에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진실한 이야기가 있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반신불수로 5, 6년간 침대에 누워 생활을 자립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기공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감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왔다. 그녀를 사부님의 앞에 있는 의자까지 부축하여 갔는데 똑바로 서지도 못하였다. 사부님은 그녀를 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않으셨다. 조금 지나 사부님이 그녀더러 똑바로 서라고 하자 처음에는 감히 서지 못하였다. 사부님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자 그녀는 재빨리 곧게 설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또 그녀더러 앞으로 걸으라고 하셨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여러 사람의 격려하에 끝내 첫발자국을 내디디고 뒤이어 아주 자신 있게 앞으로 걸었다.

하였다. 또 어떤 학원은 저녁에 사부님이 참장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사부님께서 의연히 그곳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한번 연마를 시작하면 온 밤을 지새웠다.

사부님께서 공을 가르치신 것은 승리공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는 기공의 형식으로 전파하셨다. 사람들에게 대법을 알리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부체를 청리하고 곱사등이를 곧게 펴주었으며 손이 가는 곳이면 병이 사라졌다. 당시 후산에는 연공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후에는 자리가 없어 또 정문과 뒷문에 연공장소를 개설하였다. 바로 이 뒷문을 사부님께서 《전법륜》중의 《육식 문제》에서 제기하셨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장춘(長春) 승리공원 후문을 지나고 있었다. 세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며 후문으로 나오면서 그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공을 연마(練)하기에 고기도 먹을 수 없는가? 10년을 적게 산다고 해도 나는 먹어야겠다!” 것처럼 강렬한 일종 욕망이다.》 사부님의 이 법을 읽노라면 마치 당년의 사부님의 모습을 보는 듯싶다.

승리공원의 동북방향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사부님이 전에 사업하시던 곳 — 장춘시 량유공급회사가 있다. 사부님과 같이 사업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사부님이 선량하고 소박하며 진실하고 평소에 말수가 적으시고 언제나 웃기만 하는 인연이 아주 좋은 분임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어디가 불편하여 사부님을 찾으면 사부님은 언제나 말없이 신체를 바로잡아 주셨는데 모두 나왔다고 하였다. 해마다 설 명절이면 활동이 있었다. 사부님은 곧 부대 문공단의 전우들을 청하여 절목을 연출하고 자신은 트럼펫을 불었다. 사부님은 사업상, 생활상에서 실제행동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보통 사람의 상태에 부합되게 수련하는 가를 보여주셨다. 사부님은 또 자신이 초기에 수련할 때의 일을 이야기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있는 일이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 직장의 식당은 늘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아침에 요리를 좀 해서 급하게 출근하려니 매우 힘들었다. 어떤 때는 찐빵 두 개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사서 간장을 쳤다. 이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간소[淸淡]한 것이므로 괜찮지 않은가? 늘 먹어도 안 되며 이 마음 역시 제거해야 한다. 당신이 두부를 막 보기만 해도 당신에게 신물이 돌게 하여, 다시 먹으려 해도 먹지 못하는데, 당신에게

집착심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서이다.》(《전법륜》) 장춘시의 많은 사람들은 사부님의 동료, 동학, 전우, 이웃, 친척친우인데 모두 사부님이 그들은 구도하기 위하여 맺은 인연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부님의 고심한 구도를 저버리지 말기를 희망한다! 《대법은 널리 전해지고 있고 일체 중생을 구도(救度)하고 있다.》(《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는 것이다》) 사부님은 모든 생명에게 한차례 또 한차례 구도될 기회를 주셨으니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맡길 뿐이다.

승리공원의 서쪽은 항공부대의 구락부이다. 이곳에서 사부님은 제 3기 설법반을 열었다. 그당시 단위에서 쌀 마대에 치여 오래 전에 반신불수로 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치료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여 가족들이 들것에 들어 강단 위에다 올려놓았다. 병원에서 또 몇 명의 병우들이 따라왔다. 사부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친히 그녀의 신체를 조정해 주었다. 먼저 앞몸을 두드리고 번져 눕히고는 또 잔등을 두드리고 나서 일어나 앉으라고 하자 그녀는 곧 일어나 앉았으며 사부님이 그녀더러 일어서라고 하자 그녀는 곧 일어섰다. 뒤이어 사부님이 그녀더러 한 바퀴 걸어보라고 하자 그녀는 정말로 강단 위에서 한 바퀴 걸었다. 가족들과 따라온 병우들은 감격해 마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온 집 식구가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이 학습반에서의 어느 하루, 사부님은 낡아빠진 자전거에 따님을 태우고 오셨다. 문 앞에 이르러 보니 학원들이 세워놓은 자전거가 한 줄로 번져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손수 한대 한대씩 일으켜 세웠다. 때는 한창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부님은 매 하나의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큰 뜻을 품고서도 사소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노라.》임을 알려주었다. 그때 한 학원이 문 앞에서 가족의 병을 보이려고 사부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경을 보고 감동되고 탄복하였다. 그는 내심으로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나는 어쩌면 가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강의 시간을 지체시키려 하였는가 하고 자책하였다. 그녀는 조용히 례의당으로 돌아가 사부님께서 설법하시기를 기다렸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선한 행동은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용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있었다.

승리공원과 성위 례의당은 길 하나를 사이 두고 있다. 사부님은

찬란하다. 두 강의를 듣고 나서 나와 같이 온 늙은 여승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법수련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출가한지 오래되도록 자신이 수련하는 것이 어느 법문인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하였다. 제일 마지막 강의시간에 사부님께서 학원들이 글 쪽지에 따라 문제를 대답하셨다. 여승이 울고만 있기에 나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사부님을 찾아가 물었다. 사부님께서 강단 오른 편의 소파에 앉아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사부님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사부님, 한 여승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다 마찬가지로 말해주시오.》 라고 하셨다. 내가 금방 돌아서려는데 사부님은 《그 여승을 여기로 데려오시오.》 하셨다. 내가 여승을 데리고 강단의 문어귀에 이르러 아직 한 단락의 거리가 있을 적에 여승은 급히 꿇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부님께서 급히 다가오시어 《이러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여승을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늙은 여승은 격동되어 그제 《저는 어쩌면 좋을가요?》 하는 한마디만 하였다. 사부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눈빛으로 강단 위를 가리키며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관음보살, 석가모니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늙은 여승은 사부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다. (원래 이러하구나, 하늘의 신불이 모두 와서 사부님을 도와 법을 전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구나!) 늙은 여승은 사부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하여 기뻐하였으며 불가대법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기뻐하였다. 이것은 얼마나 큰 조화인가!

어느 하루 강의가 끝난 후, 이미 저녁 9시가 되었다. 우리는 뒷줄에 앉았기에 먼저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의장에서 멀리 걸어간 후, 어느 사이엔가 사부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 우리 앞에서 맞은편 길을 건너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당시 나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부님을 보고 큰 소리로 《아, 선생님이 아니신가?》 고 하였다. 사부님은 나의 말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리시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흔들며 보였다. 나는 비속에서 멀어져 가는 사부님의 뒤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당지의 학원들을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사부님께 차를 안배하여 드리지 못하는가? 어쩌면 사부님이 비를 무릅쓰고 걸게 하는가?) 기타 기공사들이 공을 전할

## 진귀한 회상, 명심할 가르침

글/광우

【명혜망 2002년 11월 6일】 1994년 4월, 여동생이 《파룬궁이 금주에서 학습반을 꾸리니 꼭 와야 돼요.》 하고 전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늙은 여승을 찾아갔다. 《파룬궁이 학습반을 꾸리고 불법을 전한답니다. 당신은 출가하여 오랫동안 절에 있었는데 불법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늙은 여승은 말하였다. 《무엇이 불법인지 들어보지 못했어. 몰라.》 그리하여 우리는 금주에 가서 법을 듣기로 약속하였다. 그날따라 한 거사가 찾아와 여승을 따라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우리가 학습반에 참가하는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여승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자 나는 《연분을 따르라지요.》 라고 하였다. 결과 나의 말 한마디에 그 거사도 우리와 함께 금주로 가겠다고 표시하였다. 나는 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인후암 등 질병이 있었다. 병에 걸린 지 7년이 되도록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 땀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번에 기차에 오르자 손발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였고 배어나는 것이 모두 끈적끈적한 점액이었다. 후에야 안일이지만 아직 사부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신체를 청리하고 계셨던 것이다.

금주에 이르자 우리는 곧 학습반으로 갔다. 사부님이 강단에 나타나자 나의 마음은 몹시 격동되었다. 40여 년이나 소식(素食)을 해온 그 거사는 나의 옆에 앉아서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을 보았어요. 13,14세 모양인데 금 귀걸이를 걸고 장엄하기 그지 없어요. 사부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무엇이 나타나는데 불법을 이야기 하면 부처의 형상이 나타나고 관음보살을 이야기 하면 관음보살의 형상이 나타나요. 손에서는 부단히 채색 빛발이 뿜어나오고 눈꽃 같은 파룬이 장내에 꽂차있어요.》 이 노 거사는 출가하면 관음보살을 볼 것이라고 스스로 예감하고 있었다. 아마 신불이 대법과 인연을 맺도록 그녀를 점화했을 것이다. 연후에 그녀는 나에게 말하였다. 《나는 출가하지 않겠어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겠어요. 사부님은 부처예요. 중생을 구도하러 오신 분이예요.》

연분이 이르니 집이 절과 같고 부처가 구도를 하니 길이 넓고

여기에서 제 4기, 제 5기 학습반을 열었다. 제 4기 학습반에서 사부님은 전수반에 참가한 몇 명 학원들을 강단에 올라오도록 하였다. 한 사람은 배에 큰 종류가 있었다. 사부님이 그의 신체를 청리하실 때 피가 섞인 고름이 바지가랑이를 따라 아래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윽고 종류가 소실 되고 배가 훌쩍하게 되는 바람에 바지를 추스르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사부님의 신적과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는지 모른다.

5기 전수반이 끝난 후, 사부님은 더 이상 학원들의 병을 일일이 치료해주지 않고 정체적으로 학원들의 신체를 바로 잡아 주셨다. 이 학습반이 결속될 때 사부님께서서는 승리공원, 길림대학, 아동공원, 동식물원, 조양공원 이 다섯 개의 연공장에 기발을 수여하였다. 이런 연공장은 모두 사부님께서 친히 돌아보시고 마당을 청리하고 보호막을 씌워놓았다. 사부님은 동식물원에 커다란 장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때 당시 겨우 몇 사람이 연공하고 있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하시며 얼마 안되어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6,7기 학습반이 끝난 후,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95년 이후에는 사람이 많아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동식물원의 기타 몇 개의 문 앞에도 연공장소를 설립하였다.

사부님의 그 후 두기의 학습반은 모두 길림대학의 레의당인 명방궁에서 열렸다. 14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많은 옛 곳은 이미 밀어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수건 하였지만 유독 이곳만은 아직도 원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일본식 신사풍격의 건축물은 역사를 견증하고 기재하고 있으며 전체 우주가 말세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사존께서 광림하여 이곳에서 법을 전하시고 중생을 구도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레의당내에는 의연히 사부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문앞에서는 사부님과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 기념사진을 남겼으며 설법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는지 모른다.

사부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어떤 학원들은 사부님의 아주 큰 광환을 보았는데 금빛이 찬란하였다. 여덟 호법신이 갑옷을 입고 각종 법기를 들고 좌우에 각각 네 사람씩 사부님의 양측에 서서 사부님을 호법하고 있었으며 위엄 있고 신성하였다.

한 노인은 뇌혈전에 걸려 지팡이를 짚고서 의자에 앉아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사부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버리고

의자를 철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버리고 왼 발을 내디더 보고 또 오른 발을 내디더 보았다. 이렇게 문 앞의 광장에서 한 바퀴 또 한 바퀴를 돌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장면에 격동을 금치 못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찬탄했다. 후에 노인의 집사람이 사부님께 편지를 보내어 파룬궁을 잘 연마하여 사부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사부님은 1992년 5월 13일부터 1994년 5월 10일까지 장춘에서 일곱 차례 전수반을 열었다. 제 1기반에 2백 명이 안되던 데로부터 제 7기 반을 열었을 때는 3천명을 넘었다. 전국각지에서 불원천리 마다하고 비행기를 타고 만수천산을 넘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에게 담가로 들려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편벽한 시골에서 한 부부가 멜대를 지고 왔는데 멜대에는 아이가 앉아있었다. 실로 《대법이 한 줄로 이끈 것이》였다. 아! 모두들 법을 얻으러 왔고 또 법을 얻고서 돌아갔다. 마치도 알알의 씨앗마냥 심어졌으며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이 폈으며 사방에 꽃 향기를 풍기고 또 오라지 않아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종자를 고르시고 땅을 선정하였으며 종자를 묻은 뒤 햇빛과 감로를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며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어 주시고 벌레와 쥐들을 막아주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1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사부님께서서는 대법제자들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최후의 수확을 기대하고 계신다.

곧 바로 이곳에서 94년 11월 20일, 제 1기 대법제자 심득 교류회가 열렸다. 각지에서 학원들이 몰려왔고 우주중의 수많은 각자들도 모여왔다. 일부 천목이 열린 학원들은 우주중의 신들이 모두 온 것을 보았는데 나무앞사귀에까지 모두 앉아있었다. 그들은 대법제자들과 함께 례의당으로 들어갔다. 어떤 신은 층차가 너무 높아 한 층의 성운을 감고 왔으며 색채가 찬연하고 형태가 각이 하였다. 녹화기는 당시의 그 신성한 순간을 녹화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사부님께서서는 《파룬따파의해》에서 언급하셨다. 《장춘에서 녹화를 했는데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몹시 생생하여 듣는 수련생도 아주 격동(激動)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회의가 아주 생기발랄하게 열렸고 분위기 역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주 기뻐하였다. 마치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장(場)에 나 본인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모자라는 것이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여름날의 정주는 땀별이 뽕뽕 내리 쪼였다. 대회의 규정에 의하면 매개 성의 학원들이 단체로 사부님과 사진을 한번 찍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전국에는 얼마나 많은 성이 있는가! 본래 사부님은 몹시 고생스러우신데 학원들은 그래도 달가워하지 않고 각성 지구에서 다 찍고 난 후, 또 자동적으로 시구역의 학원들을 조직하여 사부님과 사진을 찍었다. 바로 이렇게 사부님은 여기서 청해가고 저기서 청해갔다.

뒤편이 하늘에서 내리 쪼이고 무더위가 사람을 찌물켰지만 사부님은 종래로 시끄러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화하고 자비롭게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학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

지금에 이르러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몸돌바를 모를 지경이다. 그때 나는 얼마나 자사자리 하였던가! 사람마다 존중하는 사부님 앞에서 어찌하여 사부님을 위해 생각하지 못했는가? 사부님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고 피로를 덜게 하여 사진을 한번만 찍으면 족했을 것을 어찌하여 사부님을 위한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였던가! 이미 여러 날 설법을 하시고 그날에도 온 오전 강의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또 뒤편아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야 하셨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하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걸어왔고 대다수의 동수들은 모두 성숙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많고 많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였는데 모두 이 사(私)와 관련이 있으며 모두 이 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오직 가장 깊은 속에 숨어있는 사(私)를 전부 버려야 만이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사무아의 표준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사부님이 당년에 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천신만고를 헤아려 보노라니 우리가 표면상에서 감수할 수 있는 제자에 대한 보호와 아끼는 마음은 다만 창해의 한가닥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상에서 사부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와 우리를 위해 실질상에서 감당한 거대한 난을 우리는 영원히 다 알지 못할 것이지만 사부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가슴속에 아로새길 것이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 사부님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따라갔다. 그 후의 학습반에서 사부님께서서는 그의 경제상황이 곤란함을 아시고 학비를 면제하여 주셨다.

학비를 놓고 말하면 당시 파룬궁 학습반의 학비가 전국 각 기공문파의 요금 중에서 가장 저렴했으며 더욱이 노학원에게서는 절반 값만 받았다. 파룬궁의 요금이 낮음으로 하여 기타 각 문파의 불만을 자아내어 기공협회에서는 사부님께 요금표준을 높일 것을 제기했으나 사부님께서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으셨다.

또 장춘의 한 학원은 일가족 네 식솔이 80 고령의 행동이 불편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주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다. 기차역에서 영접차량시간을 어귀어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거리에서 여관을 찾고 있었다. 걷고 걸다가 2 층집 한 채가 보였는데 주인 주택이었다. 그녀는 (저 층집이 여관이면 좋겠다. 그러면 더 걸을 필요도 없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바로 이때 2 층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하였다. 《주숙할 곳을 찾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오!》 당시 이 학원은 사부님께서 더 걸을 수 없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시어 도움을 주신 것임을 대뜸 깨달았다.

바로 이 정주의 학습반에서 당지의 사악은 사부님이 법을 전하시는 일을 교란하려고 시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사부님께서 학원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호두 알만한 (어떤 것은 계란만큼 했다) 우박이 섞인 폭풍취우가 하늘 땅을 뒤덮으며 쏟아져 내렸다. 원래 명랑하던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천목이 열린 학원이 말하기를 이런 정황 하에서 사부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학원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부님께서서는 하나의 큰 파룬으로 삼시간에 모든 학원들을 덮은 다음에야 사악을 제거하기 시작하셨다……

잠시 후, 하늘은 또다시 명랑하게 개고 사부님께서서는 강의를 계속하셨다. 이 일에서 나는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보호를 직접 목격하였다.

사진을 찍는 것은 학습반에 참가한 모든 학원들의 소원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종래로 학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가 없이 시간을 내어 사진을 찍으셨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었다. 몇 천명의 학원들이 모두 사부님과 사진을 찍으려 하였으며 누구도

없다. 마치 내가 학습반을 연 것과 같이 그 장(場)은 대단히 강했다. 그것은 파룬궁(法輪功)이 집결한 것이고 법회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으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았다. 장래에 수련생이 많아지면 수련생들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심득체험을 말할 수 있다. 법 공부를 통한, 이것은 사람을 아주 잘 교육한다. 수련생 자신이 공(功)을 배운후 어떤 수확이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어떤 방면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욱 생생하다.》 이번 교류회는 장춘시에서, 전 중국에서, 전세계에서도 처음으로 되는 파룬궁의 대 집결이었다. 우주중의 신과 부처들은 우리와 함께 법 중에서의 깨달음을 나누었으며 스승님의 제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법 중에서 승화된 모습을 보았다.

길림대학의 정문에서 나오면서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한가지 일이 생각났다. 《우리가 전번에 길림(吉林) 대학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수련생이 길림대학 정문을 나와서 자전거를 밀고 막 길 가운데까지 갔는데, 승용차 두 대가 단번에 그를 가운데 끼워 넣어 당장 부딪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에 부딪쳐도 모두 두렵지 않은데, 그 순간 차가 멈췄으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장춘에서 여러 번 발생하였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관이 곧추 떨어져 내려온 것, 자전거가 승용차와 부딪친 후, 갈고리에 걸린 채 불꽃을 튀기며 끌려간 것, 콘크리트 전주대가 철문을 깔아서 사람모양을 만들어낸 것, 《이런 유의 일은 아주 많아 헤아릴 수 없으나, 위험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모두들 진정으로 사부님이 시시각각 우리 신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994 년 9 월 18 일, 길림대학 리화 교학청사의 한 레의당에서 사부님께서서는 장춘 파룬따파 보도원들을 위하여 법을 해설하셨다. 사부님께서서는 이렇게 강조하셨다. 《마땅히 법리(法理)를 투철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파악해야 한다. 책을 많이 보고 녹음을 많이 들어야 한다. 최저한도로 일반 수련생보다 명백해야만 비로소 진정하게 보도원을 잘할 수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똑똑해야 한다.》 《내가 말한다면, 이 법에 따라 배우고 오로지 그를 투철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나중에 사부님께서서는 직접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 《우리가 나의 고향에서 선두에 나설 수 있는가 없는가, 좀 조직하도록 하자.

우리는 단지 단체연공만 할 수 없다. 우리가 특정된 시간을 찾아 단체로 법 공부를 할 수 없겠는가? 매 장(章)마다 매 절(節)마다 여러분이 읽고 토론하도록 하라. 학습시간의 배치는 단체연공처럼 고정시켜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점이 있고 겨냥성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래에 실제문제에 부딪히면 의거할 법(法)이 있게 된다. 우리가 선두에 선다면 전국 각지 보도소에서 하나의 아주 좋은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전국 각지에서 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식제고에 대단히 좋은 점이 있다. 이러한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후부터 장춘의 학원들은 학습소조를 성립하기 시작하였으며 법을 학습하고 법을 베껴 쓰고 법을 외웠다. 1995 년 초, 《전법륜》이 출판된 후, 여러 사람은 진정으로 법에서 제고를 가져왔으며 각지의 학원들은 장춘으로 와서 학습체험을 교류하였다. 후에 국외의 학원들도 장춘으로 와서 《배움을 비기고 수련을 비기》면서 공동히 정진하고 정체적인 제고를 가져왔다.

대법의 흥대한 전파를 위하여 사부님께서는 《장춘에서의 파룬따파》에 제목을 써 주셨다. 사부님께서는 한편으로 글을 쓰시면서 한편으로 말씀하셨다. 《장춘(長春), 길이 존재하리라(長存啊)!》 장춘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의 설법 3 주년과 5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춘에서 2 기의 서화 전람을 꾸렸다. 사부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공덕이 무량하다, 공덕이 무량하다!》

사부님께서 국외로 법을 전수하러 가신 뒤, 오래도록 장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1998 년 7 월 26 일, 사부님께서 돌아오셔서 향거리라에서 장춘 보도원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였다. 다공능 대청에는 사부님의 웅장한 옛모습이 의연하며 학원들의 우뢰같은 박수소리도 여전히 울리고 있으며 꽃바구니에 담긴 생화는 의연히 향기를 풍기고 있다……역사는 영원히 그 순간을 남기었다. 뒤에 앉은 학원들이 사부님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부님께서 겹쳐놓은 의자에 웅근 다섯 시간이나 앉아 계셨다.

사부님께서는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사실 당시 우리 장춘의 많은 노수련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은 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風風雨雨)의 곤란한 시기를 겪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 법이 널리 전해졌고

물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는 《감속에서 왔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감탄의 소리를 냈다. 《그렇게 먼데서요!》 이때 사부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원말씀아님) 《이 법은 전하는 범위가 아주 크므로 아주 먼 곳에서도 모두 찾아왔다.》

사부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때 그 두 남자아이는 가볍게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곧게 펴고는 진지하게 사부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오직 사부님만이, 그리고 오직 이렇게 크고 신성한 우주대법만이 이토록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득히 먼 만리 밖에서 모여와 법을 듣도록 흡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후에 듣건대 신강에서도 한패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광주로 가서 설법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머나먼 만리 밖에서 첩첩 난관을 물리치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또 몇 사람이나 알고 있으랴. 바로 이 한 차례 한차례의 학습반에서 본 지방 학원이든 타지방 학원이든 학습반이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강의를 듣는데는 얼마나 많은 사부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 있는가를!

나는 당시 안휘에서 온 학원의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모르게 두 시누이를 데리고 장춘의 파룬궁 전수반에 참가하러 왔다. 그들은 역에서의 전문영접시간을 어기어 공공버스를 타고 학습반이 열리는 길림대학 레의당 밖까지 왔으나 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느닷없이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파룬궁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지?》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그들을 이끌고 걸으면서 또 허허 웃으며 말하였다. 《안휘라, 아주 먼 곳에서 왔구먼. 남편까지 속이면서……문 앞까지 왔는데 문을 못 찾는단 말이지?》 이 학원은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어떻게 내 일을 다 알고 있을까?) 사부님의 설법을 다 듣고 나서야 그녀는 원래 길을 안내한 노인은 그들을 영접하러 온 사부님의 법신임을 깨닫고 몹시 감동을 받았다.

또 안휘 시골에서 온 젊은이가 있었는데 키는 1 미터 80 이고 아주 멋지게 생겼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반년 전만 해도 그는 불구자였는데 허리가 90°로 휨 곱사등이었다고 한다. 사부님께서 처음으로 안휘에서 설법을 하실 때 당지의 기공협회에서 그를 사부님께 소개하였다. 사부님이 그의 등허리를 몇 번 두드리자 그의 허리는 당장에서 곧게 펴졌다. 그는 사부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며 자만하지 말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예전과 다름없이 사부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더욱이 우주 중생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2001년 4월 뉴욕 법회 발언고)

## 전수반 학원이 사부님의 은혜를 회상

글/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3월 30일】 사부님께서는 당년에 중국대륙에서 법을 전하실 때 천신만고를 겪으셨으며 장성안팎과 장강남북 그 어디 할 곳 없이 거룩한 자국을 남기셨다. 대법의 아름다움과 신기함은 자석마냥 천천만만의 인연있는 인사들을 흡인하여 사면팔방으로부터 모여와 사부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공을 배우고 설법을 듣도록 하였다. 매번 사부님이 이르는 곳마다 본 고장의 학원을 제외하고도 사부님을 따라다니는 호호탕탕한 《전수반》 학원들이 있었는데 사부님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따라갔다. 매번 학습반이 끝날 때마다 학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단 한 시각이라도 더 사부님의 신변에 머물고 싶어 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 시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나는 행운스럽게도 이 《전수반》 대군의 일원이었다.

기억하건대 광주, 제남역에서 내리면 곧 《파룬궁》이라고 쓴 프랑카드를 건 차들이 마중 나왔는데 이 역시 사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어 배치한 것이었다. 사부님이 학습반을 꾸리는 기간에 광주체육관 앞의 광장에는 몇 십대의 크고 작은 버스들이 《파룬궁》 플랭카드를 달고 학원들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을 하였다. 차들이 호호탕탕하게 거리를 지날 때면 행인들은 발길을 멈추고 구경하면서 《아! 파룬궁은 사람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연길에서 학습반을 꾸리던 첫날이었다. 몇 천명을 용납할 수 있는 회의장은 빈 좌석이라곤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옆 좌석 몇 개만은 비어있었다. 내가 (누구 일가? 사부님이 이미 강의를 시작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먼 길에 지친 모습으로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한 아이는 8,9세 가량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11,12가량 되었는데 빈 좌석에 와 앉으면서 금방 기차에서 내렸다고 하였다. 나는 조용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바 당초에 할 때는 아주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걸어 나왔다. 그리고 이 법이 맨 처음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 장춘 여기에서부터이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고심(高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은 다만 기공으로부터 진정한 법을 전하는 과도시기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점차로 비로소 진정하게 이 법을 개시하여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하게끔 한 바 이 일을 아주 계통적으로 하였다. …… 보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히려 얕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법이 전해지는 것은 아주 엄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이렇게 크기에 속인 사회에서의 유전형식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대도무형’ 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한 점을 해냈다. 무형(無形)이라, 속인 사회 중의 어떠한 형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수련하고 진정하게 제고되게 할 수 있다.》 (《장춘 보도원 법회에서의 설법》)

당초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여 우리를 구도할 때 요구한 것은 선을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 오늘 대법제자들이 마의 난을 겪을 때로 겪으면서 수련하여 낸 것은 우주를 보호하고 중생을 위해 책임지는 금빛 찬란하고, 순정하고 성실한 마음이다. 위험이 닥쳐올 때면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였으며 대법제자들을 보호하고 이끌면서 걸어오셨다. 사부님께서 한걸음 한걸음씩, 아주 주밀하고 순서가 있게 법을 전하였으며 수련의 형식을 남겼다. 대법은 천추 만대에 금강불패할 것이며 영원히 인간세상에 남을 것이다.

14년이 지난 오늘,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며 걸어온 길을 다시 새겨보노라니 장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말로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사부님의 탄신에 즈음하여, 또 사부님의 설법 14주년에 즈음하여 장춘 대법제자들은 사부님께 문안을 드린다. 대법제자들은 다시 한번 맹세를 다진다: 사부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부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며 사부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며 사부님이 성취하려는 일체를 성취할 것이다.

##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들을 회상

글/장춘대법제자 법래

【명혜망 2004년 5월 1일】 1992년 5월부터 파룬따파는 장춘에서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로부터 우주의 법리가 인간세상으로 왔으며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이 대법제자로 되도록 하였다. 지금 회상해보면 그때의 사부님께서 장춘에서 법을 전하시던 그날들이 나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각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 수 있겠지만, 당신은 이 시간 동안에 매우 보람찬음을 느낄 것이다.》 (《전법륜》) 지금 나는 그때의 경력을 써냄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 \* 천리 밖에서 찾은 사부님이 고향에 계시다

1992년의 황금가을에 나는 사부님을 만났으며 진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인생의 경력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3반과 5반, 공사합영, 대약진, 반우파, 4청, 문화대혁명 등을 경과하였는데 심신에 피로를 느꼈고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하게 느껴졌다. 이 인생의 고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수련의 길을 선택하고 경상적으로 절에 가서 불경을 청해 보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종 기공 학습반에도 참가하였다. 당시 나는 유명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승을 찾는 길에 올랐다. 몇 년동안 나는 선후로 보타사(普陀寺), 소림사, 백마사, 령은사, 법문사에 찾아갔으며 또 아미산, 락산, 청성산에도 갔지만 내가 찾는 사부님은 찾지 못하였다.

1992년 가을, 이웃의 동수가 나에게 파룬궁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찾는 사부님이 아마도 리 선생님일 거라고 하였다. 그는 리 선생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면 가서 만나자고 하였다. 어느 날, 우리 일행 네 사람은 사부님의 댁으로 갔다. 사부님의 댁은 길옆에 자리잡은 층집이었는데 실외층계로 오르내렸다. 그때 방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모두 수많은 일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8년간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대법이 전파되는 시기에 태어나 직접 선생님의 설법을 듣고 선생님으로부터 공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운스럽게 느껴진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보귀한 기연인가? 비록 이 몇 년간 많은 고생을 겪었고 많은 어려운 고비에 봉착하였지만 병마의 시달림을 받으며 속절없는 나날을 보내던 심태와는 이미 완전히 달랐다. 간고한 수련을 통하여 몸에 있던 더러운 물질들이 한 덩어리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지금 온 몸에는 활력이 넘치고 생명은 희망으로 충만 되었으며 무한히 넓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았다. 사실, 생명은 본래 아름다운 것이다. 단지 우주의 법리를 모름으로 하여 무지 중에서 적지 않은 업을 짓고 자신을 고통의 심연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선생님께서는 우주의 진정한 법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신체를 청리하시고 파룬과 일체 수련의 요소를 넣어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대법 중에서 수련하고 신심이 부단히 승화되도록 하셨다. 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공인은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나 연공인은 오히려 아주 행복함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는 승화하는 생명이며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말로 고향을 벗어나 반본귀진하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길어졌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9년동안 1분1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많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영원히 담아 낼 수 없다. 그이의 품덕의 숭고함과 위대함, 그이의 지혜의 풍부함과 광활함은 인간의 언어의 내포로는 만분의 일도 표현할 길이 없다. 99년 7월, 대륙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미친듯이 요언을 날조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사람들의 나쁜 마음을 유발시켰다. 세인은 말하지 않더라도 일부 연공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련하게 느껴진다. 어찌 사람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을 가능할 수 있으며 어찌 사람의 이치로 부처의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대법이 건곤을 바로잡는 마지막 시각에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양보하였다. 표를 주고 받으면서 쌍방은 눈물을 흘렸으며 옆에서 보는 사람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표가 없는 학원들은 체육관 문어귀의 광장에 모여 서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렇듯 간절한 마음에 체육관의 사업일군들도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전례를 타파하고 곁에 있는 집을 내어 텔레비전을 놓고 동시녹상으로 나머지 학원들이 강의를 듣도록 했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은 전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법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도 절박하였으며 중생의 깨달음이 이미 계발을 받았음을 보아낼 수 있었다. 그들이 사부님에 대한 경의 역시 그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하루, 학원들은 일찌감치 도착하여 체육관 대문으로부터 대청에 이르는 양 옆에 안으로 세 층, 밖으로 세 층으로 빼곡히 섰다. 중심에는 한 갈래 통로를 내어놓고 조용히 서서 선생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다. 선생님께서 오시자 여러 사람은 선생님을 둘러싸고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학원들의 내심에서 우러러 나온 선생님에 대한 숭경은 체육관의 사업일군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래지게 하였다. 그들은 학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의 선생님은 무슨 사람입니까?》 체육관에서 큰 장면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경건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사람들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수련도로가 어떠한지도 알게 되었기에 끝까지 견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나의 작은 딸애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93 년 말에 귀국하여 광주 제 3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날마다 견지하지 못하였다. 광주 제 5 기 학습반에 참가한 후, 그녀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혼자서 날마다 연공을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소개하였다. 후에 그 어떤 고난과 좌절도 모두 그녀의 수련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하였다.

광주 제5기 학습반은 리 선생님이 중국 대륙에서 연 맨 마지막 학습반이다. 그 후의 몇 년간, 파룬궁의 전파는 중국에서 고조에 이르렀다. 그 번에 미국, 홍콩,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도 일부러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서 당지 첫 파룬궁 학원으로 되었다. 이 학원들은 파룬궁이 세계 각지에 널리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고 사부님도 서계셨다. 그러나 나는 한눈에 사부님을 알아보았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하게 사부님께 심심한 인사를 드렸다. 나는 입으로는 《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사부님이시여, 나는 끝내 당신을 찾았습니다.》고 말하였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사부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 시각 나의 격동된 심정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마치도 길을 잃은 아이가 집을 찾은 심정이었다. 이때 같이 갔던 사람이 나의 정황을 사부님께 소개하자 사부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사부님과 함께 북경으로 가서 설법 반에 참가할 의향을 비치자 사부님은 이제 기다렸다가 장춘의 설법 반에 참가하라고 하였다.

사부님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야 나는 비로서 실내의 정황에 주의를 돌렸다. 집은 두 칸 방이었는데 안방은 침실로서 쌍 침대 하나밖에 놓을 수 없었고 바깥방은 우리가 있는 방인데 비교적 커서 긴 소파 하나와 책상 하나, 걸상 두 개가 있었다. 그때는 사부님께서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방에는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벽에는 사부님이 직접 그린 몇 폭의 부처상이 있었으며 부처들은 모두 층층의 작은 탑 같은 연꽃위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사부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작은 흙부처가 있었다. 후에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 테이프의 첫 시작에 멀리서 가까이 오는 사부님의 법신상이 있는데 멀리서 보이는 것이 바로 사부님 덕에 있던 그 불상이다.

몇 년이래, 나는 기차, 료선, 비행기를 타고 수련의 사부를 찾아 다녔는데 생각 밖에도 오늘 사부님을 만났다. 그것도 걸어간 것이었고 우리 집에서 사부님의 덕까지는 공공버스 한정거장의 거리밖에 안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수련계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줄곧 고층차로 수련하려고 생각한다. 도처에서 법을 구하려고 돈도 적지 않게 썼으며 방방곡곡을 한 바퀴 돌아 유명한 사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유명하다는 명(名)이 진정 명백하다는 명(明)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헛되이 돌아다니며 돈을 쓰고 고달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우리는 오늘날 당신에게 내놓았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쳐 주었으며, 당신의 집 문 앞까지 갖다 주었다.》(《전법륜》) 오늘 꿈만 같이 정말로 사부님을 만났다. 당시 나는 사부님을 따라 끝까지 수련하며 원만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다.

### \* 사부님의 설법 반에서

1993년 7월에야 사부님께서 장춘으로 돌아오셔서 성위례의당에서 제 5기 설법반을 열었다. 당시 법을 듣는 사람이 매우 많았기에 뒤이어 길림대학 레의당에서 제 6기 설법학습반을 열었다. 1994년 5월, 사부님은 장춘 길림대학 레의당에서 제 7기와 제 8기 설법학습반을 열었다. 나는 이 네 차례 학습반에 모두 참가하였다. 후에 또 하얼빈에서 열린 설법학습반에 참가하였다. 몇 천명이 참가한 설법장소는 물 뿌린 듯 조용했으며 소란스러운 소리는 전혀 없었다. 사부님은 설법을 하실 때 사업일군들이 일체 사업을 중지하고 조용히 법을 들을 것을 요구하였다.

내가 참가했던 이 50여 시간의 설법 중에서 사부님께서 언제나 앞당겨 현장에 도착하셨으며 강단에 서서 학원들이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시기를 빌어 사부님을 청하여 우리 가족과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에서 사부님께서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몇 줄의 글이 적혀있다. 이것이 바로 사부님이 강의를 하실 때 몸에 지니신 유일한 물건이었다. 사부님은 강의를 하실 때 종래로 강연고가 없었으며 교안도 없었다. 파룬따파는 사부님께서 친히 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매번 《불광이 비치어 예의가 원명한》 설법학습반에 앉아있을 때마다 나는 가부좌를 하고 손은 결인을 하였다. 눈으로는 사부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고 귀로는 사부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는 우주의 법리를 들었다. 사부님은 우리에게 우주의 특성—진, 선, 인이 곧바로 불법이며 인생의 참뜻은 바로 반본귀진이며 또한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알려주었다.

제 6기 설법 반에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비교적 높았다. 천목을 말씀하실 때 사부님께서 다른 공간의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에 다른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물체든지 모두 다른 공간에서의 존재형식이 있다고 말씀하였다. 사부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상 위의 물컵을 들어 오른손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더러 주의하여 보라고 하면서 천목이 열리지 않아도 모두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왼손의 중지와 엄지로 물컵 속에서 천천히 작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서 가시기를 기다려서야 나는 상자를 끌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갔다. 나는 상자를 끌고 플랫폼에 이르러 줄을 서서 역을 나섰다. 머리를 들고 보니 선생님께서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그렇듯 자비로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당시 나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닥 뜨거운 기류가 굽이쳤는데 정말로 선생님 앞에 풍덩 하고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에 사람이 많고 선생님의 신변에는 또 학원들이 있는지라 두 손을 합장하고 선생님께 말씀 올렸다. 《선생님, 저를 위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 혼자서도 됩니다.》 그날 나는 순리롭게 하얼빈에 도착하였고 이튿날에는 기적처럼 북경으로 돌아왔다.

몇 달 후인 12월 21일, 광주 제 5기 학습반이 열렸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맨 마지막 학습반이었다. 그때 파룬궁은 이미 신속하게 광범한 범위에서 전파되었다. 더구나 몇 달간 학습반을 꾸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또 듣건대 맨 마지막 학습반이라기에 전국각지에서 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은 생명중의 가장 중대한 일이므로 동북, 신강 등지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였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도착하여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강의를 듣는 동안의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식비로 2원만 썼다. 광주에서의 2원은 배를 불릴 수가 없었다. 한 북경의 학원은 자신의 돈을 내어 그들 매 사람에게 백원씩 주었다. 또 동북에서 온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대 중형기업이 모두 문을 닫아 수입이 없었다. 그녀는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얼마 안되는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또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불짐을 메고 노숙하면서 밥을 빌어먹으며 걸어왔다.

광주 제 5기에 참석한 학원이 5천여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았을 것이다. 광동성 기공협회에서는 일찍이 표를 다 팔았다. 나의 표는 광주의 친척에게 부탁하여 산 것이었는데 후에 온 학원들은 표를 사지 못하였다. 첫날, 강의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시각에 체육관 앞의 광장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듣건대 500여명이 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육관의 사업일군들은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초만원은 허용하지 않았고 인행도에 사람이 앉는 것을 엄금했다. 북경의 일부 학원들은 신학원들에게 표를

시각에 선생님은 장내를 한 바퀴 돌면서 학원들을 돌아보셨다. 선생님이 학원들의 앞에 이르자 선생님과 가까운 곳에 앉았던 학원들이 일시에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 선생님이 앞으로 걸어가자 그 다음 학원들이 일시에 일어섰다. 이렇게 선생님이 장내를 한 바퀴 도는 사이에 학원들이 정연하게 일어서고 앉는 것이 기복을 이루면서 전혀 없는 장관을 이루었다. 그 시각 온 장내는 신성함과 숭경의 마음으로 충만 되어 학원들마저 놀라 멍해졌다. 이것은 사전에 전혀 준비가 없던 일이었다.

내 곁에 앉은 신 학원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아마 중앙에서 사람이 온대도 이럴 수 없을 거예요.》 연길에서의 학습반은 연길 체육관에서 열렸다. 열심히 조직한 사람은 연길에서 맨 처음으로 외지로 가 강의를 들은 조선족 학원이었다. 그는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듣는 말에 의하면 그가 소속한 단위에서 70%의 사람들이 학습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번 학습반의 맨 마지막 날, 조선족 학원들은 오색영롱한 민족복장 차림을 하고 왔다. 그들은 가장 성대한 예절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강의를 끝난 후, 간단한 폐막식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수입 7천원을 전부 연길시 적십자 협회에 기부하셨다.

그날, 강의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도문강 1 호를 타고 장춘으로 가서 또 차를 갈아타고 하얼빈으로 가야 했다. 먼저번에 하얼빈에서 한 신 학원이 단위의 녹화기를 빌려다 녹화를 하였는데 나에게도 한 부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당시 그것은 아주 진귀한 것이었다. 그때 녹화기를 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고 녹음기마저 희귀한 때였으니 빨리 가서 챙겨야 했다.

하룻밤 기차를 타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장춘에 이르렀다. 나는 힘들게 행장을 끌어 내렸다. 지하철로 어구에서 상자를 세워놓고 잠깐 숨을 돌리다가 머리를 돌려보니 선생님께서 뒤에서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였다. 또 선생님이 나를 도와 상자를 들지 않을까 두려웠다(주: 이것은 수련계의 사도관계의 계선과 수련방식과 관련이 있다). 나는 황망히 말하였다. 《선생님, 저를 관계하지 마시고 먼저 가십시오. 전 관찰합니다. 경상적으로 홀로 다니므로 능히 할 수

물컵을 당겨 내셨다. 그것은 원래의 물컵과 생김새는 똑 같았으나 원래 물컵의 4 분의 1 가량 밖에 안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똑똑히 보았는가고 물었다. 모두가 격동되어 똑똑히 보았다고 대답하자 사부님은 또 천천히 작은 물컵을 큰 물컵 속에 넣었다. 이때 작은 물컵이 점차적으로 원래의 물컵과 합쳐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다른 공간의 물체를 보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현대 과학연구로는 돌파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리하여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묻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우주, 그것은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 이런 하나의 층차에서는 그것을 모두 변두리가 없는 무한히 큰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사람의 신체 내부, 분자에서 미시하의 미립자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주와 마찬가지로 크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드는 데에는 극미시하에서 이미 그의 특정한 생명성분, 그의 본질이 구성된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과학이 이것을 연구하기에는 아직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전체 우주 중에 존재하는 고급지혜성구(高級智慧星球)의 그런 생명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히 낮다. 바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도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지만, 다른 별에서 온 비행접시는 직접 다른 공간 속에서 가는데, 그 시공(時空)의 개념도 모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려면 곧 오고, 가려면 곧 가는데, 빠르기가 사람의 관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전법륜》)

#### \* 사부님께서 나의 집착심을 제거해 주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였다. 《내가 또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이 책의 내용은 몇몇 학습반에서 말한 법을 한데 합친 것이다. 모두 내가 말했으며 구절마다 모두 내가 말했고, 모두 녹음테이프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뽑아낸 것이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옮겨 적은 것으로, 모두 나의 제자, 수련생이 나를 도와 녹음 중에서 베껴 쓴 것이고, 그런 다음 내가 다시 한 차례 한 차례씩 수정(修改)했다. 모두 나의 법으로서,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이 하나의 법이다.》 (《전법륜》)

그때에 나는 행운스럽게도 베껴 쓰는 작업에 참가하였다. 제 7 기 설법 반에서 사부님이 말씀하신 법은 아주 높았다. 설법

반이 결속된 후,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더러 이번 기의 설법녹음을 베끼도록 하였으며 요구가 특별히 높았는데 반드시 한 글자도 빠뜨림이 없이 베껴내야 했고 시간은 또 특별히 짧았다. 녹음 테이프를 받아 든 나의 심정은 몹시 격동 되었다. 사부님이 나를 신임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다만 베껴 쓰는 일이 아닌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환희심이 생겨났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수련의 기타 방면과 과정 중에서도 환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마(魔)에게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전법륜》) 그리하여 당시 내가 베껴 쓰기를 할 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기억력이 차하고 글 쓰는 속도도 늦었다. 거의 매 한마디 말마다 녹음기를 한두 차례씩 멈춰야 했으며 이렇게 멈추었다가 되돌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너무 진전이 없었다. 마음이 조금해지자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질 가 겁났으며 제시간에 완성 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가봐 두려웠다. 후에는 녹음기마저 고장이 났다. 시간을 재촉하기 위하여 또 새 녹음기로 바꾸었다. 결과는 그래도 내가 뒤졌는데 동수들의 도움하에 맨 마감의 사람으로 제시간에 베껴 쓰기를 완성하였다. 당시 우리는 사부님께서 설법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우리의 법 공부에 쓰시려는 것은 알았지만 이 귀중한 서적의 이름이 《전법륜》인 줄은 모르고 있었다.

1994년 9월, 사부님께서서는 소형 법회를 열고 학원들에게 일부 수련중의 문제들을 해답하여 주었다. 학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비교적 많고 또 사부님께서 문제마다 모두 상세한 해답을 주었기에 법회가 결속될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곧 사부님과 함께 작은 음식점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이때 나의 집착심이 또 일어나 급히 집으로 가서 사진기를 가져다가 새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사부님이 이제 곧 국외에 가서 설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부님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므로 사부님과 함께 사진이라도 많이 남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장, 저기서 한 장 쉴새 없이 찍으며 바빠 보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부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계속 찍어 내려갔다. 이때 사부님의 신변에 앉았던 집사람이 나에게 눈치를 보내며 사진을 그만 찍으라고 하였다. 나는 사부님께서 아무 말씀도

학습반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어서 제남의 제2기 학습반이 시작되었다. 제남의 체육관은 3, 4천명을 용납할 수 있었는데 빈 좌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제남의 이 학습반에서 선생님은 아주 상세하게 강의를 하셨고 이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다음 기는 대련에서 열렸다. 선생님은 여러 사람들이 대련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다. 대련은 편벽하고 기차가 적었으며 학습반의 표도 다 팔린 상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에게 30일의 비행기를 타고 대련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은 길에서 저애가 많았으며 마의 교란이 아주 심하였다. 나중에 선생님은 배를 타고 대련으로 가셨다.

기억하건대 성도에서 대련시 보도소 소장이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에 용이 있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되어 다음에 대련으로 가게 되면 보여줄 수 있는 가고 물었다. 그녀는 된다고 대답하였다. 이번에 대련으로 가게 되자 나는 이 일을 잊지 않고 그녀에게 보여달라고 졸랐다. 어느 하루, 그녀가 사진을 가져왔다. 내가 보니 정말이었는데 그들과 선생님이 선 뒤쪽 하늘에 두 마리의 용이 있었는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가지런히 떠있었다. 머리는 아주 크고 코와 눈의 윤곽도 아주 똑똑했으며 위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또 나에게 두 자루의 보검을 가리켜 보였다. 내가 보니 아주 작기는 하였지만 똑똑히 분별할 수 있었고 칼과 칼집은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반나절이나 멍하니 들여다 보았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 한 장밖에 없는데 원판을 가지고 다시 씻으니 나오지 않더라고 하였다.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현지에 가서 이십여 차나 고찰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헛물을 쵸고 말았다고 한다. 후에 제 10 강의 문제해답 시간에 한 학원이 《파룬궁》 책을 읽을 때 두 자루의 보검을 보았다고 하자 선생님은 《그렇다, 그것은 내가 우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위력은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

8월 5일, 하얼빈 학습반이 시작되었다. 지점은 하얼빈 아이스하키장이었는데 그때 아이스하키장은 아직 건설 중이었다. 삼면은 좌석이고 다른 한 면의 벽은 임시 삼합판으로 막아놓았다. 아이스하키장의 사업일꾼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득히 먼 만리 밖에서 모여와 기공 학습반에 참가하는 것을 처음 보는지라 그들도 와서 강의를 들었다. 어느 하루, 강의시간이 아직 이른

악천후를 본적이 없었다. 광풍, 폭우, 우박에다 우리가 울고 번개까지 쳤다. 나는 당시 강단을 마주한 좌측 마루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자신은 노학원이므로 심성을 지켜야 하지 시끄러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될 수 있는 한 관람석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우박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며 떨어졌는데 마치도 양철 지붕을 산산이 부수려는 듯싶었다. 강단 위쪽의 지붕에도 구멍이 나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자동스위치가 떨어져 나가고 전등이 꺼지고 주변이 온통 캄캄해졌다. 이 모든 것은 단 몇 분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다. 모두들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조급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렸다. 《위에 누가 있는가?》 다시 바라보니 선생님께서는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가슴 앞에 놓고 계셨다. 앞에 앉은 학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한 학원이 빨리 선생님의 손을 보라고 하였다. 좀 지나 선생님께서는 무엇인가 손으로 움켜쥐셨는데 손에 무슨 물체를 잡으신 것 같았다. 그이는 책상 위의 광천수 병을 열고 물을 마시고는 손에 잡은 물체를 병에 집어 넣으셨다. 순간 비는 굵고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햇빛이 장내를 비추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하였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에 앉아 대수인을 하시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였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떼어버렸다고 하셨다. 이때 전등이 하나씩 밝아지고 강의는 계속되었다. 늘 전수반을 따라다니는 정주의 한 젊은이가 말하기를 당시 그는 통제실에 있었는데 자동 스위치가 떨어져나간 후, 선로에는 줄곧 전기가 없었지만 전등은 하나 하나 이어서 밝아졌다고 하였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밖에 나와보니 벼락을 맞은 나무들이 적지 않았다. 얼음과자를 파는 할머니가 우리를 붙잡고 물었다. 《금방 있는 일이 자네들이 불러온 일이지?》 나는 놀랐다. 노백성들로 이런 일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었다. 이튿날, 정주의 신문에는 많은 지방의 지붕이 벗겨졌다고 보도하였다. 기상국에서는 경황실색하였는데 사전에 아무런 징조도 보아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기공협회의 주최자는 오늘 견식을 크게 넓혔다고 하였다. 이튿날, 정주시의 시장이 찾아와 선생님과 공경스럽게 악수를 나누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그와 그의 며느리가 우리의

없이 줄곧 미소를 짓고 나를 보고 계셨으므로 근본 아랑곳 하지 않고 찰칵찰칵하고 사진 한 필름을 다 찍었다. 식사 후, 나는 즉시 필름을 씻으러 갔다. 이튿날 검판을 보러 갔더니 생각 밖의 일이 발생하였다. 필름 전체가 모두 꺼멀게 되었고 영상이 없었다. 나는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가 집착심을 버리도록 직접 깨우쳐 주신 것이었다. 이처럼 가없이 넓은 부처의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는 사부님에 대한 감격과 송경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번 자신의 집착심을 발견할 때마다 그때의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던 정경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나더러 몸둘바를 모르게 한다. 사부님께 미안함을 느끼며 집착심을 버리기에 노력하곤 한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가 있었기에 나는 오늘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나는 깊이 느끼게 된다. 오직 사부님을 굳게 믿고 대법을 굳게 믿으며 한 순간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안으로 행해 찾으며 집착을 버림에 동요가 없어야 한다. 꼭 사부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지 극단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최대의 노력으로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바로 우주 줄달음 치는 대법제자이다.

사부님, 시름을 놓으십시오. 우리 고향의 대법제자들은 반드시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중임을 떠메고 세가지 일을 잘하여 사부님의 정법의 발걸음을 따라갈 것이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부님이시여, 고향의 대법제자들은 당신을 그립니다! 사부님의 탄신 기념일에 유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사부님께서 법을 공개적으로 전하실때의 일부 경력을 회상

글/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5 년 1 월 25 일】 편집자 주 : 이 문장의 저자는 아주 일찍부터 사부님을 따라 공법을 배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법 공부를 중시하지 않은 데서 박해가 전면적으로 시작된 후, 이 몇 년간 아주 큰 굽은 길을 걸었다. 최근, 그는 깨달기 시작하고 이 한 단락의 회상을 썼다. 우리가 이 문장을 발표하는 것은 더욱 많은 학원과 세인들이 사부님의 언행 중에서 교훈과 본보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부님을 더욱 존중함과 아울러 대법이 흥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천고에 만나기 어려운 기연을 소중히 여기어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를 저버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문의 저자에 대하여 우리는 이 동수가 교훈을 섭취하고 법 공부를 틀어쥐고 법 학습을 잘하여 하루속히 엄정성명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사부님이 요구하신 정법 시기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가지 일을 잘하여 과거의 잘못을 미봉하고 금후의 길을 바르게 걷기를 충심으로 희망한다.

\*\*\*\*\*

나는 북경에서 태어 났으며 어려서부터 기공과 수련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졌다. 1990 년의 어느 날이었다. 한번은 군사박물관에서 나와 공공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무심중 동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문어귀에서 어떤 사람이 연공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때 한 가닥의 특별한 힘이 나를 흡인하였는데 그 느낌은 아주 강렬하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나이가 어렸기에 계면쩍게 생각되어 그들이 볼 가봐 가만히 엿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부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공을 가르쳤다. 들어보니 비록 열린 데서 말씀하셨지만 알기 쉽게 근본을 짚었는데 자신이 종래로 들어 본적이 없는 것이어서 따라 배우고 싶었다. 우물쭈물하면서 사부님께 말씀 드리자 사부님은 나를 보면서 자신이 북경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기에 가르칠 시간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나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유장(游桩)을 연마하는 것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은 군사 박물관 전달 실 부근의 작은 수림이었다. 네댓새 후에도 사부님이 가지 않은 것을 보고 또 연마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사부님은 따님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나에게 연공 목적이 무엇 인가고 물었다. 나는 당시 아무렇게나 수련이라고 대답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나에게 배워줄 수는 있는데 세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나는 너에게 점괘나 풍수를 보는 법, 병 치료 같은 것은 배워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회상에 배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진정으로 높은 층차어로 사람을 이끌므로 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며 네가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서로간에 대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나도 너를 살펴볼 것이고 너도 나를 가능해 보거라. (사부님께서서는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셋째,

더욱이 앞의 열차와는 다른 소속이었는데 열차는 성도 소속의 것이고 이 차칸은 정주 소속의 것이었다. 앞의 열차는 이 차칸의 일체 공금을 관계하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통하는 문마저 잠 그어 놓았다. 이 차칸에는 또 다른 학원들도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조급하였다. 있는 것이란 라면뿐인데 더운 물도 없으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와 무한에서 온 학원은 주전자를 얻어가지고 기차가 설 때 뛰어내려 앞의 차 칸에 올라 더운물을 가득 담았다. 그러나 이 차칸으로 돌아오려니 시간이 부족하여 기차가 다음 역에 이를 때까지 서서 기다리다가 차가 멈춰설 때 원래의 차칸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마실 물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매끼마다 선생님께 라면 한 그릇을 드릴 뿐이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산 여섯 장의 표는 이 차 칸의 맨 마지막 좌석표였다. 다시 말하여 열차의 막 끝이었다. 차가 화산을 지날 때, 선생님은 차 꼬리 부분에서 계셨다. 후에 연결한 이 차칸의 문에는 유리마저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그곳에 서서 오래도록 먼산을 바라보셨다. 나는 당시 몹시 궁금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뭘 보고 계실까? 그래서 호기심에 다가가서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나에게 화산에서 도를 닦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산에서 내려와 선생님을 보러 왔는데 지금 열차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였다. 선생님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보건대 나의 제자들이 어떠한가?》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수련한지 오래 되었지만 비밀만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줄곧 정주까지 따라와서 법을 들었다. 후에 선생님께서는 설법 중에서 그날의 일을 말씀하셨다. 정주 학습반은 조건이 가장 차한 학습반이었다. 기공협회에서는 폐기된 체육관을 찾아주었는데 중심은 낡아빠진 마루바닥이고 주변의 벽은 벽돌로 쌓은 계단식 관람석이었는데 파손되고 허름하여 온전하지 못하였다. 오래된 창문은 드문드문 유리도 없었다. 우리의 선생님더러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라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노 학원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6월 11 일, 전수반이 열렸다. 며칠 후의 주말이었는데 그날은 오후 4 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도중,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더니 하늘땅이 캉캉해지며 우박이 섞인 큰비가 하늘 땅을 뒤덮었다. 창문으로 비가 쏟아져 들어와 관람석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으로 밀려들었다. 좀 있으려니 호두 알 만큼 한 우박이 쏟아져 내려와 체육관의 양철지붕에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는 종래로 이처럼 사나운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먼저 대문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앞에서 걷고 계셨는데 문에 들어서자 양 옆에 4 대 금강이 서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머리를 돌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들도 모두 현장에 와 있다오.》 나는 말하였다. 《그들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선생님께서는 《그들의 위력은 아주 크다.》고 하셨다. 그때 절은 아주 난잡하여 여우, 족제비, 귀신, 뱀 따위들이 다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깨끗이 청리 하셨는데 그저 손을 한번 휘젓기만 하면 되었다.

며칠 후, 선생님께서는 청성산(靑城山)에 오르셨다. 동행중에는 대련보도소 소장, 귀주보도소 소장, 무한보도소 소장 그리고 기타 몇 명의 학원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있어 영험하다》는 옛사람의 말귀를 깨닫게 되었다. 나 같은 약골이 산마루에 올랐다가 다시 걸어 내려왔다. 돌아온 후, 남편의 동료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성도 학습반이 결속된 후, 우리는 또 선생님과 함께 락산과 아미산으로 갔다. 락산의 라한당에서 동행한 동수가 달려와 선생님께 xx 보살(지금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이 말하기를 선생님을 만나니 미안하기 그지없으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 전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떠날 때면 그들이 멀리까지 바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랐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흙으로 빛은 상에 불과하였다. 라한당을 나설 때 뒤에서 한 중이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였다. 분명이 그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다. 아미산은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달랐다. 금정(金頂)에서 나는 처음으로 천목에 대한 진실한 감수가 있게 되었다. 선생님을 따라 한 바퀴 도노라니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의 두뇌는 어느 정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나는 《서유기》와 다른 여러 가지 전설들이 생각났다. 하여 선생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신화이야기들이 모두 진실로 되었나요?》 선생님께서 대답하셨다. 《신화이야기도 모두 연고가 있는 것이요.》

다음 기는 정주에서 열리기 되었는데 어렵게 침대 표를 구하였다. 나와 선생님은 한 차로 정주에 가게 되었다. 차에 오르는 날, 날씨는 아주 더웠으며 역에 들어설 때 밀치기까지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짐을 드셨는데 잔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의 마음은 몹시 쓰렸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차에 올라서야 이것은 임시로 덧붙인 맨 마지막 차 칸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집 식구들을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대답을 했고 그때로부터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의 거짓말을 밝아놓다 : 리정초(李鼎超)는 공을 늦게 배웠기에 사부님을 도와 공법을 창작할 가능성이 없다

1991년, 사부님께서는 모친을 따라 태국으로 친척방문을 갔다. 귀국 후에는 북경을 경과하여 장춘으로 돌아왔다. 그때 리정초는 그의 형님 리정봉(李鼎峰)의 소개를 통하여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나와 기타 몇 명 학원은 이미 사부님을 따라 공을 배운지 일년이 되었었다. 1999년 7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중앙텔레비전에서의 고의적으로 사부님을 추악화하고 악독하게 공격한 특별프로--《리홍지 그 사람과 그 일중》에서 리정초는 뜻밖에도 자신이 사부님과 같이 파룬궁을 창작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역사사실에 대한 왜곡이며 리정초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사실, 1992년 사부님이 공개적으로 법을 전하기 전후, 리정초는 천목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봐주고 돈을 받음으로 하여 사부님의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미 나쁜 마음이 일어나 자신이 천목으로 본 것에 집착하면서 기공으로 병을 보고 돈과 재물을 받았으며 사부님의 비평도 듣지 않고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갔다. 나중에 끝내 대법의 대립 면에 서게 되었는데 교훈은 심각하다.

최근 북경에 류 x 라고 하는 사람이 9살 때부터 사부님을 따라 다녔다고 자칭하고 있다. 그는 천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대법제자들 중에서 떠돌고 다니며 이를 빌어 자신을 과시하고 일부 공이 깊지 못한 학원들을 미혹시키며 심지어 학원들에게서 돈을 요구한다. 사실, 사부님은 1990년 이전에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사부님의 가족들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1990년 후, 나는 줄곧 사부님을 따라 다녔는데 사부님이 국외로 법을 전하러 가실 때까지 근본상 이런 사람이 없었다.

### 2. 사부님께서는 매 한걸음을 바르게 걸으셨는데 사람을 구도하고 설법을 하셨지 표현을 하지 않았다

사부님께서 1992년에 공개적으로 공을 전하실 때는 곧바로 중국에서 기공열조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사회상에는 각 문파의 기공들이 수두룩하였고 그 중에는 혼잡한 부체공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기공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능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공연구회에서 공법을 검증하는 표준 역시 이 두 가지였다.

바로 이 한 점에서 사부님은 출산한 이래 태도가 아주 견결하시어 사람을 구도하기 위하여 공을 전하지 표현을 하지 않았다. 대법은 그의 엄숙성과 위엄성이 있다. 다른 각종 병을 치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 및 부체공들과 같을 수 없으며 공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학원을 끝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부님이 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제도함에 있어서 오로지 바른 것을 구해야만 비로소 당신들의 집착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정진요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법을 전수함에 어떤 표현(表演)도 하지 않는 뜻은 바로 내가 나온 목적을 똑똑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편으로 표현하면서 한편으로 법을 전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것은 법이 아니라 당신의 기술을 배우러 오게 된다. 석가모니부처도 그 당시 이렇게 하지 않았다. 병 치료는 괜찮는데 어쨌든 당신이 보아내지 못하며 그는 나왔다고 느낀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믿고 안 믿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환자가 나왔는데 믿고 안 믿고 아프고 안 아프고는 제3자가 모른다. 이 속에는 또 오성(悟性)이 존재하기에 병 치료는 괜찮다. 그 당시 예수, 석가모니부처도 역시 이렇게 했다. 노자만은 하지 않았는데 노자는 인간이 너무나도 험악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총망히 5천언(五千言)을 쓰고 관(關)을 나가 서쪽으로 가버렸다.》(《전법륜(권 2)》“사람을 제도함에 설법을 하지 표현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부님께서 사람의 신체를 조정하는 것과 기공 자문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파룬궁을 인식하도록 하셨다. 가장 일찍이 1992년 6월, 북경 감가구(甘家口)상업시장의 건재국 5층 레의당에서 오전, 오후로 연속 열흘 동안 기공 자문을 하였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다. 종양 혹은 자궁암과 같은 것은 신체조정을 거친 후 사진을 찍어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선증생

있었다. 수행일군들은 등에 큼직큼직한 책 묶음--《파룬궁》(수정본)을 지고 있었는데 등 굽으로 땀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기공협회에서는 하리(夏利)차 한대를 보내왔다. 선생님은 동행한 사람들더러 짐을 가지고 먼저 가도록 했다. 나의 남편은 선생님의 걸음을 덜러고 차를 플랫폼까지 몰고 가려 했다. 그런데 차가 금방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불시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몰려왔는지 역전 앞의 십자거리를 몰썰틈 없이 메워버렸다. 다행히 남편의 차는 외제차여서 자동변속기 오텍기에 기동이 빨랐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포위를 뚫고 나오기는 했으나 어찌나 급했던지 입에 물집이 한 줄 생겼다. 결과 선생님을 역전 앞에서 40여분이나 기다리게 하였다. 나는 미안한 나머지 며칠 동안이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후에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교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길에서 이러한 시끄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다.

성도의 학습반은 한 초대소의 레의당에서 열렸다. 선생님께서는 학습반을 꾸리실 때 종래로 광고를 내지 않으셨다. 그때는 각종 기공 학습반이 많고도 많아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첫날에는 청중석에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곧 달라졌는데 소식은 신속히 퍼져 끝날 무렵에는 이미 800여명이나 되었다. 매일 강의를 끝나고 나면 나의 남편은 차로 선생님을 여관까지 모셔다 드렸다. 학원들은 서성거리며 선생님이 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의 피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데서 나의 심정은 기뻐고 위안이 되었다.

우리의 학습반은 독립적으로 꾸리는 것이기에 사회와 별다른 교섭이 없었으며 기공협회에서는 돈만 받아가면 그뿐이었다. 선생님은 공을 전수함에 있어서 노정, 주숙 등을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했으므로 너무나도 고생스러웠다.

성도에 있는 날에 나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 지방에 다녀왔는데 그때의 일들을 여태껏 잊을 수 없다. 첫날에는 문수원(文殊院)으로 갔다. 우리의 차가 앞에 섰는데 홍콩에서 온 상인이 동참하였다. 그는 성도에서 학습반을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줄곧 성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국어가 능숙하지 못하여 강의를 듣는데 곤란이 있었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차에서 그에게 해설을 해주셨다. 차에서 내리고 보니 뒤에 차가 아직 따라오지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기 아쉬워하였다. 명방궁을 떠나 큰 길에 이르니 발차시간이 십여 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기차를 타지 못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표는 사람을 부탁하여 어렵게 구한 것이었다. 일반석인데다 천진에 가서 또 북경으로 가는 차를 갈아타야 했다. 택시를 잡아타자 운전기사에게 말하였다. 《10 분내에 도착해야 하니 빨리 몰아 주세요.》 택시는 역전 광장밖에 멈추었는데 플랫폼에서 아직 멀었다. 몇 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어느 플랫폼인지도 몰랐다. 천진의 젊은이가 나의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나는듯이 달려갔다. 몇 사람도 행장을 메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아무것도 생각할 사이도 없이 역전에 들어가서 플랫폼 끝에 이르렀다. 틀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천진의 젊은이가 기차에 올라 풍덩하고 무릎을 꿇고 자리에 쓰러지는 순간 기차는 발차하였다. 그날은 참으로 기적이었다.

듣는 말에 의하면 5 월 29 일 성도에서 학습반을 꾸린다고 하였다. 그 첫 번째의 학습반은 중경에서 열렸었다. 나는 성도에서 전에 학습반을 꾸린 적이 없기에 아마 파룬궁 보도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습반에 꼭 참가하면서 나는 선생님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천진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20 몇 원짜리 여관에 들었는데 목욕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강의를 듣고 나면 돌아가서 잠을 잤지만 선생님께서는 24 시간 동안 우리의 신체를 바로잡으셨다.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기어이 선생님의 숙소를 찾아와서 집사람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일어나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아무리 해석해도 듣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대면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마음이 다 있어 노학원들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다. 그들은 종래로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더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당시 나의 남편은 성도에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뭔가 선생님을 돕고 싶어 먼저 성도로 갔다. 성도의 기공협회를 찾아서 내가 차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무엇이든 도울 수만 있으면 있는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기공협회는 이익과 손실을 자부담하므로 기공 학습반을 꾸리는 것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이해득실을 몹시 따졌다.

그날, 선생님이 기차에서 내릴 때, 중경으로부터 같은 차를 타고 온 학원들이 아주 많았다. 때는 이미 5 월 하순이라 남방의 날씨는 무척 더웠다. 차에는 에어컨이 없어 모두가 기진맥진해

(乳腺增生)도 치료를 거친 후 사라졌으며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웠다. 골질증생, 요추 혹은 경추간판돌출은 치료하면 즉석에서 나왔고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병은 아주 고통스러운데 치료하면 당장에서 아프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면 완쾌되었다. 로탕(老汤 당시 북경 보도소 소장 )이 바로 사부님이 그의 심장병을 치료해준 후, 북경의대 제3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결과 병이 나왔었다. 모두들 파룬궁이 이렇게 신기한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 했기에 북경 제 1 기 학습반을 꾸리게 된 것이었다. 당시 노학원들의 회상에 의하면 그 학습반에 대략 200 여명이 참가했었다. 1999 년 7.20 이후, 로탕은 압력을 못 이겨 텔레비전에서 폭로 비판한다고 태도 표시를 하였지만 우리와 그 자신은 대법이 그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 3. 처음으로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사부님을 보았다

나는 이전에 많은 공법을 연마하였지만 모두 제자가 스승을 공양하지 종래로 스승이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1991 년, 사부님께서 태국에서 돌아오신 후, 우리는 사부님과 함께 북경 계대사(戒台寺)로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길옆의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다투어 결산하려고 하였다. 이때 사부님께서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고는 자신이 밥값을 결산하였다. 이 일이 우리에게 남긴 감촉은 아주 깊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가 스승을 공양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제자에게 밥을 사주는 스승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정경은 지금도 눈앞에 역력하다.

### 4. 사부님을 따라다니던 그 몇 년간 라면만 먹어 입에서 신물이 났다

당시 우리는 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는 사부님을 따라다녔다. 연속 몇 년간 기차에 오르면 사부님께서서는 라면만 드셨다. 학습반을 꾸리는 곳에 이르면 저녁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부님께서서는 종래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강의를 끝내고 초대소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 9 시가 되기에 초대소에는 이미 밥이 없었다. 사부님께서서는 또 밖에 나가 드시지 않으시고 일률로 라면을 드셨다. 우리도 막무가내로 사부님을 따라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몇 년간은 실로

입에서 신물이 났으며 냄새만 맡아도 괴로웠다. 때로는 포장하지도 않은 라면을 큰 주머니로 도매하여 왔는데 여러 날씩 먹어야 했다.

사부님께서서는 식사를 적게 하는 편이었고 또 빨리 하셨다. 만일 나머지가 있으면 포장하여 가져가셨으며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셨다. 후에 나는 한가지 구체적인 일을 발견하였다. 사부님께서서는 신변의 학원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를 끝내시고는 가서 결산을 하곤 하였다.

## 5. 무더운 여름날에도 사부님은 공공버스를 타셨다

1992년 7월, 사부님께서 금방 북경에 오셨다. 나는 사부님을 따라 일보러 나갔다. 그때는 한창 무더울 때라 나는 안일함을 구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부를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부님은 도리어 공공버스에 비집고 오르셨다. 나도 택시를 부르려던 생각을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온 몸이 땀투성이로 되었지만 사부님의 이런 검박하심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은 사부님의 생활이 여하 여하하게 사치하다는 요언을 날조하였다. 나는 그들의 이러한 요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나의 스승님을 모욕 중상한단 말인가? 사부님이 출산하시기 2년 전부터 나는 다년간 사부님을 따라다녔으며 오늘까지도 배울 것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부님께서 당년에 대법을 널리 전하시고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고생과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다.

## 6.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듣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사부님께서 금방 공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을 때, 나는 심성이 높지 못한데다 젊은 나이로 가볍고 조급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급하고 무단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르기가 일수였다. 때로는 자신의 체면 (실제는 허영심)을 위하여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였다. 이 정황을 놓고 사부님께서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어야 하고 대법에 부합되는가를 가능해야 하며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 다음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의 견해를 말해야 하는데

강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표가 없는 사람들은 의연히 문어귀에 서있었다. 이때 레의당의 관리인원이 정문을 닫아걸었다. 때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측면의 작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그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작은 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젊은이가 서있었는데 내가 금방 그를 보았을 때도 그는 말이 없었다. 내가 그를 지나치려 할 때 그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표를 구하려고 합니까?》 나는 일시 멍해졌다. 《원합니다!》 하니 그는 표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재빨리 손에 쥐고 있던 청해학원이 준 돈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또 표가 있게 되었다. 주위사람들의 흥모의 눈길을 받으며 나는 어딘가 미안쩍었다. 그리하여 늘 전수반을 따라다니는 정주의 한 젊은이 한테 주고 그더러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은 아주머니의 뭍이니 아주머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 하였다. 당시 명방궁의 지하실에서는 무도회를 열고 있었는데 무도 표 한 장을 사면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대청에 이를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천진에서 온 한 젊은이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후에 듣는 말에 의하면 내가 들어간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학원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본 문지기는 무척 감동을 받고 학원들을 모두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 번 학습반에서 우리는 소조를 나누어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러 사람은 자각적으로 조를 뭉고 선생님은 차례로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 선생님께서는 날마다 집에서 도보로 강의하러 다니셨다. 어떤 학원이 차를 모는 편리를 이용하여 선생님을 차로 모시려 하였으나 선생님은 완곡하게 거절하셨다.

우리가 주숙하는 여관은 길림대학에서 아주 멀었다. 그때 공중버스 표값은 아주 싸서 몇 십전밖에 하지 않았지만 어떤 학원은 매일 아주 일찍이 길을 떠나곤 하였다. 한번은 내가 이 학원에게 이 먼 길에 왜 버스를 타지 않는가고 묻자 그는 아내가 지지하지 않으므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 또 다음 기 학습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듣고 나서 나는 몹시 감동받았다. 이번 기는 선생님이 고향에서 꾸린 맨 마지막 전수반이었다. 마지막 강의가 결속될 무렵 선생님은 고향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미심장하여 눈물을 자아냈다. 나와 몇몇 학원들의 기차표는 발차시간이 반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태어난다》고 선생님의 고향에 가보는 것이 나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기어 일어나 또다시 기차에 올랐다. 장춘 역에 이르니 장춘의 학원들이 윤번으로 팻말을 들고 서서 외지의 학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는 시 중심에서 비교적 먼 여관에 안치되었는데 그것은 그곳의 비용이 아주 싸기 때문이었다. 길에서 우리를 인솔한 장춘 학원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정황을 소개하였다. 처음 와 보는 곳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져 모두들 피로를 잊고 버스 창 밖을 내다보며 기뻐하였다. 갑자기 이 장춘학원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빨리 보세요. 저것이 선생님의 저택입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것은 한 채의 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벽돌집이었는데 기껏해야 4,5 층 높이였다. 선생님처럼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곳에 집을 잡고 있다니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들 묵묵히 경의를 느낄 뿐 반나절이나 말이 없었다.

그때 학습반은 길림대학의 명방궁에서 열렸다. 외지에서 온 학원들이 많았으므로 선생님은 두 개 반을 꾸렸는데 오전 반은 9시부터 11 시까지이고 저녁반은 저녁 7시부터 9 시까지 였다. 나는 오전반의 표는 언녕 샀지만 저녁 반의 표는 사지 못하였다. 첫날, 오전 강의가 끝나 숙소로 돌아왔으나 불안하기만 하였다. 우리는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녁에 강의를 하시는 줄 번연히 알면서 숙소에 북 박혀 있다니 정말 말이 아니었다. 이튿날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레의당 밖의 풀밭에서 저녁 학습반이 시작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모두들 문 어구에서 행어나 표를 물리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기다렸다. 시간은 일분일초 흘러가고 우리는 안타깝게 기다렸다. 갑자기 한 학원이 내 옆에서 말하였다. 《누가 표를 사겠습니까?》 나는 기쁜 나머지 단번에 표를 잡고 돈을 주었다.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레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한 익숙한 노학원이 먼발치에서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주머니를 찾고 있던 중이에요.》 나는 생각했다. (끝장이구나. 이 표는 남한테 넘어가게 됐어.) 과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해에서 온 학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강의를 듣는데다 표준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한번 더 들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청해에서 온 첫 번째 학원이므로 나는 노학원이니 표를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표를 주고는 또다시 대문어구에 가 섰다.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고

되도록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을 마칠 때까지 귀담아 들어야 하고 조금해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일종 예절이고 수양이다.

사부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10 여 년이래, 나는 경상적으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취본다. 때론 동수들 중에서 특히 일부 나이 젊은 남자 수련생들이 조금하고 무단적이며 사람들과 접촉하고 담화하는 예절에 중시를 돌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때면 나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당년에 사부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한 단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 나의 말을 들은 학원들은 모두 깊이 깨달곤 하였다.

강의를 하실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설법을 하시는 외에 내려와서 말씀을 하실 때가 아주 드물었다.

### 7. 매번 제자나 손님을 바랄 때면 사부님께서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래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가셨다

사부님께서서는 평소에 걸거나 서거나 앉거나 누울 때면 모두 자세가 단정하였으며 허물이 없으시면서도 사람을 끄는 위엄이 있으셨다. 그렇게 오랜 시일에도 나는 종래로 사부님께서 소파에 앉으시거나 걸상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시거나 몸을 찻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연세가 많은 학원에 대해서 사부님은 종래로 틀을 차린 적이 없으며 호칭이나 말투상에서 각별히 존중하였다. 번마다 학원이거나 손님을 바랄 때면 사부님은 문어구에 서서 줄곧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바래고서야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미세한 일들은 다년간 나의 머리 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 8. 사부님은 가르침에 실증을 느끼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사부님의 설법강의 중에는 일반적으로 문답이 있다. 특별이 열 번째 강의에서 사부님은 전문적으로 학원들이 의문되는 문제를 해답해주었다. 학원들은 번마다 아주 많은 쪽지를 제출하였으며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각지에서 전수반을 열 때마다 대량의 신 학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여러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문제는 다시 해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래도 때로는

중복하여 대답하였으며 내심있게 자세하게 대답해 주었다. 특별히 각지의 초보수련자들은 언제나 유사하고 초급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여 일부 노학원들마저 듣기에 싫증나 하였다. 그러나 사부님은 몇 년을 이렇게 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며 그렇게 많은 학원들을 만났지만 시종 시끄러워 하는 일이 없이 내심있게 세심하게 대답을 주었으며 그 자비는 이루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때로 나 자신은 모종의 원인으로 신경이 날카로워 지곤 하였다. 예를 들어 각지에서 언제나 신 학원들이 나더러 동작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였다. 시간이 길어지자 정말이지 그 번거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사부님의 내심성을 생각하면 자신의 원망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어떤 사람은 신 학원들과 접촉하면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언제나 노학원이나 높이 수련한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진정한 수련자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수련을 독촉할 수 있다. 신 학원들과 교류할 때의 내심, 선한 마음과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어느 하나 자신이 수련 제고 중에 있음을 체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이 오늘날 진상을 말하고 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것과 깊은 독해를 받은 수많은 중생들을 마주하여 진상을 이야기 할 때 나쁜 자들의 저애력과 중생의 오해, 자신의 심태에 대한 파악, 대선대인적인 포용력, 그 어느 하나가 진수제자의 자아 돌파와 정진 제고를 체현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부님께서서는 설법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비는 수련해낸 것이지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며, 내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2003년 워싱턴 DC 법회 설법》)매번 이 한 단락의 설법을 읽을 때마다 사부님께서 당년에 법을 전하실 때의 사람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시던 그 자비와 인내심이 나를 감동시키곤 한다.

### 9. 사부님의 침묵의 위엄을 견증하다

1993년, 기공연구회의 한 사람이 사부님을 요청하여 그들의 고향인 산둥 료성(聊城)에서 학습반을 열었다. 명의상에서는 고향사람들에게 좋은 공법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상에서 당시

매기마다 다 따라가려면 먼저 학습반의 맨 마지막 날 저녁, 강의가 끝나자마자 기차역으로 달려가야 했다. 그러자면 사전에 기차표를 사야 했는데 당시 대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목적지에 이르러 가급적으로 가장 저렴한 곳에 투숙함으로써 낮은 비용지출을 유지해야 했다. 때로는 잠시 숨이나 돌려볼까 생각하다가도 매기 학습반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에 격동을 금할 수 없어 또다시 결심을 내리고 따라갔다. 기억하건대 천진에서의 제 2기 학습반이 결속될 때 선생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법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남긴다(留)는 글자는 내 머리에서 작탄처럼 터졌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은 영원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때 나는 오직 선생님께서 지구상에서 강의를 하시는 한, 하늘끝까지 내가 갈수만 있다면 꼭 찾아가리라 결심하였다. 그때 나에게는 갖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고급이라 할 수 있었다. 안에는 전기 밥가마, 쌀, 조미료, 녹음기, 녹음테이프, 전지, 옷, 우산 등등이 들어있었다. 그때 나는 기름과 소금도 몸에서 받아주질 않아는데 단지 우유와 죽만 먹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스스로 챙겨먹어야 했다. 변변치 못한 신체를 이끌고 선생님의 노정을 따라 다닌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학습반이 시작되어 좌석에 앉아서 강단에 서 계시는 선생님을 보기만 하면 모든 고생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희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겨났으며 그 친절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오로지 무한히 위대하고 광휘로우며 인간의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감을 느꼈으며 선생님의 그 신성함과 장려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매기 학습반마다 맨 나중에 선생님께서는 학원들이 한편의 심득체험을 써내기를 희망하셨다. 그러나 나는 한편도 글로 쓸 수가 없어 안쓰럽기만 했다. 병을 치료받은 감지덕지한 심정은 없고 그저 늘 한마디 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는데 바로: 《선생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생님의 눈부신 빛발이 영원히 우리 생명의 길을 비춰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기억하건대 94년 4월, 나는 합비 제 2기 학습반이 끝난 후 북경으로 돌아왔다. 침대열차에서 하룻밤, 하루 낮을 누워 왔으므로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다음 기는 장춘에서 열리는데 장춘은 선생님의 고향이었다. 속담에 《큰 인물은 영험한 땅에서

떠났다. 나의 기차표는 중간 침대였는데 기여 올라가는 것도 아주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차에 오른 후, 아래층 침대에 앉았는데 침대 주인은 나를 쫓지 않았다.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제깍 물을 부어주었다. 저녁이 되자 아래층 젊은이가 불쑥 말을 꺼냈다. 《중간 침대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바꿔드리지요.》 나는 송구스러워 나혼자 먼저 시험해보겠다고 하였다. 안간힘을 다해 기여 올라가 누워보니 출렁이는 바다 위에 누운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다시 기여 내려와 젊은이에게 바꾸자고 하였더니 그는 두말없이 올라갔다. 한 정차구역에서 내릴 때 같은 차에 앉았던 분이 나를 도와 행장을 플랫폼까지 들어다 주었다. 그때 나는 그저 다행스럽게만 생각하였는데 몇 년 후에야 사부님의 보호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무한에서 연속 세기 학습반을 열었는데 바로 무한의 3, 4, 5 기 학습반이다. 제 3 기는 무창의 재정학원에서, 제 4 기는 한구의 시위례의당에서, 제 5 기는 무강에서 열렸다. 무한에서의 3 기 학습반이 끝나니 이미 10 월 중순이었다. 다음 학습반은 광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나는 또 광주로 가서 광주 제 2 기 전수반에 참가하였다.

선생님의 강의는 매기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였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의 말씀은 같았지만 때로는 각도를 바꾸어 이야기 하셨는데 몇 마디 말씀에도 나는 크게 깨달곤 하였다. 이렇게 들을수록 명백해지고 들을수록 그 내포가 심오하여 보통이 아님을 느꼈다. 사실 백성들이 부처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람을 도와서 재난을 해소하는 보살에 불과하며 도에 대한 이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행하는 정의지사에 지나지 않는다. 차츰 나는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치가 불(佛)과 도(道)를 초월하였으며 바로 하늘의 이치임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파룬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생명에 대하여 이토록 깊이 요해하고 있으며 학원들의 업을 없앨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공의 기를 통하게 하는 것과는 층차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이신가? 나는 감이 더 이상 생각할 엄두도 못 내었다. 이 일은 상상의외로 큰 것이었다. 나는 먼저 나의 남편에게 공을 배우게 하고 또 국외에 있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속히 돌아와 강의를 듣도록 했다. 그때 나는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될수록 따라가서 강의를 듣곤 하였다.

기공협회와 단짝이 되어 돈을 나누려는 것이었다. 학습반이 결속된 후, 모든 것은 계약에 따랐다. 당시 사부님이 전국각지에서 학습반을 꾸리는 조건과 계약은 통일된 것이었는데 사부님은 3 혹은 4 할을 가지셨고 당지 주체자가 6,7 할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사부님의 수금표준은 아주 낮아 (당시 파룬공은 전국 각 문파의 기공반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문표는 40 원이었고 노학원은 절반 값인 20 원이었다. 실제로 대량의 노학원들이 따라 오곤 하였다) 매번 학습반을 꾸릴 때면 장소를 빌리고 주숙비용을 제하고 나면 거의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사후에 산동 당지 기공협회의 주체자는 사부님이 문표 값을 너무 낮추었다고 원망하였다. 그들이 사부님을 모시고 제남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 한 40 여세 되는 녀 주체자가 사부님을 빗대고 거의 한 시간 남짓이 투덜거렸는데 전부가 사부님에 대한 원망이었다.

나는 뒤 켤에 앉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니 더는 그녀가 이렇게 사부님을 비방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내쏘았다. 《그만하고 입을 다무시오. 계속 이렇게 말하려면 우리를 전송하지 마시오. 차에서 내려 스스로 갈 것입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즉시 머리를 돌려 나는 한번 보시고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그것은 나를 책망하는 뜻이었으며 말하지 말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었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위엄이 있는 표정은 위엄을 나타내셨는데 삼시간에 나의 격동된 정서는 평정되었다. 그 사람도 마치 일종 위엄에 놀리운듯 몇 마디 중얼거리고는 잠잠해졌다. 사후에 사부님께서서는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으셨다. 전반 과정에서 사부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지만 도리어 그 장소에 있던 주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착오를 깨달도록 하였다.

지금 나의 체득을 말하자면 《더는 참을 수 없다(忍无可忍)》는 사부님의 말씀은 대법제자의 신의 일면에 이야기 한 것으로서 사악을 제거하고 법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지 결코 아직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일면을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기실 자신의 사람의 일면을 잘 단속하고 수시로 심성을 수련해야 만이 자신의 신의 일면이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람 일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신의 위엄을 나타내어 정법의 길에서 사악을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 10. 사부님께서 한번 보시니 마치고 밝은 거울과도 같아, 자신의 모든 나쁜 생각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1994년, 정주에서 학습반을 꾸릴 때 학원이 그렇게 많은 줄은 생각 밖이었다. 그런데 주체자 쪽에서 빌린 장소는 낡아빠진 곳이어서 계단 청중석의 벽돌이 다 들어났으며 어떤 창문에는 유리도 없었다. 이것을 본 나는 아주 조금하여 주체자와 장소와 음향설비를 바꿀 것을 교섭하였다. 그때 나는 심성을 지키지 못하여 그 사람과 화를 내고 말투가 조금하였다.

사부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공을 배우기 시작한 후, 시종 사부님의 신변에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사부님께서 미소를 짓지 않고 나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사부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나의 두 다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고 사부님의 비할 바 없는 위엄을 감촉할 수 있었다. 사부님께서 나를 한번 바라보시자 마치고 밝은 거울과도 같이 나의 모든 생각들은 숨길 곳을 잃어버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예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대번에 반성하게 되었다. 사부님의 이와 같은 위덕과 위엄은 말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때 그 사람과 화를 낸 후, 20분도 되지 않아 나의 목소리는 쉬었다. 그러나 강단에 올라 연공동작을 가르칠 때면 아무일 없다가도 내려만 오면 괴로웠는데 이렇게 4~5일 지속되었다.

## 11. 사부님께서 갑자기 몸을 돌리시어 족히 10여 초 동안이나 엄숙하게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1993년 여름이었다. 사부님을 따라 무한으로 가서 학습반을 꾸리게 되었는데 낮에 시간을 내어 사부님을 따라 한구의 귀원사(归元寺)를 참관하였다.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사부님은 한 손을 가슴 앞에 입장하셨는데 그 모습은 장중하고도 엄숙하였다. 나는 사부님의 오른쪽 뒤 편에 서서 사부님처럼 한 손으로 가슴 앞에 입장하였다(사실 나는 마땅히 두 손으로 합장해야만 했다). 불상을 마주하고 서서 나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망념이 일어났다. 석가모니부처는 다만 여래불에 불과하므로 더욱 높은 층차에서 보면 여래도 속인에 불과하다. 나는 여하하여 한데……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 앞에 입장했던 손이 복부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잡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사부님께서 몸을

값만 받았다. 후에 기공 과학연구협회로부터 파룬궁 학습반의 학비가 너무 낮아 기타 기공 파들의 요금 표준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50원으로 하였지만 노학원들에게서는 여전히 절반 값만 받았다. 선생님이 각지에서 한 강의는 모두 현지 기공연구회에서 요청하고 주최하였기에 학습반의 수입은 모두 기공연구회와 4-6 할로 나누었으므로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서 수행 일군들의 주숙비와 여비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선생님은 돈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병도 치료하지 않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매기 학습반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시간에 전반적으로 학원들의 신체를 조정하여 주셨다. 학원들의 반응은 아주 컸는데 모두 신비한 힘을 느꼈다. 어떤 사람은 한기 학습반을 마치고 나서 평생 앓던 병이 다 사라졌다. 신체상에서의 효과가 사람을 놀랍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생에 처음으로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한 감을 느꼈다. 일체는 그렇게도 투명했으며 비밀이 없고 낯설던 익숙하던 관계가 없었고 빈부귀천도 따지지 않았다. 인간세상의 번덕스러움은 법륜공의 전수마당에 들어올 수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마음만은 오로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련하려는 일념뿐이었다. 거의 매번 강의를 끝날 때마다 학원들은 아쉬움을 금치 못하였다. 조용할 때면 나는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감동되고 있는가? 나는 차츰 선생님의 위인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체가 나의 내심의 깊은 곳과 호응 혹은 공명 혹은 감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하루, 나는 끝내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진(眞)》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진》을 숭상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나는 세속에 물 젖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으며 속세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일생 동안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몸과 마음은 피곤하기 그지 없었다. 오늘 선생님을 만나 묵묵히 체험해 보노라니 그이는 그렇게도 순결하고 그렇게도 견정불패하시였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이었다.

북경에서의 13기 학습반이 결속된 후, 그 다음 학습반은 무한에서 열리게 되었다. 나는 계속 참가하고 싶었지만 혼자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아직 무리였다. 비록 신체에 이미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원래 약골이라 그때까지 아직 물주전자도 들지 못하였다. 생각 끝에 별 방도가 없으므로 담을 키워가지고 길을

그렇다면 믿고 안 믿는 건 응당 선생님을 보아야 한다.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선생님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오직 선생님께서 현장에 계시기만 하면 눈을 떼지 않고 살폈다. 매 하나의 목소리와 웃음 짓는 표정, 매 하나의 세밀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리하여 강의가 끝난 뒤에도 늘 꾸물거리면서 맨 뒤에서 걸군 하였다. 어느 하루, 12기 학습반의 강의를 듣고 집으로 가는 도중, 오과송 지하철역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걸어오는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옆에는 그이의 가족과 한 학원이 있었는데 모두 밥 곱을 들고 있었다. 차가 오자 사람들은 붐비며 차에 올랐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선생님 쪽으로 밀면서 선생님과 한 칸에 오르려고 애썼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밀치닥 거렸고 차에 오르는 순간 어디에 자리가 있나 살피고는 곧 달려가 앉군 하였다. 차에 오른 후에 보니 선생님은 옆 칸에 오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두 칸 사이에 연결된 문으로 가서 유리를 사이 두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조금도 급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르기를 기다려 거의 맨 나중에야 차에 오르셨다. 나는 그이가 차에 오를 때 아직 한두 개의 빈 좌석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 서두르면 앉을 수 있었다. 나는 조급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빨리 빨리 하고 되뇌었다. 그러나 그이는 조용히 서있었으며 마치 아무런 감각도 없는 듯싶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자리를 다 차지했고 오직 그이만이 거기에 서 계셨다. 나의 마음은 설레고 있었다. 그이는 우리와 그렇게도 달랐다. 나는 묵묵히 생각했다. 그이는 어떠한 심태로 주위의 세계를 대하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서서히 떠 올랐다. 그것이 바를 《정(正)》자였다. 이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바를 수 있을까? 바른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여서 인간세상의 그 어떤 표면화된 물건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다. 일체는 모두 그럴듯 진실하고 꾸밈이 없으며 과장과 억지도 없고 감추는 것도 없었다. 강의 방식도 내가 여태껏 보아온 어느 단체 강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시간이 되면 곧 강의를 시작하고 에두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 화제로 들어갔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종래로 어느 사회의 명류들이 와서 성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절하고 읊을 하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학비도 아주 저렴하여 9일에 40원(인민폐)이었고 노학원은 또 절반

돌리시고 엄숙하게 족히 10여 초 동안이나 한마디 말씀도 없이나의 눈을 들여다 보셨다. 나는 대뜸 놀라서 온몸에 식은땀을 짝 흘리며 졸지에 모든 것을 깨달았다.

대학교 교재를 배운다고 자신이 대학생인줄로만 알았으며 자아팽창이 발전하여 자심생마(自心生魔)로 번져가는 것도 스스로 감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노학원들은 바로 이점에서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을 망쳤으며 나중에는 사부님도 승인하지 않는데 교훈은 아주 심각하다.

## 12. 이른바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았다》의 진상

매번 전수반을 꾸리기 전이면 사부님께서는 언제나 현지 주체측인 기공협회에 중병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강의 중에서도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으며 병을 치료하려는 관념을 품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표를 샀다 해도 우리는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주체측은 현지 기공 협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 것을 관계하지 않았다.

1994년, 하얼빈의 4천 여명이 참가한 학습반에서 있던 일이다. 금주에서 온 몇 사람이 한 50여세에 나는 뚱뚱한 남자를 담가에 들고 설법장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은 이미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완전히 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데 번마다 그의 가족과 친척 5, 6명이 그를 학습반으로 들고 들어왔다. 심지어 그 사람의 머리가 축 내리 드리웠는데도 계속 안으로 들고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누워서 강의를 《들었다》. 사부님은 강의 중에서 여러 번이나 중병환자는 이 장소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병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똑똑히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기어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 사람은 자신이 주숙한 여관에서 죽었다. 그의 가족에서는 시체를 메고 학습반 밖에 와서 사부님께서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사부님께서 한창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일군이 사부님께 다가가 몇 마디 말씀을 올렸다. 사부님께서 즉시 빠른 걸음으로 나는 듯이 문을 나섰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돌아오신 후,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며칠 전에 이미 죽었는데 기어이 살려내라고 하니……만일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도 괜찮은데 사람이 이미 다 죽었으니……》

그러나 그의 가족 몇 사람은 사부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몇 명의 이른바 학원들도 덩달아 사부님을 비방하고 수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파룬휘장을 떼내어 땅에 내동댕이쳤다. 사부님은 맺고 끝듯이 한마디 하셨다. 《당신은 자격이 없소!》 후에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연히 그 사람은 통제를 받은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수련하는 제자였다면 나는 정말 상심했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매일 오후마다 일찍이 길 떠날 준비를 하곤 하였다. 한기의 학습반이 결속되었다. 나는 다음 학습반에도 참가하고 싶었다. 듣건대 12 기 학습반은 오과송(五棵松)의 모 단위 레의당에서 열린다기에 나는 재빨리 표를 샀다. 오과송은 나의 주숙처와 아주 멀었다. 몇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한번 킁기만 하면 목안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노학원이 나에게 아무리 괴롭더라도 견지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3, 4 일 후, 갑자기 열이 내리고 아프던 곳에서 큰 물체가 떨어져나간 감이 들었다. 그 후 나는 또 제 13 기 학습반에 참가하였다. 13 기 학습반은 27 자동차공장에서 열렸는데 원래보다 더 멀었다. 먼저 차를 타고 서변문에 이르러 다시 309 선 교외구역 차를 갈아타고 종점까지 가야 했다. 매일 오후 4 시 남짓하면 길을 떠나서 일곱 시 반이면 강의를 시작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밤 12 시가 넘곤 하였다. 세 번의 학습반에 참가하고 나니 집을 돌보던 부모를 해고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자립할 수 있었다.

한기에 한기를 이어 강의를 듣노라니 선생님께서는 더욱더 높은 법리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종래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생소한 영역이었다.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어렸을 때 몇 년간 북경교구의 시골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불, 도, 신 그리고 귀신에 대한 개념은 모두 쪽 걸상에 앉아서 파파 늙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이었다. 그시기 시골에는 전기가 없어 저녁이면 아이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온 하늘의 별은 곧 온 하늘의 이야기였다. 매 하나의 별마다 하나의 전설을 갖고 있었으며 모든 아름다운 동경과 알 수 없는 비밀이 영원히 달지 못할 하늘에 묻혀 있었다.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할머니들은 귀신을 빌어 으름장을 놓으면서 세상에는 인과보응이 있다는 도리를 알려주었다. 동년의 경력은 나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주었다. 커서 학교에 들어가니 학교의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이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 자신도 종래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문제에 봉착하고 보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은 짧은 것이어서 경력도 제한되어 있기에 모든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되었다. 손이 가는 대로 가져다 펼쳐보니 거기에는 수련자의 아랫배부위에다 파룬을 넣어준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당시 깜짝 놀랐다. 종래로 생명의 오묘함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기공사가 영성이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참으로 불가사이하고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만일 하나의 파룬이 아랫배 부위에 있다면 긍정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친구더러 나를 도와 파룬공을 찾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였다.

7월 25일, 나는 리 선생님이 북경에서 주최한 제 11기 파룬궁 전수반에 참가하였다. 이때로부터 나의 수련의 길이 시작되었다. 나는 48년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불, 도, 신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하여 이름이나 들었지 그 실질은 모르고 있었고 기공, 수련에 대해서도 근본 개념이 없었다. 비록 무신론의 교육을 접수하기는 하였지만 학생때는 단지 점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으며 머릿속은 그저 공백이었다.

11기 학습반은 북경공안대학 레의당에서 열렸는데 나는 앞으로부터 스물 몇 번째 줄에 앉았다. 첫날의 강의에 나는 이미 매료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사전문화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놀랐다. 이런 일들은 이 몇 년간 내가 생각해 온 것들이 아닌가? 우리 이 한세대는 문화대혁명을 거쳐 인간세상의 각종 쓴맛 단맛을 다 보았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정치유희를 목격해 왔기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키워왔고 정치, 권력 등 각종 사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망망한 세계를 마주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가능해야 하는지,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 자신의 행위를 파악해야 하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마음은 몹시 고달팠다. 사업단위에서는 종일 사람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너 속이고 나 속이는 속에 포위되어 있노라니 마음은 혐오스럽기만 했다. 한가할 때면 《오묘한 비밀》과 같은 잡지들을 읽으면서 인생 밖의 문제에 대하여 사고하기를 즐겼다. 이때의 마음은 인간세상의 밖에서 떠돌고 있었으며 경쾌하고 자유스러웠다. 오늘 단번에 이토록 신선한 것을 듣고 나니 흐렸던 마음이 활짝 개이는 듯 하였고 몹시 흥분되었다. 매 번의 강의마다 나는 흥미진진하게 들었으며 강의가 끝난 뒤면 신체의 괴로운 정도가 많이 감소 되군

## 사부님을 따라 만리행

【명혜망 2002년 9월 16일】 편집자의 말 : 이 문장은 한 파룬궁 학원이 1993년부터 시작하여 사부님을 따라 중국대륙 각 성시를 다니면서 설법을 들은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녀의 솔직하면서도 세심한 서술은 우리로 하여금 강택민이 무엇 때문에 파룬궁을 여지없이 타격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릇듯 엄중한 박해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한 수련을 견지해 왔는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다. 강택민은 무엇 때문에 리홍지선생을 그렇게 질투하고 무엇 때문에 5억달러의 무역차액의 이익으로 리홍지 선생님을 소환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파룬궁 학원들을 두려워하는가? 중국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이 문장은 한시기 특수한 역사적 공간과 파룬궁 창시인이 대륙에서 법을 전할 때의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문장은 비록 길지만 읽어내려 가노라면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며 특별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 \* \* \*

파룬따파 9년 홍법기념 도편전람—《정법의 길》이 이제 곧 열리게 된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어젯 날의 사진들을 바라보노라니 다년간 세간에서 대법이 널리 전해짐과 더불어 자신이 걸어온 비바람 속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나는 있는 그대로 이 글을 써냄으로써 대법에 대한 입증으로 삼고 싶으며 또한 사부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여덟 개월의 고심참담한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위대한 전람에 바치고 싶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병약하다 보니 병원출입과 약 먹는 일을 밥 먹듯이 하였다. 이러한 나날을 보내면서 나는 이미 의사와 약물에 신심을 잃고 있었다. 92년 말, 신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어 나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가서 기공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기공사가 기를 빼고 보충하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였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93년 7월, 한 친구의 집에서 한담을 하다가 책꽂이에 있는 《파룬궁》 책을 보게

## 목    록

사부님을 따라 만리행 .....	2
전수반 학원이 사부님의 은혜를 회상 .....	21
진귀한 회상, 명심할 가르침 .....	25
내가 직접 본 사부님 .....	27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의 작은 일 .....	28
진귀한 추억-남경 .....	29
사존께서 중경에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32
사존께서 치치하얼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	33
행운스럽게 사부님의 설법반에 참가했던 때를 회상 .....	35
청백함은 인간세상에 남아있다 .....	36
사부님께서 제남에서 설법하실 때의 몇가지 이야기 .....	45
사부님께서 산둥 간리현(梟利县)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그날을 회상 .....	51
한 늪의 맑은 호수 .....	54
사부님이 설법하시던 그날을 회상 .....	58
대법의 신기와 사부님의 자비를 견증 .....	61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1) ..	62
사부님이 안취성 합비에서 설법하실 때의 일들을 회상 (2) ..	65
사존께서 합비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일을 회상 .....	66
사부님의 합비에서의 첫번째 공법전수반에 참가하여 .....	68
사부님께서 석가장에서 법을 전하실 때의 소중한 기억들 .....	70
사부님의 대련 보고회에 참가했던 몇가지 기억 .....	71
사부님께서 금주에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73
사부님이 장춘에서 법을 전하신 그 때를 회상 .....	79
사부님께서 법을 전하실때의 그날을 회상 .....	89
사부님께서 법을 공개적으로 전수 하실때의 일부 경력들을 회상 .....	94